



International For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한국 현대사 국제 포럼

July 2 - 6, 2018 KAL HOTEL JEJU



JEJU43PEACE FOUNDATION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프로그램

2018년 7월 3일(화)

개회식 Day 1

15:00~16:30	4·3 특강 (1) - 한국 현대사에 있어 제주4·3의 의미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16:30~18:00	4·3 특강 (2) - 제주4·3 70주년과 통일 비전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18:30~19:00	한국 현대사 국제 포럼 개최식 [개회사]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축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환영사]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19:00	환영만찬

2018년 7월 4일(수)

한국 현대사 국제 포럼 Day 2

09:00~12:30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1) [좌장] Rivé-Lasan, Marie-Orange Professor, Université Paris Diderot - Paris 7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Botella, Luis Researcher, University of Malaga in Spain▪ Breuker, Remco E. Professor of Korean Studies, Faculteit der Geesteswetenschappen Leiden Institute for Area Studies SAS Korea, Universiteit Leiden▪ Bruno, Antonetta Professor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 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Cherel-Riquier, Evelyne Associate Professor in Korean Studies, Université de la Rochelle▪ 정용욱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임종명 전남대학교 사학과

- **정병준**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 **Kim, Kyung Hyun**
Professor,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Kim, Michael**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 **Kim, Nan**
Associate Professor and Public History Program Director,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12:30~14:00	오찬
14:00~17:30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2)
[좌장]	이규배 제주4·3연구소 이사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wak, Tae Yang Associate Professor of History, Ramapo College ▪ Lee, Eun-Jeung Professor,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al Studies, Freie Universität Berlin ▪ Lee, Namhee Associate Professor of Modern Korean History, UCLA ▪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전공 ▪ Person, James F. Professor of Korean Studies,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 Rivé-Lasan, Marie-Orange Associate Professor in Korean Studies, Paris Diderot University, Centre for Korean Studies, CCJ (CNRS-EHESS-UPD) ▪ Shin, Michael D. Senior Researcher, University of Cambridge ▪ Tikhonov, Vladimir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e Studies and Oriental Languages, Oslo University ▪ 양정심 대진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7:40~18:10	종합토론
[좌장]	Lee, Namhee Associate Professor of Modern Korean History, UCLA
18:10	만찬

Contents

■ Opening Remarks ■

Yang Jo-hoon | chairman of the board, Jeju4·3 Peace Foundation 1

■ Congratulatory Remarks ■

Won Hee-ryong | Govern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5

■ Welcoming Remarks ■

Chu Chin Oh | Director,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9

Day 1

4·3 Special Lecture (1)

Significance of Jeju Massacre(Jeju 4·3 of Jeju) in modern history of Korea 15
Seo Joong Seok | Sungkyunkwan University

4·3 Special Lecture (2)

70th Anniversary of Jeju 4·3 and Vision for Unification 39
Park Chansik | Director, Center for Jeju studies

Day 2

How shoul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be taught?

Presentation of the Korean History Classes by Participants (1)

Jeju April 3rd at the University of Malaga (Spain) 91
Botella, Luis | Researcher, University of Malaga in Spain

Historical narratives from the margins: On Teaching Korean and Jeju history and 4·3 119
Breuker, Remco E. | Professor of Korean Studies, Faculteit der Geesteswetenschappen Leiden Institute
for Area Studies SAS Korea, Universiteit Leiden

The International Forum of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d
Jeju 4·3 Peace Foundation 133
Bruno, Antonetta | Professor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 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Teaching Korean contemporary history in Korean Studies Foreign Applied Languages Bachelor Degree :
the case of the University of La Rochelle (France) 151
Cherel-Riquier, Evelyne | Associate Professor in Korean Studies, Université de la Rochelle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d ‘4·3’” Lecture Program	177
Chung, Yong-Wook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the Global Signification of Jeju April 3rd at a Historical Transition Period	193
IM, Chong-myong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and Struggle of Memory	213
Byung Joon Jung Professor of Modern Korean History, Ewha Womans University	
Teaching Korean War Through Cinema: Case Study of <i>Ode to My Father</i>	229
Kim, Kyung Hyun Professor,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The Forgotten History of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255
Kim, Michael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ublic Memory of the Jeju 4·3 Massacres and the Reversal of Historical Erasure: A Critique of “Dark Tourism”	289
Kim, Nan Associate Professor and Public History Program Director,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How shoul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be taught?

Presentation of the Korean History Classes by Participants (2)

Teaching Korean History and the Jeju Uprising	335
Kwak, Tae Yang Associate Professor of History, Ramapo College	
The 4·3 Jeju Uprising in the curriculum of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Freie Universität Berlin	345
Lee, Eun-Jeung Professor,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al Studies, Freie Universität Berlin	
The Persistence of Coldwar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pril 3 Jeju Uprising	363
Lee, Namhee Associate Professor of Modern Korean History, UCLA	
4·3 as A Prelude of Hot War during the Cold War in Asia	377
Park Tae Gyun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eaching the History of the Jeju Massacre and Korean National Division to Studen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385
Person, James F. Professor of Korean Studies,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Teaching Korean Contemporary history in Paris Diderot University	399
Rivé-Lasan, Marie-Orange Associate Professor in Korean Studies, Paris Diderot University, Centre for Korean Studies, CCJ (CNRSEHESS-UPD)	
Teaching Modern Korean History at Cambridge	419
Shin, Michael D. Senior Researcher, University of Cambridge	
Korean Studies outside of Korea – Strategies of Survival and Integration: How to Teach Korea’s Contemporary History to Scandinavians?	433
Tikhonov, Vladimir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e Studies and Oriental Languages, Oslo University	
The Korean Modern History and Jeju 4·3 Uprising	463
Yang Jeong-sim Research Prof. in the Institute of Humanities, Daejin University	

개회사



Yang Jo-hoon
chairman of the board, Jeju4·3 Peace Foundation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온 겨레의 역사’로 재평가되길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제주43 7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에, 한국 현대사 국제 포럼이 제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외국 대학과 서울대 등 국내 대학에서 한국 현대사를 가르치고 있는 전문학자들을 한자리에 모셔 제주43의 세계화 방안을 논의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43은 분단과 냉전이 몰고 온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70년 전, 제주도민들은 ‘반쪽 조국은 안된다’면서 5·10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다가 혹독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반세기동안 정부의 통제와 이념적 누명을 쓰고 지하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기억의 투쟁이 시작되었고, 제주43은 어둠기만 했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밝은 빛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43 70주년인 올해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해서 다시 사과했고,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43문화제가 열리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43아카이브전이 마련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치유의 메시지를 보내오는가 하면 모든 종교계에서 43희생에 대한 참회와 화해의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동백꽃배지 달기 운동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남북 화해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넘어 ‘온 겨레의 역사’로 재평가되는 날이 올 것이란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문학자들이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제주43을 어떻게 국제사회에 알릴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집중 논의할 것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세계사적인 43의 진실과 위상, 제주도민들이 펼친 진상규명운동과 화해운동 등도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포럼을 위해 재정지원을 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님, 함께 준비해주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진오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 머무르는 동안 의미 있고 뜻있는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Won Hee-ryong
Govern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축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4·3 70주년을 맞아 ‘한국 현대사 국제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포럼을 준비해 주신 제주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진오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 한국사 전문가와 내외 귀빈 여러분의 제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4·3은 냉전과 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입니다.

4·3은 오랜 기간 침묵 속에 불명예와 연좌제로 인한 불이익을 겪어오다 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으로 진실과 명예를 회복해가는 민주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4·3은 위대한 제주도민이 화해와 상생으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의 미래 가치를 키워나가는 현재진행중인 역사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4·3의 역사와 교훈을 함께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양심적인 노력과 실천이 4·3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소중한 자양분이 됐습니다.

이번 포럼이 4·3의 완전한 해결과 4·3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깊이 있는 연구와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4·3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포럼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Chu Chin Oh
Director,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환영사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으로서 이번 <한국 현대사 국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서 참석해 주신 해외의 한국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국내에서 함께 해 주신 한국현대사 교수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 주신 원희룡 도지사님과 이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제주 4·3 평화재단의 양조훈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해 동안 제주 4·3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많은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청과 제주 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등이 합심하여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국화를 위한 노력이 범국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도 <제주 4·3 이젠 우리의 역사>라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만, 이 역시 전국화를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주 4·3의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4·3의 비극을 세계에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제노사이드를 경험한 지역과의 연대를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도 물론 제주에서 이를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처음 열리는 <한국 현대사 국제 포럼>은 바로 제주 4·3의 세계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의 한국학과에서는 한국현대사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8개국의 한국학과에서 현대사를 가르치는 교수 열 세 분과 국내의 현대사 교수 여섯 분을 초청하였습니다. 원래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로 했으나 급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흘 동안 한국현대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함께 공유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제주 4·3을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토의하게 될 것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이 곳 제주까지 오셔서 귀한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실 여러 교수님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3에 대하여 특강을 해 주시는 서중석 교수님과 박찬식 제주학센터장님, 그리고 참가자들을 위하여 4·3의 유적지 답사를 인도해 주실 김종민 대표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제주 4·3평화재단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제주 4·3의 역사에 대한 강의가 보다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들 가운데 4·3 연구자가 나오고 학부생들이 한국현대사를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앞으로 이 행사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환영사를 마치겠습니다.

Day 1

2018. 07. 03



**Significance of Jeju Massacre(Jeju 4·3)
in modern history of Korea**
4·3특강(1) - 한국 현대사에 있어 제주4·3의 의미



Seo Joong Seok
Sungkyunkwan University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Significance of Jeju Massacre (Jeju 4·3) in modern history of Korea

Seo Joong Seok
Sungkyunkwan University

*Jeju 4·3 of Jeju refers to “the riots that occurred on April 3, 1948 and the armed conflicts and suppression which resulted in local resident casualties from March 1, 1947 to September 21, 1954” (Special Act Article 2 Clause 1) -There are characteristics of resistance but the focus is on the mass casualties

*Casualties - Estimated to be between 25,000 to 30,000 people (Fact finding report)

4·3 Committee declared number of casualties 13,564 people (As of 2007) and the following occurred:

- 1) 84.4% Died at the hands of punitive forces while 12.3% died at the hands of armed forces.
- 2) 78.8% Consisted of men while 21.2% consisted of women.
- 3) 885 People (Over age 60), 928 people (50's), 749 people (Belowage 10), 2,253 people (10's), and 5,211people (20's)
- 4) 398 People (Bukchon Village), 398 people (Gasi Village) along with 44 other villages with over 100 casualties (4·3 Committee white paper)

1. Background and cause for armed revolt of April 3 (Riot)

1) Circumstanc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awn of independence for Jeju Island

Cho Deok-song (Sincheonji1948. 7.) “You must not just scold a crying child because he is just crying. He will only stop crying once you eliminate the cause for him crying. Will the people of all provinces just stand in front of gunfire from mere instigation? Jeju Island incident is essentially the epitome of Joseon”

Public Prosecutor General under US Military Government, Lee In “The truth behind the situation of Jeju Island is the eruption of the pus (called corruption) with a needle by the left party”

Despite the independence, military forces of US and Soviet Union occupied the land separately and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others were suppressed by the US military. The corruption and mismanagement within the US military government were severe. The economy worsened as prices inflated while plundering and oppression worsened and the establishment of unified government

became ambiguous and the large scale public resistance occurred along with the path taken by the left wings of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and the South Korea Labor Party (September General Strike of 1946, October Uprising, March 1 Demonstration, March 22 General Strike, May 1 Struggle, February 7 Struggle for National Salvation of 1948)

Criticism of US military government is subject to oppression and the dominance by the pro-Japanese group especially the pro-Japanese police and public servants, Conflict between left and right wings and elevation of terrorism

Jeju Island liberation anniversary – 45. 8. 16. Young Student Association, Island Committee for the Prepa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9. 10,

Island National People's Congress 9. 22. “As the only political party on the island, and in terms of its size and purpose, it is the only government” (Merill, Jeju Island Rebellion). 11.20 Partnership with the 59th Company that entered the island -Moderate relationship with the path taken by the commissioned officers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strong characteristic as blood relations community, conflict between landowners and farmers, 60,000 repatriates (People from Osaka and other regions) law enforcement activities. Educational activities-Anti-illiteracy activities through night schools, study meetings, and athletic competitions

Anxiety – Issues surrounding repatriates, cholera in 1946 (7,193 casualties nationwide, 369 casualties in Jeju Island), wheat famine, fall grain harvest performance was also the lowest in the nation, clash during the barley harvest of 1947. Initial profiteer incidents (Bok Sihwan Incident, etc.).

People's Farms 47. 2. 23. Congratulatory speech from Governor Park Gyeong-hoon

2) 1947. March 1 Demonstration and General Strike

March 1 Demonstration – 25,000-30,000 people in Jeju Island, 6,000 people among 20,000 people from Daejeong Elementary School and many others gathered at the ceremonial halls within 10 myeons of Jeju Island -Demonstration of left wing's power?

Demonstration outside of Jeju North Elementary School, policeman's horse hit a child as the crowd just past the Gwandeokjeong Pavilion Plaza which stirred up the people and gunshots followed, 6 dead, 6 gravely injured (5 dead victims had bullets in their backs)

March 10 General Strike -public offices, communication institutions, transportation companies, students and teachers from all levels of school, company workers, laborers, and even some current police officers. <Jeju Police History, 1990> 166 institutions and groups, 41,211 participants

3.14 Jo Byeong-ok, 'It is a rebellious ideology'. Next day, 200 North Jeonnam Police Support Officers were dispatched (100 Officers already as of February), this number increased to 421 and

exceeded the number of Jeju police officers which was 330

Arrest-1947. 4. 10 About 500 people arrested. Further collision with the police due to illegal meetings, flier issues, etc.

3) Heightened level of anxiety after general strike

*Mismanagement and corruption within the US military government on Jeju Island, hostility towards corruption and governor from mainland

47. 4. 10. Extreme right wing Governor Yoo Hae-jin appointed - Critical forces labeled as extreme left wing activists. Recommendation to relieve Lieutenant Colonel Nelson who was a special inspector. Afterwards, people of Jeju were excluded from becoming leaders within US military government of Jeju Island and number of commissioned officers within the police department from the mainland also increased.

*Oppression, tyranny, terrorism, and torture from the police and extreme right youth group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came south right after March 1 Demonstration. Dai Dong Youth Corps functioned as a police assistive group - "Resist oppression" (Letter of plea)

*Opposition towards separate election and government - (February 7 Struggle for National Salvation') 2.9, 10, 11 demonstrations at night

*1948. 3. Incident of 3 youths being tortured and abandoned

4) Strong opposition and anxiety against separate election and unified government throughout the entire South Korea

5) Decision of the South Korea Party of Jeju Island to revolt in arms

*January 22 Arrest Incident- 221 people were arrested until January 26 and officers of the South Korea Labor Party were still arrested all over Jeju Island afterwards

*Shinchon Meeting (19 Leaders of myeon within each province) from the end of February to early March - Conflict against people claiming that it is too early for armed revolt (Cautious side) and peopl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opposing struggle against separate election and claiming that opposition towards separate election to protect the party (Hardliners) and the hardliners eventually took over the party (Decision for armed revolt 12:7. Kim Dal-sam (Age 23, son-in-law of KangMun-seok) appointed as the party's head of military organization to form a guerrilla unit - Testimony of Lee Sam-ryong who participated at the Shinchon Meeting as a political committee member of the South Korea Labor Party of Jeju Island at the time

*Final decision from the top management level around March 15? (<Jeju Island People's Guerilla Unit Revolt Report> -But this report does not mention the Shinchon Meeting in February and the existence of this top management level within the province is also uncertain. Structure is weak

2. Awareness of political trend and argument from the forces behind the armed revolt - Comparison with other regions

*Revolting organization/group name is unclear (The names on the letters of plea and others aside from the name mentioned in the Jeju Island People's Guerilla Unit Struggle Report is unclear)

1) Optimistic view on political trend - The police,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etc. are subject to attack. Not the patrol guard. Couldn't even predict response from US military (Lee Sam-ryong) - However, they had no choice but to go on full-scale armed conflict

The movement against separate election was also fierce and the revolt in Jeju Island will initiate nationwide revolt and the government won't be able to send forces to suppress and the patrol guard will maintain its neutrality, US will not intervene in the suppression due to potential international issue (Lee Un-bang- Head of Daejeong-myeon for South Korea Labor Party)

2) Lack of aggressive chantor assertion - Very little propaganda posters/fliers, letters of plea, manifestos, etc. (March 10- Fliers were distributed at the provincial hall and posters were spread here and there- Lee Un-bang)

*History of Jeju 4-3 Armed Struggle by the people of Jeju Island-Source book-

Letter of plea (1) Letter of plea regarding police officers, public servants, and Dai Chong Youth Corps -Stand with the people! Rise for the movement to save our nation from US influence!

(2) Letter of plea to citizens, countrymen, parents, and siblings - Oppose the traitorous separate election and government, fight for unified independence and complete liberation of the people! (Kim Koo). For elimination of tyranny and massacres committed by American cannibals and hounds!

The book above records the statement of Kim Dal-sam at the April 28 Peace Negotiation as shown below.

(1) Opposition towards separate election and unified government

- (2) Complete disarming of police and immediate retreat of punitive forces
- (3) Immediate dissolution of anti-movement terrorist groups and immediate retreat of the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 (4) Immediate release of arrested people and immediate stoppage of unlawful arrest, imprisonment, and massacre

Colonel Kim Ik-ryeol of the 9th Regiment, featured in the <Truth of 4·3>, statement made by Kim Dal-sam at the April 28 Peace Negotiation

There is almost no mention or expression related to communism in the statement made by Kim Dal-sam and he kept counter-arguing that he and the armed rioters were not communists and only worked to save the inhabitants of the island

Dominance by the pro-Japanese forces - Kim Dal-sam stated that he would be obedient if the traitor of the people and police following Japanese rule along with the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were removed and replaced with good officials and police officers at the April 28 Peace Negotiation at Gueok-ri.

Documents seen by Cho Deok-song - 1) Immediate dissolution of armed police officers, 2) Dissolution of privately organized terrorist organizations and their punishment, 3) Immediate firing of Governor Yoo Hae-jin, 4) Immediate retreat of UN forces, 5) Opposition towards unified government, 6) Promotion of north-south unified government

Comparison 1

Chants, statements, and others from Yeosu Incident

- (1) Instigating chants within the barracks by the 14th Regiment - Overthrow the police, objection to deployment to Jeju Island, south-north unification, people's army marching south beyond the 38th parallel, etc.
- (2) Poster with name of Committee of Soldiers Refusing Deployment to Jeju Island after taking over Yeosu-eup - Total opposition to deployment to Jeju Island, both US and Soviet Union forces should retreat immediately. Hurray to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etc.
- (3) 3:30 PM, October 20, Yeosu People's Congress decision was reached - Administrative bodies of Yeosu were taken over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pledge of allegiance and to protect the people's republic, pledge to destroy the Republic of Korea, declaration of all legislations enacted by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be invalid, strict elimination of traitors, police officers, and others from pro-Japanese group, free distribution in compensation for forceful confiscation

Comparison 2

Some of the motto from the policy of the Jeju Island Committee of South Korea Labor Party regarding the March 1 (1947) Movement Anniversary Struggle

Appeal the arrest order for supreme leader Park Heon-yeong immediately!

Hurray to the establishment of temporary democratic government!

Power to the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eople's Party!

Eliminate the traitors from pro-Japanese and pro-shobu groups!

Uprooting of profiteers destroying the people's economy!

It is unclear whether this was actually used at the March 1 rally and demonstration

The orders for March 1 Anniversary Event from the key members of the South Korea Labor Party included speedy intervention of US-Soviet Joint Commission for rebellious forces and ruthless struggles, establishment of temporary democratic government and power delegated to the Democratic People's Party. This very party commenced the democratic reform which was done in North Joseon. It is based on liberty and democratic independence (Kim Nam-sik, 『South Korea Labor Party Studies』)

Comparison 3

9 Slogans of the '2.7 Struggle for National Salvation'

(1) Objection to UN-Korea Committee

(2) Objection to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South Joseon Government

(4) Overthrow pro-Japanese group members such as Kim Seong-su and front runner of international nationalism

(7) Power to the people

(8) Free distribution in compensation for confiscation at no cost

(9) Hurra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Annals of Left Party Incidents』 1)

But it is unclear whether this slogan was used on Jeju Island

3. Assessment regarding the armed revolt

*Recklessness raised on isolated island – Supplying military force impossible, “Even if it was liberated, what good would liberated Jeju Island be if it is alone”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party – Decision already made even though it is not the decision to be made by Jeju Island Party independently

Previously took different actions from the central party regarding the October Uprising, Election of Members of the Legislative Assembly, Establishment of People's Farms, and March 10 General Strike

*There is ambiguity in goals of the struggle and the same applies to the plans for the struggle -

Weak strategy and planning

*Complacent assessment of the US military and the punitive forces-Mass killings were not foreseen at all

**Still, "(With support from majority of the people)Such organizational activities is the path towards independence and such path is the only path of justice.. This was what was frequently discussed at schools and villages"

**April 28 Peace Negotiations<From earlier> was very critical regarding 2.3. - Commissioned officers, escape through sea (Establishment of separate government and armed rioters)

5. 1. Breached due to Orari Incident. First Lieutenant Lee Yoon-rak who was associated, "Orari Incident was the historical basis which ignited the Jeju Massacre"

5. 5. Attendance by Dean, Ahn Jae-hong, Jo Byeong-ok, Guard Squad Commander Song Ho-seong, Minister of Jeju Military Government Mansfield, Kim Ik-ryeol, etc. - According to Commander of the 9th Regiment Lieutenant Colonel Park Jin-gyeong on the following day

**Jeju 4·3 Riot did not end within short period of time due to its nature as resistance

4.Scorched earth plan and massacre of inhabitant groups

The punitive force launched a scorched earth plan to set fire in the mountain villages and began to commit massacres against inhabitant groups in mid-end of November of 1948 which was only 3 months since the government was established. Most casualties came from the scorched earth policy which lasted over about 4 months until March of 1949.

Hong Soon-bong from the north was appointed as the Chief Inspector on October 5, 1948. He was hardline police officer who signed up to be part of the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and he was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bloody tragedy until July of next year. The Jeju Guard Command was established on October 11.

The Jeju Guard Command was established right after the report urging for efficient intervention from the US military regarding the incident surrounding Jeju Island from Captain Treadwell who was an advisor to the 5th Brigade was submitted to Lead Advisor Roberts. The US military government was responsible for all incidents from March 1 Incident of 1947 until April 3 Armed Riot. Also, it ordered the scorched earth operation to Colonel Kim Ik-ryeol and Park Jin-gyeong in violation of the

April 28 Peace Negotiation. The US still had operational control even after the government under the regime of Syngman Rhee was established and the US military participated in every repression operations as advisors as Merrill pointed out. All equipment and firepower of the punitive forces came from the US military. The US military directly witnessed the massacre of inhabitant groups and they either received reports or were aware of such facts and recorded them. US was clearly responsible for the massacre of inhabitant groups at Jeju Island.

Major Song Yo-chan who was the commander of the restructured 9th Regiment announced that any person passing through the mountain area and any area within 5km of the coastline without permission will be executed by firing squad. This was the announcement of imminent scorched earth operation.

Next day, the coast of Jeju was blockaded. Merrill analyzed that there were many casualties because Jeju Island was a secluded island and this was to restrict Jeju Island from the outside world. The president of 『Jeju Shinbo』 which was the only local press company along with others were arrested and the editor-in-chief was shot. The presidents of branches of 『Kyunghyang Shinmun』 and 『Seoul Shinmun』 were also arrested and shot. All obstacles to the scorched earth operation were strictly eliminated.

On November 17, the government under President Syngman Rhee declared martial law without any legal basis. From this point to March of the following year, tragedies of inhabitants ranging from children to elderlies in 70's and 80's regardless of gender were massacred in groups.

The scorched earth operation that led to massacre of inhabitant groups in the region was initially committed by the 9th Regiment (Colonel Song Yo-chan) and the 2nd Regiment (Colonel Ham Byeong-seon) which produced highest casualties along with the 9th Regiment as of December 29, 1948. But the greatest responsibility fell on President Syngman Rhee as evidenced by a member of the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who declared after hearing the speech given by President Syngman Rhee at the general meeting in December of 1948, “Who has the authority to kill so many civilians without trial unless permitted by President Rhee?” President Rhee put the island under extreme tension with mass entry of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members in the late fall of 1948 and visited Jeju Island on April 9, 1949 and ordered to completely eliminate all remaining rioters.

On Jeju Island, massacre of inhabitant groups which is strictly forbidden internationally were being blatantly committed as part of an operation. 157 Inhabitants from Pyoseon-myeon Tosan-ri who relocated from Jungsangan Village were restrained and dragged to the beach and were massacred on December 14, 1948 by the forces of the 9th Regiment. On January 17, 1949, the soldiers surrounded Bukchon Village in Jocheon-myeon and set fire to over 400 houses and rounded up over 1,000 inhabitants at the schoolyard of the local elementary school only to massacre about 300 of them at a field nearby. On the following day, they dragged them to Hamdeok Beach to massacre about 100 more inhabitants. There were many families in Bukchon Village whose lines died out due to this incident. The fact that there were 45 villages with over 100 victims from such group massacres stands true as

mentioned previously. There were victims from over 150 villages regardless of numbers.

There were even unspeakable horrors committed in the bright daylight. Some decapitated 13 heads through the sting operation and showcased the heads throughout the city and the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rounded up the inhabitants to force them to slap each other in the face and they even forced grandfather and grandson to commit such horrible act. The punitive forces also rounded up the local residents at the schoolyard and whipped their naked bodies and designated men and women to have 'sexual intercourse' in public. Also, they forced children to stand in front only to clap and yell hurrah as they watched their parents being executed by a firing squad.

The cruel acts seemed endless. Substitute executions which were frequently committed by Nazis and Japanese military also occurred frequently. The wife was executed for the husband climbing the mountain and parents were executed for their child entering the mountain. Families of escapees who were executed were mostly the elderly and the infirm such as women, seniors, and children. On December 10, 1948 at Gaesu-dong, 36 people from families of escapees and visitors were mass murdered. On January 24, 1949 at Gaesu-dong, a woman was executed by a firing squad along with her 3 years old child and 8 others lost their lives due to their husband or child running away.

The killings were also committed by armed rioters. In the early stages of April 3 Riot, the armed rioters murdered the members of right wing youth groups such as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and the police along with the right party personnel who cooperated with the punitive forces as well as their family members. They ambushed villages which they thought were siding with the punitive forces when they were in trouble due to suppression by the punitive forces and committed group massacres including children, women, and elderlies.

Casualties occurred once again once the Korean War began. Just like the other regions on the mainland, Jeju Island couldn't escape the murders committed against members of journalist association and people subject to surveillance. The first massacre of Jeju-eup took place on August 4, 1950. Hundreds of people under preventive custody were drowned at sea after boarding shore patrol boats on this day. Hundreds more were shot and buried at which is Jeju Airfield today from the evening of August 19 until the early morning next day. At Seogwipo, about 150 people were murdered on July 29, and there was also another massacre on August 12. There were group massacres at two separate locations on August 20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Moseulppo Police Department. The residents of Hallim region secretly recovered 61 bodies and buried them in 1956 and the surviving family members of the people who died after being locked up in the sweet potato storage unit at Moseulpo received permission from the authorities in the same year to recover 132 bodies and buried them in one location and named this place as Baekjo Ilson Jiji which means 'Graves of One Hundred Ancestors and One Descendent'. As for the jurisdiction of the Seonsanpo Police Department, Police Chief Moon Hyeong-soon who fought for independence refused the order from the military and only 6 lives were lost. There were people like him. The inhabitants raised a memorial commemorating him.

5. Reason for large scale massacre of inhabitants - Comparison with the mainland

1) Effect of Japanese rule

- (1) Ideology of taking human life lightly under Japanese militarism
- (2) Japanese army culture - Residual effects of barracks, discipline, punishment, etc.
- (3) Pro-Japanese group within the military police and US military government -Joined forces with extreme right party at the end of Japanese rule and with anti-communism after independence
Military officers (Colonel of the 2nd Regiment Ham Byeong-seon, etc.) - Three-phase or strikeout plan to “Eliminate by burning, starving, and shooting”
Commissioned officers within police (Hong Soon-bong-48.10.5. Man from Pyeongnam who was appointed as Chief Inspector instead of popular figure Kim Bong-ho, Special Investigator Captain Choi Nahn-soo with experience as high grade detective),

2) Era of terror - Right party youth groups especially the youth groups consisting of youth from the north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joining forces with anti-communists

3) US military

1. April 3 Revolt occurs due to mismanagement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division (Independent election and government),
2. Major force behind dissolution of April 28 Peace Negotiations
3. Commander-in-chief Colonel Brown appointed by Minister Dean “Cause does not interest me. My only mission is to suppress.” 3,126 captives and defectors including 5.27 Incident.
4. Cho Deok-song, “They are wearing US military helmets, uniforms, combat boots and carry US army issued guns and they wear US military raincoats. From afar, it is as if shorter US military platoon is marching forward” -Operational control
5. US military officer assigned to each unit and soldiers are to report to them

4) Anti-communism of Syngman Rhee and path towards independent government, severe punishment policy - 48. 10. 11. Jeju Island Guard Command, 10. 17. Roadblock of 5km from coastline by Colonel Song Yo-chan of the 9th Regiment, 10. 18. Naval blockade of Jeju Island, 11. 17. Martial order declared, 11-12 Mass entry of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members. 48. 12. Speech given by Syngman Rhee at the general meeting of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49. 1. 21. Cabinet meeting decision

“Find and eliminate the root cause and aftermath of Jeonnam Incident of Jeju Island”,

4. 9. Visits Jeju Island, orders complete sweep of remaining rioters.

48. 11. 5. Story from Yeo-Sun Incident 1950. 6. 28. Emergency Order No. 1 Special Ordinance on Punishment of Crime Under Emergency Situations, Massacre of members of journalist association

5) The fact that it is an island – Restricted from outside world. As the naval blockade was formed, the president of Jeju Shinbo was arrested and its editor-in-chief was murdered by gunshot, and the presidents of Kyunghyang Shinmun and Seoul Shinmun were also murdered by gunshot,

6. Resistance - Long-term resistance and how would we view the inhabitants not standing with the punitive forces.

* Merrill, “There was no other country that went through such intense civil rebellion after World War II”

1) Background or cause - 1. Same as the background and cause for the revolt.

Several articles from Cho Deok-song, Lee In, and others

2) Firing upon March 1 Demonstration and the handling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3) Nature of March 10 General Strike.

Afterwards, oppression and tyranny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led by Chough Pyung-ok and others. Mass reinforcement in management by mainland, police, and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4) National People's Congress, thoughts of inhabitants towards youth activity

5) Independent election and government

6) Hostility towards pro-Japanese group - Yeo-Sun Incident

7) Rage of inhabitants towards mainland inhabitants due to oppression, tyranny, suppression, slaughter, etc. - Relationship between the inhabitants and the mainland

1898 Uprising of Namhak Party, 1901 Lee Jae-Soo's Uprising

8) Cruelty of arson committed on mountain villages, massacre of inhabitants, military, police, and government

9) Perspectives 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under President Syngman Rhee

**People's yearning for kiss –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Peace and unification

***Comparison with the massacre of inhabitants before and after Korean War in 1950

Special act, 2 separate occasions of presidential apology, fact finding report, national memorial day, memorial hall along with various memorial facilities, burial of corpses -

Jeju 4·3 of Jeju is an exemplary case of handling the past historical event

**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한국현대사에 있어 제주4·3의 의미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제주4·3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특별법 제2조 1항) - 항쟁적 성격 엿보이지만 대규모 희생자 발생에 초점이 놓임

*희생자 - 2만5천명에서 3만명 사이로 추정(진상조사보고서)

4·3위원회 결정 희생자수 13,564명(2007년까지) 이 중 1) 토벌대 84.4%, 무장대 12.3% 2) 남 78.8%, 여 21.2%, 3) 연령별 60대 이상 885명, 50대 928명, 10대 미만 749명, 10대 2,253명 20대 5,211명, 4) 마을별 북촌 398명, 가시 398명 등 100명 이상 희생된 마을 44곳(4·3위원회 백서)

1. 4월 3일 무장봉기(소요사태)의 배경과 원인

1) 한반도의 상황과 제주도의 해방맞이

조덕송(신천지 1948. 7.) “우는 어린애를 운다고만 꾸중해서는 안 된다. 왜 울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제거하여 주어야만 울음을 완전히 그칠 것이다. 선동만으로 전 도민이 다 총대 앞에 가슴을 내어밀 것인가. 제주도 사건은 그대로 조선의 축도라고 할 수 있다”

이인 미군정 검찰총장, “(부패라는) 고름이 제대로 든 것을 좌익계열에서 바늘로 이것을 터친 것이 제주도사태의 진상”

해방은 되었으나 미소 양군이 분할 점령하고 인민위원회 등이 미군에 의해 탄압받음. 미군정의 부정부패와 실정이 심각함. 물가 치솟는 등 경제사정 악화되었는데, 수탈과 압박은 심하고 통일정부 수립이 불분명해지면서 대규모 민중 저항이 조선공산당·남로당의 좌경 노선과 연결되어 발생(1946. 9월 총파업, 10월 항쟁, 1947, 3·1시위, 3·22총파업, 5·1투쟁, 1948. 2·7구국투쟁)

미군정 비판은 탄압의 대상, 친일파 특히 친일경찰 친일관리의 발호, 좌우대립과 테러의 격화

제주도의 해방맞이 - 45. 8. 16. 청년학도단, 島 건준 9. 10,

도 인민위원회 9. 22. “도내의 유일한 정당으로서, 또 규모와 목적에 있어서 유일한 정부”(메릴, 제주도반란). 11.20 들어온 59중대와 협력관계 - 인위 간부와 노선 온건, 혈연공동체 성격 강, 지주 소작 갈등 弱, 6만명 귀환(오사카 등지의 의식분자) 치안활동. 교육활동-야학을 통한 문맹퇴치 활동, 학습회 체육대회

불안감 - 귀환자 문제, 1946에 콜레라(전국 7,193명, 제주도 369명 사망), 보리농사 흉년, 추곡 수집 실적도 전국에서 최하위, 1947 하곡 수집때는 충돌. 1947. 초 모리배사건(복시환사건 등).

민전 47. 2. 23. 박경훈지사 축사,

2) 1947. 3·1절 시위와 민관총파업

3·1시위 - 제주에 2만5천-3만, 대정초등학교 2만 인구 중 6천명 등 많은 인원이 제주도 10개 면의 식당에 모임 - 좌파의 위력?

제주북초등학교 나와 시위, 관덕정 광장 벗어날 무렵 기마경관 말에 어린이 치이고 소란 일어나며 총성, 6명 사망, 6명 중상(사망자 5명 등 뒤 총탄)

3·10민관총파업 - 관공서, 통신기관, 운송업체, 각 급 학교 교사 학생, 회사원, 노동자 등, 일부 현직 경찰도. <제주경찰사, 1990> 166개 기관·단체, 4만1,211명 참가

3.14 조병옥, '사상적으로 불온하다'. 다음날 전남북 응원경찰 200 파견(이미 2월에 100명), 그뒤에도 늘어나 421명, 제주경찰 330명 증가

체포-1947. 4. 10경 500명 가량. 그뒤에도 불법집회, 삐라 부착 문제 등으로 경찰과 충돌

3) 총파업 이후 불안감 고조

*제주도 미군정의 실정과 부패, 부정. 육지 지사 등에 대한 반감

47. 4. 10. 극우 유해진 지사로 부임-비판세력 좌익으로 몰아부침. 특별감찰한 벨슨 중령 파면 건의. 그뒤에도 제주 미군정 수뇌부 제주사람 배제, 경찰감찰청 간부도 육지 출신 많아져.

*경찰과 극우청년단체 서청의 탄압, 횡포, 테러, 고문. 서청 3·1시위 직후부터 내려와. 대동청년단 경찰보조단체로 기능 - "탄압에는 항쟁"(호소문)

*단선·단정 반대-(‘2·7구국투쟁’) 2. 9, 10, 11 밤 시위

*1948. 3. 3명의 청년 고문치사사건

4) 남한 전국에 걸친 단선·단정에 대한 강한 반대 · 불안감

5)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결정

*1. 22검거사건 - 1월 26일까지 221명 검거 그뒤에도 제주도 전역에서 남로당 간부 검거

*2월 그믐에서 3월 초 즈음 신춘회의(도당 및 각 면당 책임자 19명) - 무장투쟁에 대해 시기상조론(신중파)과 강경파가 맞서 단선 반대 투쟁의 중요성 강조하고 당 조직 수호 위해서도 단선 반대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당 조직 장악(12:7로 무장투쟁 결정. 유격대 조직 총괄하는 군사부 책임에 도당 조직부장 김달삼(23세, 강문석 사위) -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정치위원으로 신춘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삼룡 증언

*3월 15일경 제주도 常委에서 최종 결정?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 그러나 이 보고서는 2

월 신춘회의가 언급되지 않았고, 도 상위의 존재도 불확실함. 구체성 약함

2. 무장봉기 주도세력의 정세인식과 주장 - 다른 지역과 비교

*봉기 조직이나 단체 명칭이 불분명(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서 나오는 명칭 제외하고는 호소문 등에 표기된 것이 불확실)

1) 낙관적 정세 인식 - 경찰과 서청 등이 공격 대상. 경비대는 아니다. 미군 대응도 예상 못 해(이삼룡) - 그러나 전면적 무력 싸움으로 갈 수밖에

단선 반대 운동 치열해 제주도 봉기 기폭제로 전국적 봉기, 진압 병력 못 보낼 것이고 경비대는 중립 지킬 것, 미국 국제문제될 수 있어 진압에 간여 못할 것(이운방 - 남로당 대정면 책임자)

2) 과격한 구호나 주장이 약함 - 선전 선동 벽보나 삐라, 호소문, 성명서 등이 아주 적음 (3·10-삐라는 도청에 살포되고 그 포스터는 요소요소에-이운방)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자료집-

호소문 (1) 경찰관 공무원 대청원 등에 대한 호소문-인민의 편에 서라! 반미구국투쟁에 호응 쫓기하라!
(2) 시민 동포 부모 형제에게 호소문- 매국 단선단정 결사 반대, 통일독립과 완전한 민족해방을 위하여!(김구). 미제 식인종과 주구들의 학살 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의 책에는 4·28회담에서 김달삼 주장이 다음과 같이 씌어 있다.

- (1) 단선 단정 수립 반대
- (2) 경찰 완전무장해제와 토벌대 즉시 철수
- (3) 반동 테러단체 즉시 해산과 서청원 즉시 철거
- (4) 피검자 즉시 석방과 비법적인 검거, 투옥, 학살 즉시 중지

9연대장 김익렬, <4·3의 진실>에 나오는, 4·28회담에서 김달삼이 했다는 주장

김달삼이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언급이나 표현은 거의 없었고, 거듭 자신과 무장대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도민을 구출하기 위한 의거라고 역설

친일파 세력 거세 - 4·28구역리 평화회담에서 김달삼이 민족반역자와 일제 경찰, 서북청년단 축출 하고, 선량한 관리와 경찰관으로 하면 순종하겠다.

조덕송이 본 문건 - 1) 무장경관대의 즉시 해산, 2) 사설 테러단체의 해산과 처벌 3) 도지사 유해진을 즉시 파면할 것, 4) UN朝委 즉시 철폐, 5) 단정 반대, 6) 남북통일정부 수립 절대 추진

비교 1

여순사건에서의 구호, 주장 등

- (1) 14연대가 병영 안에서 한 선동 구호 - 경찰 타도, 제주출동 반대, 남북통일, 인민군 38선 넘어 남진 등
- (2) 여수읍 장악 후 제주도출동거부병사위원회 명의 벽보 - 제주도 출동 절대 반대, 미군도 소련군을 본받아 즉시 철퇴하라. 인공 수립 만세 등
- (3) 10월 20일 오후 3시 반 여수인민대회 결정 - 인민위원회의 여수 행정 기구 접수, 인공 수호와 충성 맹세, 대한민국 분쇄 맹세, 남한 정부의 모든 법령 무효 선포, 친일파 민족반역자 경찰관 등 철저히 소탕, 무상몰수 무상분배

비교 2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1947년) 3·1운동 기념투쟁의 방침 중 표어 일부

최고 지도자 박헌영선생 체포령을 즉시 철회하라!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만세!

정권은 즉시 인민위원회에 넘기라!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파쇼분자의 근멸!

인민경제를 파괴하는 모리배의 철저한 소탕!

실제 3월 1일 집회와 시위에서 사용했는지 불분명

남로당 중앙의 3·1절 기념행사 지시 사항에는 반역도당과의 무자비한 투쟁으로 미소공위 속개, 임시민주정부 수립하고 정권이 인민위원회에 오도록. 이 인위가 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 즉시 실천. 자유와 민주독립 전취하자로 되어 있음(김남식, 『남로당연구』)

비교 3

‘2·7구국투쟁’의 9개항 슬로건

- (1) 유엔한위 반대
 - (2) 남조선단독정부 수립 반대
 - (4) 국제제국주의 앞잡이 이승만 김성수 등 친일파 타도
 - (7) 정권을 인위로
 - (8) 무상 몰수 무상분배
 - (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 (『좌익사건실록』 1)

그러나 이 슬로건이 제주도에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

3. 무장봉기에 대한 평가

*고립무원의 섬에서 일으킨 무모함 - 무력 공급 불가, “설사 해방시켰더라도 제주도만 해방되어서는 될해”

*중앙당과의 관계 - 제주도당 단독 결정사항이 아닌데도 결정

그 이전에도 10월항쟁, 과도입법의원선거, 민선 결성, 3·10관민총파업에서 중앙당과 다른 활동 전개

*투쟁 목표 모호한 점 있고, 투쟁 방안도 그러한 점이 있음 - 전술 전략의 취약

*미군과 토벌대에 대한 안이한 평가-대규모 살상 전혀 예측 못했음

**그러면서도“(대다수 인민 지지하에) 그런 조직 활동이 자주독립시키는 길ियो, 그 길만이 정의의 길...그것은 학교나 마을에서 공공연히 이야기되던 분위기였다”

**2. 3.과 관련해 <초기에> 있었던 4·28평화회담 대단히 중요함 - 간부들, 바다로 빠져나가게(분단 정부 수립과 무장대)

5. 1. 오라리사건으로 깨져. 배석했던 이윤락중위, “오라리사건은 제주학살을 점화시킨 역사적 계기가 된 사건”

5. 5. دن, 안재홍, 조병옥, 송호성 경비대총사령관, 맨스필드 제주군정장관, 김익렬 등 참가 - 다음날 박진경중령 9연대장에

** 항쟁적 성격 때문에 4·3봉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음

4. 초토화작전과 주민집단학살

토벌대가 본격적으로 초토화작전을 펴 중산간마을에 불을 지르고 도처에서 주민집단학살을 자행한 것은 정부가 수립된 지 3달만인 1948년 11월 중하순경부터였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이때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간에 걸친 초토화작전시기에 생겨났다.

1948년 10월 5일 이북출신의 홍순봉이 감찰청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강경파 경찰책임자로 서청을 지원하며 다음해 7월까지 유혈참극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10월 11일에는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제주도경비사령부는 10월 9일 5여단 고문관 트레드웰대위가 제주도사태에 대해 미군의 효율적 개입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로버츠 고문단장에게 올린 직후 창설되었다. 미군정은 1947년 3·1사건에서부터 4·3무장봉기시기에 일어난 모든 사태에 책임이 있었다. 또한 4·28평화합의를 깨고 김익렬·박진경 연대장에게 초토화작전을 지시했다. 미국은 이승만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작전권을 쥐고 있었고, 메릴이 지적한 대로 미군은 고문자격으로 모든 진압작전에 참여했다. 토벌대의 모든 장비와 화력은 미군이 지급했다. 미군은 주민집단학살을 직접 목도했고, 그것에 대해 보고를 받았거나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것을 기록했다. 미국은 제주도 주민집단학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이 있었다.

10월 17일 재편된 9연대 연대장 송요찬소령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외 지점 및 산악지대를 허가

없이 통행하는 자는 총살에 처하겠다는 포고를 발표했다. 초토화작전이 임박했음을 말해주는 포고였다.

다음날 제주해안이 봉쇄되었다. 메릴은 제주도가 외딴 섬이어서 희생자가 많이 나왔다고 분석했는데, 제주도를 외부세계와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유일한 지역 언론사인 『제주신보』 사장 등이 끌려갔고 편집국장은 총살되었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지사장도 끌려가 총살되었다. 초토화작전에 대한 걸림돌은 철저히 차단되었다.

11월 17일 이승만정부는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계엄령이라는 것을 선포했다. 이때부터 다음해 3월까지 어린아이에서부터 70,80대 노인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학살되는 참극이 벌어졌다.

도처에서 주민집단학살을 불러온 초토화작전은 1차적으로는 9연대(연대장 송요찬)와 1948년 12월 29일 9연대와 교체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게 한 2연대(연대장 함병선)에 있었다. 그렇지만 최고 책임은 1948년 12월 이승만대통령이 서청 충회에 참석해 연설한 것을 듣고서 제주도에 내려온 한 서청단원이 “이대통령의 허락없이 어느 누가 재판도 없이 민간인들을 많이 죽일 권한이 있겠습니까?”라고 증언한 바가 시사하듯, 이승만대통령한테 있었다. 이대통령은 1948년 늦가을에 서청단원을 대거 제주도에 투입해 섬을 초긴장상태에 몰아넣었고, 1949년 4월 9일 제주도를 방문해 잔존폭도들을 완전히 소탕하라고 지시했다.

제주도에서는 국제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주민집단학살이 작전의 일환으로 뼈저티 자행되었다. 1948년 12월 14일 중산간마을에서 옮겨온 표선면 토산리 주민 157명이 9연대 병력에 의해 포박당한 채 백사장으로 끌려와 집단 살해되었다. 1949년 1월 17일 군인들은 조천면 북촌마을을 포위해 4백여채의 가옥을 불지르고 주민들 1천여명을 국민학교운동장에 집결시켜 그중 약 3백명을 인근 밭에서 학살하였고, 다음날에는 함덕해수욕장으로 끌고가 약 백명 정도를 학살했다. 이 사건으로 북촌마을은 대가 끊어진 집안이 많다. 이러한 주민집단학살로 1백명 이상이 희생된 마을이 45개나 된다는 것은 맨앞에서 언급한 대로이다. 많은 적든 150개가 넘는 마을에서 이와 같은 희생자가 나왔다.

인간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도 백일하에 저질러졌다. 토벌작전을 퍼면서 13명의 목을 잘라서 시내를 두루 다니며 구경시키기도 하였고, 서청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뺨을 때리게 하는데, 할아버지와 손자간에도 강요했다. 토벌대가 주민들을 국민학교운동장에 집결시켜놓고 발가벗긴 채 매질을 하고 남녀를 지목하여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짓’을 하게 했다. 또 맨앞줄에 서서 부모가 총살당할 때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도록 강요했다.

잔혹한 행위는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나찌나 일본군이 자주 저지른 대살(代殺)도 빈번히 발생했다. 남편이 산에 올라갔다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이 입산자라고 부모를 죽였다. 도피자가족으로 여자나 노인, 어린아이들 등 주로 노약자들이 끌려가 살해되었다. 1948년 12월 10일 개수동에서는 도피자가족 및 외지인 36명이 폐죽음을 당했다. 개수동에서는 1949년 1월 24일에 한 여인이 세 살난 아이와 함께 총살당한 것을 비롯해 8명이 남편 또는 자식이 피신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

학살은 무장대에 의해서도 저질러졌다. 4·3 초기부터 무장대는 경찰과 서청단원 등 우익청년단체 소속원, 그리고 토벌대에 협조한 우익인사와 가족을 살해했다. 그들은 토벌대의 진압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토벌대편이라고 생각한 마을들을 덮쳐 집단으로 학살했으며, 어린아이와 여인, 노인네도 살

해했다.

희생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발생했다. 제주도도 육지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도연맹원과 요시찰 대상자를 예비검속해 살해했다. 제주읍의 경우 첫 번째 학살은 1950년 8월 4일 이루어졌다. 이날 예비검속자 수백명이 해군경비정에 실려 바다에 수장되었다. 8월 19일 밤과 다음날 새벽에 걸쳐 역시 수백명이 현재의 제주비행장에서 총살당해 암매장되었다. 서귀포에서는 7월 29일에 150명 정도가 살해되었고, 8월 12일에도 학살이 있었다. 모슬포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는 8월 20일 두 군데서 집단 희생되었다. 1956년에 한림지역 주민들은 몰래 61구의 시신을 수습해 안장했고, 모슬포 절간고구마 창고에 수감되었다가 희생된 사람들의 유족은 같은 해 당국의 허가를 받아 132구의 시신을 거두어 한 자리에 묻고, ‘백할아버지의 한 자손’이라는 의미로 백조일손지지(百祖一孫之地)라고 이름붙였다. 성산포경찰서 관할의 경우 독립운동을 했던 문형순 경찰서장이 군의 지시를 거부해 6명만 희생되었다. 그런 분도 있었다. 주민들은 그를 기리는 비를 세웠다.

5. 대규모 주민집단학살이 발생한 요인 - 육지와 비교

1) 일제의 영향

- (1) 일본 군국주의의 인명 경시 사상
- (2) 일본 군대 문화 - 내무반, 기합, 체벌 등의 잔존
- (3) 군경 및 미군정 내부의 친일파-극우의 일제말, 해방후 반공주의와의 결합

군 장교들(2연대장 함병선 등) - “태워 없애고 굶겨 없애고 쏘아 없애”는 3광 또는 삼진 작전

경찰 간부들(홍순봉-48. 10. 5. 인망 있는 김봉호 대신 평남 출신으로 감찰청장에 임명됨, 고등계 출신 특별수사대장 최난수),

2) 테러의 시대 - 우익청년단체 특히 월남 청년 단체(서북청년회)의 반공주의와의 결합

3) 미군

1. 미군정 실정과 분단(단선 단정)으로 4·3발발,
2. 4·28평화회담을 깬 주된 세력
3. 딘 장관 특명받은 총사령관 브라운대령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 5. 27.까지 포로와 귀순자 3,126명.
4. 조덕송, “미군 철모에 미군복, 미군화에 미군총, 비가 오면 그 위에 미군 우장을 쓴다. 멀리서 보면 키가 작은 미군부대가 전진하는 것 같다” - 작전 통제권
5. 각 부대에 미군 장교 배속, 상황 보고

- 4) 이승만의 반공주의와 단정노선, 엄벌주의 - 48. 10, 11. 제주도경비사령부, 10. 17. 송요찬 9연대장 해안선 5km 통행금지, 10. 18. 제주 해안 봉쇄, 11. 17. 계엄령 선포, 11-12 서청원 대거 입도. 48. 12. 이승만 서청 총회 참석해 연설, 49. 1. 21. 국무회의에서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 4. 9. 제주도 방문, 잔존폭도 완전 소탕 지시.

48. 11. 5. 여순사건 담화 1950. 6. 28. 긴급명령 제1호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보도연맹원 대학살

- 5) 섬이라는 점 -외부 차단. 해안 봉쇄 되면서 제주신보 사장 끌려가고 편집국장 총살, 경향·서울신문 지사장도 총살,

6. 항쟁 - 장기적 저항, 주민이 토벌대 편에 서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메릴, “제2차 세계대전후 이처럼 격렬한 민중반란이 분출되었던 곳은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다”

1) 배경 또는 원인 - 1. 봉기의 배경과 원인 동일.

조덕송 이인 등의 여러 글

2) 3·1시위에 대한 발포와 그에 대한 미군정의 처리

3) 3·10관민총파업의 성격.

그 이후 조병옥 등 미군정의 탄압과 횡포. 육지 관리, 경찰, 월남 서청원 등의 대거 입도

4) 인민위원회, 청년들의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

5) 단선·단정

6) 친일파에 대한 반감 - 여순사건

7) 주민들의 육지인들의 압제. 횡포, 탄압, 학살 등에 대한 분노 - 주민과 육지와의 관계

1898 남학당의 난, 1901 이재수의 봉기

8) 증산간 마을 방화와 주민집단학살, 군·경·서청 등의 잔혹성

9) 미군정과 이승만정부를 보는 시각

**주민들의 평화의 갈구 - 화해와 상생

**평화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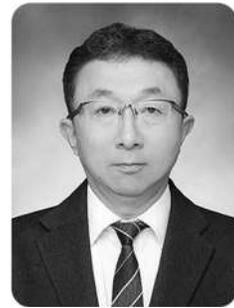
***1950년 한국전쟁 전후의 주민집단학살과 비교

특별법,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사과, 진상조사보고서, 국가기념일, 기념관과 각종 기념 시설, 유해 처리 - 제주4·3은 과거사 처리의 모범 사례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70th Anniversary of Jeju 4·3 and
Vision for Unification
4·3특강(2) - 제주4·3 70주년과 통일 비전



Park Chansik
Director, Center for Jeju studies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70th Anniversary of
Jeju 4·3 and
Vision for Unification**

**제주4·3 70주년과
통일 비전**

Definition of 4·3

Jeju 4·3 Incident can be defined as the “Incident where many inhabitants lost their lives starting with the police firing incident on March 1, 1947 as the resistance against oppression of police and the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as well as opposition towards unified election and government began with the armed rioters from the South Korea Labor Party of Jeju on April 3, 1948 until the restricted area of Hallasan on September 21, 1954 due to armed collision between the armed rioters and punitive forces along with the process of suppression”.

Conclusion from the〈Jeju 4.3 Incident Factual Survey Report〉

4·3의 정의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결론

Resolution Process for 4·3

4·3의 해결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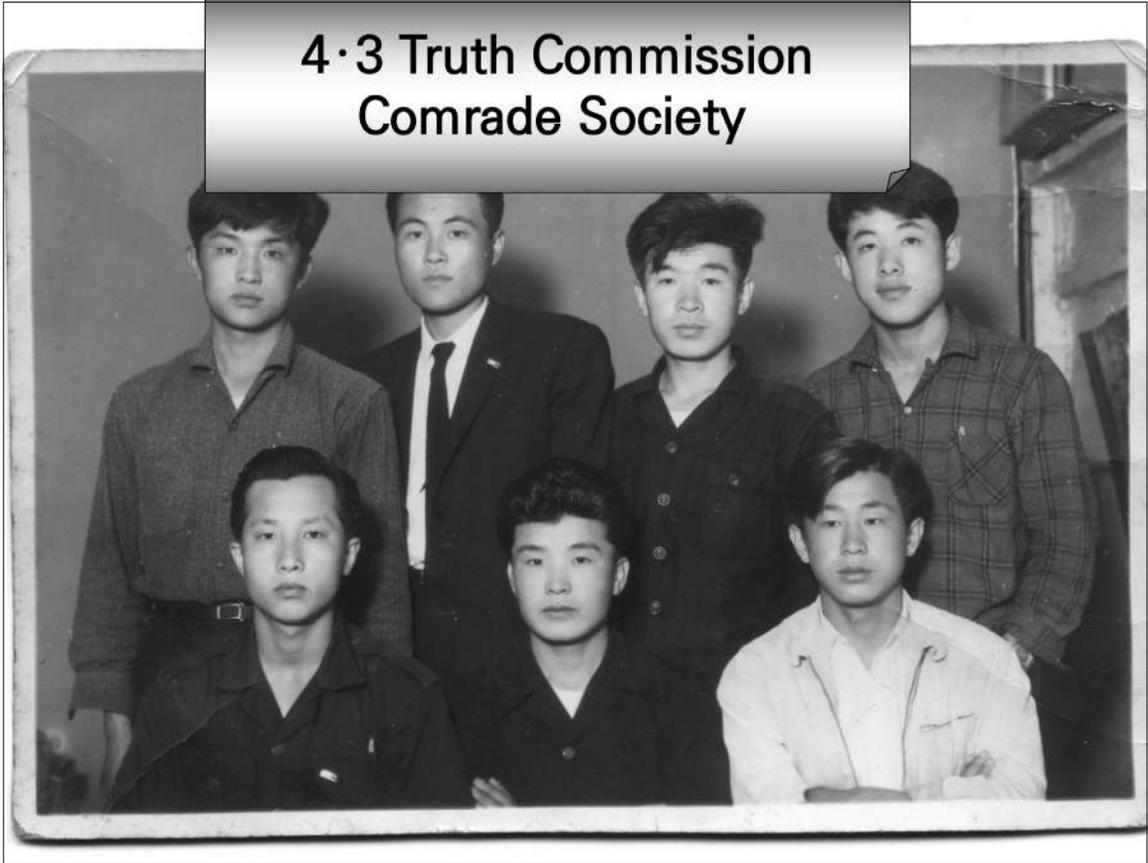


4·19 Revolution and 4·3 Truth Commission



4·19혁명과 4·3 진상규명운동

**4·3 Truth Commission
Comrade Society**



4·3진상규명동지회



**Letter of Plea from 4·3 Truth Commission Comrade Society
(Jeju Shinbo 1960. 5. 26)**

- Instigators and their followers who committed unspeakable acts as human beings such as massacre of innocent civilians and arson should be prosecuted to for justice in order to appease the dead souls

**4·3진상규명동지회의 호소문
(제주신보 1960. 5. 26)**

- 인간의 탈을 쓴 야수와 같은 행위로서 양민학살, 방화 등을 자행한 주동자와 졸도들을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죄 없이 죽어간 원혼을 위령해야 할 것

Truth Commission Movement in 1980's



1980년대 진상규명운동























Resolution Process for 4·3

Efforts from various parties to uncover the truth of 4·3 Incident after 1980's have yielded fruit and the Special Act on 4·3 was announced in January of 2000 and the government opted for the truth commission survey in October of 2003 and there was also an official apology from the president as well.

95% of the Jungsangan Village which was confirmed by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s of October 15, 2003 was burnt and missing and 39,285 houses were incinerated. The results of finished assessment based on victims and surviving family members reported to the 4·3 Truth Commission Committee (As of May 23, 2014), it has been determined that there were 14,231 victims and 59,225 surviving family members.

4·3의 해결과정

1980년대 이후 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0년 1월에 4·3특별법이 공포되었고, 2003년 10월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이 이루어졌다.

2003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확정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4·3사건의 인명 피해는 25,000~30,000명으로 추정되고, 강경진압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으며, 가옥 39,285동이 소각되었다. 4·3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결과(2014. 5. 23 현재), 희생자로 14,231명과 희생자에 대한 유족 59,225명이 결정됐다.

Enactment of Special Act for 4·3



4·3특별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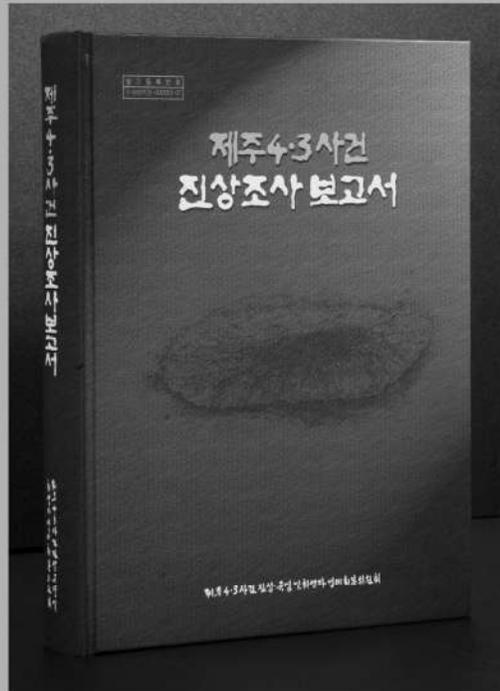
Prime Minister Goh Kun assessing the report (2003.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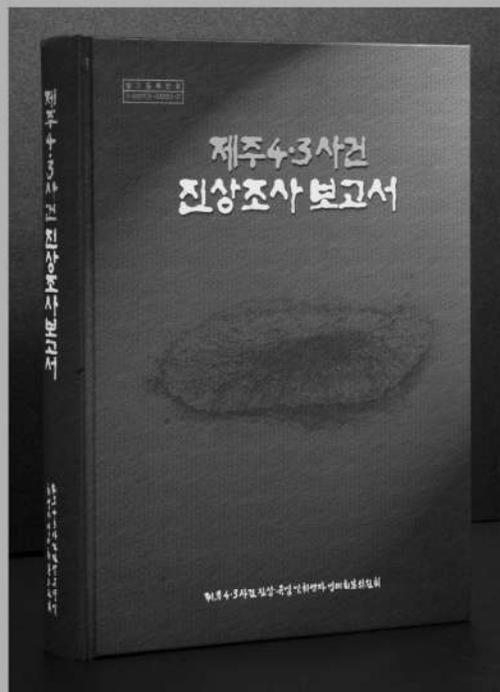
보고서를 심의하는 고건 총리(2003. 10. 15)



4·3 Truth Commission Report (2003. 10. 15)



4·3진상조사보고서(2003. 10. 15)



Damage Assessment

Human casualties : Truth Commission Report (25,000–30,000)

Village damages : Over 300 villages, and 40,000 houses burnt

Property damage : Public facilities burnt, industrial facilities
damaged, etc.

List of victims : 14,231 people (Ancestral tablet shrine, 2014)

피해상황 종합

인적 피해 : 진상조사보고서(2만5천-3만명)

마을 피해 : 300여 마을, 가옥 4만여동 소각

물적 피해 : 공공시설 소각, 산업부문 피해 등

희생자 명단 : 14,231명 (위패봉안소, 2014년)

Damage Report (By Type/Gender)

Category	Total	Dead	Missing	Trauma Victims	Prisoners
Total	14,231	10,245	3,578	163	245
Men	11,241	7,704	3,217	97	223
Women	2,990	2,541	361	66	22

피해상황 (유형별/성별)

구분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계	14,231	10,245	3,578	163	245
남	11,241	7,704	3,217	97	223
여	2,990	2,541	361	66	22

Damage Report (By Age)

Category	Total	Dead	Missing	Trauma	Prisoners
Total	14,231	10,245	3,578	163	245
Below 10	770	679	73	18	
11~20	2,464	1,684	601	90	91
21~30	5,461	3,277	2,027	46	109
31~40	2,291	1,652	601	9	29
41~50	1,383	1,190	181	-	12
51~60	959	886	69	-	4
61~70	557	541	16	-	
Over 70	344	334	10	-	
Unknown	2	2	-	-	

피해상황 (연령별)

구분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계	14,231	10,245	3,578	163	245
10세 이하	770	679	73	18	
11~20세	2,464	1,684	601	90	91
21~30세	5,461	3,277	2,027	46	109
31~40세	2,291	1,652	601	9	29
41~50세	1,383	1,190	181	-	12
51~60세	959	886	69	-	4
61~70세	557	541	16	-	
70세 이상	344	334	10	-	
연령 미상	2	2	-	-	

Damage Report (Military/Police)

Category	Total	Dead	Missing	Trauma	Prisoner
Total	119	85	32	1	1
Military	31	8	23	-	-
Police	88	77	9	1	1

피해상황 (군인/경찰)

구분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계	119	85	32	1	1
군인	31	8	23	-	-
경찰	88	77	9	1	1

Apology from President (2003. 10. 31)



대통령의 사과 (2003. 10. 31)







**Recognition of 4·3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남북한의 4·3 인식

Recognition and Rectification of 4·3 in South Korea

○ The official opinion from the government viewed the 4·3 Incident as riot·rebellion led by the South Korea Labor Party of Jeju Island to disturb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and the Cold War and division until 1970's

○ The rethinking of the 4·3 Incident began with the Democratic Uprising of July in 1987. The concept of 'Uprising' was being suggested throughout the academic society, students, and civilian society and active truth commission movement was launched

○ Joint memorial service held by the association of surviving family members and political groups after 1990's, and the recognition of the 4·3 Incident has been fixed towards 'Massacre of civilian groups' through the movement for enactment of special act

○ The 4·3 Incident is recognized as the 'Incident' where many inhabitant lives were lost through the systematic resolution process including the enactment of the 4·3 Special Act in 2000, confirmation of the 4·3 Incident Truth Commission Report in 2003, official apology from the president, and designation of 4·3 Incident Memorial day in 2014

○ Historical nature of the 4·3 Incident is defined through the national settlement process and studies conducted by historians and the rectification is hoped to be made.

It was an incident based on the Cold War and division so wouldn't it be possible for it to be utilized in making progress in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남한의 4·3 인식과 정명

○ 4·3에 대해서는 1970년대까지 냉전과 분단,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제주도 남로당 세력이 대한민국을 건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으킨 폭동·반란으로 보는 국가의 공식 견해가 지배적이었음

○ 4·3에 대한 재인식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비롯됨. '항쟁' 인식이 학계, 학생층,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활발한 진상규명운동이 전개됨

○ 1990년대 이후 유족회와 재야단체의 합동위령제 개최, 특별법 제정운동 과정에서 4·3에 대한 인식은 '민간인 집단희생' 쪽에 초점이 맞추어짐

○ 2000년 4·3특별법의 제정, 2003년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대통령의 공식 사과, 2014년 4·3추념일 지정 등 제도적 해결 과정을 거치면서 4·3의 명칭은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인식됨

○ 앞으로 역사가들의 연구와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4·3의 역사적 성격이 규명되고, 정명(正名)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함. 냉전과 분단에서 비롯된 사건이므로 한반도 통일의 진전 과정에 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Recognition of 4·3 in North Korea

○ The 4·3 Incident took place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regime and played ou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ivided system became permanent. The leading forces behind the incident started an armed revolt for the cause of opposing the 5·10 Election in South Korea and this is why the North Korean regime followed the incident closely. Some of the leadership participated in the People's Representative Meeting at Haeju in August of 1948 and helped establishing the regime in North Korea while the incident was still unfolding and this is why North Korea's level of interest in the 4·3 Incident was high.

○ As the divided system after the Korean War became permanent, the North Korean regime evaluated the 4·3 Incident as the common example for unific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which occurred within the window of liberation. But the North Korean regime evaluates the 4·3 incident as a mistake made by the leadership of the South Korea Labor Party as many civilian lives were sacrificed by launching a risky revolt and utilizes it as the cause for purging the South Korea Labor Party.

○ But it often separates it from the leadership and praises that it was a heroic revolt by the people of Jeju Island

북한의 4·3 인식

○ 4·3은 미군정시기에 발발하여 대한민국 수립과 분단체제 고착상황을 거치면서 전개됨. 그 주도세력이 남한의 5·10선거 반대를 명분으로 무장투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북한정권에서도 주목한 사건.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지도부 일부가 1948년 8월 해주 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하면서 북한정권 수립에 가담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4·3에 대한 관심이 고조

○ 6·25전쟁 이후 분단체제가 고착화되면서 북한정권은 해방 공간에서 벌어진 남한의 통일운동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4·3사건을 평가함. 그러나 4·3에 대해 북한정권은 그 지도부가 남로당과 연결되어 모험적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수많은 인민들이 희생되었다는 점을 들어 남로당의 오류로 평가, 남로당을 숙청하는 명분으로 활용

○ 그러면서도 줄곧 지도부와 분리하여 제주도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이었다고 평가



Shinmi-ri Patriotic Martyr Memorial

"The great service from the patriotic martyrs who fought for the great work of national unification and construction of socialism and national liberation will be remembered throughout out our history. September 17, 1986"



신미리 애국열사등 추모비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 건설, 나라의 통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희생된 애국열사들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1986년 9월 17일"



Recognition of 4·3 in North Korea

○ Active inference of data published by South Korea starting from late 1980's to focus on securing proof and objectivity

○ The aspects of characteristics and changes by period does not appear often in the simple structure consisting of people's revolt and suppression by US military

○ Assessment on 4·3 Truth Commission Report (2003)

“US is reluctant to the truth about their civilian massacre committed in South Korea coming to light. They do not want any greater explosion of anti-US sentiment in South Korea and this is because they want to continue to dominate South Korea with their military presence. In the end, the reason that the sins committed by the American invade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incident not being mentioned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port on the 4·3 Incident is because the dark influence of the US has played a hand. Such dependent relationship with the US is resulting in such instances.” (Rodong Sinmun October 23, 2003)

북한의 4·3 인식

○ 1980년대 후반으로부터 남한에서 출간된 자료를 적극 인용하면서 실증성과 객관성 확보에 주력

○ 인민항쟁과 미국의 탄압이라는 단순 구도 속에서 각 시기별 특성과 변화 양상이 잘 드러나지 않음

○ 4·3진상조사보고서(2003)에 대한 평가

“미국은 남조선에서 저들이 감행한 인민대학살 만행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몹시 꺼려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반미감정이 더 크게 폭발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남조선을 계속 군사적으로 가로타고 앉아 지배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4·3사건과 관련한 남조선 정부 보고서에 사건의 장본인인 미제침략군의 죄악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미국의 검은 축수가 뻗었기 때문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미국과의 종속적인 관계가 이런 사태를 빚어내고 있다” (□로동신문□2003년 10월 23일)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4·3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The recognition regarding 4·3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still exhibits clear disparity in parallel manner
- Both sides have common factor of looking at the key concept behind this incident with focal point set on the massacre of civilians. But tracing the cause and background for the massacre leads back to intense standoff which is back to square one
 - The aspects of characteristics and changes by period does not appear often in the simple structure consisting of people's revolt and suppression by US military
- It's only reality that the recognition regarding 4·3 is also divided as the incident took place when the divided system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was being fixed

남북한의 4·3 인식 차이

- 4·3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은 아직도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차이점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음
- 물론 민간인 학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건의 핵심을 보자는 면에서는 공통분모가 생겼음. 그러나 학살의 원인과 배경을 추적하다 보면 다시 원점에서 팽팽한 대립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
 - 인민항쟁과 미국의 탄압이라는 단순 구도 속에서 각 시기별 특성과 변화 양상이 잘 드러나지 않음
-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한 분단체제가 고정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4·3에 대한 인식도 분단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

4·3 and Vision for Unification

4·3과 통일비전

Lessons from Resolution Process for 4·3

- The island of world peace was possible because the people of Jeju Island wished for it desperately but also because it has the adequate conditions. It has been called the 'Island without doors, thieves, and beggars' boasting history of cultivating peace and the historical suffering of '4·3' has made the people go through the process of search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to recover from the past which is the standard for overcoming difficult past and putting the past behind (Words from President Roh Moo-hyun at the Signing Ceremony for Designation as Island of World Peace)
- The community spirit exhibited by the people of Jeju Island who have wisely went through the extremely difficult process to resolve the 4·3 Incident for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have been recognized as spirit of peace and it has been determined that it is a value that can be universalized throughout the world

4·3 해결과정의 교훈

- 세계평화의 섬은 제주도민들이 간절하게 염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삼무의 섬'이라고 해서 평화를 가꿔온 역사를 가지고 있고, '4·3'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큰 아픔을 딛고 과거사 정리의 보편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진실과 화해의 과정을 거쳐 극복해 나가는 모범을 실현하기 때문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서명식, 노무현대통령 발언)
- 지극히 어려운 4·3 해결의 과정을 슬기롭게 헤쳐나간 제주도민의 화해·상생의 공동체성을 평화의 정신으로 인식한 것이며, 이를 세계 보편의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

Mentality of Jeju to Recover from 4·3

- Summarized as reconciliation, community wide acceptance, and spirit of coexistence
- First, the current social classes, generation, and political parties have achieved high level of cooperation and coexistence with the ideology surrounding the past in the local area in order to prevent the relapse of the past
- Second, governance was achieved through tight negotiations and governance between the people and government through the resolution process for 4·3
- There is need to universalize this as an exemplary case of recovering from past history which cannot be found in current and past conflict zones around the world after the Cold War era

4·3 치유의 제주정신

- 화해, 공동체적 관용, 공존의 정신으로 요약됨
- 첫째, 과거 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지역 내 과거의 이념, 현재의 계층·세대·정당 간에 높은 수준의 협력과 공존을 달성했다는 점
- 둘째, 4·3의 해결 과정에서 민과 관 사이의 긴밀한 협의와 협치(governance)가 이루어졌다는 점
- 냉전시대 이후 세계 분쟁지역과 갈등 경험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거사 극복의 모범 사례로서 세계화·보편화시킬 필요가 있음

Lessons from 4·3 for Future Generation

- Orient towards self-governing community, resistance against violence of outside forces, unity of people
- Vicious cycle of refusal to establishing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nti-state) and vengeful violence
- There is necessity to explore common value that can overcome the latter
- 5·18 is universally recognized as a movement for democracy
- 4·3 still has serious standoff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 Community of Jeju needs to overcome the opposing perspectives on 4·3 and create value for the future : The community should bring up 4·3 as the model for completion of self-governing province for now and as the model for ideology and overcoming and division in the future

미래세대에 전해 줄 4·3 가치

- 공동체 자치, 외적 폭력에 대한 저항, 민족적 통일 지향
- 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거부(반국가), 보복적 폭력의 악순환
- 후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가치를 모색할 필요 있음
- 5·18은 전자와 후자가 민주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통합 인식되어 있음
- 4·3은 아직도 전자와 후자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음
- 제주공동체가 과거 4·3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할 것임 : 현재로는 특별자치의 완성과 미래에는 이념과 분단 극복의 모델로 4·3을 거론해야 할 것

Recognition for Victims of 4·3

- Era of authoritarianism : Speaking of the deaths from 4·3 Incident was forbidden
 - Era of democracy :
‘Wrongful death’ ‘Death of the innocent’ ‘Baseless death’
 - Future : Reinterpret their deaths as deaths with significance and value
 - As “deaths for advancement of community for future generations and for the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people”
 - Redefined as “deaths equivalent to that of patriotic martyrs”
- ※ Hagwi Yeongmowon : Honors independence patriots, Korean War heroes, and 4·3 victims altogether

4·3 희생자 인식

- 권위주의 시대 : 4·3의 죽음에 대해서 발설 금기시
 - 민주화 시대 :
‘억울한 죽음’ ‘무고한 죽음’ ‘영문없는 죽음’
 - 미래 : 의미와 가치 있는 죽음으로 재해석해야
 - “후대의 공동체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대신 죽어간 죽음”으로
 - “순국에 버금가는, 못지않은 죽음”으로 거듭나야
- ※ 하귀 영모원 : 독립유공자, 6·25전사자, 4·3희생자를 함께 추모



Vision for the Future Seen Through Resolution Process for 4·3

- “We raise this memorial signifying that everyone forgives one another as everyone is a victim looking back and may the dead rest in peace and may the living work together”
(Memorial Inscription at Yeongmowon Commemoration Altar at Aewol-eup Hagwi-ri)
- The group sacrifice of 4·3 has been signified as death carrying meaning for harmony of future societal community. The model of blood relations community built on the island of massacre and sacrifice resulting from the Cold War is a core factor in societal advancement which goes beyond left and right wings and the scholars all over the world hope that this would be able to suggest a 'Third path' towards vision for the future after globalization
(Professor Kwon Heon-ik, Cambridge University of UK)

4·3 해결과정으로 본 미래비전

-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모두가 함께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애월읍 하귀리 英慕園의 추모 글)
- 4·3의 집단희생이 미래 사회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의미 있는 죽음으로 읽혀짐. 냉전으로 인한 학살과 희생의 섬에서 이뤄낸 친족공동체의 관용 모델은 좌우를 넘어서서 사회 발전에서 중심적인 요소인 것이고, 세계화 이후 미래 비전 창출에 ‘제3의 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세계적인 학자들은 기대하고 있음
(권헌익 교수, 영 케임브리지대학)

Hopes for North-South Korea Summit and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 Missing victims who were imprisoned at Seodaemun, Mapo, and Incheon Prisons were involuntarily assigned to the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and many of them have settled in North Korea after the war
- The 7th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in May of 2003 after North-South Korea Summit in June of 2000
- Kim Yong-yeon from Yiho-dong (Age 101 at the time) and her son Kim Chang-jong were able to reunite with the older son Kim Gyeong-jong. Kim Gyeong-jong was summoned to court-martial in July of 1949 and went missing after the Korean War while serving his sentence in Incheon Prison
- Lee Jong-seong (Age 17 at the time) from Aewol-myeon Geumdeok-ri who was serving his sentence at Incheon Prison after court-martial in December of 1948 and went missing right after the Korean War was able to meet his younger brother Lee Jong-shin during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in February of 2014.
- It is estimated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prisoners who went north have survived in North Korea. There is necessity to at least confirm the identities of victims and their whereabouts for peaceful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

- 행방불명 희생자 중 서대문·마포·인천형무소 수형인의 경우 6·25전쟁 과정에서 타율적으로 출옥하여 북한 인민군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었다가 전쟁 후 북한에 정착한 경우도 많음
- 2000.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3. 5월 제7차 이산가족 상봉
- 이호동의 김용연(당시 101세)과 김창종씨 모자는 금강산에서 큰형인 김경종씨 상봉. 김경종씨는 1949년 7월 군법회의 회부, 인천형무소에 복역 중 6·25전쟁 직후 행방불명
- 1948년 12월 군법회의, 인천형무소에 복역 중 6·25전쟁 직후 행방불명된 애월면 금덕리 이종성(당시 17세), 2014년 2월 이산가족 상봉 때 동생 이종신을 만났음
- 북으로 간 수형인들이 상당수 아직도 북한에 생존한 것으로 추정됨. 남북 평화 교류 차원에서 희생자 신원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행방이라도 확인해 줄 필요성이 있음

70th Anniversary of 4·3 and Significance of North and South Korea Summit and North Korea-US Summit

- Tragedies of 4·3 and 6·25 would not have happened if it wasn't for the Cold War and the division
- 4·3 carries historical significance as the "Resistance movement of Jeju Island community against outside oppression" and "Unification movement that refused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government"
- 4·3 was the preview for the Korean War (Smaller scale)
- Hopes of converting into peace treaty system as war conclusion is announced instead of ceasefire from the Korean War through this North-South Korea Summit and North Korea-US Summit
- 4·3 is hoped to be recorded as a keyword in the modern history that promotes establishment of true local community and unification in the process towards peace and unification within the Korean Peninsula

4·3 70주년과 남북·북미정상회담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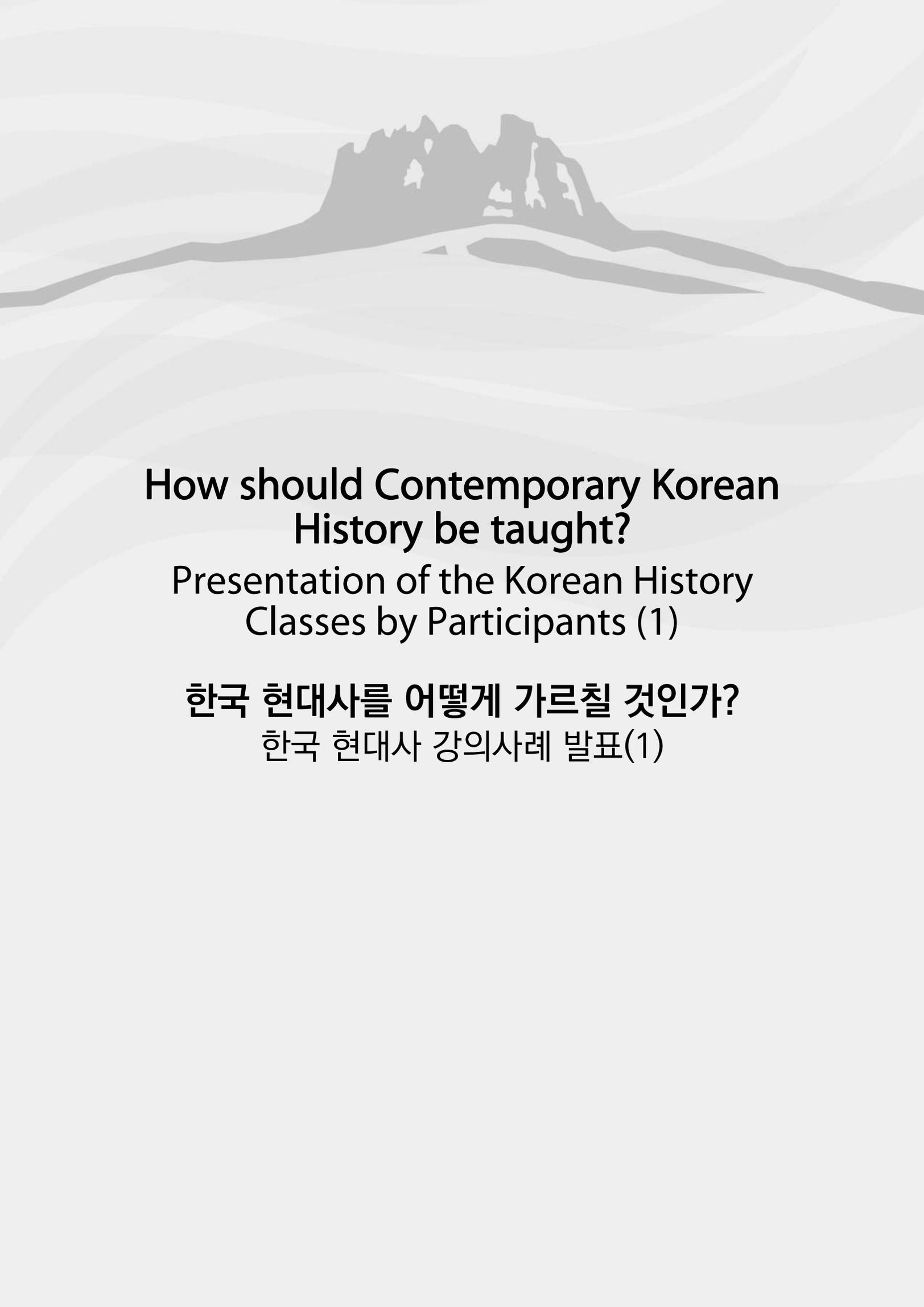
- 냉전과 분단이 아니었다면 4·3과 6·25의 비극은 없었을 것
- 4·3은 “외적 탄압에 대한 제주도 공동체의 정서적 자치지향의 저항 운동”
- “단독정부 수립을 거부한 통일운동”으로서 역사적 의미
- 4·3은 6·25전쟁의 예고판(축도)
-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6·25전쟁이 정전이 아닌 종전으로 선언되고 평화협정체제로 전환 기대
- 4·3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진전 과정에서 진정한 자치공동체 건설과 통일 지향의 현대사 키워드로 기록되기를 기대함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

Day 2

2018. 07. 04

A stylized, monochromatic illustration of a mountain range with a prominent central peak, rendered in shades of gray against a light background.

How shoul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be taught?

Presentation of the Korean History Classes by Participants (1)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 현대사 강의사례 발표(1)



**Jeju April 3rd at the University of
Malaga (Spain)**

말라가 대학 제주 4·3사건(스페인)

Botella, Luis
Researcher, University of Malaga in Spain

Jeju April 3rd at the University of Malaga (Spain)



Botella, Luis
Researcher, University of Malaga in Spain

Abstract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treatment of the Jeju 4·3 Incident in the subjects at the University of Malaga. The contextual information about the educative programs will be presented to give an understanding about the historiographical treatment of the Jeju 4·3 Incident. Thus, the presentation will cover the subject of Modern History of East Asia, part of the Bachelor degree on East Asian Studies – Specialized on Korean History, subjects related to history, heritage and memory at the postgraduate program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 with Korea. Both degrees present the issue at hand using different perspectives and materials.

The Jeju 4·3 Incident was a tragic incident inserted in a very difficult mo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ame time, the celebration of this event and its memorialization represents a new moment in the collective construction of a meaningful past for all Koreans, despite the difficulties of confronting that past. Spain has its own troubling past from the Spanish Civil War (1936-1939) that deserves a hard look in order to repair the victims. Unfortunately, the circumstances has not evolved yet to make a commission of truth and reconciliation a reality. From that perspective, the process and efforts that have made possible the celebration of this event should be celebrated for their success in providing closure for the people involved, and awareness about the incident for future generations. In that regard, this paper aims to make a small contribution to the success of this event.

This paper aims to present how the different subjects at the University of Korea present the Jeju 4·3 Incident. I will introduce the general educative programs as general context to understand specific takes on the issue within each subject. Taking this perspective, I will present as well the general

syllabus of each subject to present how the issue of the Jeju 4·3 Incident is approached. The presentation will introduce firstly the BA program on East Asian Studies – Specialized on Korean studies and the subject on Modern History of East Asia. Then, I will present the postgraduate programs that the University of Malaga is developing and the three subjects that deal with the Jeju 4·3 Incident, Modern Korean History (1945-2010), New Historiographical trends in Modern Korean History, Cultural Identities in Korea: Heritage, Cinema, and Art. This paper will presents the different historiographical approaches that each subject has regarding modern Korean history, and the place of the Jeju 4·3 Incident within each perspective. In this regard, the presentation aims to provide the versatility of interpretative frameworks that can be used in relation to the Jeju 4·3 Incident.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Malaga

The program in Korean Studies started at the University of Malaga as part of a general project of internationalization of the university. That project led the university to intensify its relationships with Korean universities, signing several understanding agreements with Korean universities, the organization of a specialized office on Korean relations and project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bachelor degree in Spain focused on Korean Studies.

The University of Malaga, as a public Spanish university had some limitations regarding the focus of the new degree. The University of Malaga could not offer a degree on Korean Studies, due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edits a catalogue of possible degrees for public universities. On that list, the only possible degree related to Korea is a degree on East Asian Studies. Thus, the University of Malaga decided to ally with the University of Seville and launch a joint East Asian Studies degree. Due to this particular degree allows for further specialization depending on the country. The joint commission decided that the University of Seville would take charge of Japanese and Chinese studies, and the University of Malaga would lead Korean Studies.

This decision had a large impact on the design of the degree and the weight of Korean history in it. The educative objectives of the degree aim to provide language training and the vehicle for their professional and academic development. In addition, it stressed to provide a background knowledge on the region, to then specialized on the particular area of each program (Chinese, Japanese or Korean Studies). Such specialization is promoted from the consideration that each area has not been isolated from the rest of the world. Therefore, it also stresse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linkages within the region, its identities and migration movements.

The East Asian Studies degree, as a bachelor degree, has 240 ECTS (the 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 used as a standard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of Education). An ECTS considers that one credit is worth of 15-25 hours of work, including lectures and personal work. Those 240 ECTS

were divided in five basic groups. Basic Education (60 ECTS) is devoted to general knowledge on East Asia. Language (48 ECTS) focuses on learning one of the three key languages in East Asia (Chinese, Korean or Japanese). Due to the focus on Korea, the University of Malaga focus exclusively on teaching Korean Language. Society and Culture (72 ECTS) is divided between a regional focus on East Asian Studies and a focus on Korean Studies. Finally, Optional Subjects (54 ECTS) and the Thesis focus on Korean Studies.

The teaching of Korean history within the curriculum of the degree is immersed in five main subjects: Premodern history of East Asia, Early Modern History of East Asia, and Modern History of East Asia, Political Systems of East Asia and Korean Politics and Geostrategy. For the issue of our interest here, the most important subject is Modern History of East Asia. As it is evident, Korean history is presented within the framework of regional history. The modern period is favored slightly in the subjects, but always from a regional perspective. At bachelor level, this subject is the only that presents on the Jeju 4·3 Incident.

Modern History of East Asia

The subject on Modern History of East Asia is part of the Society and Culture group of subjects, being worth six ECTS. The subject aims to fulfill three key objectives from the general educative program of the degree:

- E14: Analyzing the cultural interactions between Western countries and East Asia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Age
- E19: Analyzing the blend of traditional and modern elements in contemporary East Asian culture
- E20: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processes in East Asia during the Contemporary Age

The program of the subject has been developed according to the objectives, providing a preeminence of a regional perspective, cultural analysis and interaction with Western countries. The subject takes a general approach to portray the main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processes in the region since roughly mid-19th century until the end of 20th century.

The subject aims to cover its educative objectives taking in consideration two circumstances of degree. Firstly, the lack of a proper subject on Korean history is considered as a big mistake in a degree of Korean Studies.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e subject, I try to provide a look on modern history of East Asia from the Korean Peninsula. It means that I try to give more space to the history of Korea and collateral aspects to it that what it is usually present in general surveys of East Asian history. Secondly, the subject takes a transnational perspective in order to present the events in the region. This decision leads to present the events in the region in larger connections than the national

space. Connections, comparisons, and synchronicities among the three main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are recurrent themes and strategies in this subject.

The syllabus of the program is divided in 14-15 classes (depending on bank holidays, the exact number of teaching classes may change):

Module 1: The region, structural challenges and new realities (19th century)

- The Region in 19th Century. Modernization Projects in 19th century Qing I
- Modernization Projects in 19th century II Meiji
- Modernization Projects in 19th century III Joseon
- Women in East Asia (1850-1900)

Module 2: Colonialism and Imperialism in the region (1870 – 1945)

-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Dissolution of the Qing Empire
- Colonial Korea
- Japanese Imperial Expansion and its effe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
- Women in East Asia (1900-1945)

Module 3: Post-Pacific War and Cold War in East Asia

- Political Reorganization of the Region: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 The Popular Republic of China and the Democratic Popular Republic of Korea
- Postwar Japan: its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Opposition to the Authoritarian Regime and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 Women in East Asia (1945-2000)

The main themes covered in the syllabus are organized in the three chronological modules. The first module deal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regional situation around mid-nineteenth century, considering economic and social crisis in the region. In addition, this module covers the challenges posed by European and American powers, and the transformation that followed. Despite the organization of the material is organized around each of the main governments, the comparative element during the teaching is key.

The second module focus its attention on the imperialist projects in the region and the final instances of colonization. This section focus mainly on the Japanese Empire and colonial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power dynamics in the regions and as a starting point to understand later the effects of colonialism. Unfortunately, the lack of enough time forced me to reduce the space to consider the Chinese reactions to the Japanese expansion on mainland China and the period between the I Republic of Chin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third module presents the events after 1945 in the region, focusing its attention this time on the consolidation of the Cold War. The first class devotes itself to explain the years right after 1945 and

how the USA and URSS maneuvered in the region to position themselves. After that, the perspective takes ones again a national view around the idea of two blocs: communist countries (PRC and DPRK) and capitalist countries (ROK and Japan).

A transversal theme to the three blocs is class devoted to the history of women in the region. This theme is treated in a thematic seminar directed by an expert on the subject (prof. Doménech) with its own space in the evaluation of the subject. The seminar answers to the increasing number of research on gender studies in the region, including history.

The subject uses two general manuals for the whole region and one specific for Korea. The books that consider the history of the region are the Goldman, M. y Gordon, A. (ed.), *Historical Perspectives on Contemporary East Asi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and Ebrey, Walthall, *Modern East Asia from 1600. A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Boston: Wadsworth, 2014). They provide a broad interpretative interpretation of the region for the period and themes of interest in the subject. Meanwhile, Korean history is presented based on the manual Robinson, Michael E., *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A short histor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These manuals are complemented with research articles or chapters from monographs to complement on more specific aspects. The readings from these manuals are used as starting point for the discussion in class, providing the students with basic information about the themes for the class and a set interpretation. Then, during the discussion, such interpretation is analyzed in connection with previous classes.

Jeju 4·3 Incident in the Syllabus of Modern History of East Asia

The Jeju 4·3 Incident does not have a large presence in the syllabus, but it is considered in at least three classes in module 3 from different perspectives, depending on the main theme of the class:

1. Political Reorganization of the Region: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 Cohen, W. “The Foreign Impact on East Asia” in *Historical Perspectives on Contemporary East Asi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20-31
 - Robinson, Michael E., *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A short histor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100-120
2.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Robinson, Michael E., *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A short histor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121-145
3. The Opposition to the Authoritarian Regime and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 Lim Chae-Hong,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nticommunist Ideology in Korean Society,” *Korea Journal* 46.3 (Autumn 2006): 80–102

- Namhee Lee, “Representing the Worker: The Worker-Intellectual Alliance of the 1980s in South Korea,” *Journal of Asian Studies* 64 (November 2005): 911–37

The first class deals with the organization of the Cold War system in the region at large. It considers the issue from the geopolitical perspective, taking in consideration the local actors and their interaction with the superpowers. From that perspective, the Jeju 4·3 Incident is presented as it was interpreted by the US, a communist uprising. This is connected to the evolution of the civil war in China and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Japan. However, it is only mentioned in class in connection with the later events at Sunch'on and Yösu.

The second class analyz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since 1945, starting from the popular committees. This class takes some more time to analyze the events in Jeju as part of the popular committee movement, but mostly as the trigger for the later events at Sunch'on and Yösu and in relation to the early anti-communist policy conducted by Syngman Rhee and his regime. This class mentions also that despite the lack of connection of the people in Jeju with communists, the interpretation by the government as a pro-communist uprising explains its repressive methods. The class also presents the US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repression, presenting it as an antecedent for the later participation of the USA in the Korean War.

The third class start with an analysi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s one of the main instruments of South Korean authoritarian and dictatorial regimes to control the political opposition. The analysis of this law follows Lim's article and starts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the law was firstly enacted. That leads directly to the Jeju 4·3 Incident and the Sunch'on and Yösu events.

These three classes take in consideration the Jeju 4·3 Incident from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Firstly, it presents the event as part of a larger strategy developed by the US in the region directed to contain communism. Secondly, it presents the event as part of the popular movement that tried to organize the political life of the peninsula after the Liberation, and in connection with the Sunch'on and Yösu events. Finally, the third class deals with the Jeju 4·3 Incident as historical context for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the construction of a harsh instrument of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rol in the peninsula.

Postgraduate Courses at the University of Malaga

The first class of the degree on East Asian Studies – Specialized on Korean Studies graduated in 2015. After that moment, every year around 40 or 50 students graduate, and many are already looking for a postgraduate program to further their education. In order to answer that demand the University of Malaga has been working for some time in a postgraduate program focused on Korean Studies in

Spanish. The result has been a project now under review of the university for a postgraduate program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 with Korea.” The degree still falls short of a full MA, but it is a serious attempt to develop one in the near future.

This program has 30 ECTS and aims to train graduate students in the interconnections among Korea, Latin America and Spain. The degree has a strong focus on conducting an anthropological analysis of the interconnections developed among these three areas. The analysis of those connections is conducted from the idea of “interculturality” as driving theoretical frame, promoting the study of the interactions of Korean culture with Latin America and Spain at different levels. As such, it appeals to specialists in Korean Studies, Anthropolog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urriculum is organized around five modules:

- International and Transcultural Relations
- Korea: Present past and future
- Economic Relations Korea-Iberoamerica
- Tourism, Identity, and Cultural Exchanges
- Reserch on Korean Studies

The modules “Korea: Present, past and future” and “Tourism, Identity, and Cultural Exchanges” have also subjects related to the modern history of Korea relevant for the topic of this essay. The particular syllabus of individual subjects are still under design by the professors in charge, but some ideas can be already advanced.

The module on “Korea: Present, past and future” (7 ECTS) focuses on themes regarding history, law and Korean language. In particular, it has two subjects regarding modern Korean history: Modern Korean History (1945-2010) (1 ECTS) and New trends on Modern Korean history (2 ECTS). The Modern Korean History is a subject designed to present the recent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do so, the subject will review the most relevant bibliography on the subject mainly, including relevant literature about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Liberation of Korea and the Jeju 4·3 Incident. The first ideas to include the Jeju 4·3 Incident would follow its interconnection with the US policy of anti-communism suppor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authoritarian regime by Syngman Rhee and its government.

The second module on “New trends on Modern Korean history” will follow a seminar structure for the analysis of recent historiography on Modern Korean history. In that regard, it would change accordingly to recent publications. Nevertheless, it is the objective to include monographs related to collective identities and memorialization and state violence under the Cold War. In both themes, monographs about the Jeju 4·3 Incident would be very welcome for their analysis.

Finally, the third subject belong the module “Tourism, Identity, and Cultural Exchanges.” This subject, titled “Cultural Identities in Korea: heritage, cinema and art” (2 ECTS), aims to explore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collective identities in the context of tourism. In particular, it is interested in the mobilization of heritage, cinema and art for that purpose, trying to go beyond government projects. Thus, it also seeks to present counter-narratives developed from the civil society. The method of studying such phenomena would be through a case study that could capture such elements. The Jeju 4·3 Incident could be such example or at least part of the short list for such case studies. In that regard, the treatment of the Incident would take several forms: the analysis of the historical facts, the political process around the research of the Incident, the memorialization and regular commemoration of the events, and the analysis of such events in mass media and art. As a case study, this seminar would go in depth about the theme of the seminar, but the interest of the subject would be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analytical tools to develop their own independent studies around heritage, tourism, art and media.

Conclusions

The Jeju 4·3 Incident has a limited space in current history classes at the University of Malaga. The academic focus of the bachelor degree lays on providing a general context to the region of East Asia, and a specialization on Korea. This educative project focuses on providing students with a multidisciplinary knowledge that can be furthered later on based on individual interest of each student through a postgraduate program. This perspective provides a limited space for subjects on modern history, as there is not enough time to cover each discipline in depth.

The Modern History of East Asian subject must cover an extensive period from a regional history perspective in order to fulfill its educative purpose within the degree. That leads to limit the space for considering Korean history, even if the subject tries to put it in the center of the subject. Consequently, the consideration for the events in Jeju also have a limited space in the subject syllabus.

The presentation of the Jeju 4·3 Incident in the subject of Modern history of East Asia links it to the general process of Cold War system development in the region, the anti-communist policy of Syngman Rhee's regime and the construction of an authoritarian state. The consideration of the Jeju Incident within these larger themes allow students interpret the incident from different angles, but there is not much space in the subject for a detailed analysis of the event itself. That should be left for a more specialized program.

The postgraduate program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 with Korea provide a more suitable educative space at the university to deal with events such as the Jeju 4·3 Incident. The three subjects related to history and cultural studies make possible to analyze the event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and its memorialization. Unfortunately, the specific syllabus have not been developed yet, and it is only possible now to point out the potentialities of the subject regarding the

Jeju 4·3 Incident. The event is, nevertheless, at the crossroad of important themes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 and East Asia, the division of Korea, the Cold War system in the region, the memorialization of traumas, or human right issues just to mention a few.

말라가 대학 제주 4·3사건(스페인)



Botella, Luis
Researcher, University of Malaga in Spain

초록

본 발표는 말라가 대학 교과목에서 제주 4·3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상황을 제시하여 제주 4·3사건의 역사 기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즉, 본 발표는 동아시아학 학사 학위 프로그램의 동아시아 현대사 교과목, 그리고 역사, 유산, 기억과 관련된 대학원의 전문 한국사 프로그램인 ‘한국의 국제, 경제, 문화 관계’를 다룰 것이다. 두 학위 프로그램은 다양한 접근법과 학습자료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제주 4·3사건을 다룬다.

이 제주 4·3사건은 한반도가 극한의 어려움에 시달릴 때 발생한 비극이다. 동시에, 이 사건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직면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한국인들이 함께 의미 있는 과거를 수립하는 새로운 순간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스페인은 스페인 시민 전쟁(1936-39)이라는 괴로운 시기를 보냈고, 희생자들의 상처를 섬세하게 돌봐야 하는 순간에 마주했다. 안타깝게도 진실 화해 위원회를 창설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이 스페인의 현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제주 4·3사건의 추모를 가능하게 한 여러 절차와 노력은 관계자들의 방패막이 되어 주고, 미래 세대의 이 사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축하 받아야 옳다. 본 발표는 이 성공적인 추모에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본 발표는 제주 4·3사건을 다루는 한국 대학의 여러 교과목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필자는 우선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배경을 제시하여 각 과목이 제주 4·3사건을 얼마나 다루는지에 대해 이해를 꾀할 것이다. 또한, 필자는 각 과목의 종합 시간표도 함께 제시하여 제주 4·3사건에 대한 접근법을 밝힐 것이다. 우선 동아시아학의 학사 학위 프로그램(한국학 전문 프로그램)과 동아시아 현대사 수업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말라가 대학의 대학원이 개발 중인 프로그램과 제주 4·3사건을 다루는 세 교과목, 즉, 한국 현대사 (1945-2010),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역사 기록 경향, 한국의 문

학적 정체성: (문화)유산영화, 예술을 설명할 것이다. 본 발표는 한국 현대사, 제주 4·3사건의 발생 장소에 대한 각 과목의 다양한 역사기록적 접근법을 살펴볼 것이다. 본 발표의 목표는 제주 4·3사건과 관련하여 사용 가능한 해석적 구조의 다양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말라가 대학의 한국학

말라가 대학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은 대학 국제화 종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동안 말라가 대학은 여러 한국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며 유대를 쌓았고, 한국과의 관계와 프로젝트를 위한 전문 사무실을 세웠으며, 스페인에서 최초로 한국학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창설했다.

말라가 대학은 스페인 공립 대학이기 때문에 새로운 학위 프로그램을 출범하기에는 제약이 조금 있다. 말라가 대학이 한국학 학위를 그간 제공하지 못한 이유는 교육부가 공립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학위 프로그램 카탈로그를 편집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 목록에서 한국과 관련된 유일한 학위라고는 동아시아학 밖에 없었다. 따라서 말라가 대학은 세빌 대학교(University of Seville)와 연합하여 동아시아학 공동 학위를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이 학위 덕분에 국가에 따른 더 깊은 연구가 가능해졌다. 두 대학의 공동 위원회는 세빌대학이 일본학, 중국학을, 말라가 대학이 한국학을 맡도록 결정했다.

이 결정은 동아시아학 학위의 설계와 그 안에서 한국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영향을 주었다. 이 학위의 교육 목표는 학생들의 전문기술과 학업 성취를 위한 언어 교육과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 학위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지역의 배경 지식을 강조하며 각 프로그램(중국, 일본, 한국학)에 따른 지역별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각 지역이 다른 국가와 연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전문화를 꾀했다. 따라서 이 학위는 동아시아에서 지역별 정체성, 지역 간 관련성과 이주 동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동아시아학 학위는 유럽고등교육(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of Education)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유럽학점인수시스템(ECTS, the 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의 240학점을 보유하고 있다. ECTS는 1학점을 강의와 개인 과제를 포함하여 15-25시간의 과정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240학점의 ECTS는 5개의 기본 그룹으로 나뉜다. 기초 교육 그룹은 (ECTS 60학점) 동아시아에 대한 종합 지식에 집중한다. 언어 교육 그룹은 (ECTS 48 학점) 동아시아의 3가지 주요 언어 중 하나를 교육하는 데 집중한다 (중국어, 한국어 또는 일본어). 한국학을 가르치는 말라가 대학은 한국어 교육에만 주력한다. 사회 문화 그룹은 (ECTS 72 학점) 그 초점이 동아시아와 한국이라는 두 지역으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 그룹과 (ECTS 54 학점) 논문 그룹은 한국학에 초점을 맞춘다.

학위 커리큘럼 내에서 한국사를 가르칠 때는 다음 5개의 주요 과목을 활용한다: 동아시아 전근대사, 동아시아 초기 현대사, 동아시아 현대사, 동아시아 정치 체제, 한국 정치와 전략지정학. 본 발표에서 가장 주목하려는 과목은 바로 동아시아 현대사이다. 명백히 드러나듯이, 한국사는 지역사라는 틀 안에서 제시된다. 여러 교과목에서 현대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항상 지역적 관점에서 현대사를 취급한다. 학사 프로그램 수준에서는 동아시아 현대사 과목만이 유일하게 제주 4·3사건을 다룬다.

동아시아 현대사

동아시아 현대사 과목은 사회 문화 그룹에 속하며 ECTS 6 학점에 해당한다. 이 과목의 목표는 아래의 동아시아학 학위 종합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 3개를 달성하는 것이다.

- E14: 근현대의 서양과 동아시아 간 문화교류 분석
- E19: 현대 동아시아 문화의 혼합된 전통과 현대적 요인 분석
- E20: 현대 동아시아의 역사 과정 전개 이해

위의 목표에 따라 개발된 이 과목 프로그램은 지역적 관점, 문화 분석, 서양과의 교류를 탁월한 방식으로 다룬다. 이 과목은 약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말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주요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를 묘사하는 종합적 접근법을 취한다.

동아시아 현대사는 동아시아학 학위의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목표를 다루는 데 집중한다. 첫째, 적합한 한국사 과목이 부족한 것이 한국학의 큰 문제이다. 이 과목의 한계를 고려하여 필자는 한반도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현대사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한국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사의 일반 연구에서 드러나는 부차적인 정보를 추가하는 데 시간을 더 할애할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현대사는 동아시아의 사건을 제시할 때에 다국적인 관점을 취한다. 그 결과, 국가적인 차원보다 더 큰 차원에서 동아시아의 사건을 바라본다. 3개 주요국(한, 중, 일) 간의 유대, 차이점, 유사점이 이 교과목에서 반복되는 주제이자 전략이다.

이 프로그램의 시간표는 14-15회의 수업으로 나뉜다(은행휴일에 따라 수업 횟수가 바뀔 수 있다):

모듈1: 동아시아, 구조 변화와 새로운 현실 (19세기)

- 19세기의 동아시아. 19세기 근대화 과정1: 청 왕조
- 19세기 근대화 과정 2: 메이지
- 19세기 근대화 과정 3: 조선
- 동아시아의 여성 (1850-1900)

모듈2: 동아시아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1870 - 1945)

- 일본의 제국주의와 청 제국의 소멸
- 식민지 한국
-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과 그로 인한 한반도와 중국의 영향
- 동아시아의 여성(1900-1945)

모듈3: 태평양전쟁 후와 냉전 시대의 동아시아

- 동아시아의 정치적 개편: 냉전의 시작
-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전후 일본: 정치, 경제 발전
-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발전
- 독재 정권에 대한 반발과 한국의 민주화
- 동아시아의 여성 (1945-2000)

이 교수요목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는 세 가지 시간별 모듈로 분류된다. 모듈 1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사회 위기를 포함하여 약 19세기 중반의 지역적 상황을 소개한다. 또한 이 모듈은 유럽과 미국 강대국의 위협과 그에 따른 변화를 다룬다. 학습 자료는 세 정부에 따라 각각 분류되지만, 학습 시간에는 비교 작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듈2는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과정과 마지막 식민지 사례에 집중한다. 이 수업은 주로 일본 제국과 식민지 한국에 집중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힘의 균형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식민주의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부족한 탓에 필자는 중화민국(I Republic of China)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시기에 일본의 중국 본토에서의 확장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한편, 모듈 3은 1945년 이후 냉전 시대의 동아시아에 집중한다. 1차 수업에서는 1945년 이후의 상황과 미국과 소련이 동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조종했는지를 살펴본다. 그 이후에, 공산주의 국가(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와 자본주의 국가(대한민국, 일본)의 두 진영에 대해 국가적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본다.

위 3개의 모듈을 관통하는 주제인 동아시아 여성의 역사에 주목하는 수업이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Doménech 교수)가 지도하는 주제별 세미나로 진행되며, 이 주제를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이 세미나는 역사를 포함하여 점점 늘어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젠더학 연구에 답변을 제시한다.

이 과목은 동아시아 전체를 다루는 서적 두 권과 한국 전용 서적 한 권을 활용한다. 동아시아 역사를 살펴보는 서적들로는 Goldman, M.과 Gordon, A. (편집자)의 현대 동아시아의 역사적 시각(*Historical Perspectives on Contemporary East Asia*, 캠브리지 매사추세츠: 하버드 대학 출판부, 2000), Ebrey, Walthall의 *1600년대 이래로의 근대 동아시아(Modern East Asia from 1600)*의와 *문화, 사회, 정치적 역사(A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보스톤: Wadsworth, 2014)가 있다. 이 서적들은 각 시기의 동아시아의 역사에 주목하여 광범위한 해석을 제시한다. 한편, 한국사는 Robinson, Michael E.의 *한국의 20세기 대서사시. 간략한 역사(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A short history*, 호놀룰루: 하와이 대학교 출판부, 2007) 를 활용하여 제시된다. 나아가 이러한 서적들과 더불어 연구 논문이나 특수 연구서의 여러 장을 추가 자료로 활용하여 각 측면을 더 살펴본다. 학생들은 이러한 참고 자료를 읽으면서 수업 주제에 대한 기본 정보와 여러 해석을 익히고 토의 수업에 참여한다. 그리고 토의 시간에 이러한 해석을 이전 수업 때 배운 것과 연계시켜 분석한다.

동아시아 현대사 시간표의 제주 4·3사건

제주 4·3사건은 교수요목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모듈 3의 3개 이상의 수업에서 각기 다른 주제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다:

1. 동아시아의 정치적 개편: 냉전의 시작
 - 현대 동아시아의 역사적 시각 (캠브리지 매사추세츠: 하버드 대학 출판부, 2000) 20-31쪽, Cohen, W. 의 “동아시아에 가해진 외국의 영향 (The Foreign Impact on East Asia)”

- Robinson, Michael E.의 *한국의 20세기 대서사시. 간략한 역사 (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A short history*, 호놀룰루: 하와이 대학교 출판부, 2007) 100-120쪽
- 2.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발전
 - Robinson, Michael E.의 *한국의 20세기 대서사시. 간략한 역사 (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A short history*, 호놀룰루: 하와이 대학교 출판부, 2007) 121-145 쪽
- 3. 독재 정권에 대한 반발과 한국의 민주화
 - 임채홍, “한국 사회의 국가보안법과 반공주의,” *코리아저널* 46.3 (2006년 가을호): 80-102쪽
 - 이남희, “노동자 대변: 1980년대 한국의 노동자, 지식인 연합,” *아시아학보(Journal of Asian Studies* 64, 2005년 11월호): 911-37쪽

1차 수업은 동아시아에서 냉전 체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본다. 지역별 주체, 그리고 그들과 강대국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를 바라본다. 이 관점에 따라 제주 4·3사건은 미국에 의해 공산주의자 폭동으로 묘사된 사건으로 제시된다. 이는 중국의 내전과 일본의 미군정부와 연관된다. 그러나 수업에서는 이후에 벌어진 순천과 여수 사건과 연관지어 이를 언급할 뿐이다.

2차 수업은 1945년 이후 인민위원회 설립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발전을 다룬다. 이 수업은 제주 사건을 인민위원회 활동 중 하나로 분석하는 데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나, 주로 이승만과 그 정권에서 초기에 시행한 반공산주의 정책과 관련하여 순천과 여수의 기폭제 정도로 설명한다. 또한 이 수업은 제주 주민들이 공산주의자와의 연계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친공산주의 반란으로 해석한 것은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을 보여준다고 언급한다. 나아가 이 수업은 진압 과정에 미군이 참여한 것을 미군의 한국 전쟁 참전의 징조로 제시한다.

3차 수업은 남한 독재정권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정책인 국가보안법을 분석하며 시작된다. 분석 후에, 임채홍의 논문을 읽으며 국가보안법이 처음 제정된 역사적 상황을 확인한다. 그 직후에 제주 4·3사건과 순천, 여수 사건을 다룬다.

이러한 3개 수업은 제주 4·3사건을 세 가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우선, 이 사건을 공산주의자가 있었던 여러 지역에서 미국이 사용한 큰 전략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있다. 다음으로 광복 후에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을 정리하려는 민중 운동이자, 순천, 여수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마지막으로 3차 수업은 제주 4·3사건을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한반도의 엄격한 정치, 사회적 통제 수단의 수립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바라본다.

말라가 대학 대학원 교과목

동아시아학 학위(한국학 전문)의 최초 수업은 2015년에 마쳤다. 이후 매년 약 40~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그 중 다수가 이미 교육 심화를 위해 대학원 프로그램을 모색 중이다. 말라가 대학은 이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스페인어로 한국학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대학원 프로그램을 창설하는 데 시간

을 들여왔다. 그 결과, “한국의 국제적 경제, 문화 관계”에 대한 대학원 프로그램을 현재 검토 중이다. 아직 완벽한 문학 석사 프로그램을 수립하기엔 부족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를 창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ECTS 30학점으로 구성되며, 한국,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을 연결하여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 학위는 이러한 세 지역 간에 발달한 상호관련성을 인류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관련성 분석은 “상호문화성”이라는 개념을 강력한 이론적 틀로 사용하며 출발하여, 다양한 차원에서의 한국 문화,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 간 상호작용 연구를 촉진한다. 이처럼 이 학위는 한국학, 인류학,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매혹시킨다. 이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은 5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 국제 및 횡문화적 관계
- 한국: 현재, 과거, 미래
- 한국과 중남미의 경제 관계
- 관광업, 정체성, 문화 교류
- 한국학 연구

“한국: 현재, 과거, 미래”과 “관광업, 정체성, 문화 교류” 모듈에는 본 에세이의 주제와 관련된 한국의 현대사와 연관된 과목들도 포함된다. 각 과목의 시간표는 아직 담당 교수들이 설계 중이나, 그 중 일부는 이미 고안되었다.

“한국: 현재, 과거, 미래” (ECTS 7학점) 모듈은 역사, 법, 한국어 관련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두 교과목이 존재한다. 바로 한국 현대사 (1945-2010) (ECTS 1학점)와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동향 (ECTS 2학점)이다. 한국 현대사 과목은 대한민국의 최근 역사를 제시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목표를 위해, 이 수업은 한국 현대사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참고문헌을 주로 검토할 것이며, 그 예로는 미군정부, 한국 광복, 제주 4·3사건 관련 문헌이 있다. 수업에서 4·3사건 등을 첫 개념으로 다루며 미국의 반공산주의 지원 정책과 이승만 정부의 독재 체제 수립과 4·3사건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동향”에 관한 두 번째 모듈은 세미나 형식으로 한국 현대사의 최신 역사 기록학을 분석한다. 따라서 최신 출간물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집단 정체성과 추모, 그리고 냉전 시대의 국가적 폭력과 연관된 특수 연구서를 다루는 데 있다. 이 2가지 주제를 위해 제주 4·3사건 관련 연구서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목은 “관광업, 정체성, 문화 교류” 모듈에 속한다. 이 과목 명칭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 유산, 영화, 예술” (ECTS 2학점)으로, 그 목표는 관광업의 측면에서 집단 정체성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목은 유산, 영화, 예술을 정부 프로젝트 외에 다른 곳에서도 활용하는 데 관심을 둔다. 따라서 시민 사회에서 형성된 대항담론을 제시하는 것도 그 목표 중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이러한 요소를 잘 포착하는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된다. 제주 4·3사건도 그 사례 중 하나로 선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사례 연구의 주제 후보로 꼽힐 것이다. 이와 같이, 제주 4·3사건을 다음의 여러 형식으로 다룰 것이다: 역사적 사실, 4·3사건 연구를 둘러싼 정치적 과정, 이 사건의 추모와 정기적 기념행사에 관한 분석, 대중매체와 예술에서 이 사건을 묘사하는 방식에 대한 분석. 이 세미나의 주제를 하나의 사례 연구로서 깊게 다룰 것이지만,

이 과목의 요점은 학생들에게 유산, 관광업, 예술, 매체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를 위한 분석적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다.

결론

제주 4·3사건은 현재 말라가 대학의 역사 수업에서 그 비중이 적다. 말라가 대학 학사 학위의 교육 목표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한국의 전문 정보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 교육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여러 학문에 걸친 지식을 제공하여, 이들이 추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각자의 관심사를 더 깊게 탐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각 학문을 깊게 다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현대사 교과목의 비중이 크지는 않다.

동아시아 현대사 과목은 이 학위의 교육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역적 역사를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한다. 한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해도, 이 과정에서 한국사 교육 시간이 줄어들고 만다. 따라서 과목별 시간표에서 제주 사건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다.

동아시아 현대사 교과목에서 제주 4·3사건을 다룰 때는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냉전체제의 전반적 과정과 이승만 정부의 반공산주의 정책과 독재 국가의 수립을 연관지어 설명한다. 제주 4·3사건을 이렇게 더 큰 주제 하에서 바라보며 학생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게 되지만, 이 사건 자체를 깊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다.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국의 국제, 경제, 문화 관계에 관한 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해 말라가 대학은 제주 4·3사건 등을 더 잘 교육할 수 있다. 역사, 문화학과 연관된 세 과목으로 제주 4·3사건을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추모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간표는 작성되지 않았고, 현재는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교과목의 잠재력만을 언급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주 4·3사건은 한국과 동아시아 현대사, 한반도 분단, 동아시아 냉전 체제, 외상과 추모, 또는 인권 문제 등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PROBLEMATIZING TERMS AND CONCEPTS

- **'KOREA'**
 - **KOREAN PENINSULA**
 - **KOREAN NATION**
 - **CONTEMPORARY KOREAN STATE(S)**
 - **HISTORICAL KOREAN STATES**
 - **KOREAN PEOPLE**
 - **NOT VERY HISTORICAL**

ANOTHER PROBLEM: 'HISTORY'

- ***THAT BRANCH OF KNOWLEDGE WHICH DEALS WITH PAST EVENTS, AS RECORDED IN WRITINGS OR OTHERWISE ASCERTAINED; THE FORMAL RECORD OF THE PAST, ESP. OF HUMAN AFFAIRS OR ACTIONS; THE STUDY OF THE FORMATION AND GROWTH OF COMMUNITIES AND NATIONS.***

THE STATE LOOMS LARGE

- ***AN ACCOUNT OF FACTS RESPECTING NATIONS OR STATES; A NARRATIVE OF EVENTS IN THE ORDER IN WHICH THEY HAPPENED WITH THEIR CAUSES AND EFFECTS.***

BUT PERHAPS NOT EVERYWHERE?

- ***HISTORY: AN ACCOUNT MOSTLY FALSE, OF EVENTS MOSTLY UNIMPORTANT, WHICH ARE BROUGHT ABOUT BY RULERS MOSTLY KNAVES, AND SOLDIERS MOSTLY FOOLS.***

FROM KORYŎ TO 4.3 ON CHEJU (T'AMNA)

- **INCORPORATING A PREVIOUSLY INDEPENDENT COMMUNITY**

THE MONGOL INVASIONS

- **THE THREE EXTRAORDINARY WATCHES OR SAMBYŎLCH'Ŏ**

LAST STAND AT T'AMNA

- NO SAY IN DECISION
- THE STATE INTERVENED NOT ONCE BUT TWICE
- CHANGE IN NATURE

MONGOL PASTURES



BUT ONWARDS TO THE 20TH CENTURY

- **THE 20TH-CENTURY NARRATIVES OF THE THREE EXTRAORDINARY WATCHES OR SAMBYŎLCH'Ŏ**

INCORPORATION INTO THE STATE

- **SYMBOL OF THE NATION**
- **ERASURE OF COMPLEXITY AND CONTEXT**

FROM THE SAMBYŎLCH'Ŏ TO 4.3

- **AGAIN, EVENTS UNFOLDING ON THE MAINLAND SPILLED OVER TO CHEJU**
- **PROBLEMATIC POSITION OF CHEJU WITHIN THE STATE: STATE-CENTRED HISTORICAL NARRATIVES INHERENTLY LIMITED**
- **SUFFERING TWICE: FIRST DURING 4.3 ITSELF AND LATER IN ITS REDUCTIVE RECOUNTINGS FROM POINT OF VIEW OF THE NATION-STATE,**
- **EQUIVALENT TO MONGOL DESTRUCTION OF T'AMNA AND ITS SUBSEQUENT ENSHRINEMENT IN KORYŎ HISTORY.**

CONCLUSION

- **THE POSITION OF T'AMNA/CHEJU IS AN IMPORTANT WAY TO DISCUSS BOTH IMPORTANT HISTORICAL EVENTS THEMSELVES (THE RESISTANCE OF THE SAMBYŎLCH'Ŏ, 4.3) AND TO DRAW ATTENTION TO THE DANGERS AND PITFALLS OF STATE-CENTERED HISTORIOGRAPHY**

CONCLUSION

- **THE CONTINGENT NATURE OF THE NATION-STATE EMERGES CLEARLY FROM WHAT THE CENTRE CONSIDERS ITS TERRITORIAL, LINGUISTIC, 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MARGINS**
- **ANY STATE- OR NATION-CENTRED NARRATIVE WILL INEVITABLY SUBJUGATE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TAMNA/CHEJU TO ITS PURPOSES**
- **THIS IS TO DETRIMENT OF THE RICH ABUNDANCE OF HISTORICAL EXPERIENCES THAT DO NOT FIT THE CENTRAL MOLD. ESPECIALLY IN THE CASE OF HUMAN TRAGEDY ON THE SCALE OF 4.3, IT IS IMPERATIVE NOT TO LOSE SIGHT OF ITS PROPER AND ORIGINAL CONTEXT**



**Historical narratives from the
margins:
On Teaching Korean and Jeju history and 4·3**
**옆에서 본 역사적인 서사:
한국과 제주의 역사, 4·3 가르치는 것에 대해**

Breuker, Remco E.
Professor of Korean Studies, Faculteit der Geesteswetenschappen Leiden
Institute for Area Studies SAS Korea, Universiteit Leiden

Historical narratives from the margins: On Teaching Korean and Jeju history and 4·3



Breuker, Remco E.
Professor of Korean Studies, Faculteit der Geesteswetenschappen Leiden Institute
for Area Studies SAS Korea, Universiteit Leiden

Teaching Korean history outside of Korea to audience largely of wholly unfamiliar with Korean history is a pedagogical challenge as well as an intellectual one. I have been teaching Korean history until 1876 for over 15 years and although largely, the periods, events, and people I teach about have remained more or less similar, the course itself has changed significantly. Evidently, since the course stops in 1876, the events leading up to 4·3 in Jeju are not covered in the course. At the same time, I do mention what happened after liberation on Jeju. There is a seeming contradiction here, that I hope to put into context by explaining my perception of what history is and how that informs teaching practices of historical courses, in particular related to Korea.

The educational goals of the course *Korean History until 1876* are as follows:

Using a standard reference work, a collection of original primary sources, and a number of academic articles, students will get acquainted with the outline of Korean history until 1876, the emergence of religions and state ideologies, and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the historical discipline.

Students are further expected to:

Enlarge their knowledge of Korean history by reading a large number of primary and secondary texts that stimulate students to consider what (the writing of) history is, in what context texts should be understood, how sources operate, and how one can tease information from textual sources.

The course is taught as in classical lecture format, but which as much critical interaction with the

students as is possible. Students are obliged to submit a mid-term critical essay and to make the final exam.

The course starts with an introduction and problematization of the terms and concepts used in the literature and during the course itself. First, rather obviously, is the term (and notion) of 'Korea', which may be understood to refer to states on the Korean peninsula, to contemporary North and/or South Korea, to the Korean peninsula, to the Korean nations, and so forth and so on. In line with the strong critical orientation of the course, it is noted that using 'Korea' in the sense of the Korean nation or of a contemporary Korean state is ahistorical and ideological, rather than academic. Both the noun 'Korea' and the derived adjective 'Korean' are only used to refer to contemporary North and/or South Korea during the course. Any other state is referred to by its official name: Shilla, Koryō, Chosŏn, et cetera. While there is a strong historical argument to be made that the historical, political, territorial, linguistic, economic, and cultural continuities between these states outweigh the equally present discontinuities, I have found it advisable not to teach Korean history in a teleological fashion in which the present-day state of affairs is retroactively legitimized. This, as we will see later on in this paper, has a direct bearing on Jeju and 4·3. It should not pass unnoticed that in explaining and defining the notion of 'Korea' I do not solely rely on premodern notions of state, nation, and territory, but as much, or perhaps even more on contemporary problematized notions of the term. It is a truism that the writing of history is always also a commentary on or a processing of contemporary affairs. As such, teaching history always incorporates contemporary elements as well, which I try to make explicit by constantly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historical period and theme under consideration (for example, the Mongols in Koryō) and the historiography in later periods up to the contemporary period that shaped and shape our understanding of it (e.g. the way the Sambyōlch'o – the Three Extraordinary Watches who fought the Mongols- served as a proxy for resistance against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in historical writings of the colonial period).

By shifting continuously between history 'as it really happened' (at least, to the degree that we can still access what happened and with the understanding that plural and contradictory readings of the past are possible – and I'd argue even necessary) and the history as we understand it now through the narratives we construct from its traces, I hope to instill a sense of both the fragility, contingency, and fundamentally contextual nature of historical understanding, the impossibility of full understanding of the past, and of the formative nature of contemporary concerns in shaping historiography. This, of course, is a course of action that ultimately leads to some of the students criticizing the entire set up of the course as overly teleological, in the sense that it focuses too much on the Korean state as it is now – or properly speaking, as they are now, although I have to admit that my course is heavily slanted towards South Korean historical understanding.

There are more terms and notions I critically discuss with the students, premodernity and modernity, for example, or the notion of human agency, but I will leave these out of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notion of ‘history’, however. While the course is primarily designed to acquaint students with historical events and such that took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some notion, even if fleeting, of the problematic nature of what history is, I find necessary to discuss. The most important realization I want the students to make is that nation- and state-centered histories are constructs; constructs that have proven to be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way of understanding history, but constructs nonetheless. Easing students into a very limited discussion of the philosophy of history (a field that in my experience has proven able to chase students away very efficiently by merely mentioning its name), commonsensical definition such as the one in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make the point abundantly:

That branch of knowledge which deals with past events, as recorded in writings or otherwise ascertained; the formal record of the past, esp. of human affairs or actions; the study of the formation and growth of communities and nations.

Or else a very classic definition (that ultimately says very little) from Webster’s Thesaurus:

An account of facts respecting nations or states; a narrative of events in the order in which they happened with their causes and effects.

The point I am looking to drive home, though, is the following point:

History: an account mostly false, of events mostly unimportant, which are brought about by rulers mostly knaves, and soldiers mostly fools.

The satirical tone of Ambrose Bierce’s definition notwithstanding (from *The Devil’s Dictionary*), there is perhaps more factual and verifiable truth in his jocular definition of history than in the preceding two definitions. Now, what is the connection of this with Jeju history and in particular with the events leading up to and including 4-3?

In having the students realizing that the state is often the centre of history because it is the state that often writes history, one can create room, marginal (in the literal sense of the word, though it is, for other understandings of history that do not put the state in the middle. In discussing Korean medieval history (this is by the way a term I avoid using in my classes; I use the term ‘Koryŏan history’ to sidestep the implied teleology), Jeju occupies an important place. Again, I do not refer to it as ‘Jeju’ in class, but I use its contemporary name ‘T’amna’. I discuss its relatively late incorporation into the territory of the Koryŏ state (during the reign of Yejong) and the fact that T’amna had at times been perceived (and had perceived itself) as an independent political, territorial, linguistic and economic community. The incorporation into the Koryŏ state gradually transformed a previously independent territory into the very margins (in all possible respects) of Koryŏ society. Jeju’s infamy as a place of exile for politicians, bureaucrats, and scholars fallen from royal grace during the Chosŏn dynasty is a

direct consequence of these, which I never fail to point out to students. The moment T'amna came to be inextricably intertwined with continental history came at the cost of great suffering: not comparable to 4·3, but not to be ignored either. During the resistance against the Mongol invaders in the 13th century, the final battle after decades of fighting took place on what is now Jeju Island.¹⁾ While the Koryŏ had been divided in two warring factions, the faction led by King Wŏngjong had submitted to the Mongols, which had given them the upperhand in terms of military power. The resistance was first defeated on Kanghwa-do, then on Chin-do and finally it was decided that the last stand of the armies known as the Three Extraordinary Watches or the Sambyŏlch'o, would take place on an island that was halfway to possible ally Japan and furthest from the power base of the Mongol-Koryŏ alliance: T'amna. Despite a number of years of preparations during which the island was fortified, however, in 1273 the joint Mongol-Koryŏ army invaded T'amna and slaughtered the resistance, including a significant number of local inhabitants who had been drafted into helping the Sambyŏlch'o. The Mongol leadership was sufficiently enraged at the rather efficient decades-long resistance against the Mongols, culminating in the fortification of T'amna (ruins of which can still be seen today, other ruins are being excavated), that the island came to fall under special Mongol management, effectively turning it into a large horse pasture. Although horses from T'amna had been famous from the reign of King Munjong onwards, efficient horse breeding with horses from Mongolia started only from 1276 on, after the Sambyŏlch'o's last stand on T'amna.

The important point here is that contemporary Koryŏ sources do not point to local inhabitants of T'amna having had a say in the decision to turn T'amna the place where the anti-Mongol forces would have their last stand. The price paid by the local inhabitants was steep. Years of forced corvée duties to build new fortifications were followed by an extremely bloody invasion, which finally culminated in a century-long subjugation of T'amna to the Mongols that would fundamentally change the nature of the island and its people.

This historical narrative is relatively straightforward. It becomes a really interesting narrative when you teach it in combination with 20th- and 21st-century historiography, in which the resistance of the Sambyŏlch'o resistance became an emblem of Korea's ultimately successful resistance against foreign invaders, be they Mongols, Japanese, Chinese or Europeans. Seen through the lens of the state, there is no real problem here, but seen through a localized point of view, through that of contemporary T'amna or even through that of present-day Jeju, a problematic complex immediately arises. Once independent (and with the cultural, linguistic, and historical sources to prove it), T'amna was incorporated into the Koryŏ state, where it –again unwillingly or at least without having been asked- suffered greatly through affairs of the state. It fundamentally changed through these events.

But we are still in the 13th century and we need to go the the 20th century. While the course I teach is

1) See Remco E. Breuker, 2012. “‘And now, Your Highness, we'll discuss the location of your hidden rebel base’: Guerrilla's, rebels and Mongols in medieval Korea.” *Journal of Asian History* 46.1: 59-95.

mainly and essentially about the premodern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I try to make continuous reference to the contemporary period. I also try to problematize the state- and nation-centred narratives that dominate Korean (and most other) historiographies. Focusing on T'amna in the 12th to 13th centuries problematizes the essential nature of the state and/or nation, still often presented as somehow natural or perennial. The historical composition of the Koryŏ territory tells a clear (and predictable) story of force and coercion that ended in T'amna losing its fundamentally independent status as neighbour and vassal. The bloodshed of the Mongol invasions elevated T'amna as the place of the last stand of the nec plus ultra symbols of the resilient nation during Koryŏ, but it neither had asked for this, nor did it escape serious suffering and casualties in the process.

To the twentieth century then. While there are few similarities between what happened in the late 13th century and what happened between 1948 and 1950, there are a number of more general characteristics that bear scrutiny and that I always discuss with the students. Again, events unfolding on the mainland spilled over to Jeju, leading to unimaginable loss of life. Again, the problematic position of Jeju within the state meant that historical narratives composed from a state- and/or nation-centred point of view are inherently limited in explanatory power. The risk of suffering twice, first during 4.3. itself and later in its unfailingly reductive recounting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nation-state, have turned out to be real and equivalent to the Mongol destruction of T'amna and its subsequent enshrinement in Koryŏ history.

In teaching Korean history, I have found that the position of T'amna/Jeju is an important way to discuss both important historical events themselves (the resistance of the Sambyŏlch'o, 4.3) and to draw attention to the dangers and pitfalls of state-centered historiography. The contingent nature of the nation-state emerges clearly from what the centre habitually considers its territorial, linguistic, 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margins. Any state- or nation-centred narrative worth its salt will almost inevitably subjugate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T'amna/Jeju to its purposes, which is to the detriment of the rich abundance of historical experiences that do not fit the central mold. Especially in the case of human tragedy on the scale of 4.3, it is imperative not to lose sight of its proper and original context.

옆에서 본 역사적인 서사: 한국과 제주의 역사, 4·3 가르치는 것에 대해



Breuker, Remco E.
Professor of Korean Studies, Faculteit der Geesteswetenschappen Leiden Institute
for Area Studies SAS Korea, Universiteit Leiden

한국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국 밖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것은 지적인 도전일 뿐만 아니라 교육학적으로도 도전이다. 나는 1876년까지 15년 동안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한국 사의 시기, 사건, 한국사를 배우는 대상들은 항상 비슷했다. 그러나 코스 자체는 크게 바뀌었다. 분명히 1876년 코스가 끝난 이후로는 제주 4·3 사건으로 이르기까지 발생한 일들이 코스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동시에 나는 해방 이후 제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 것이 역사적인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방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특히 한국과 관련된 역사 교육 과정)를 설명함으로써 문맥을 고려하고자 하는 나의 바람에는 일견 모순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인다.

1876년까지 이 한국사 코스의 교육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준이 되는 참고서와 1차 자료 원본, 수 많은 학술 논문을 사용하여 학생들은 1876년까지의 한국사와, 종교와 국가 이데올로기의 출현, 한국사 과목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개요를 탐구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또한 다음을 배울 것이다:

역사란 무엇인지, 어떠한 문맥적인 글을 이해해야 하는지, 어떻게 출처들을 활용해야 하는지, 텍스트로 된 출처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얻어내는지 등을 생각하게 만드는 많은 양의 1차, 2차 자료들을 읽음으로써 학생들은 한국사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게 된다.

코스는 전통적인 강의 형식으로 전달된다. 그러나 가능한 한 학생들과의 비판적인 상호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학생들은 중간 에세이를 제출해야 하며 기말 고사를 치러야 한다.

이 코스는 서적 및 코스 자체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들을 소개하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한

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한국'이라는 용어 (및 개념)을 설명한다. 이 용어는 한반도에 있는 두 국가들, 현대의 남한 및/ 또는 북한, 한반도, 두 개의 한국이라는 국가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코스는 비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라는 국가나 현대의 한국을 가리키며 한'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이라기 보다는 반역사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다. 코스를 강의하는 동안 사용되는 '한국'이라는 명사와 '한국인의 (한국의)'라는 형용사는 현대의 북한 및/ 또는 남한을 가리키는 데만 사용된다. 기타 한국사 속 국가들 (신라, 고려, 조선 등)은 공식적인 명칭으로 지칭된다. 이 국가들 간의 역사적, 정치적, 영토적, 언어적, 경제적, 문화적 연속성이 존재하는 불연속성을 뛰어넘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나는 한국의 역사를 목적론적인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목적론적인 방법은 현재의 정세를 소급해서 합리화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 및 4·3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다. 이는 추후 본 논문에서 다룰 것이다. '한국'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정의하는 데 있어서 국가, 나라, 영토에 대한 전근대적인 개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어의 현대적인, 문제화 된 개념을 사용할 것임을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언제나 동시대의 정세를 가공하는 행위이거나 동시대의 정세에 대한 해설이라는 사실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에는 항상 동시대의 요소들을 결합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나는 언제나 과거의 역사적 시기들과 주제들 (예: 고려의 몽골인)을 되돌아가고 고려하면서 이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하는 이후 시기들의 역사 기록 학에서부터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적 시기들과 주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예: 몽골군에 대항해 싸운 삼별초의 경우 식민지 시대에 쓰여진 역사서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당국에 대항하는 대리인으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일어난 순서대로' 우리가 현재 이해하는 역사적 사건 사이를 계속 이동함으로써 (적어도 일어난 일에 대해 접근하고 과거에 대한 모순된 여러 번의 독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정도까지) 나는 역사적인 이해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하고 우발적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역사적인 성격의 근본적인 성격까지 알려주고자 한다. 또한 역사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현대적인 우려 사항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당연히 일부 학생들이 비난하는 바와 같이 코스 전체를 지나치게 목적론적으로 만드는 것이기는 하다. 즉, 현재 한국의 상태에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이다. 물론 내 코스에는 현재 남한이 취하고 있는 역사적인 관점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겠다. 학생들과 비판적으로 토론해 보고 싶은 용어들과 개념들이 더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전근대성 및 현대성, 인력의 개념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기로 한다. 그러나 '역사'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 코스는 학생들이 역사적 사건들과 한반도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역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도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나 나라를 중심으로 한 역사는 하나의 구성물이라는 점이다. 이 구성물은 역사를 이해하는 다른 방법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물일 뿐이다. 역사 철학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토론 (내 경험상 역사 철학은 역사 철학이라는 용어를 언급하기만 해도 학생들을 쫓아버릴 수 있음이 증명된 분야이다)에 학생들이 익숙해지게 하는 것을 역사가 구성물이라는 이론을 충분히 증명한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는 역사 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서적에 기록된 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확인된 과거의 사건들, 인간사나 행위 (특히 과거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 공동체와 국가의 형성과 성장을 다루는 지식의 한 분야.

또는 웹스터의 사전에서는 역사 철학에 대해 매우 고전적인 정의 (이 때문에 역사 철학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거의 없다)를 내리고 있다:

국가나 나라에 대한 사실에 대한 설명.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사건의 원인과 영향을 기술한 것.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역사: 통치자 (대부분은 부정직한 사람) 및 군인 (대부분은 바보)들에 의해 초래된 대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잘못된 것이 대부분인 기술.

엠브로즈 비어스의 풍자적 역사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는 악마의 사전에 등장한다) 앞서 말한 두 개의 역사에 대한 정의에서 보다 엠브로즈 비어스의 정의에 보다 사실적이고 증거가 가능한 진실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 것이 제주의 역사, 특히 제주 4·3 사건을 발생시킨 사건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학생들에게 흔히 역사의 중심에는 국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쓰는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일종의 여백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의 중세사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 용어는 내가 수업 중 피하는 용어이다. 나는 중세사라는 용어가 주는 내재적인 목적론을 피하기 위해 '고려의 역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제주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내 수업에서 제주도를 '제주'가 아닌 제주도의 현대 이름인 '탐라'라고 부른다. 나는 탐라가 고려의 영토로 비교적 늦게 편입되었으며 (예종 통치 기간) 탐라가 때로는 독립적인 정치적, 영토적, 언어적, 경제적 공동체로 인식되기도 했다는 점 (그리고 탐라 스스로도 탐라도를 그렇게 인식했음)을 언급한다. 탐라는 고려에 편입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독립된 영토에서 고려라는 나라의 매우 변방 (모든 면에서 보더라도)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때문에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정권에서 멀어진 정치인, 관리, 학자들의 유배지로 오명을 떨치게 된다. 이 점 또한 내가 절대로 학생들에게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는 점이다. 탐라가 한반도 역사에 얽히게 된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된다. 이는 제주 4·3 사건과는 비견할 수 없지만 무시할만한 부분도 아니다. 13세기 몽골군의 침략에 대항하는 동안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현재의 제주에서 일어났다). 고려가 두 개의 파벌로 나뉘진 가운데 고려 원종이 이끄는 파벌이 몽골에 항복했다. 이 때문에 몽골군은 군사력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강화도에서 처음으로 몽골군에 대한 저항이 진압되었고 이후 진도에서도 저항군이 진압되었다. 삼별초라고 불렸던 저항군이 본토가 아닌 섬에서 마지막까지 몽골 군에 대항했는데 이 섬은 일본과 동맹군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던 섬으로 몽골-고려 연합군과는 가장 멀리 떨어진 섬 - 즉, 탐라-이었다. 그러나 탐라도를 요새화하면서 수십 년 동안 몽골군에 대항할 준비를 해왔음에도 1283년 몽골-고려 군이 탐라도를 침략했으며 주민들을 학살했다. 사망자에는 삼별초를 돕기 위해 동원된 지역 주민들도 상당 수 포함되었다. 몽골

1) 렘코 E.브러이커, 2012를 참조하라. "전하 이제 숨은 반군의 거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중세 한국의 게릴라, 반역자 및 몽골인들." 아시아 역사에 관한 학회지 46.1 : 59-95.

지도부는 몽골 군에 대한 수십 년 간의 저항에 분노하여 (이러한 저항은 탐라도의 요새화로 정점을 이뤘으며 몽골군에 대항한 흔적을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유적은 발굴되었다) 탐라도를 특별 관리 대상에 편입시켰다. 이후 탐라도는 거대한 말 사육지로 변모하였다. 탐라도 산 말은 문종왕 때부터 유명해졌지만 탐라도에서 말을 기르기 시작한 것은 삼별초가 마지막으로 몽골군에 대항한 후인 1276년부터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대에 남아있는 고려에 대한 자료들은 탐라도의 주민들이 몽골군에 최후까지 저항했던 탐라도를 말 사육지로 바꾸는 것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지불해야 했던 비용은 엄청났다. 유혈이 낭자한 침략 이후 새로운 요새를 세우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강제 노역이 이루어졌고 결국 탐라도는 1세기 동안이나 몽골의 예속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는 탐라도와 탐라도의 본질과 탐라도의 주민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 서술은 비교적 직설적이다. 이를 20세기 및 21세기 역사와 함께 결합시켜 가르칠 경우 이는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가 된다. 20세기 및 21세기의 역사서에서는 삼별초의 항쟁을 외세(몽골, 일본, 중국, 유럽)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그린다. 국가의 렌즈를 통해 보면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면, 즉 탐라도나 오늘날 제주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복잡한 요소가 즉각 떠오른다. 독립 후 (독립을 증명할 수 있는 문화적, 언어적, 역사적 출처들이 있다) 탐라는 고려로 편입되었다. 이후 탐라는 의도치 않게 중앙 국가의 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된다. 이는 이러한 사건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13세기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20세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가 가르치는 코스는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근대 이전 시기에 관한 것이지만 현대 시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및 기타 다른) 역사를 지배하는 국가 및 나라를 중심으로 한 서술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2 ~ 13세기의 탐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국가 및/또는 나라의 본질적인 성질에 문제를 제기한다. 고려의 영토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면 탐라가 이웃 국가나 종속 국가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잃게 된 무력이나 강압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이야기를 알 수 있다. 몽골의 침략으로 인한 유혈 상태는 탐라도를 저항의 마지막 근거지이자 고려의 회복력의 상징으로 격상시켰으나 탐라도는 이를 자처한 일이 없으며 그 과정에서 수 많은 고통과 사상자가 야기되었다.

이후 20세기까지. 13세기 후반에 일어난 일과 1984년에서부터 1950년까지 일어난 사건들 사이에는 유사성이 거의 없지만 학생들과 함께 탐구하고 논의해보아야 할 보다 일반적인 특징들이 많이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반도 본토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제주에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상도 하지 못할 수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한반도 내에서 제주라는 섬의 문제적인 위치는 국가 및/또는 나라를 중심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서술에 근본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제주 4·3 사건 및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국가적인 관점의 기술이 제한적인 것은 몽골이 탐라도를 파괴시킨 것과 고려 시대 동안 탐라도가 유배지로 격하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한국사를 가르칠 때 나는 탐라/제주도의 위치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삼별초의 항쟁, 4·3)을 설명하고 국가를 중심으로 한 역사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때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받

견했다. 국가-나라의 불확실한 성격은 중앙부가 국가-나라의 영토, 언어, 문화, 정치적 경제적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달려있다. 유능한 국가 또는 나라를 중심으로 한 기술은 필연적으로 탐라/ 제주도의 역사적 경험을 국가나 나라의 목적에 맞게 종속시킨다. 따라서 중앙의 관점에 맞지 않는 풍부한 역사적 경험들은 기술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제주 4·3 사건과 같은 규모의 비극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본래의 맥락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The International Forum of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d
Jeju 4·3 Peace Foundation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및 제주 4·3 평화재단
국제 포럼**

Bruno, Antonetta
Professor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 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The International Forum of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d Jeju 4·3 Peace Foundation



Bruno, Antonetta
Professor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 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Abstract

In my presentation, I intend to introduce Korean Studies at 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by focusing on the syllabu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n Korea and give few examples of workshops and lectures on social sciences we hold yearly. I will argue that the curriculum on history offered for the area of Far East Asia, Korea, Japan and China, is essential part of educational program. The focus is given to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 with pre-modern history of Korea, Japan and China as part of a single class: History of East Asia. Moreover, there is equal distribution of hours and teaching staff among Japan, China and Korea. My presentation will suggest that history of Jeju 4·3 is an interdisciplinary topic which can be taught not only in history class.

General Information	Description of 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Remarks	
	Establishment year		1303	Tuition fee (Undergraduate/ per semester)		€ 1.410
	No. of students	Undergraduate	55.223	No. of professors		4.002
		Graduate	19.696 (MA) 3.120 (Ph.D.)			
Academic term (Spring semester)		26 Feb ~ 25 May	Academic term (Fall semester)	2 Oct ~ 22 Dec		

	Category			Description			Remarks
				Korean Studies	Chinese Studies	Japanese Studies	
Information on East Asian Studies	No. of teaching staff	Full-time professors	Korean studies	4 people	6 people	5 people	No. of professors who teach
			Korea-related	3 people	3 people	3 people	No. of professors who teach or research Korea partially though they belong to other departments
		Full-time lecturers (instructors)	2 people	4 people	3 people	No. of instructors hired to give Korean studies lectures.	
	No. of students	No. of students on doctorate courses		1 people	5 people	5 people	
		No. of students on master courses		25 people	65 people	45 people	
		No. of undergraduates		386 people	651 people	696 people	
	No. of courses	Doctorate courses		x	x	x	Specify only the number of major-subject lectures by course.
		Master courses		5 courses	5 courses	5 courses	
		Undergraduate courses		6 courses	6 courses	6 courses	
		Others		27 courses	27 courses	27 courses	Classes (lectures on liberal arts, etc.) other than major subjects related to Korea, China or Japan.
	Research institute	Establishment		Korean Studies Research Center	Confucio Institute	X	Information on Korean Studies Institute ① Institute Name: Korean Research Center ② Director - Name: Antonetta L. Bruno - Affiliation and Position: University of Rome Sapienza,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Head of Korean Studies - Specialization: Linguistic Anthropology
		Establishment year		2015	2006	X	*The establishment year shall be stated (including the case that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is planned to be established)
		No. of staff			26 people	X	Including researchers and administrative staffers.
Status of books kept at the library	No. of books kept		3.595 books	8.250 books	4.840 books	Dual inclusion is allowed in the case of comparative studies, etc.	

The 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is a state university and was founded in 1303 by Pope Boniface VIII in Rome. This makes it one of the old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Being the biggest University in Europe, La Sapienza has 11 Faculties and 63 Departments, with 8,000 among academic,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taff. Students enrolled at La Sapienza can choose from over 250 degree programs (Bachelors, Masters and PhDs). Sapienza's large student population includes ca. 7000 foreign students and 3000 students on mobility programs. In the history of university there were 6 Nobel Prize winners.

Korean Studies in Italy

University	History	Degrees	Teaching staff	Teaching disciplines
Sapienza Università di Roma, ISO	2001	B.A., M.A., PhD since 2001. KS is independent curriculum	Full-time: 01 professor; 02 Assistant Professors, 1 visiting professor; 3 language teachers, 01 contract professor. Part-time: 03	Korean Language and Translation, K. philology, Classic and Modern literature, Korean Art history, Koran history. Part-time: Korean and Japanese Society, Religions and Philosophies of East Asia, and History of East Asia.

KS at La Sapienza performed since 2001 strong exchange activities creating community networks between most of universities scattered in Europe. With SOAS, Freie University, Bochum, Leiden, Paris 7-Inalco-EHESS, Frankfurt University, Malaga Univ., Cork Univ., Copenhagen Univ., Turku Univ., KS of Sapienza held yearly seminars, lectures and conferences in EPEL Program (managed by AKSE), Special Internship Seminars in Asia and KS Incubation Program (AKS). Every year about 20 lectures are hold.

Korean Studies at **La Sapienza** was established later compared to other KS in Italy (in 2001) but it is until now the only place in Italy where KS offer a complete educational curriculum in BA, MA and PhD degree program. The unique and peculiar characteristic of KS at La Sapienza is that its courses are up to the standards of European universities which began KS during the 1960s and 1970s (Hamburg University 1962, Ruhr-University Bochum and University of Tübingen in the 1970s, University of Paris Diderot (Paris VII) in 1970, Vienna University in 1964 and Leiden University (1947) and the University of Prague).

At La Sapienza, KS offer the same courses as Japanese and Chinese curriculum, which is the condition for establishing an independent curriculum. Currently we have about 400 students (including major and minor B.A. students, M.A. students and Ph.D. students. The number of teaching staff has increased from 1 to 7-8: all paid by university except one Korean language interim dispatched yearly

by Korea Foundation. Among teaching staffs, 2 are permanent, 01 is in track-tenure position, 01 visiting professor, 2 language instructors and 01 contractor (in 2017-2018). In terms of program activities, since 2013 KS at ISO has activated the ERASMUS Program with Korean Studies at Malaga University, Paris 7, Bochum University and in 2015 a Double MA Degree with Hanyang University.

Academic activities

Since its establishment KS held yearly Workshops, Seminars and other activities related to KS. Two International Conferences were held until today. Below are mentioned some of the activities.

- Exchange Program of European Lectures (EPEL) with Several professors and researchers from European Universities, invited each year to hold a lecture on their research field.
- AKS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in Europe (250 participants, 160 presenters, in 2003), first time in Italy.
- Forum on Korean and European Literature The 1st Forum between Korean and European writers that was held in cooperation with ARKO. The title of the forum was “문학안에서 다름을마주하다” and important authors from Korea as Yi Munyol, Shin Kyung Sook, Han Kang Lee Seung woo and Jo Kyung Ran participated.
- Workshops and seminars: on Korean shamanic ritual (*kut*) held in cooperation with the Ethnographic Museum “L. Pigorini” and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For several years it was held the Workshop on Korean culture and language for Italian secondary school teachers,

TOPIK (yearly),

Essay contest on Korean literature (yearly activity)

Series of lectures on Asian Community in Europe, 15 lectures by scholars from Korea, USA, Europe and Italy (yearly activity)

KS at ISO has signed MOU with SNU, Ehwa, Kyonghee, Myongn, Inha and etc. and since 2015 Double Degree Program with Hanyang University for MA degree.

The teaching staff in Korean Studies includes the following members:

Full time on Korean Studies are:

Prof. Antonetta L. Bruno (Korean Language and Translation, BA,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A),

Dr. Filippo Salviati (**History of Korean Contemporary Art**),

Dr. Giuseppina De Nicola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Ms. Kim Oeunjung (Korean Language Instructor),

01 Visiting Intern for Korean Language (dispatched by Korea Foundation)

01 Visiting scholar.

03 contracts professors for **Korean Literature and Philology**

Part time are 3::

Prof. Marco Del Bene (**Korean and Japanes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Society**);

Prof. Valdo Ferretti (**History of East Asia**);

Prof. Donatella Rossi (**Religions and Philosophies of East Asia**).

As it is mentioned above, history class is essential part of education with Old Korea history program being part of History of East Asia. For the History class there is an equal distribution in terms of hours and teaching staff in Japanese, Chinese and Korean curriculum. The focus is given to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 with premodern history of Korea, Japan and China as part of a single class: History of East Asia.

So, let's give a look on Syllabus of next academic year Korean history class.

History Program of Korean Civilization A 2018/19

The course focuses o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from the late 1800s to the 1950s. It will explore particular topics relevant to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processes of modern Korea. The course will follow an analytical and historical-anthropological approach, possibly with specific attention to the position of Korea in the context of regional and world history. In addition to lectures, the program makes use of lab hours based on the reading of historical sources, discussion and audiovisual material in order to bring the student as close as possible to the historical events treated.

1th week:

Introduction to the course

The first contacts with the West and the opening of the country

The first reforms (1876-1884)

(Korea Old and New: a History, Harvard University p.199 - 214)

2th week:

The Tonghak rebellion

The Kabo reforms

(Korea Old and New: a History (p.214-230)

3th weeks:

The Russian ascendancy and the Independence Club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Japanese Protectorate in Korea

Readings and Discussion

(Korea Old and New: a History page (p.231-241)

4th week:

The period of the Japanese protectorate (1905-1910)

The Korean Resistance against Japanese aggression

Development of a modern nationalist culture

(Korea Old and New: a History p.241-253)

5th week:

The first phase of Japanese Occupation (1910-1919)

Theory and structure of the colonial state

Readings and Discussion

(Korea Old and New, a History, p.254-269)

("A critique of Colonial Modernity" Hong Yung Lee in Colonial Rule and Social Change in Korea p.4 -28)

6th week:

Communicat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nationalist movement in exile

Readings and Discussion

(Korea Old and New: a History pages 269-275)

7th week:

The March 1st movement

Nationalism and social revolution 1919-1931

Reforms of cultural policies

Readings and Discussion

(Korea Old and New: a History, p.276-304)

8th week:

Assimilation policies

Readings and audiovisual material

(Japanese assimilation policies in colonial Korea p.81 -140)

9th week

Assimilation policies

Readings and Discussion

(Japanese assimilation policies in colonial Korea p.81 -140)

10 week Society and Labour

Audiovisual material

(Offspring of Empire C. Eckert p.188-252)

11th week:

Society and Labour

Readings and Discussion

(Offspring of Empire C. Eckert p.188-252)

12th weeks

The Japanese advance in Asia and war mobilization

The last phase of colonial rule (1941-1945)

The liberation and division of the Peninsula

(Korea Old and New: a History p.305- 342)

Reference texts:

C. Eckert, Ki-baik Lee, M. Robinson, E. Wagner *Korea Old and New: a History*, Ilchokak Publishers for Harvard University 1990 p.199- 343

M. E. Caprio *Japanese Assimilation Policies in colonial Korea 1919-1945*,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9 p.81- 140

Clark W. Sorensen, Yong Chool Ha, Hong Yung Lee edit., *Colonial Rule and Social Change in Kore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3 p.3-28

Carter Eckert, *Offspring of Empir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pp. 88-252.

Considering that History class is 48 hours, unfortunately Korean history teaching stops abrupt in 1945 and therefore Korean war, Division into two Republics,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South and consolidation of Kim's family in North are not taught to students. They come to know about contemporary history by-passing through classes on Contemporary literature and on Korean and Japanes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Society. But basically students come to know thanks to the workshops, special lectures which touch very various topics from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each year. They are grouped in so called "Training class", it gives credits and it is open to all students of La Sapienza. According to the topics,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varies and usually there is strong interest and active participation, also of professors.

I think that history of Jeju 4·3 is an interdisciplinary topic which can be taught not only in history class. As I see, it can be taught in several classes:

- 1) part of "Training class" in the form of a Workshop by inviting scholars, experts (who can also be a journalist, organizer of peace foundations) focused on the history of Jeju 4·3, but also inviting scholars working on similar historical-social repressions by military, fascist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he comparative approaches are very effective in communication, in distribution of knowledge and in the reflection of what happened and how to avoid such atrocities in future.
- 2) part of Literature, as oral history told and retold as narrative. Reading and discussing selection of

novel, poems, testimonies can be conceived as part of special lectures (which can change yearly and be included in every year's Syllabus). The topics can cover titles of lectures like Trauma and memories of Jeju 4·3 in novels, Constructing together Oral history, Creative Readings and Writing on Jeju 4·3.

- 3) part of Religions and Philosophies in Far East Asia. Questions guiding the class can be like Korean thoughts related to frustration, meanings of injustices and Korean cultural thoughts behind the sense of forgiveness... Questions on facts hard to understand and to be accepted by victims.

I think that Jeju 4·3 peace Foundation can help to realize the above mentioned ideas and to widespread the knowledge on the history of Jeju 4·3 around the world, as historical facts, hidden political ideologies, social consciousness, human rights, philosophical and religious thoughts, oral history in overlapping trauma, all aimed to keep alive memories. I suppose a creation of a network among universities can be a good starting point. In practical terms, we can consider to build a program which can be repeated in several universities. The program I am thinking of is off-line and on-line e-school which offer lectures, performed by scholars but integrated e-school with direct participation of some scholars, by inviting scholars with host universities funding. The e-school lectures should be recorded on-line but also make possible that they would be downloaded off-line, which allows students, not familiar with English, to listen more than once. In terms of funding, from Korean part, they can maybe apply to Korea Foundation for e-school and search possible sharing cost for the realization of program having few scholars invited at host university through own research funding.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및 제주 4·3 평화재단 국제 포럼



Bruno, Antonetta
Professor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 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초록

필자의 발표는 한국 근현대사 교수요목을 집중적으로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의 한국학과를 소개하고,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에서 매년 개최하는 워크숍과 사회과학 강의 일부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자는 극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을 다루는 역사 교육과정이 교육 프로그램의 본질이라고 믿는다. 라 사피엔차 대학교는 한국, 일본, 중국의 전근대사를 가르치는 동아시아 역사 단일 수업을 통해 근현대사에 집중한다. 게다가 일본, 중국, 한국학 교육의 각 시간과 교직원 인력도 동일하다. 필자는 발표에서 제주 4·3사건이 역사 외 다른 수업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학제간 주제임을 살펴볼 것이다.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 정보				기타
	설립연도	1303	등록금 (학부생/학기당)	€ 1.410	
기본정보	학생 인원	학부생	55.223	교수 인원	4.002
		대학원생	19.696 (석사) 3.120 (박사)		
	학기 (봄)	02.26 ~05.25	학기 (가을)	10.02 ~12.22	

	범주			종류			기타
				한국학	중국학	일본학	
동아시아학 정보	강사 인원	전임교수	한국학	4명	6명	5명	강습 교수 인원
			한국학 관련	3명	3명	3명	다른 부서에 속하지만 부분적으로 한국학을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교수 인원
		전임강사	2명	4명	3명	한국학 강의를 위해 고용된 전임 강사 인원	
	학생 인원	박사 과정 학생 수		1명	5명	5명	
		석사 과정 학생 수		25명	65명	45명	
		학부생 수		386명	651명	696명	
	교육과정 개수	박사과정		x	x	x	과정별 주요 과목 강의 개수만 명시
		석사과정		5개	5개	5개	
		학부 과정		6개	6개	6개	
		기타		27개	27개	27개	한국, 중국, 일본 관련 주요 과목을 제외한 수업(교양 과목 강의 등).
	연구 기관	기관		한국학 연구 센터	유교 연구기관	X	한국학 연구 기관 정보 ① 기관명: 한국학 연구 센터 ② 책임자 - 성명: Antonetta L. Bruno - 소속 기관 및 직위: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 동양학부, 한국학과 학부장 - 전공: 언어인류학
		설립연도		2015	2006	X	*설립연도 명시 요망(한국학 연구 기관이 설립 예정인 경우도 포함)
		직원 수			26명	X	연구원과 행정 직원 포함
	도서관 보유 서적 현황	보유 서적 수		3,595 권	8,250 권	4,840 권	비교 연구 등의 경우 중복 포함 허용.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는 주립 대학으로 1303년에 로마 교황 보니파티우스 8세에 의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 하나이다. 유럽에서 가장 큰 이 대학교에는 11개 대학, 63개 학부가 있으며, 8,000명의 학술, 기술, 행정 인력이 근무한다. 라 사피엔차 대학교 등록생들은 250개가 넘는 학위 프로그램(학사, 석사, 박사)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사피엔차에서 7,000명의 외국인 학생과 3,000명의 일반 학생이 수강하는 이동 프로그램이 가장 학생 수가 많다. 본 대학은 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탈리아의 한국학

대학	연한	학위	교수진	강습 과목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 ISO	2001	2001년 이래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제공해왔다. 한국학과는 독립적인 커리큘럼이다.	전임교수 1명, 조교수 2명, 초빙교수 1명, 어학 교사 3명, 계약 교수 1명. 시간제: 3명.	한국어와 번역, 한국어학, 고전 및 현대 문학, 한국 미술사, 한국사. 시간제: 한국 및 일본 사회, 동아시아 종교 및 철학, 동아시아 역사.

라 사피엔차 대학교의 한국학과는 2001년 이래로 활발한 학생 교환 활동으로 유럽 전역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대학을 연결하며 공동체 창설에 기여해왔다. 소아즈 대학교(SOAS), 베를린 자유 대학(Freie University), 보훔루르 대학교(Bochum), 레이던 대학교(Leiden), 파리킨소시엄(Paris 7-Inalco-EHESS), 프랑크푸르트 대학(Frankfurt University), 말라가 대학(Malaga Univ.), 콕 대학(Cork Univ.), 코펜하겐 대학(Copenhagen Univ.), 투르쿠 대학(Turku Univ.)과 함께 라 사피엔차 대학교의 한국학과는 EPEL 프로그램 (AKSE가 관리) 연례 세미나, 강의, 컨퍼런스와 아시아 및 한국학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AKS)의 특별 인턴십을 주최해왔다. 매년 약 20개의 강의를 열었다.

라 사피엔차 대학교의 한국학과는 이탈리아의 다른 한국학과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늦게(2001년) 탄생했으나, 이탈리아의 여러 한국학과 중 현재 유일하게 학사, 석사, 박사 학위 프로그램을 완벽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제공한다. 라 사피엔차 대학교 한국학과는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은 바로 그 교육과정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국학과를 창설한 유럽 대학의 표준에 맞먹는다는 것이다 (함부르크 대학교는 1962년, 보훔 루르 대학교와 튀빙겐 대학교는 1970년대, 파리 7대학(University of Paris Diderot)은 1970년, 비엔나 대학은 1964년, 레이던 대학은 1947년, 그 외 프라하 대학교).

라 사피엔차 대학 한국학과는 일본학 및 중국학 커리큘럼과 동일한 교과과정을 제공하며, 이는 독립적 커리큘럼 수립 조건을 충족한다. 현재 약 400명의 학생이 수강 중이다 (전공, 부전공 학사, 석사, 박사 과정 학생 포함). 교수진은 1명에서 7-8명으로 증가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매년 파견하는 한국어 임시 교수를 제외하고 모두 본교에서 고용한다. 이 교수진 중, 2명은 영구직, 1명은 종신 재직 신분이며, 1명은 초빙 교수, 2명은 외국어 강사이고 1명은 계약직이다 (2017-2018). 프로그램 활동 측면에서, ISO의 한국학과는 2013년부터 말라가 대학, 파리 7대학, 보훔 루르 대학교의 한국학과와 ERASMUS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 2015년부터는 한양대학교와 이중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학술 활동

한국학과는 창설 후에 계속 한국학 관련 연례 워크숍, 세미나, 기타 활동을 주최해 왔다. 현재까지 국제 컨퍼런스 2개가 열렸다. 아래는 시행된 활동 사례 일부이다.

- 유럽 대학들의 여러 교수와 연구원들이 참가한 유럽강연교환프로그램(EPEL, Exchange Program of European Lectures). 모두 매년 초청받아 자신의 연구 분야에 관한 강연을 했다.

- 유럽 한국학에 관한 AKSE 국제 컨퍼런스 (2003년, 참가자 250명, 발표자 160명),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행.
- 한국 및 유럽 문학 포럼. ARKO와 협력하여 진행된 한국 및 유럽 작가들 간 최초 포럼이다. 포럼 제목은 “문학 안에서 다름을 마주하다” 였으며, 이문열, 신경숙, 한강, 이승우, 조정란 등 유명 작가들이 참석했다.
- 세미나: 베를린 “L. Pigorini” 민족박물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한국 무속제 (굿)를 주제로 진행.

지난 수년간 이탈리아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례), 한국문학 에세이 대회 (연례 활동) 유럽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일련의 강의, 한국, 미국, 유럽, 이탈리아 학자들의 강의 15회 (연례 활동)

ISO의 한국학과는 서울대, 이화여대, 경희대, 명지대, 인하대 등과 MOU를 체결했고, 2015년부터 한양대와 이중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학과의 교수진에는 다음 인력이 포함된다:

한국학 전임교수는 다음과 같다:

Antonetta L. Bruno 교수 (한국어 및 번역 학사학위, 한국어 및 한국문학 석사학위),

Filippo Salviati 박사 (**한국현대미술사**),

Giuseppina De Nicola 박사 (**한국 근현대사**),

Kim Oeunjung (한국어 강사),

한국어 임시교수 1명, 초빙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파견)

초빙학자 1명.

한국 문학 및 어학 계약직 교수 3명

시간제 인력은 3명이다:

Marco Del Bene 교수 (**한국 및 일본 근현대사와 사회**)

Valdo Ferretti 교수 (**동아시아 역사**)

Donatella Rossi 교수 (**동아시아 종교와 철학**).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역사 수업과 한국 고대사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역사의 필수 요소에 해당된다. 라 사피엔차 대학교는 한국, 일본, 중국의 전근대사를 가르치는 동아시아 역사 단일 수업을 통해 근현대사에 집중한다. 역사 수업의 경우, 일본, 중국, 한국학 커리큘럼의 시간과 교수진은 동일하게 분배된다.

이제 다음 학년도 한국사 수업의 교수요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문명 역사 프로그램 A 2018/19

이 교과목은 180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의 한국 근대사에 집중한다. 한국 근대사 이해와 관련된 여러 주제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교과목은 분석적, 인류 역사학적 접근법을 따르며, 지역사와 세계사 안에서 한국의 위상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강의뿐만 아니라 역사 자료 읽기를 기반으로 한 연구 시간, 토의,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루는 역사적 사건에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1주차: 강의 소개

서양과의 첫 교류와 문호개방

1차 개혁 (1876-1884)

(한국의 어제와 오늘, 그 역사(Korea Old and New: a History), 하버드 대학교 p. 199 - 214)

2주차: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한국의 어제와 오늘, 그 역사 (p.214-230))

3주차:

러시아 세력과 독립협회

러일전쟁과 일본 통감부

독해, 토의

(한국의 어제와 오늘, 그 역사 (p.231-241))

4주차: 일본 통감부 시기 (1905-1910)

항일운동

근대 민족주의 문화 발전

(한국의 어제와 오늘, 그 역사 p.241-253)

5주차: 일제강점기 1단계 (1910-1919)

식민국가의 이론과 구조

독해, 토의

(한국의 어제와 오늘, 그 역사 p.254-269)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비판" 이홍영 저, 한국의 식민통치와 사회변화 p.4 -28)

6주차: 정보통신과 경제발전

망명 민족운동

독해, 토의

(한국의 어제와 오늘, 그 역사 p.269-275)

7주차: 3.1운동

민족주의와 사회혁명 1919-1931

문화 정책 개혁

독해, 토의

- (한국의 어제와 오늘, 그 역사 p.276-304)
- 8주차: 동화정책
독해, 시청각 교재
(식민지 한국에서 일본이 실시한 동화정책 p.81 -140)
- 9주차: 동화정책
독해, 토의
(식민지 한국에서 일본이 실시한 동화정책 p.81 -140)
- 10주차: 사회와 노동
시청각 교재
(제국의 후예 C. Eckert p.188-252)
- 11주차: 사회와 노동
독해, 토의
(제국의 후예 C. Eckert p.188-252)
- 12주차: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전쟁동원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단계 (1941-1945)
한반도의 광복과 분단
(한국의 어제와 오늘, 그 역사 p.305- 342)

참고문헌

- C. Eckert, 이기백, M. Robinson, E. Wagner 한국의 어제와 오늘, 그 역사 (*Korea Old and New: a History*), 하버드 대학교 일조각 출판부 1990 p.199- 343
- M. E. Caprio 식민지 한국에서 일본이 실시한 동화정책 (*Japanese Assimilation Policies in colonial Korea*) 1919-1945, 워싱턴 대학교 출판부, 2009 p.81- 140
- Clark W. Sorensen, 하용출, 이홍영 편집, *한국의 식민통치와 사회변화 (Colonial Rule and Social Change in Korea)*, 워싱턴 대학교 출판부, 2013 p.3-28
- Carter Eckert, *제국의 후예(Offspring of Empire)*, 워싱턴 대학교 출판부1991, pp.88-252.

역사 수업이 48시간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한국사 교육은 1945년에서 갑자기 중단되며, 그에 따라 학생들이 한국전쟁, 한반도 분단, 남한의 민주화와 북한의 김씨일가 체제 정착을 배울 수 없게 된다. 학생들은 현대 문학, 한국과 일본 근현대사와 사회에 관한 수업들을 통해 이러한 현대사를 간접적으로 배우게 된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매년 학제간 관점으로 다양한 주제를 살펴보는 워크숍과 특별 강연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워크숍과 강연은 소위 “연수 강연”으로 분류되고 학점이 부여되며, 라 사피엔차 대학교의 모든 학생이 이에 참석할 수 있다. 주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다르며, 학생들과 교수진은 보통 큰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필자는 제주 4·3사건이 역사 외에 다른 수업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학제간 주제라고 생각한다. 다음과 같이 여러 수업에서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1) “연수 강연”의 일환으로 제주 4·3사건을 연구하는 초빙학사, 전문가(저널리스트, 평화재단의 창립 위원 등)와 전세계의 유사한 사회역사적 군부, 파시스트 정부의 억압을 연구하는 학자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진행한다. 비교연구 접근법은 의사소통과 지식 보급, 그리고 역사를 고찰하고 과거의 잔혹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 2) 문학의 일부로, 구전 역사를 이야기 형식으로 계속 들려주면서. 소설, 시, 증언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특별 강연으로 기획할 수도 있다 (매년 이 강연을 바꿀 수도 있고, 교수요목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각 주제를 놓고 소설 속 제주 4·3사건의 외상과 기억, 구전 역사 형성, 제주 4·3사건 창의적 읽기와 쓰기 등의 제목의 강연으로 진행할 수 있다.
- 3) 극동아시아의 종교와 철학의 일부로. 좌절과 관련된 한국적 사고, 불평등의 의미, 용서의 의미에 숨겨진 한국 문화적 사고 등에 대한 질문으로 수업을 이끌 수 있다. 희생자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다.

필자는 제주 4·3 평화 재단이 위와 같은 생각을 실현하고, 전세계에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지식을 보급하여, 역사적 사실, 숨겨진 정치적 이데올로기, 사회적 무의식, 인권, 철학 및 종교적 사상, 지속되는 외상 속 구전 역사 측면에서 이를 살펴보고, 이 기억의 보존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대학 간 네트워크를 수립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여러 대학에서 반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수립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학자들의 강좌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온라인 e스쿨인 동시에, 교환학생이 파견되는 대학(host university)의 기금 조성 활동도 실시하고 여러 학자를 초청하여 직접 참여하게 하는 통합 e스쿨이기도 하다. 이 e스쿨 강의는 온라인에서 수강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게 하면 영어가 낮은 학생들이 여러 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대학들은 한국국제교류단에 e스쿨 기금 조성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자체 연구 자금 조성을 통해 교환학생 파견 대학에 소수의 학자를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구현하며 비용을 공유하는 방법도 택할 수 있다.



**Teaching Korean contemporary history
in Korean Studies Foreign Applied
Languages Bachelor Degree :
the case of the University of La Rochelle
(France)**

**한국학 응용 외국어 학사학위 과정에서 한국
현대사 교육:
라로셀 대학(University of La Rochelle)의 사례
(프랑스)**

Cherel-Riquier, Evelyne
Associate Professor in Korean Studies,
Université de la Rochelle

Teaching Korean contemporary history in Korean Studies Foreign Applied Languages Bachelor Degree : the case of the University of La Rochelle (France)



ChereL-Riquier, Evelyne
Associate Professor in Korean Studies, Université de la Rochelle

This brief presentation of the courses on Korean peninsula contemporary History in the University of La Rochelle is articulated in three parts. The preliminary part explains the general frame of those courses, including the specificities of our Bachelor and Master Degrees on Korean Studies and the aim of our curriculum. In the second part, several points of Korean Peninsula History courses are presented, including remarks on type of cases raising the interest of French students. The third part focuses more especially on courses concerning the Division process of Korean Peninsula (1945-1950), including the Jeju 3-4 movement.

Preliminary

This first part depicts the general frame of the courses on contemporary Korean Peninsula History in the University of La Rochelle. This part focuses on three axis: the specificities of our Korean Studies Degrees, the expectations and points of interests of the students, the influences of those specificities and expectations on the elaboration of the curriculum.

Several specificities of Korean studies degrees in the University of La Rochelle lie in their hybrid aspects and longtime almost exclusively vocational aim. Our Bachelor and Master Degrees belong to the so-called “Applied Foreign Languages” area [Langues étrangères appliquées], specific to French University Education system. Thi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Foreign Languages, Cultures and

Civilization” [Langues, Littératures et Civilisations Etrangères] university Degrees, which,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exists currently only in two universities: University Paris Diderot and Inalco (Paris).

This last Degree focuses quite entirely on Korean language, civilization and literature. But the Applied Languages Degree relies on training the students through three fields: 1) Korean language and civilization, 2) English language and English language speaking world civilization and cultures, 3) Law, Management and Business Field. The number of hours of courses is almost equally assigned to each field. Throughout the Bachelor degree (3 years), the students attend around 550 hours of courses in Korean language and Civilization. ¹⁾ The main part of these hours are allocated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From the second to the third year, only a total amount of 60 hours are dedicated to Korean Civilization.

Among the specificities of the students, we should note at first that they present a wide range of diversity in terms of previous high school formation, acquired knowledge on Korean peninsula culture (prior to entering in our Degree) and also on expectations and points of interests.

Concerning students prior high school formation, French university educators have to take in consideration the fact that, according to the law²⁾, the French education system basically allows any student graduated from “Baccalauréat” (examination organized at the end of the High School, officially the “First university diploma”), regardless the type of Baccalauréat, (general, technical or vocational), to register in a university, in any field of study. This has consequences in terms of freshman students prior acquired knowledge. For instance, the content of the courses in Foreign languages or History and Geography differ according to General, Technical and Vocational High School. The level of knowledge tested in those fields through “Baccalauréat” examination differs too. So, we have to take in consideration the differences between students acquired scholarly knowledge. For instance, all the students won’t be aware of the problematics of the Cold War (even not in detail about the Korean War).

Another characteristic of freshman students concerns the knowledge on Korean Peninsula they may have acquired in addition to schools curriculum and, based on this, their personal expectations on courses on Korean Civilization. If we generally compare today’s freshman to the freshman of the beginning of the Millenium, we may remark some differences. For instance, today’s students are much more familiar with Korean “popular culture” (drama, cinema, K-pop, food...). The situation was

1) Due to a general reform of La Rochelle University Degrees to be implemented from september 2018, this number of hours will be modified.

2) The French government new law on Education (ORE), promulgated two months ago (March 2018), is leading to deep changes but for the moment, we can not estimate precisely the exact consequences of this law on the admission of the students in our Degrees.

different fifteen years ago when most part of the students, fewer in number, had more classical knowledge and expectations, mainly oriented (in our university) toward South-Korean economics,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We can see this change and the emergence of interest on Korean “popular culture” as a consequence of the strong investment of South-Korean State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a Korean culture. One of our task, through the University Degree curriculum is also to establish links between students “consumption” of this popular culture and academic fields of History, Sociology, Linguistics, etc.

Due to this general frame, to the few number of hours dedicated to Korean Civilization and to the essential aim of the Degree (provide the students the necessary knowledge to understand, interact and work in Korean contemporary societies and issues), the courses are organized as follows:

Bachelor Degree Second year :

Semester 1 (12 hours): Formation of Korean space through history ; Korean peninsula geography (physical, human and economic).

Semester 2 (12 hours): Historical background of Korean peninsula (to end with Japanese colonization)

Bachelor Degree Third year:

Semester 1 (18 hours): Foundation process of two Korean separated States ;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mester 2 (18 hours): North-Korean State History and South/North Korean relations ; Focus on South-Korean society theme (for e.g. Evolution and issues of the Religious Field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Peninsula General History courses

History courses are taught during four semesters, as a part of “Civilization of Korea”. During the first and second semesters, the courses are based on a chronological approach in order to give the students a general overview of Korean peninsula History. During the first semester, the students acquire basic knowledge on important historical periods through one main objective: understanding how the “Korean space” was progressively formed, from Antiquity to contemporary period. The second semester course pursue two objectives: 1) give basic cultural knowledge on former Korean kingdoms; 2) focus on historical processes which occurred at the end of Chosŏn, as those processes are

important keys for understanding the fate of Korean peninsula during the 20th Century.

Old kingdoms history may sometimes seem “too old” to the students. But, we can remark that, under the influence of historical dramas as *Queen Seondok* [선덕여왕], students may prove a quite unexpected interest for those old kingdoms (as Shilla in this specific case). Their interest for those periods is also raised when we establish links between history of Old kingdoms and actual historical controversies (for instance, controversies raised by Chinese historians about Koguryo). Those debates introduce the students to some Historical Research Field problematic, as the question of “the uses of History”. It may help them also to perceive how “History of Old times” may be closely linked to the present.

For the question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context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the study of the 19th Century may be eased by students prior acquired general knowledge, as they are more familiar with the History of European countries which, at this time, entered in contact with North-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Quite naturally, the emerging relation between France and Korea draw the attention of French students (context of contacts between French catholic missionaries, the “Kanghwado French-Korean military fight” and the signature of a Treaty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ir familiarity with the French actors of those relations seems to 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context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at this time and its influence on Korean society.

The History courses of our Bachelor second year ends with the History of Japanese colonization. When we arrive at this step (fourth semester of Bachelor Degree), students are generally aware of the hardness of Japanese colonial policy toward Korean population. But Korean resistance movements against the colonization are far less known.

Korean Peninsula Division process History courses

Third year courses are dedicated to the history of Korean peninsula after Japanese colonization. The Division process of Korean peninsula is a part of the curriculum during two semesters, through different approaches. During the first semester, the focus is mainly put on the process of Foundation of a Divided and Independent State in the south of 38th parallel, including (brief) presentation of Jeju 4-3. This part of the course on Division process represents around five hours. During the second semester, the study of the Division process is completed through the History of foundation of the North-Korean State (which represents around three hours of the course).

The main objectives of the courses are to help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Korea’s

situation after 1945 and the main factors of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to perceive also how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fluenced Korean inner situation, and how a violent climate raised progressively. During the first semester, the course syllabus on the Foundation of a Divided and Independent State is organised as follows:

1) (Second World War) Allied Forces and the “Korean Question”

This part focuses on the decisions (or lack of decision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during Allied Forces conferences (1943-1945 : Cairo / Teheran / Yalta / Postdam Conferences) and the American / Soviet Agreement on dividing the Korean Peninsula in two areas under their respective control (Testimony of Colonel Bonesteel and Major Rusk quoted by B. Cumings)

2) Korean Political Forces in 1945

This part intends to present briefly the political lines and problematic faced by Korean Political forces, taking in consideration the Political actors who remained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Colonisation and the ones who mainly lived outside the Peninsula and came back after August 1945. Problematic: past relationship with Japanese colonial power (potential collaboration or resistance activities) ; relationship with one of the Allied (USA or USSR). This part includes also a presentation of several political figures : Cho Man-shik [조만식], Yö Un-Hyöng [여운형], Pak Hön-yöng [박헌영], Kim Ku [김구], Syngman Rhee [이승만], Kim Il Sung [김일성].

3) End of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and power succession

This part focuses on the Preliminary Agreement between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and Yö Un-Hyöng and the Elaboration of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Country [건국준비위원회], before the turnaround of Colonial Government. This part examines also American and USSR different modalities of exercising power in each area under their control.

4) Allied Agreement on Korean Peninsula: Moscow Agreement (December 1945)

This part intends to present the provisions of Moscow Agreement (establishment of American-Soviet Joint Committee [미-소 공동위원회] ; Trusteeship on Korea) and the reaction of the population and political parties toward the Trusteeship project. The failure of American – Soviet Joint Committee (march-may 1946 session and may-october 1947 session) is also examined.

5) Different political programs applied in the North and South of 38th parallel

This part focuses on political programs, social and economic reforms (or lack of reforms) implemented in North and South, since January 1946.

6) United Nations Organization and Korean peninsula “General Elections” (1948)

This part deals with the transmission of the “Korean Question” to the General Assembly of United Nations (September 1947) and, as a consequence, the adoption of the American project which planned to organize General Elections on Korean Peninsula. This part intends also to depict how the Korean political world split on the question of the elections. In the South, due to the opposition of USSR to this plan, the opponents of the elections feared a permanent division of the country. On the contrary, the advocate of the elections put the priority on the establishment of a divided, independent and anti-communist government. This shift transcended partly the traditional leftist / rightist party division, as Kim Ku and Kim Kyu-shik showed it when they participated until the elections to a movement seeking cooperation with Kim Il Sung, trying to find alternative solutions to separated elections in the South.

This part also presents the violent confrontations between opponents and advocates of the elections. The violent environment of these elections led to a huge number of deaths, on Southern Korean peninsula mainland and Jeju-do. Concerning Jeju-do, the course intends to depict the raising cycle of violence, since March 1st 1947, explaining how, in Southern Korea, the commemorations of this Independence Movement became places for expression of political wishes, referring to the desire of accomplishing the “First March Spirit” [삼일정신]. The course explains the tragedy of March 1st 1947 in Jeju-do and the oppression of the population by extreme-rightist party and conventional police forces during the following months, until 1948 April 4-3 violences and how, during the following months, the island was put under a policy of repression.

The number of killed persons through this repression always represents a shock for the students. They barely have heard any information concerning the violent context of Jeju-do or the Korean Peninsula before the Korean War. I also draw their attention on the deep silence which covered during several decades those events on Jeju-do, through a personal little story, explaining how, 25 years ago in South-Korea, one of my students originated from Jeju-do, revealed to his classmate the huge repression of the island population in 1948. He added that at this period, men disappeared from the island: they flew to Japan or were killed. Korean students had never heard about it.

This part ends with the result of the elections, legitimized by the United Nations, even if United Nations observers noted in their reports that the rate of electoral participation of the voters was

certainly linked to the fear of being identified with communist in case of abstention.

Concluding remarks

This brief presentation aimed at presenting the general frame in which our university Korean history courses curriculum was organized. Due to its complexity and tragic aspects (which culminate during the Korean War), due also to its permanent aspect, the Division process of Korean Peninsula usually mobilizes the close attention of the students. I underlined here some kinds of points of interests / reaction of the students because it seems relevant to me (and I hope for the reader)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the French students., As an educator, I regret of course, the little number of hours I may dedicate to this period. But, I must underline also that, since recent years, mass media produce documentaries of good quality concerning the History of Korea. Those documentaries are useful as an introduction, complement or illustration to academic courses.

한국학 응용 외국어 학사학위 과정에서 한국 현대사 교육: 라로셀 대학(University of La Rochelle)의 사례 (프랑스)



Chere-Riquier, Evelyne
Associate Professor in Korean Studies, Université de la Rochelle

라로셀 대학의 한반도 현대사 강좌에 대한 간단한 본 발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부는 우리의 한국학 학사 및 석사학위에 대한 세부사항과 우리 커리큘럼의 목표를 비롯하여 이러한 과정의 전반적인 틀을 설명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프랑스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사례의 종류와 관련된 언급을 비롯하여 한반도 역사 강좌의 몇 가지 핵심을 제시한다. 세 번째 부분은 제주 3·4 운동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분단 과정(1945-1950)에 관련된 과정에 보다 집중한다.

서론

본 첫 번째 부분은 라로셀 대학의 한반도 현대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설명한다. 이 부분은 우리의 한국학 학위 세부사항, 학생들의 기대하는 바와 관심사, 학위 특징과 기대사항이 커리큘럼 구성에 미친 영향 등 세 가지 축에 초점을 맞춘다.

라로셀 대학의 한국학 학위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은 복합적인 측면과 장기적으로는 거의 직업적 목표만을 집중한다는 데 있다. 우리의 학사 및 석사학위는 프랑스 대학 교육 시스템상 소위 “응용 외국어 [Langues étrangères appliquées]” 영역에 속한다. 이는 “외국어, 문화, 문명 [Langues, Littératures et Civilisations Etrangères]” 대학 학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현재 오직 파리제7대학(University Paris Diderot)과 이날코동양어문화대(Inalco University)만이 한국학분야를 “외국어, 문화, 문명”과정으로 개설하고 있다.

외국어, 문화, 문명 과정 학위는 오로지 한국 언어, 문명, 문학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응용언어 학위는 학생들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를 통해 교육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1) 한국어와 문명, 2) 영어

와 영어권 문명 및 문화, 3) 법, 경영, 기업 분야. 과정의 수업시수는 각 분야별로 거의 동일하게 할당된다. 학사학위(3년)과정 전체에 걸쳐, 학생들은 한국어 및 문명 강좌를 약 550시간 이수한다.¹⁾ 이 시간은 대부분 한국어 교육에 할애한다. 2학년에서 3학년까지 오직 60시간만 한국 문명에 할당되고 있다.

학생들의 세부사항 가운데, 우리가 우선 주목할 부분은 이전에 재학한 고등학교의 형태, 한반도 문화에 대한(우리 학위과정 진학 이전의) 습득 지식, 그리고 기대치와 관심사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전 재학한 고등학교 형태와 관련하여, 프랑스 대학 교육자들은 법²⁾에 따라 프랑스 교육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고등학교를 마치고 치러지는 시험, 공식적으로 첫번째 대학 디플로마)를 치른 학생이라면 (일반, 전문, 혹은 기술) 바칼로레아 종류와 상관없이 어떤 분야라도 대학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결과, 신입생들의 사전 습득 지식에 영향이 발생한다. 일반, 전문, 기술고등학교에 따라 외국어 혹은 역사, 지리에 대한 수업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생별로 습득한 학업지식의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즉, 모든 학생들이 (한국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냉전의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관련 지식에 대하여 신입생의 또 다른 특징은 학교 커리큘럼 외에 추가적으로 지식을 습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문명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개인적인 기대치도 달라진다. 만일 현재의 신입생과 2000년대 초반의 신입생을 전반적으로 비교한다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학생들은 한국의 “대중 문화” (드라마, 영화, K-팝, 음식)에 훨씬 더 익숙하다. 학생 수는 더 적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로 (우리 대학에서는) 한국의 경제, 역사, 국제관계에 대한 전통적 지식과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15년 전 상황과는 다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의 원인을 한국 문화의 국제적 발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투자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학 학위 커리큘럼을 통해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대중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소비”와 역사, 사회학, 언어학 등 학문분야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틀과 한국 문명에 할당된 적은 수업시간, 그리고 학위의 기본적인 목표 (학생들에게 한국의 현대 사회와 이슈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며 일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전달) 때문에,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학년 학사 학위 과정:

1 학기 (12 시간): 역사를 통한 한국의 공간적 형성; 한반도의 (물리적, 인적, 경제적) 지리.

2 학기 (12 시간): 한반도의 역사적 배경 (일본의 식민지배까지)

1) 2018년 9월부터 시행될 라로셀 대학 학위과정의 전반적인 개혁으로 인하여, 이 수업시수는 변경될 예정이다.

2) 두 달 전(2018년 3월) 공포된 프랑스 정부의 새로운 교육법(ORE)은 큰 변화를 이끌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정확히 이 법이 우리 학위과정을 밟는 학생들의 입학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판단할 수 없다.

3학년 학사 학위 과정:

- 1 학기 (18 시간): 남북한 분단 정부 형성 과정; 대한민국의 경제 및 정치적 발전.
- 2 학기 (18 시간): 북한정부의 역사와 남북관계; 한국 사회 주제 중심 (예: 한반도의 종교분야 발전 및 이슈).

한반도 전반적 역사 강좌

역사 강좌는 “한국의 문명”의 일부로 4학기 간 진행된다. 1, 2학기에 강좌는 학생들에게 한반도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 개요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연대순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 학기에 학생들은 고대에서 현대 시대까지 어떻게 “한국 공간”이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한 가지 주요한 목표 하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두 번째 학기 강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를 갖는다. 1) 과거 한국의 왕조에 대한 기본적 문화지식 전달, 그리고 2) 조선시대 말에 발생한 역사적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조선시대 말의 역사적 과정은 20세기 한반도의 운명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고대 왕조의 역사는 어쩌면 학생들에게 “너무 고리타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극 선덕여왕 (*Queen Seondok*)의 영향 덕에 학생들이 (특히나 신라) 고대 왕조에 대한 예상치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옛 왕조의 역사와 (고구려에 대해 중국 사학자들이 제기한 논란 등) 실제 역사적 분쟁을 연결하자 왕조시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논의는 “역사의 이용”이라는 질문으로 학생들에게 역사 연구분야 문제를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오래된 역사”가 어떻게 현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학생들이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맥락에 대한 질문에 관해, 19세기에 대한 학습은 학생들의 사전 지식 습득을 통해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당시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와 접촉했던 유럽 국가들의 역사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프랑스와 한국간에 나타난 관계에 프랑스 학생들은 관심을 갖는다.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와의 접촉, “강화도 프랑스-한국군 전투”, 그리고 양국간의 조약 협정의 맥락). 이러한 관계에서 프랑스의 역할이 학생들에게는 익숙하기 때문에 당시 한반도 주변 국제적 맥락과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도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학사 과정의 2학년 역사 강좌는 일본의 식민지화 역사로 마무리된다. 우리가 이 정도 단계(학사 학위 과정 4학기)에 도달하면,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일본의 식민정책이 한국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보통 이해한다. 하지만, 한국의 식민지배 저항운동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덜 알려져 있다.

한반도 분단 과정 역사 강좌

세 번째 강좌는 일본 식민지화 이후 한반도 역사만을 다루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 과정은 여러가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두 학기간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학기에는 주로 제주 4·3에 대한 (간단한) 발표를 포함하여 38선 이남의 분리 독립적인 국가 설립 과정을 중심으로 다룬다. 분단에 대한 이 강좌 부분은 약 다섯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학기에 북한의 설립 역사를 통해 분단 과정에 대한 학습을 완료한다. (이 과정은 약 3시간으로 구성된다.)

이 강좌의 주요 목표는 학생들이 1945년 이후 한국 상황의 복잡성과 한반도 분단의 핵심 요소를 이해하고, 국제 상황이 한국의 내부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으며 어떻게 폭력적인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강화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돕는 것이다. 첫 번째 학기중에 분단 독립국가의 설립과 관련된 강좌 강의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2차세계대전) 연합군과 “한국 문제”

이 부분은 연합군 회의(1943-1945: 카이로 / 테헤란 / 알타 / 포츠담 회의)에서 한반도 관련 결정(혹은 결정의 불충분함)과 각각의 통제 하에 한반도를 둘로 나누기로 한 미국 / 소련의 합의(브루스 커밍스가 인용한 보스틸 대령과 러스크 소령의 증언)에 주안점을 둔다.

2) 1945년 한국 정치 세력

이 부분은 식민지 시대에 한반도에 남아있었던 정치가들과 주로 한반도 외부에 머무르다가 1945년 8월 이후 돌아온 인사를 감안하여 한국 정치 세력이 마주한 정치선과 문제를 간단하게 제시하려는 의도로 구성되었다. 문제: 일본 식민 세력과의 이전 관계 (잠재적 협력 혹은 저항 활동), 우방(미국 혹은 소련)과의 관계. 이 부분은 또한 조만식, 여운형, 박헌영, 김구, 이승만, 김일성 등 여러 정치 인사에 대한 발표도 포함된다.

3) 일본의 식민 정부의 최후와 힘의 이전

이 부분은 식민정부의 철수 이전 일본 식민정부와 여운형 간의 사전 합의와 건국준비위원회 구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은 또한 관리하는 각 지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미국과 소련의 서로 다른 방식을 검토한다.

4) 한반도에 대한 연합 합의: 모스크바 합의 (1945년 12월)

이 부분은 모스크바 합의(미-소 공동위원회 설립, 한국 신탁통치) 조항과 신탁 통치에 대한 국민 및 정당의 반응을 제시한다. 미-소 공동위원회(1946년 3월-5월과 1947년 5월-10월 세션) 실패 역시 살펴본다.

5) 38선 이남과 이북에 적용된 서로 다른 정치 프로그램

이 부분은 1946년 1월 이후 남북에 시행된 정치 프로그램, 사회 및 경제 개혁 (혹은 개혁의 부족)을 주로 다룬다.

6) 국제연합 조직과 한반도 “총선거” (1948)

이 부분은 “한국 문제”를 국제연합 총회(1947년 9월)로 옮기고 그 결과 한반도에 총선거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던 미국 프로젝트가 도입된 내용을 다룬다. 이 부분은 또한 한국 정치체계가 어떻게 선거 문제를 두고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남쪽에서 이 계획에 대한 소련의 반대로 인해 선거 반대진영이 국가의 영구적인 분단을 우려했음을 다루고 있다. 반대로, 선거를 옹호하는 측은 분단되고 독립적이며 반 공산주의 정부의 수립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 기존의 좌익/우익 정당 분열을 초월하여 나타났다. 선거가 치러질 때 까지도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과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운동에 참여하며 남한만의 단독 선거 이외에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부분은 또한 선거 찬성측과 반대측의 폭력적인 대결을 보여준다. 이러한 폭력적인 선거 환경으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남단과 제주도에서 사망하였다. 제주도와 관련하여, 이 강좌는 1947년 3월 1일 이후 악화된 폭력의 순환을 묘사하며, “삼일정신”을 성취하고자 하는 갈망을 살펴보고, 어떻게 남한에서 3.1운동 기념식이 정치적 염원을 표현하는 장이 되었는지 설명한다. 이 강좌는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 발생한 비극과 1948년 4월 4-3 폭력이 있기까지 몇 달간 극우주의적 정당과 기존의 경찰력에 의한 국민 압제, 그리고 몇 달 동안 제주도가 어떻게 탄압 정책 속에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탄압 속에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학생들에게 항상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학생들은 한국전쟁 이전의 한반도와 제주도의 맥락에서 이런 폭력에 대한 내용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또한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하여 수 십년간 감춰진 채 침묵했던 것을 나는 25년전 내가 가르쳤던 한국의 제주도 출신 학생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설명한다. 이 학생은 급우들에게 1948년에 제주도 도민들에게 거대한 탄압이 있었다고 공개하였다. 또한 그 학생은 이 기간동안 섬에서 남자들이 실종되었으며, 일본으로 이주하거나 살해당하였다고 덧붙였다. 한국 학생들도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부분은 국제연합에 의해 정당성을 얻은 선거의 결과로 마무리된다. 국제연합 감독관들조차 보고서에서 유권자의 투표율이 기권할 경우 공산주의자로 인식될 것을 두려워한 것과 분명 연관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결언

간략한 본 발표는 우리 대학의 한국사 강좌 커리큘럼의 전반적인 구성 틀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전쟁으로 마무리된) 한국사의 복잡성과 비극적인 측면으로 인해, 또한 한국사의 영속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분단 과정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는다. 나는 여기에서 학생들의 관심사 / 반응의 종류를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는 본인 (그리고 바라건대 독자들)이 프랑스 학생들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교육자로서, 나는 물론 이 시기에 대해 짧은 시수만 배정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중매체를 통해 한국 역사에 대한 양질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다큐멘터리는 학문적인 강좌를 소개하거나, 보완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Teaching Korean contemporary history in Korean Studies Foreign Applied Languages Bachelor Degree



Evelyne Chérel-Riquier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La Rochelle (France)
UMR8173 China, Korea, Japan

Presentation overview

- General frame of the courses on History of Korea in our Bachelor Degree
 - Korean Peninsula General History courses
 - Korean Peninsula Division Process history
- ⇒ Example of documents, illustrations use during the course
- ⇒ Focus on United Nations and Korean peninsula “General Elections” (1948)

General Frame

- Aims and specificities of the Korean Studies Applied Languages Degree
- Some specificities of Freshman students acquired knowledge on Korean peninsula prior to admission in the university

Curriculum of Korean Civilization courses

- *Bachelor Degree Second year :*
- Semester 1 (12 hours): Formation of Korean space through history ; Korean peninsula geography (physical, human and economic).
- Semester 2 (12 hours): Historical background of Korean peninsula (to end with Japanese colonization)

Curriculum of Korean Civilization courses

- *Bachelor Degree Third year:*
- Semester 1 (18 hours): Foundation process of two Korean separated States ;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Semester 2 (18 hours): North-Korean State History and South/North Korean relations ; Focus on South-Korean society theme (for e.g. Evolution and issues of the Religious Field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Peninsula Division Process syllabus courses

- Allied Forces and the “Korean Question”
- Korean Political Forces in 1945
- End of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and power succession
- Allied Agreement on Korean Peninsula: Moscow Agreement (December 1945)
- Different political programs applied in the North and South of 38th parallel

Korean Peninsula Division Process syllabus courses

- United Nations Organization and Korean peninsula “General Elections” (1948)
- The Korean War

Example of documents,
illustrations in use during the
course

Extracts of (French) documentaries

- *Corée, l'impossible réunification ? (Korea, Impossible reunification ? Part 1. Enemy Brothers)*, Pierre-Olivier François, 2013)
- *Histoire de la Corée, (History of Korea)*, Geopolis (1992)

Allied Forces and the Korean Question

• «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

(Cairo Conference, nov. 1943)

• « *the Koreans are not yet capable of exercising and maintaining independent government and [...] they should be placed under a 40-year tutelage* »

(Tehran Conference, nov/dec. 1943)

Division of Korea around 38th parallel

« About midnight, August 10-11, 1945, Colonel Charles H. Bonesteel and Major Dean Rusk [...] began drafting part of a General Order that would define the zones to be occupied in Korea by American and Russian forces. They were given thirty minutes to complete their draft, which a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was waiting for. The State Department wished the dividing line to be as far north as possible, while the military departments, knowing that the Russians could overrun all of Korea before any American troops could land there, were more cautious.

Division of Korea around 38th parallel

Bonesteel and Rusk wanted to follow provincial boundary lines north of Seoul, which would violate political divisions as little as possible and would place the capital city in the American zone. The only map immediately available was a small-scale wall map of the Far East, and time was pressing. Bonesteel noted that the 38th Parall passed north of Seoul and almost divided Korea into two equal parts. He seize on it as the proposed zonal boundary »

Quoted by Bruce Cumming,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1, p. 119

Opposition to Moscow Agreement

Pictures source : ohmynews



Southern Political Actors with Northern Political leaders (April 1948)

source : AKS



Focus on United Nations and Korean peninsula “General Elections” (1948)

United Nations and Korean peninsula “General Elections” (1948)

- Transmission of « Korean Question » to the General Assembly of United Nations
- Korean political world divided on the organisation of the « General Elections » :
priority on the unity of the country
vs
priority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State, even divided

United Nations and Korean peninsula “General Elections” (1948)

- Violent Context around the elections
- The Case of Chejudo, from 1947 March 1st commemoration and after April 4-3

17

Concluding remarks

- Due to its complexity and tragic aspects (which culminate during the Korean War), due also to its permanent aspect, the Division process of Korean Peninsula usually mobilizes the close attention of the students. As an educator and researcher, I regret of course, the too short number of hours I may dedicate to this period.
- Project of developing a course (Master Degree level) on the thematic area of Memory, quest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in Korea.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d
‘4.3’” Lecture Program**
“한국현대사와 ‘4·3’” 강의안

Chung, Yong-Wook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정용욱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d ‘4·3’” Lecture Program



Chung, Yong-Wook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1. This lecture program is developed to provide a lecture on the ‘4·3’ over 2 to 3 liberal arts or major studies classes in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t undergraduate level. I understand that this International Forum is a place for professors or lecturers teaching Korean Studies at universities in Korea and overseas to share experiences and materials on Korean contemporary history lectures and discuss measures for improvement. I also believe that the Forum should be a venue where participants discuss the objectives, direction and desirable teaching methods in providing a lecture on the ‘4·3’ during Korean contemporary history classes. I submit this lecture program on the ‘4·3’ instead of the Korean contemporary history syllabus, and I hope that this lecture program serves as a helpful material for discussion at the Forum.
2. In the title of my lecture program, I used ‘4·3’ to refer to the Jeju 4·3 incident. Was ‘4·3’ an uprising, an incident or a riot? Should it be considered Jeju 4·3 or was it a national or global event not limited to the location of Jeju? Even within Korean academic circles, researchers use different terms to refer to the same event. I want to start my lecture by providing students with a question – why has Korean society or Korean academia not yet defined the official name of the ‘4·3’ event? And I would like to kick off the lecture by asking students to find the answer to what they believe should be the name for ‘4·3’.
3. The lecture has largely three sections – 1) the past, 2) memory of the 4·3, and 3) the present.
 - 1) First section of the lecture discusses ‘the past’ – the history to the 4·3, such as the background to the 4·3, how it unfold, the massacre of civilians, and the response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uring this section, the lecture will cover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to the Korean War (6·25). It will also look at the distinct regional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 the lives of the people before and after liberation, and th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of Jeju Island after 4·3. I will be citing a letter sent by a Jeju-born young man living in Tokyo, Japan at the time to General Douglas MacArthur in May of 1946 and the demands of Jeju residents during a convention commemorating the March 1 Movement held on March 1, 1947, which later became the background to the 4·3, in order to illustrate the ‘liberation’ and ‘occupation’ that ordinary citizens experienced and the then state of affairs in East Asia.

- 2) Second section of the lecture, ‘memory of the 4·3’, will examine how silence was forced in Korean society, how the memories of the event were forgotten, and how eventually they were restored. Hyun Ki-young’s novel ‘Sun-i Samch'on,’ which was published during Park Chung-hee’s military dictatorship, sparked discussion about the 4·3 event in at least a form of literature. But the author faced brutal suppression from the military regime. It was only after Korea democratized that victims were finally able to start speaking about their experiences through ‘testimonies’. Finally,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enacted the ‘Special Act on Discovering the Truth of the Jeju 4·3 Incident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in 2000, but the efforts of Jeju residents in investigating the incident and restoring honor continue to this day. In addition, restoring the memories of 4·3 and honoring the victims continue to be raised as issues as seen in the movie “Jiseul” or the independent film “Reiterations of Dissent”.
- 3) At the 70th Jeju 4·3 Memorial Ceremony in 2018, which was the first to be held since the new government took office after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stepped down following a series of ‘candlelight (is it protests, struggle, rally, or revolution (?))’, President Moon Jae-in made a promise by saying, “I will resolve the injustice experienced by victims and restore their honor by investigating and revealing the truth of the state-imposed violence.” President Moon also mentioned ‘those who enlightened us from forgotten memories by expressing the pain and suffering of 4·3 in literature in a time when it was taboo to remember 4·3 and discussing the event was considered as resistance’. Around April 3 this year, the “Jeju 4·3 is part of Korean history” campaign and #MeToo movement spread across Korean society. Will the #WithYou movement, which followed in response to the two campaigns, be able to take ‘Jeju 4·3’ nationwide, and also worldwide? In recent days, we witnessed great historical change –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 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oint Statement betwee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nd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June 12. What are the historical lessons of 4·3 in the new era opened by the two statements? And what are the actions that Korean society 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take to resolve 4·3?

4. I plan to conclude the lecture by citing two columns – the renowned Korean scholar of French literature and popular columnist Hwang Hyun-san’s column criticizing the political bargaining between Japan and the U.S. in solving the 'comfort women' issue (The Kyunghyang Shinmun, March 6, 2015) and South Korean writer Han Kang’s column on the U.S. government and its people’s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New York Times, October 7, 2017) – to examine the unique historical experience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d its relationship to the universality of world history.

“한국현대사와 ‘4·3’” 강의안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1. 나는 이 강의안을 학부의 「한국현대사」 교양 또는 전공 수업에서 2~3회에 걸쳐 ‘4·3’을 주제로 강의하기 위해 작성했다. 나는 이 국제포럼이 국내외 대학에서 한국학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 또는 강사들이 「한국현대사」 강의 경험과 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바람직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한국현대사」 수업에서 ‘4·3’을 주제로 강의하고자 할 때 그 강의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향, 바람직한 교수법 등을 토론하는 것 역시 이 포럼에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라고 알고 있다. 나는 「한국현대사」 강의계획서(실러버스)를 제출하는 대신 내가 구상하는 ‘4·3’ 강의안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강의안이 이 포럼을 위해서 유용한 논의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2. 나는 이 강의안의 제목에서 제주 4·3을 그저 ‘4·3’으로 표기했다. ‘4·3’은 항쟁인가, 사건인가, 폭동인가? 제주 4·3인가 아니면 제주에 한정되지 않는 전국적 또는 세계적 사건인가? 한국 학계조차 연구자에 따라 여전히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왜 한국 사회 또는 한국 학계가 지금까지 ‘4·3’에 대한 명칭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것인지 수강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4·3’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을지 그들 스스로 해답을 찾아낼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고 싶다.
3. 나는 이 강의를 크게 1) 과거, 2) 4·3의 기억, 3) 현재의 3부로 구성했다.
 - 1) 1부 ‘과거’는 4·3의 발생 배경, 전개과정, 민간인 학살의 추이, 미군정과 남한 정부의 대응 등 4·3의 역사를 다룬다. 해방 이후 6·25전쟁에 이르는 시기의 한반도 역사를 전체적으로 개관하면서,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 제주도 주민의 해방 전후의 삶, 4·3 이후 제주도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특히 보통사람이 겪은 ‘해방’과 ‘점령’, 그리고 당시의 동아시아 정세를 설명하기 위해 일본 동경에 살던 제주 출신의 한 청년이 1946년 5월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할 것이고, 4·3의 배경적 사건이 되었던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대회’에서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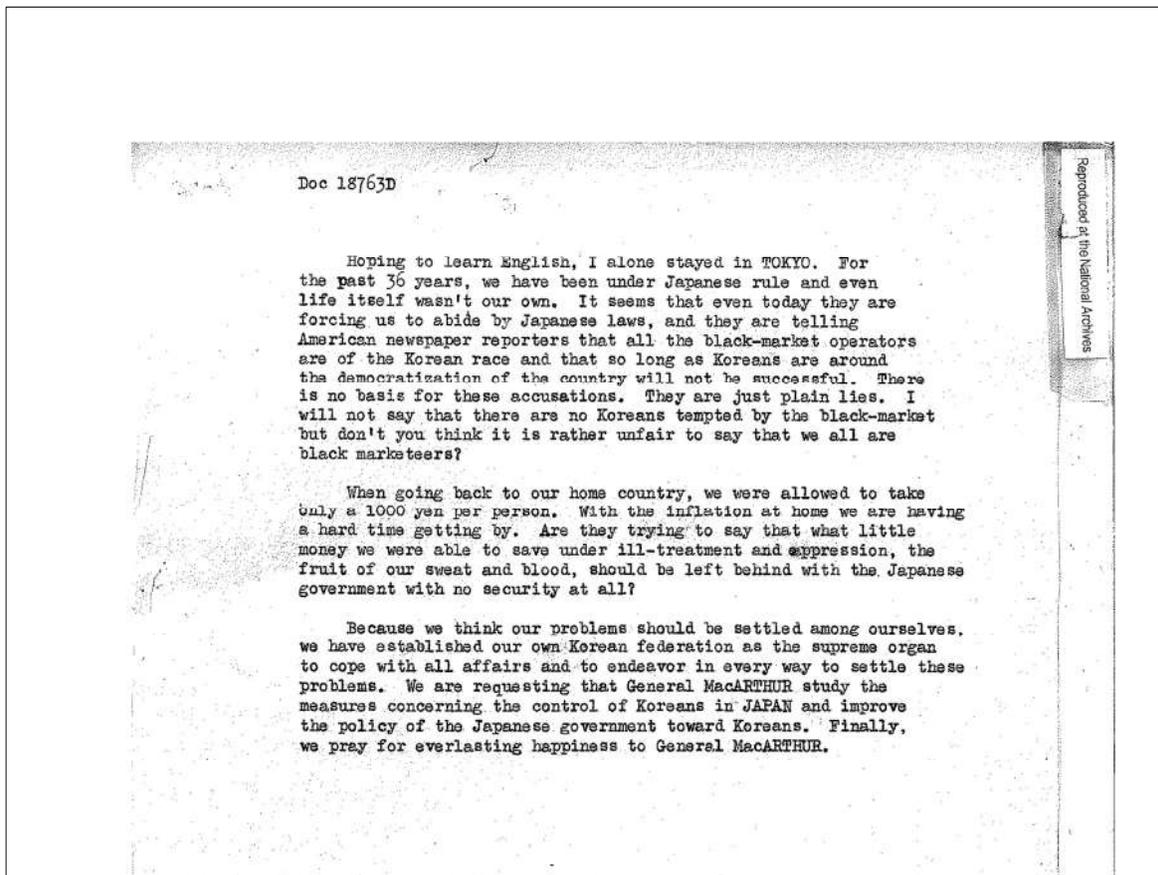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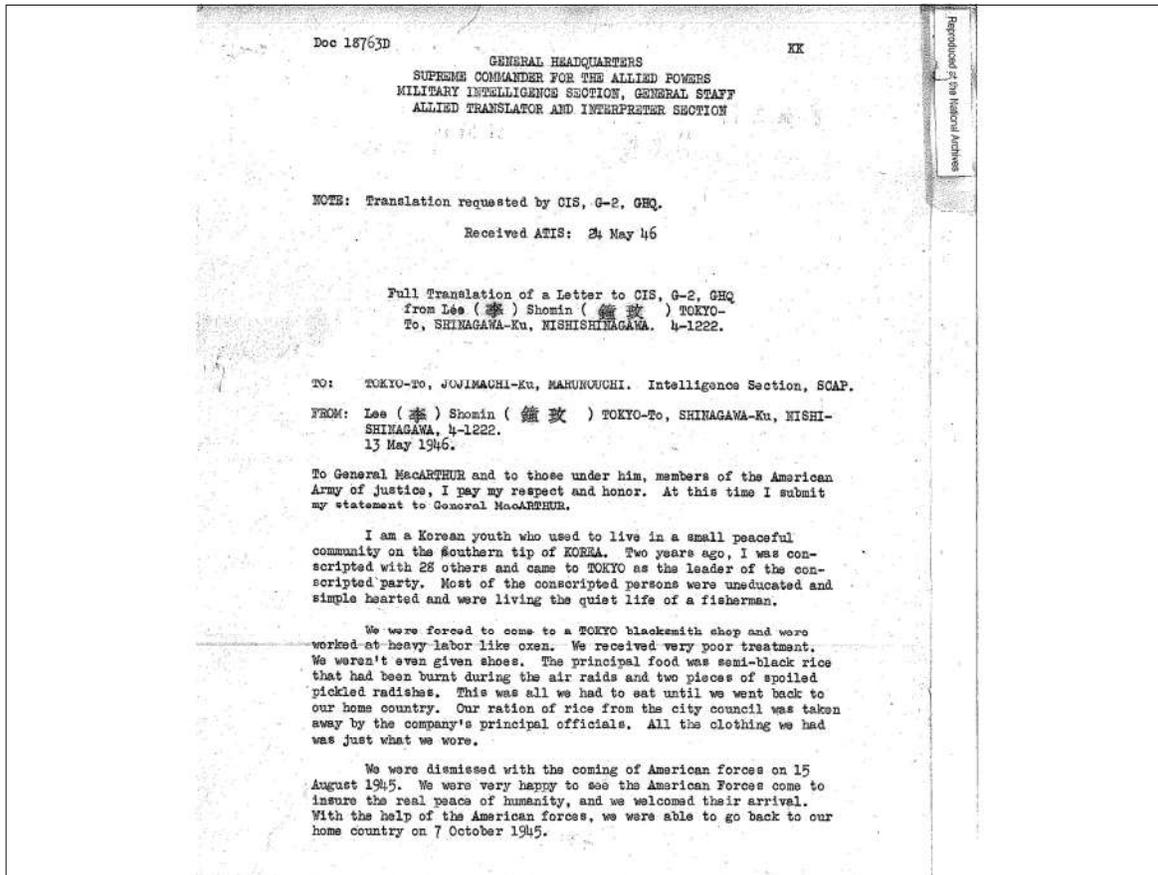
- 도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들을 살펴볼 것이다.
- 2) 2부 ‘4·3의 기억’은 한국 사회에서 4·3에 대해 침묵이 강요되고, 또 그것에 대한 기억이 망각되고, 결국에는 다시 복원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기에 출간된 현기영의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이 비록 문학작품의 형태로나마 다시 4·3을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만들었으나 작가는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야 비로소 ‘증언’의 형태로 피해자들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김대중 정부에 의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이 제정되었으나, 제주도 주민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노력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또 영화 “지슬”이나 독립영화 “거듭되는 항거”에 나타나듯이 4·3에 대한 기억의 올바른 복원과 추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3) ‘촛불’(시위, 항쟁, 집회, 또는 혁명(?)에 의해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뒤 첫 번째로 맞이한 올해 4·3 70주년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4·3을 기억하는 일이 금기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온시 되었던 시절 4·3의 고통을 작품에 새겨 넣어 망각에서 우리를 일깨워준 분들”에 대해 언급했다. 올해 4월 3일을 전후하여 한국 사회에서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캠페인이 일어났고, 또 ‘#METOO’ 운동이 일어났다. 이 두 개의 캠페인에 호응한 ‘#WITHYOU’ 운동은 ‘제주 4·3’을 전국적으로, 또 지구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까? 최근 남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나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고, 북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6·12 ‘조미합의선언문’에 서명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가 이 나라에 일어났다. 두 선언이 가져올 새로운 시대에 4·3이 주는 역사적 교훈은 무엇이고, 한국 사회 또는 지구촌이 4·3의 역사적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4. 한국의 저명한 불문학자이자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황현산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일어난 정치적 흥정을 비판한 칼럼(『경향신문』 2015. 3. 6)과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 한강이 북핵 위기에 대한 미국 조야의 대응을 보고 작성한 『뉴욕타임즈』(2017. 10. 7) 기고 칼럼을 인용하여 한국의 근현대사가 가진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그 경험의 세계사적 보편성과의 관계를 음미하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고 싶다.

한국 현대사와 '4·3'

정 용 옥
(서울대 국사학과)

- 과거

- 해방, 분할 점령, 4·3, 그리고 분단
- 제주 출신 청년 이종민이 맞은 '해방'과 '점령'
-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대회'; '통일조국'



- 도쿄도 시나가와(品川)구 니시시나가와(西品川) 4-1222의 리쇼민(李鐘玟)이 연합군최고사령부에 보낸 서한, 1946. 5. 13

저는 조선의 남쪽 끝자락에 있는 자그맣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자란 조선인 청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저는 28명의 다른 이들과 함께 징용되어 우리의 우두머리로 도쿄에 왔습니다. 징용자 대부분은 무지렁이지만 순진했고, 어부로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강제로 도쿄의 한 대장간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소처럼 중노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열악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에게 신발도 주지 않았습니다. 공습 때 불타버려 반이 그슬린 쌀과 상한 무짚지 두어 쪽이 우리의 주식이었습니다.(중략)

우리는 미군의 도움을 받아 1945년 10월 7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배우고자 홀로 도쿄에 남았습니다. 지난 36년간 우리는 일본의 통치 하에 있었고 심지어 생사(生死)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우리에게 일본법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일인들은 미국신문 기자에게 모든 암시장은 한민족이 도맡고 있으며 한국인이 있는 한 일본의 민주화는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암시장의 유혹을 받는 한국인이 없다곤 말하지 않겠습니까만, 우리 모두가 암시장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1인당 단돈 천 엔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향의 물가가 너무 올라 그럭저럭 살아가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들은 학대와 압제 속에서 우리의 피땀이 일궈낸 결실인 소액의 돈을 아무런 보장도 없이 일본 정부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문제를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모든 일을 다루고 또 백방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고 기관으로 조선인연합회(조련)을 수립했습니다. 우리는 맥아더 장군께 일본 내 조선인 통제와 관련된 조치들을 강구하고 조선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을 개선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4·3의 기억; 망각, 복원, 추념, 그리고?
 - 현기영의 “순이상촌”
 - 제민일보 4·3취재반, 1993 《4·3은 말한다》 1-3, 전예원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
 - 영화 “지슬”(2013)과 제인 진 카이젠(Jane Jin Kaisen)의 “거듭되는 항거”(Reiterations of Dissent, 2014)가 말하는 것
 - 2018년 ‘4·3 70주년’ 추념식; 인권과 정의

- 현재
 -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캠페인
 - 4·3과 ‘#METOO’, 그리고 ‘#WITHYOU’(?)
 -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4·3



- 진상규명, 치유, 그리고...

- 진상규명, 해원(解怨), ‘역사로서 4·3’
- ‘판문점 선언’ 이후 ‘4·3의 역사적 해결’
- 한국적 특성과 보편성



- 황현산, “‘과거의 적’과 현재의 적,” 《경향신문》
2015. 3. 6

‘난징 대학살’ 같은 학살 사건이 중국인들에 의해 미국에서 저질러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인들과 중국인들과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함께 지탄해야 할 일이다. 한국인들이 일본의 젊은 처녀들을 강제로 전쟁터의 위안소로 끌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 한국, 중국, 미국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의 시민들이 함께 통탄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그것은 인간성에 관한 일이고 인류의 미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민족감정 따위에 얽어 묶을 수 없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객관화 해야 한다. 일본의 침략주의와 제국주의에 관해서라면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에 앞서 일본인들이 먼저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객관화 되지 않는 ‘과거의 적’은 바로 ‘현재의 적’이며, 한국인들과 중국인 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적이기 때문이며, 웬디 셔먼의 나라 미국의 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Han Kang, ‘While the U.S. Talks of War, South Korea Shudders’,
New York Times, 2017. 10. 7

“Rather, the tension and terror that have accumulated for decades have burrowed deep inside us and show themselves in brief flashes even in humdrum conversation In researching my novel “Human Acts,” which deals with the 1980 Gwangju Uprising, when the military dictatorship turned to the armed forces to suppress student protests against martial law, I had to widen the field to include documents related not only to Gwangju but also to World War II, the Spanish Civil War, Bosnia and the massacres of Native Americans. Because what I ultimately wanted to focus on was not one particular time and place but the face of universal humanity that is revealed in the history of this world. I wanted to ask what it is that makes human beings harm others so brutally, and how we ought to understand those who never lose hold of their humanity in the face of violence. I wanted to grope toward a bridge spanning the yawning chasm between savagery and dignity.”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긴장과 공포는 우리 안에 깊이 내면화 되어 있고, 그것은 평범하고 단조로운 대화에서도 문득문득 떠오르곤 한다.

1980년 광주항쟁을 다룬 소설 “Human Acts”(“소년이 온다”의 영역본)를 집필하기 위해 광주항쟁을 조사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스페인 내전, 보스니아 인종청소 및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도 조사했다. 왜냐하면 내가 궁극적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한 것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보편적 인성의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 잔인하게 상처를 주게 만드는지, 다른 한편으로 폭력에 직면해서도 결코 인간성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묻고 싶었다. 나는 야만과 존엄 사이에 깊고 넓게 갈라진 틈 사이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더듬어보고 싶었다.





for the Global Signification of
Jeju April 3rd
at a Historical Transition Period
세기적 전환기에 있어 제주 4·3의 세계(사)적
의미화를 위한 시론(試論)

IM, Chong-myong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임종명
전남대학교 사학과

for the Global Signification of Jeju April 3rd at a Historical Transition Period



IM, Chong-myong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The World in Transition, and the Jeju April 3rd

Since the late 20th century, we have witnessed a series of historical transformation. The fall of the real socialism and the end of the Cold War near the end of the 20th century gave birth to new trends that swept across the world at the turn of the century: globalization and de-territorialization. Along with these changes, we attempt critical reflections on the 20th century, an era defined by wars and conflicts that alternated between the Hot War and the Cold War, and the modern discourses that dominated the past century, which focused on the developments of class, the nation, and the state. This essay represents an attempt at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research on the Jeju April 3rd (the April 3rd hereafter).

The April 3rd began with attacks on the 12 branch police stations in Jeju, which were signaled by flames that arose from the mountain tops around the Hallasan Mountain at around 1:00 a.m. on April 3, 1948. In terms of political ideology, the April 3rd Uprising was a popular uprising that aspired for “one Korea.” In other words, the uprising was motivated by contemporary Korean nationalism that upheld the ideal of “one ethnicity, one nation.” It is evidenced by a slogan used during the uprising: “No to the Election for National Division.” The April 3rd Uprising ended with massacres of the people of Jeju by the US military regime, the subsequent Republic of Korea (ROK hereafter), and right-wing groups such as the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In this regard, the April 3rd was the process and history of state violence that killed at least 30,000 civilians.

Not a few previous literatures on the April 3rd assumed the perspective of modern nationalism and democracy. In other words, many of the literatures see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state at the time as

a given and justify the uprising from a nationalist standpoint while criticizing the suppressors for their anti-nationalism. Moreover, based on the political agendas of humanism and democracy, previous literatures criticize the US military regime, the ROK, and even the United States, which revealed their true faces through the state violence committed in the course of suppressing the uprising. This shows that nationalism and democracy underlie many of the previous literatures.

In this sense, despite their achievements, the literatures have their limitations. They approach their subject matter within modernist frames such as nationalism. They simply see the uprising as a popular nationalist movement, failing to capture the multilayered and complex nature of the uprising, for example, from the perspective of ethnic Jeju people. They also limit their field of view to a single nation, thus failing to shed sufficient light on the historically global significance of the April 3rd in the transition period toward postmodern de-territorialization. This warrants a need to revisit the issues of the April 3rd uprising and state violence from the global perspective, and to signify April 3rd in the world and its modern history.

Recontextualizing the April 3rd Uprising

The global signification of the April 3rd first requires a recontextualization of the uprising. The global and regional contexts that underlie the uprising consist of the “end of the imperial(ism) era and the regionally extended consolidation of the ethnic nation-state system,” as well as “the dismantling of the Japanese empire in East Asia and the regional establishment of the ethnic nation-state system.” World War II was won by the Allies,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hich had pursued anti-colonialism based upon their own global agenda. The outcomes of the war allowed for the execution of the world strategies of two superpowers: the dismantling of the competing empires and the establishment of hegemony in the world. After the war,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dismantled the imperialist system and helped people in Asia and Africa build their nations. The strategies of the superpowers put an end to the age of empires (and imperialism) and consolidated the nation-state system in Asia and Africa.

Against the backdrop of the building-up of the nation-state system in Asia and Africa, the nation-state system replacing the imperial state system was established in East Asia for the first time in the recorded history. The regional nation-state system across East Asia had never been built, even after the West’s invasion of the region and the “opening” of East Asia that followed. Instead, the Japanese empire aspired to build a hierarchical multiethnic and/or national community in East Asia. When the Japanese empire was dismantled after the Asian-Pacific War, the areas and the people previously under the control or influence of the empire were divided and reorganized into nations and built (or had to build) their nation-states. As a result, East Asia saw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state system in the

region after the war. In other words, the imperial/colonial regime that existed in East Asia before and during the war had been replaced by the postbellum nation-state system. This change defined the East Asian history after the war. They also constituted the East Asian context of the Korean history after its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and, thus, the April 3rd Uprising.

The context of post-liberation Korea and the April 3rd Uprising can also be found in relation to the transfer of hegemony in East Asia as well as the changes in civilizations and ideologies. Korea's liberation from colonial rule was the direct product of Japan's loss in the Asian-Pacific War and the victory of the All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n this sense, post-liberation Korea was also the time-space where the postbellum transfer of hegemony in East Asia took place. The Asia-Pacific War can be characterized as an ideological war between those for and those against western-centric modernism, as well as a war between global superpowers over the hegemony in the region. Therefore, the postbellum transfer of hegemony in East Asia coincided with the changes in the dominant ideologies of the region. Moreover, given the fact that the ideological war was fought over the western-centric modernism and understanding of modern history, the changes in the dominant ideologies in the region after the war represented the "return" of the western-centric modernism that had been criticized in regions where the Japanese empire held hegemony before the end of the war. This aspect constitutes another political-ideological context of post-liberation Korea and the April 3rd Uprising.

Against these backgrounds, the Korean Peninsula saw a *sudden* rise of nationalism in South Korea.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the "end of empires" spurred de-colonialization in old colonies and the emergence of many nation-states in Asia and other regions. The postbellum history of the world saw the consolidation of "nationalism" across the world, and the coming of the "culmination of nationalism" and the "age of nation (-state)." The "culmination of nationalism" can also be observed in the postbellum Korean Peninsula. The liberation from colonial rule, occupation of the peninsula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nd resulting division of Korea led to the rise of the "one ethnicity, one nation", the political agenda of nationalism, and fueled the aspiration for building a single ethnic nation-state and the movements motivated by such ambition. These changes form the context of the nationalist aspiration in post-liberation Korea and the April 3rd Uprising.

However, the nationalist aspiration faced "threats" in the early periods of the Cold War era. In international political terms, post-liberation Korea was contextualized by the earl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nd, in modernist terms, the competition between the Enlightenment Left and the Enlightenment Right. After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on the Asian-Pacific War, western modernism showed "itself again in Asia's and, therefore, South Korea's discursive spac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USA' and USSR' victory in the Asia-Pacific War, supported by the power of the victors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nd "amid the positive response and reception by East Asians." However, western modernism compete within itself in East Asia and Korea, as well as across the world. To cite Hobsbawm, the Enlightenment Left of the

communist Soviet Union and the Enlightenment Right of the liberalist United States competed with each other in the form of the Cold War to establish their hegemony. The early days of the Cold War saw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blocs, which constituted its form as well as its substance. This threatened the core of nationalism, that is, the political sovereignty of each nation.

However, the formation of blocs in the Cold War era was not the only factor that threatens the nationalist agenda. The post-liberation surge of the aspiration for “local self-governance” threatened the state-centric nationalism at the time. In the post-liberation period, various areas in Korea enjoyed an unprecedented level of autonomy. The fall of Japan’s highly centralized imperial/colonial regime resulted in the reinforcement of local power across different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change is evidenced by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local Committee for the Prepa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CPKI hereafter) and the local People’s Committees that followed. Despite their title and roles in maintaining order in each local area, the Preparation Committees in South Cholla Province and Kwangju were serving and functioning as a type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It shows the decline of the hold of the state on local areas and the rise of local autonomy after the Liberation. The post-liberation rise of local autonomy threatened the state-centric nationalist agenda at the time.

Nationalism itself threatened Korea’s nationalism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e Liberation, too. Despite the surge of nationalism at the time, “neither its significance nor the concept of the nation had been stabilized.” For example, post-Liberation Koreans understood “nation” as a group bound by blood relationship or local ties, and competed among themselves over the concept of nation. Moreover, faced with the victory of the “multiethnic stat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over “single-ethnic states, such as Germany, Italy, and Japan,” many people doubted the value of a nation-state based on the ideal of one ethnicity, one nation. The South Koreans at the time were also skeptical of the significance of a nation-state and showed indifference to the nationalist agenda. These aspects show that neither its significance nor the concept of nation had not been stabilized at the time. It was partially caused by the amorphousness of post-liberation Korea.

Post-liberation Korea was an “amorphous time-space where the stereotype of the dominant ideology had not been established” and where “various desires and initiatives conflicted with each other.” Post-liberation Korea began with the declaration of surrender by the Japanese emperor. The declaration of surrender stopped the working of the colonial regime in Korea, destroyed the colonial rule and its disciplinary regime, and dismantled the colonial habitus. In addition, the dominant knowledge and ideas produced and distribut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had lost their discursive authority. Thus, the early days of the post-colonial era represented liberation from those that held dominion in the past, albeit for a short period. In the post-liberation period, the people of the old colony expressed their desires that had been suppressed by colonial rule and displayed their spontaneity in realizing those desires in various spaces. It shows that post-liberation Korea was the overly amorphous time-space, where various desires and initiatives conflict with each other, rather than the usually imagined time-

space “overdetermined by nationalism.” This illustrates that, despite the surge of nationalism in Korea and across the world after the war and the Liberation, it had not established itself as the dominant ideology. To understand the April 3rd Uprising and establish its glob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the uprising should be recontextualized by the postbellum/liberation situations discussed above. The recontextualization of the April 3rd Uprising will help us understand its significance in Jeju (and its history), as well as its meaning for Korea (and its history), regional East Asia (and its history) and the world (and its history).

April 3rd and State Violence

The April 3rd forms the (history of) struggle of the people of Jeju in the one hand, and (the history of) state violence in the other. Previous literatures on state violence during April 3rd were mainly interested in unveiling the “truth” about the violence, and reviewing the resulting damage to the people and communities of Jeju as well as its long-term destructive effects upon the island and its population. They focused on the power politics and its changes before and after April 3rd; the struggles for political power; the oppressive policies, institutions, and instruments of the state; and the reality, damage, and impact of the state violence during April 3rd. These literatures unveiled the truths about the contemporary state violence that had been suppressed or hidden for a long time, and illuminated the causes, progress,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of the acts of violence. However, these literatures do not provide sufficient explanations on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s as well as global and regional contexts after the war and the Liberation, which led to massive atrocities that were unprecedented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They also do not answer the question, “In the era of modern nationalism, in which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constitutes the cause of a state and its *raison d’être*, how could a state commit an act of massive violence against the nation at the risk of negating its *raison d’être*?”

With regard to the understanding of massive state violence against the nation, we need to understand again the crisis fac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its early days, and review the contemporary images of Jeju and its people in the eyes of those Koreans living in the Korean peninsula. On a related note, the “problematic nature” of Jeju and other islands, as well as borders in general, is relevant to the current discussion. One of the main pillars of a modern state is the exclusive exercise of single sovereignty over its people and its territory. From this perspective, a state foremostly requires borderlines to delimit and define its territories. Borders are lines that delimit and separate the territory of a state from those of others. At the same time, borders are lines where two or more states meet. This duality of separation and connection turns borders into self-contradictory lines and into problematic spaces. Border areas are ‘closed’ in the sense that they protect the state and are also ‘open’ in the sense

that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and trades go through them. This contradictory nature of borders led states and their elites to imagine them as “dangerous and problematic spaces” for states and nations.

Indeed, the borders in East Asia and South Korea were colored as problematic spaces after the Asian-Pacific War and the Korean Liberation. The postbellum world witnessed the end of the age of empires (and imperialism) and the arrival of the age of nation-state system across the world. Against this background, the nation-state system was established and began its working for the “first time in the recorded history” in East Asia. Motivated by these historical changes, the areas and the people previously under the control or influence of the Japanese empire were divided and reorganized into 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ir linguistic and cultural ethnicity, and had to build their ethnic nation-states. Such building of nation-states represents what was required of the postbellum/liberation Korean Peninsula and its residents, as well as the actual course of history that transpired. Specifically, the Korean Peninsula saw a surge of ethnic nationalism that pursued the ideal of “one ethnicity, one nation” in the South, as well as political and social movements dedicated to turning that ideal into reality. Against this backdrop, the borders became the targets of the Territorial Investigation Movement at the time, which were motivated by the territorial nationalism that imagined South Korea’s territory as a homogeneous space clearly delimited by borderlines and that sought to turn this imagination into reality. However, as the writer, Choi Namsŏn, wrote, “national borders are not self-evident on the sea.” In this regard, the sea was a space that threatened the territoriality of the modern state. In these respects, borders were problematic spaces in postbellum/liberation South Korea.

The problematic nature of borders can also be observed in Jeju and other islands that form a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nation. If the inclusion of the Hallasan Mountain in the targets of the Territorial Investigation Movement is any indication, from the standpoint of territorial nationalism, the island of Jeju was an “area to be academically researched and incorporated into the Korean territory,” and its people were “people to be organized into a part of the Korean nation.” Moreover, in the discursive spaces during Japan’s colonial rule, Jeju was represented as a prime evidence of the linguistic and cultural oneness with the ethnic Japanese from the ancient times, along with the emphasis on Jeju’s connection to Japan in terms of its myths, language, the number of Jeju-borns living in Japan, and even cherry blossoms. Even after the war and the Liberation, the “exotic” nature of the island was constantly represented and emphasized in terms of its nature, climate, culture, customs, and, most of all, language. In addition, as Jeju served as the main passage for smugglers and stowaways between Korea and Japan—the island was even called the “center of stowaways between Korean and Japan—the area threatened the national borderlines that had begun to “form” in postbellum/liberation East Asia, the resulting boundaries between nations and states, and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South Korea. In this sense, Jeju was a problematic space for the nation-state, for postbellum/liberation East Asian nation-state system, and for the nationalism that supported the nation-state system.

Jeju was also a problematic space for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April 3rd Uprising. Under the

reinforced sense of territory after the Liberation,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as one of the two Koreas on the peninsula, which cast doubts on whether the South Korean state represents the Korean nation or it is even a territorially nation-state. Faced with these doubts, the ROK and its elites, who posed themselves as the representatives of the entire nation and a genuine nation-state; the existenc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cross the 38th parallel north and its people; and the "Democratic Villages" and their residents in the Chirisan Mountain and the Hallasan Mountain posed a serious threat that was both actual and epistemological. Their existence was a proof that the ROK was a nonqualified state. In light of the above, we can surmise that Jeju was a "problematic" space for the ROK and its elites in that the area could negate the national agenda of representing the state as a genuine modern, territorial nation-state. These constitute the national context that underlies the state violence committed during the April 3rd. Moreover, it shows that the state violence during the April 3rd was also connected with the national agenda of the ROK, which was to achieve a modern nation-statehood.

The state violence during the April 3rd is also connected to the modernist perception toward islands at the time. If modernization mainly consists of "urban-centered industrialization and civil revolutions as attacks on traditional elements by modern elements" and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s a "process of reorganization of the periphery by the center," the existence of a non-urban border area, such as Jeju, posed a problem for modernism. Against this background, Jeju and other islands were represented as worlds suspended in times past from a developmentalist perspective, and as uncivilized, natural, and nonhuman spaces from a modernist perspective. Islands thus represented as premodern spaces were posited below the western-centric, civilized, and developed Seoul and the peninsula. Accordingly, for modernists, border areas such islands should be enlightened by those living in the civilized mainland. As evidenced by the emphasis on *hanyō* (female diver), Jeju and other islands were also feminized as objects of enlightenment by the masculine mainland, or even as targets to be conquered. These perceptions toward Jeju and other islands constituted the context of state violence during the April 3rd Uprising.

Conclusion: April 3rd, a Time-Space for Our Reflection on Modernity

This essay represents a preliminary recontextualization of the April 3rd Uprising in Jeju. One of the purposes of this paper was to provide points of reference for shedding light on the significance of the April 3rd in the world (history). The modern world and society are built on the separation and delimitation between the Self and the Other, which were aimed at establishing subjects on both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levels. The same can be said about postbellum East Asia and Korea. As

previously mentioned, during the post-war reorganization of East Asia after the modern nation-state system, the foremost agenda for the hegemons at the time, that i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s well as the elites of East Asia and Korea, was the issue of territorialization in both the populational sense and spatial sense of the term. Moreover, the problematic nature of the quintessential agenda found its expression in a border called Jeju and, in particular, during the April 3rd Uprising and the suppression thereof.

Therefore, studies on the uprising can shed more light on modernity and its problematic nature. Morris-Suzuki explains that borders shed “light” on the “centralizing system” of the nation and that it has a “subversive potential” for “modern nation-states.” It suggests a possibility that studies on Jeju as a border can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he difficult questions posed by the April 3rd—which include the despicable violence committed by the police, military, and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and illuminate its historical significance. In other words, the April 3rd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issue of modernity that the world is grappling with in the era of great transformation today. This essay thus seeks to convey the potential of Jeju and the April 3rd to motivate our reflections upon modernity across the world.

세기적 전환기에 있어 제주 4·3의 세계(사)적 의미화를 위한 시론(試論)



임종명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들어가며: 전환기의 세계와 제주 4·3

지난 세기 말(末) 이래 우리는 역사적 대격변을 목도하고 있다. 현실 사회주의 붕괴와 탈(脫)냉전이라는 세기 말의 역사적 과정은 지구화와 탈(脫)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라는, 전환기 세계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는 냉전과 열전이 교차했던 전쟁과 대결의 20세기에 대해, 또 지난 세기를 지배했던, 계급·민족·국가의 발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근대 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하고 있다.¹⁾ 이러한 전환기의 세계성에 유의하면서 본 발표문은 제주 4·3(이하 4·3) 연구의 발전에 일조하고자 마련된 시론이다.

4·3은 1948년 4월 3일 새벽 1시 한라산 봉우리들에서 피어 오른 봉화를 신호로 하여 도내 11개 경찰 지서의 공격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4·3 항쟁은, 정치 이념적으로, ‘분단 선거 반대’ 구호에서 단적으로 보이듯이, ‘통일 지향’의, 다시 말해서 ‘1민족 1국가’를 추구하는 민족(자결)주의 이념에 의거한 대중 항쟁이었다. 이와 같은 성격의 4·3 항쟁은 미군정, 또 그를 이은 대한민국의 군경과 서북청년단 등의 우익 단체들의 제주도민 대량 학살로 마감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4·3은 최소 3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 학살을 낳은 국가 폭력사(事·史)의 과정이자, 그 역사였다.

4·3 관련 기존 연구는, 적지 않은 경우, 근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여왔다. 즉 그것들은 당대 민족-국가 수립을 당연(當然)의 의제로 하여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면서,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4·3 항쟁을 정당화하고 그것의 진압자들의 반(反)민족성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는 인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의제에 기초해서, 4·3 진압 과정에서 자기의 모

1) 임종명 2011a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한국현대사 서술과 민족·국가·대한민국」 『역사와교육』 13 91-92쪽. 지난 세기 말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해체 이후 해당 지역에서 보이는 언어·문화 중심의(ethnic) 국민 국가의 축출(簇出)과 최근 영국에서의 브렉시트(Brexit) 사례, 또 미국에서의 트럼프(D. Trump) 집권과 자국 중심주의 강화가 보여주듯이, 지구화와 탈영토화가 직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현재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라는 두 경향의 세계사적 경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할 정도로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의 흐름 또한 범상하지 않다(임종명 2017 「중전/해방 직후(1945.8~1950.5) 남한 담론 공간과 변경의 미학적 재현」 『역사연구』 33 9-10쪽 각주 3). 그렇다 하더라도, 본문에서 지적된 ‘탈영토화’는 부인될 수 없는 전환기 세계의 일(-) 경향이다.

습을 보여준 미군정과 대한민국, 나아가 미국의 국가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다.²⁾ 이것들은 기존의 많은 연구가 민족주의·민주주의라는 의제에 의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기존 연구들은 연구 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한점을 노정하고 있다. 그것들은 민족주의와 같은 근대주의 프레임(frame) 안에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예컨대 ‘제주도민’(ethnic Jeju people)의 관점에서 볼 때,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모습을 가진 4·3 항쟁의 성격을 정식화하지 못하고, 그것을 대중적 민족주의 항쟁으로 회수하고 있다. 또 연구들은 자신의 시야를 일국적 차원에 한정하면서, 탈영토화·탈근대 전환기의 세계에 있어 4·3이 가진 지구적 차원에서의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4·3 연구가 향후 근대 세계성의 측면에서 4·3 항쟁과 국가 폭력의 문제를 재검토하여 그것의 전지구(사)적 함의를 밝힐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 4·3 항쟁의 재맥락화

4·3의 세계(사)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4·3 항쟁의 재맥락화가 요청된다. 기본적으로 4·3은 ‘전세계적인 제국(주의) 시대의 종언과 민족-국가 체제의 확립’과, ‘동아시아에서의 일본 제국의 해체와 민족-국가 체제의 수립’을 세계적·권역적(regional) 맥락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세계 패권 전략 또는 혁명 전략에 따라 반(反)식민주의를 추구하였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전쟁 승리로 종결되었다. 이와 같은 전쟁 결과는 미·소의 세계 전략, 즉 ‘경쟁 제국의 해체와 이를 통한 자신의 세계적 패권 구축’을 도모했던 전략의 실행을 가능케 하였다. 전후, 전쟁 승리자 미국과 소련은 자신들의 세계 전략에 의거해 기존의 “제국/식민지 체제”를 해체시키면서 아시아·아프리카 구(舊)식민지 백성들의 민족-국가 수립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전후 초강대국 미·소의 세계 전략은 종전 시까지 지속되었던 제국(주의) 시대를 마감케 하는 동시에 아시아·아프리카 권역에서까지 민족-국가 체제가 확립되는 전세계적 민족-국가 시대를 낳았다.

민족-국가 체제의 아시아·아프리카 확산을 배경으로, 동아시아에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민족-국가 체제가 확립된다. 서구의 동아시아 침략과 동아시아의 ‘개항’ 전후의 시기 이래, 동아시아 전역에서 민족-국가 체제는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대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서적(階序的)인 다민족(multi-ethnic and/or national) 공동체’가 추구되었다. 그런데, 제국 일본이 패전하고 일본 제국이 해체되면서, 일본 제국의 지배, 또는 그 자장(磁場) 아래 있던 지역(local)과 인민들은 제각각 민족으로 분할·재편되어 자신의 민족국가를 건설(해야)하는 시기에 돌입했고, 또 그 결과 전후에 비로소 동아시아에는 민족-국가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것은 전전(戰前)시기·전쟁기까지 유지되었던 동아시아 제국/식민지 체제가 전후 민족-국가 체제에 의해 대체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³⁾ 바로 이와 같은 체제적 변화가 전후 동아시아 역사의 의미이자, 해방 공간의, 따라서 4·3 전개의 동아시아적 맥락을 이룬다.

2) 대표적으로 양정심 2008 『제주 4·3항쟁 -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참고.

3) 임종명 2010 『소설과 역사, 그리고 1945년』 임종명 외 『역사에서의 지역 정체성과 문화』 엔터 152쪽.

또한 해방 공간과 4·3의 맥락은 전세계적으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이전(移轉)과 문명 사적, 이데올로기 전환과 관련해서도 설정될 수 있다. 한국의 식민지 해방은 제국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전쟁 패전과 미국 등 연합국의 전쟁 승리를 직접적 계기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해방 공간은 전후 동아시아 권역 패권 이전의 시·공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권역 패권을 둘러싼 열강들의 패권 전쟁이라는 성격과 함께 ‘서구 중심의 근대주의 옹호와 비판’의 이데올로기 전쟁이라는 성격 또한 가진다. 따라서 종전 이후 동아시아 권역 패권 이전은 권역 내 지배 이데올로기 변동의 동시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이데올로기 전쟁이 서구 중심의 근대주의와 근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 전개된 것이라고 한다면, 전후(戰後) 권역 내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동은 종전(終戰) 이전 시기 일본 제국의 패권 권역 내에서 비판받던 서구 중심의 근대주의의 ‘복귀’의 과정이었다.⁴⁾ 바로 이것이 해방 공간과 4·3의 또 하나의 정치·이데올로기적 맥락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한반도에서는, 따라서 남한에서는 민족주의가 급격히 고조된다. 제2차 대전 종전 이후 “제국의 종식”과 함께 구식민지에서 탈식민지화가 촉진되고 아시아 등지에서 민족국가가 대거 등장하였다. 이러한 전후 역사의 전개는 전세계적으로 ‘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비유럽세계에서도 ‘민족주의의 절정’과 ‘민족(국가)의 시대’를 도래케 하였다. ‘민족주의의 절정’은 전후 한반도 지역에서도 목격된다. 즉, 한국의 식민지 해방,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과 연이은 ‘한국 분단’이라는 해방 후 역사 과정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민족·일(-)국가’의 민족주의가 고양되고 또 단일한 민족국가건설의 열망과 그를 위한 운동이 강화되었다.⁵⁾ 바로 이러한 것이 해방 공간과 4·3에서 보이는 민족주의적 열망의 맥락을 형성한다.

그렇지만, 민족 자결주의로 정식화된 민족주의적 열망은 전후 초기 냉전의 진행 과정에서 ‘위협’ 받는다. 한국의 해방 공간은 국제정치적으로 표현하면 미·소 냉전의 초기적 경쟁, 달리 근대주의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근대 계몽주의 좌·우파의 경쟁을 맥락으로 한다. 미국과 소련의 아시아-태평양 전쟁 승리 이후, 한편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배경으로 하여, 또 현실적으로는 승리자[미국과 소련]의 힘에 의해 뒷받침” 받으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지 동아시아인의 호응과 접수” 속에서, 서구 근대문명주의는 “동아시아의, 따라서 남한의 담론장에 다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서양 근대주의는 세계적으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한국에서도 내부적으로 상호 경쟁한다. 즉, “계몽주의 좌파”- 홉스봄(E. Hobsbawm)의 표현을 빌리면-인 공산주의 소련과 “계몽주의 우파”인 자유주의 미국은 각각 자신의 헤게모니를 구축하고자, 국제정치적 용어를 빌리면, ‘냉전’이라는 형태로 상호 경쟁하였다.⁶⁾ 냉전이 국제정치적 블록(bloc)화를 형식과 내용으로 하여 진행되면서, 전후(戰後) 초기 냉전의 전개는 민족의 정치적 자주성을 자신의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족주의를 그 근저에서 위

4) 임종명 2014 「해방 직후 최재화와 개인 주체성 담론」 『역사학연구』 53 210-211쪽.

5) 임종명 2007 「설립 초기 대한민국의 북한 실지화(失地化)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타자화(他者化) (1948.8-1950.6)」 『사학연구』 88 1116쪽.

6) 임종명 2011b 「해방 공간의 소설과 ‘서울/비(非)서울’의 표상 체제」 임종명 외 『역사 속의 중앙과 지방』 북 엔터 178-181쪽 ; 임종명 2012a 「해방 공간과 신생활운동」 『역사문제연구』 27 219-220쪽 ; 임종명 2013 「해방 직후 남한 엘리트의 이성 담론, 규율 주체 생산과 헤게모니 구축」 『개념과 소통』 12 237-238쪽. 홉스봄에 따르면, “이성과 과학과 진보”는 “사회주의의 확고한 기초”였다(에릭 홉스봄 지음 정도영·차명수 옮김 2004 『혁명의 시대』 한길사 449쪽). 이점에서, 홉스봄은 “공산주의자들”을 ‘계몽주의의 후예’인 “계몽주의 좌파”의 일(-) 분파로 표현하고 있다(에릭 홉스봄 지음 이용우 옮김 1998 『극단의 시대: 20세기 역사』 상 까치 205-210쪽).

협하였다.

그런데 민족주의 의제를 위협했던 것이 냉전의 블록화만은 아니었다. 해방 직후 강화된 ‘지역 자치’의 열망 또한 국가 중심의 민족주의를 위협하였다. 한국의 해방 공간은 한국사에 유례없을 정도로 지역의 자치성이 강화된 시기였다.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일본 제국/식민 체제의 붕괴는 한반도 제(諸)지역의 ‘자치성’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해방 직후 한반도 내 각 지역의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와 그것의 후신인 지역인민위원회(이하 인위)의 조직화와 그것들의 활동에서 단적으로 보인다. 비록 각 지역의 치안 유지와 건국 준비 조직들이 건국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을 내걸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컨대 전라남도 건준이나 광주 건준은, 안중철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종의 지역 자치 조직으로 활동·기능하고 있었다.⁷⁾ 이것은 해방 직후 국가의 지역 지배력이 약화되고 지역 자치성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해방 직후 지역 자치성 강화는 당대 국가 중심의 민족주의의 의제를 위협하였다.

하지만 종전/해방 직후 한국의 민족주의를 위협했던 것은 민족주의 자체였다. 당대 고조된 민족주의조차 “그 의의성은 물론이고 민족 개념 그 자체도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다. 예컨대, 종전/해방 직후 한국인들은 ‘민족’을 혈연체, 또는 지연체(地緣體) 등으로 이해하고 그것의 개념을 둘러싸고 상호 경쟁하면서, 그 개념조차도 안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심지어 ‘단일민족국가 독·일’에 대한 ‘다민족국가 미·소’의 전쟁 승리 앞에서, 민족주의의 핵심 의제인 일(一)민족일(一)국가주의에 입각한 민족·국가의 가치까지 의심되고 있었다. 또한 당대 남한 대중들 역시 국가 존재의 의의에 대해 회의하면서, 민족주의 의제에 대한 자신들의 무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들은 민족주의가 그 의의성은 물론이고 민족 개념 그 자체도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것은 해방 공간의 무정형성(無定型性)으로 말미암은 것이기도 했다.

해방 공간은 “다양한 욕망과 기획이 충돌”하는, 또 “지배적 이념의 정형(stereotype)이 확립되지 않은 무정형(無定型)의 시·공간”이었다. 한국의 해방 공간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으로 열려졌다. 천황의 항복 선언은 연속해서 식민지 한국에서 식민체제의 작동 중지를, 식민 제도와 규율 체제의 와해·붕괴를, 식민지 습속(habitus)의 해체를 낳았다. 이와 함께, 식민시기 생산·유통되던 지배적 지식과 관념 또한 그것의 담론적 권위를 상실하였다. 이처럼 탈(脫)식민 초기는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과거의 지배적인 것들로부터, 문자 그대로 해방(解放)된 시·공간이었다. 그와 같은 해방 공간에서, 구(舊)식민지 백성들은 과거 식민 체제 하에서 억압된 자신들의 다양한 욕망을 분출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에서 주체로 등장하면서 자신의 자발적 활동성(spontaneity)을 극적으로 시현(示現)하였다.⁸⁾ 이러한 상황은 해방 공간이 기존에 “내셔널리즘에 의해 과잉 규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다양한 욕망과 기획이 충돌하는, 무정형(無定型)의 시·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⁹⁾ 이것은 종전/해방 직후 세계적으로, 또 한반도 지역에서도 고조된 민족주의가 안정된 상태의 지배 이념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종전/해방 직후 상황은 향후 43 항쟁 이해 심화와 그것의 세계

7) 안중철 1991 『광주·전남 지방현대사 연구』 한울.

8) 임종명 앞의 논문(2012a) 219-220쪽; 임종명 2009 「소설과 해방 직후: 익숙함과 낯섬」 임종명 외 『지역 교류 문화로 본 역사』 심미안 241-242쪽; 임종명 앞의 논문(2013) 241-242쪽.

9) 임종명 2008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 미국기행문의 미국 표상과 대한민족(大韓民族)의 구성」 『사총』 67 54-55쪽; 임종명 앞의 글(2009) 252-263쪽; 임종명 2012b 「해방 직후 이범석의 민족지상·국가지상론」 『역사학연구』 45 151-153쪽; 임종명 앞의 글(2012a) 219-220쪽.

(사)적 의미화예를 위해 재맥락화되어야 할 것이다. 4·3의 재맥락화는 우리가 4·3 항쟁의 당대 제주 지역(사)에서의 의미와 일국(사)적·권역(사)적·세계(사)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주 4·3과 국가 폭력

제주 4·3은 한편에서는 제주인의 항쟁(사)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폭력사(事·史)였다. 4·3시기 국가 폭력 관련 기존 연구는 국가 폭력의 ‘실상’을 규명하고 국가 폭력이 제주도민과 그들 공동체에 끼친 피해와 그것의 파괴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4·3을 전후로 한 거시 권력의 향배와 그를 둘러싼 정치 투쟁, 또 이 과정에서 보이는 국가 기구의 억압 정책과 관련 제도 및 기구, 이를 배경으로 한 실제 4·3 당시 국가 폭력의 실제와 그것의 피해와 영향 등이 연구 초점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연구는 4·3 당시 국가 폭력과 관련해 오랜 동안 억압·은폐되어 온 사실을 드러내면서, 폭력 행사의 계기와 그 양상, 또 그것의 특성과 결과를 밝혀내었다. 그렇지만 한국 근대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던 대규모 국가 폭력을 낳았던 종전/해방 직후 역사·사회적 맥락 특히 지구적·권역적 맥락에 관한 설명은 충분치 않다. 더군다나 ‘민족 발전이 국가 존립의 근거와 목적인 근대 민족의 시대에, 국가 존립의 근거·이유·목적은 무효화할 수 있는, 국가의 자국·자민족 구성원에 대한 대규모 폭력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설명은 충분치 않았다.

민족·구성원에 대한 대규모 국가 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4·3 당시 국가 폭력의 주체인 대한민국의 수립 초기 위기 상황에 대한 재이해와, 폭력의 대상이었던 제주도·제주도민에 대한 당대 인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제주도와 같은 도서, 확대해서 변경의 ‘문제성’은 현재의 논의에 시사적이다. 근대 국가는 자신의 국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영토에 대한 단일 주권의 배타적·독점적 행사를 자신의 구성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영토를 선적(線的)으로 획정·확정하는 국경선의 존재이다. 국경선은 기본적으로 타국의 영토와 자신의 것을 구획·구분하는 분리의 선(線)인 동시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복수 국가의 영토들이 만나는 선이기도 하다. 분리와 연결이라는 이중성은 국경선을 모순적인 선으로 만들고, 국경선에 연결(連接)한 지대인 변경을 문제적 공간으로 만든다. 변경은 국가 수호라는 점에서는 닫힌 공간이지만 타국과의 교통이라는 점에서는 열린 공간이다. 폐쇄적인 동시에 개방적이라는 변경의 모순성은 국가와 그 엘리트들로 하여금 변경을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위험스런 문제적 공간’으로 상상케 하였다.¹⁰⁾

변경은 실제로 아시아-태평양전쟁 직후/한국 해방 직후 동아시아와 남한에서도 문제적이었다. 제2차 대전 이후의 세계는 종전까지 지속되었던 제국(주의) 시대의 마감과 함께 전세계적인 국민 국가 시대의 도래를 목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동아시아 권역(region)에서도 ‘유사 이래 처음’으로 국민 국가 체제의 수립과 가동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세계사적·권역사적 전환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 제국의 지배, 또는 그 자장(磁場) 아래 있던 동아시아 권역의 인민들 역시 언어·문화의 공동성(ethnicity)에 따라 각각 별개의 국민으로 분할·재편되어 자신의 국민·민족(nation) 국가를 건설해야 했

10) 임종명 앞의 글(2017) 13쪽.

다. 이것은 종전/해방 이후 한반도 지역과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였고, 또 실제 당대 역사 과정이었다. 즉, 한반도에서는, 따라서 남한에서는 ‘일(一)민족(ethnic)·일(一)국가(nation)’라는 언어·문화 공동체 중심의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가 급격히 고조되고, 또 그것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정치·사회 운동이 고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당대 남한에서는 국경선에 의해 분명하게 구획되는 동질적 공간으로서 국토를 상상하고 그것의 실현을 열망하는 국토 민족주의가 고조되면서, ‘국토를 끝까지 밝히려는 국토구명(究明)운동’이 변경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그렇지만 바다는, 최남선이 “海上에잇서서는 國境이 明白하지아니”하다고 지적했듯이, 근대 국가의 영토성을 위협하는 공간이었다. 이와 같이 변경은 종전/해방 직후 남한에서 문제적 공간이었다.¹¹⁾

변경의 문제성은 그것의 일(一) 구성물인 도서, 따라서 제주도에서도 목격된다. 한라산이 국토구명 운동의 대상지에 포함되었던 것이 암시하듯이, 제주도는 국토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구명되어 국토에 편입되어야 할 대상지’였고, 또 그곳 주민들은 ‘한민족으로 편성되어야 할 대상’이었다.¹²⁾ 더군다나 식민지 시기 제주도는, 일제 식민주의 담론 공간에서, 신화와 언어, 또 재일 거주민의 규모, 심지어 벚꽃(櫻花) 등에서 일본과의 관계성이 강조되고, 또 언어·문화적으로 일본 에스닉(Japanese ethnic)과의 “고대 내선일체”의 증좌로 재현되고 있던 지역이었다.¹³⁾ 또한 종전/해방 후에도 자연 풍광·기후와 함께 문화·풍속 특히 언어 등의 측면에서 ‘이국성’이 끊임없이 재현되면서 그것이 강조되고 있었다.¹⁴⁾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일본과의 밀항 중심지”로 재현될 정도로 일본과의 밀수와 밀항의 주요 통로로 기능하면서 그 지역은 종전/해방 직후 동아시아에서 ‘형성’되고 있던 민족·국가의 경계선(national border line)을, 따라서 그에 의해 구획되는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나아가 남한 국가의 영토적 주권성을 위협하고 있었다.¹⁵⁾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는 종전/해방 후 새로이 형성되고 있던 동아시아의 민족·국가 체제를,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문제적인 공간이었다.

11) 임종명 앞의 글(2017) 14쪽.

12) 임종명 2007a 「脫식민지시기(1945-1950) 남한의 국토 민족주의와 그 내재적 모순」 『역사학보』 193.

13) 예컨대 조선사편수회, ‘한민족(韓民族) 고유의 개국(開國) 전설」 『朝鮮半島史』 1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 - 일제의 조선사편찬사업-』; 가네코 도테이(金子斗禎; 金斗禎) 1943 『半島皇民生活物語』 조선사상국방협회 『반도황민생활물어(半島皇民生活物語)』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 - 일제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에 대한 협력논리(1937~1945)-』(이하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 488-489쪽; 가와모토 타츠오(河本龍男, 李永根) 1943 「古代內鮮一體」 『すめら朝鮮』, 日本青年文化協會版 『일본관의 확립-조선의 입장에서』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 183-184쪽; 시라카미 주키치(白神壽吉) 1944 「벚꽃과 일본정신(4월 15일 경학원 춘계석전에서)」 『櫻と日本精神』 『經學院雜誌』 48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 III - 일제강점기 유학계의 친일협력과 친일한시-』 284쪽 참고.

14) 예컨대 김종운 1948 「動亂의 濟州島」 『民聲』 7·8월 합병호 26쪽; 석주명 1947 『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사 출판국 166쪽; 석풍생(石風生, 석주명) 1948 「濟州島實記」 『民聲』 7·8월 합병호 28-30쪽; 김호진 1946 「제주도 기행기(1): 동백꽃 핀 마을을 찾아, 일제 유린과 연합군 포연 후에 백일홍과 전단의 향기도 높다」 『독립신보』 1946년 12월 18일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2 『제주4·3사건자료집: 신문편』 1(이하 『제주4·3사건자료집』 1) 42-43쪽; 박중운 1948 「(수상) 꿈의 나라 제주도」 『民主警察』 2(4) 183쪽; 김영상 1946 「신화의 세계 제주도(상): 일제 침략기였으나 지금은 평화향」 『서울신문』 1946년 12월 18일자 『제주4·3사건자료집』 1 43-44쪽; 김영상 1946 「신화의 세계 제주도(하): 천여(天輿)의 악조건과 싸우는 이 섬 부녀자의 숭고한 근로정신」 『서울신문』 1946년 12월 19일자 『제주4·3사건자료집』 1 50-51쪽 참고.

15) 예컨대 최특파원 1946 「제주 답사기(중): 밀수선에도 딱한 사정 도 승격에 도민은 신경과민의 기우(杞憂)」 『자유신문』 1946년 12월 19일자 『제주4·3사건자료집』 1 52쪽; 「밀수물품을 찾아 제주는 모리 소굴 식은(殖銀)서 송금수표 처리난」 『서울신문』 1947년 1월 25일자 『제주4·3사건자료집』 1 61쪽; 「‘모리 천하’ 제주도 경찰간부통역 등이 주로」 『동아일보』 1947년 2월 5일자 『제주4·3사건자료집』 1 71쪽; 「동백꽃 핀 마을을 찾아, 일제 유린과 연합군 포연 후에 백일홍과 전단의 향기도 높다, 제주도 기행기」 『독립신보』 1946년 12월 18일자 『제주4·3사건 자료집』 1 43쪽; 제민일보 4·3 취재반 1997 『4·3은 말한다』 4 전예원 233쪽; ‘김소옥의 증언’ 제민일보 4·3 취재반, 앞의 책 233쪽 재인용 참고.

또한 4·3 시기 제주도는 대한민국에게도 문제적 공간이었다. 해방 직후 한국인의 한반도 국토 의식이 강화된 상황에서 2개의 한국(Two Koreas) 중 하나로 출범한 대한민국은 그것의 민족적 대표성뿐만 아니라 영토 국가로 정의되는 국가성 조차 의심받고 있었다.¹⁶⁾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자신의 전민족적이고 전국적 대표성을 주장하던 대한민국과 그것의 엘리트들에게 있어서, 38선 이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곳 인민들의 존재, 또 지리산이나 한라산 지역 내 “민주부락”과 그 부락 주민들의 존재는 실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인식론적으로도 심각한 위협이었다.¹⁷⁾ 왜냐하면 그것들은 대한민국의 불구(不具) 국가성을 실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유의할 때, 우리는 4·3 당시의 제주도가 대한민국과 그 지배 엘리트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의 근대 영토국가성과 민족국가성 재현이라는 당대 국가적 의제를 무효화하는 ‘문제적’ 공간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것이 4·3 당시 국가 폭력 행사의 국가적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는 4·3의 국가 폭력이 수립 초기 물리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근대 국가성의 실현이라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의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4·3의 국가 폭력은 당대 도서에 대한 근대주의 인식론과도 연결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근대화가 ‘도시 중심의 산업화와, 근대적 요소에 의한 전통적 요소의 공격인 시민혁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또 근대화 과정이 중심부의 주변부 편재 과정이라고 한다면, 제주도라는 ‘비(非)도시적 변경’의 존재는 근대주의에 있어서도 문제적 상황이었다.¹⁸⁾ 이를 배경으로, 제주도와 같은 도서는 발전주의적 세속의 시간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과거에 멈춰진 세계로, 그리고 근대 문명주의의 관점에서는 비문명적인 자연의, 따라서 비(非)인간의 공간으로 재현·표상되고 있었다. 전근대적 공간으로 재현·표상된 도서는 서구 중심의 문명적이고 발전적인 서울·한반도 지역에 대에서 하위(下位)의 것으로 위계화되면서 육지 지역의 계몽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이 대상화된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은, ‘해녀’의 초점화에서 단적으로 보이듯이, 젠더(gender)의 측면에서 여성화되면서, 남성적인 육지의 인도 대상으로, 심지어 ‘정복’의 대상으로까지 객체화되었다.¹⁹⁾ 바로 이와 같은 도서와 제주도 인식이 4·3에서 보이는 국가 폭력의 맥락이었다.

나오면서: 제주 4·3, 근대성 성찰의 계기적 시공간

지금까지 본(本) 발표는 시론적으로 제주 4·3을 재맥락화하였다. 이는 향후 4·3 연구가 4·3의 세계(사)적 의미화를 분명히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참고점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었다. 근대 사회와 세계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건 집단적 차원에서건 주체의 확립을 목적으로 아(我)와 타(他)의 구별 정립과 이를 위한 경계 설정 작업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것은 전후(戰後) 동아시아와 한국에서도 마

16) 임종명 2003 「여순 ‘반란’ 재현을 통한 대한민국의 형상화」 『역사비평』 64 305-307쪽; 임종명(2007a) 77-121쪽; 임종명 2007b 「설립 초기 대한민국의 북한 실지화(失地化)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타자화(他者化) (1948.8~1950.6)」 『사학연구』 88 1113-1150쪽.

17) 임종명 2005 「여순사건의 재현과 공간(空間)」 『한국사학보』 19 153-155쪽.

18) 임종명 앞의 글(2011b) 185쪽.

19) 임종명 2018 「종전/해방 직후(1945.8-1950.5) 남한 담론 공간과 해안·바다·도서 변경의 비(非)실제적 초(超)현실 공간화」 『역사학연구』 69 특히 374-383쪽. 제주도의 여성화는 임종명 앞의 글(2017) 43-47쪽 참고.

찬가지였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전후 동아시아가 근대 민족-국가 체제로 재편되면서, 전후 헤게몬(hegemon) 미국소련과 당대 동아시아 지역의, 따라서 한국의 엘리트들 모두에게 있어서 수위(首位)의 의제는 인적이고 공간적인 의미 모두에서 영토화(territorialization)의 문제였다. 영토화라는 근대의 핵심적 의제의 문제성이 바로 제주라는 변경 지역에서, 제주 4·3 항쟁과, 특히 그것의 진압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렇다 한다면, 제주 4·3 연구는 근대성과 그것의 문제성을 밝힐 수 있다. 모리스-스즈키(T. Morris-Suzuki)는 변경이 국가/국민(the nation)이라는 “집권형 시스템,” 또 이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성의 문제에 “빛”을 비추고, 나아가 그것이 “근대 국민국가”에 대해서 “전복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²⁰⁾ 이것은 ‘제주의 변경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4·3에서 보이는 ‘이해난(理解難)-불가해(不可解)의 의문점들’-예컨대 군경과 서북청년단 등의 형언할 수 없는 폭력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3이 가지는 역사적 함의를 명백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4·3이 오늘 날 전환기의 세계가 고투(苦鬪)하고 있는 근대성의 문제에 유력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제주와 제주 4·3이 전(全)지구적 근대성 성찰의 계기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발표의 문제의식이자 희망이다.

20) 테사 모리스-스즈키 저 임성모 역 2006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산치림 26·28·30·31·54·55쪽.

참고 문헌

『民聲』, 『民主警察』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V - 일제의 조선사편찬사업-』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X - 일제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에 대한 협력논리(1937~194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XIII - 일제강점기 유학계의 친일 협력과 친일한시-』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2 『제주4·3사건자료집 : 신문편』1(이하 『제주4·3사건 자료집』1)

김영상 1946 「신화의 세계 제주도(상): 일제 침략기지였으나 지금은 평화향」 『서울신문』 1946년 12월 18일자 『제주4·3사건자료집』1

김영상 1946 「신화의 세계 제주도(하): 천여(天興)의 악조건과 싸우는 이 섬 부녀자의 송고한 근로정신」 『서울신문』 1946년 12월 19일자 『제주4·3사건자료집』1

김중운 1948 「動亂의 濟州島」 『民聲』7·8월 합병호

김호진 1946 「제주도 기행기(1): 동백꽃 핀 마을을 찾아, 일제 유린과 연합군 포연 후에 백일홍과 전단의 향기도 높다」 『독립신보』 1946년 12월 18일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1

박중운 1948 「(수상) 꿈의 나라 제주도」 『民主警察』2(4)

석주명 1947 『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사 출판국

석풍생(石風生, 석주명) 1948 「濟州島實記」 『民聲』7·8월 합병호

최특파원 1946 「제주 답사기(중): 밀수선에도 딱한 사정 도 승격에 도민은 신경과민의 기우(杞憂)」 『자유신문』 1946년 12월 19일자 『제주4·3사건자료집』1

가네코 도테이(金子斗禎, 金斗禎) 1943 『半島皇民生活物語』 조선사상국방협회 『반도황민생활물어(半島皇民生活物語)』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X - 일제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에 대한 협력논리(1937~1945)-』

가와모토 타츠오(河本龍男, 李永根) 1943 「古代內鮮一體」 『すめら朝鮮』, 日本青年文化協會版 「일본관의 확립-조선의 입장에서」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X - 일제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에 대한 협력논리(1937~1945)-』 183-184쪽

조선사편수회, ‘한민족(韓民族) 고유의 개국(開國) 전설」 『朝鮮半島史』 1편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V- 일제의 조선사편찬사업-』

시라카미 주키치(白神壽吉) 1944 「벚꽃과 일본정신(4월 15일 경학원 춘계석전에서)」 『櫻と日本精神』 『經學院雜誌』48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XIII - 일제강점기 유학계의 친일협력과 친일한시-』

안중철 1991 『광주·전남 지방현대사 연구』 한울

양정심 2008 『제주 4·3항쟁 -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 임종명 2018 「종전/해방 직후(1945.8-1950.5) 남한 담론 공간과 해안·바다·도서 변경의 비(非)실제적 초(超)현실 공간화」 『역사학연구』 69
- 임종명 2017 「종전/해방 직후(1945.8~1950.5) 남한 담론 공간과 변경의 미학적 재현」 『역사연구』 33
- 임종명 2014 「해방 직후 최재회와 개인 주체성 담론」 『역사학연구』 53
- 임종명 2013 「해방 직후 남한 엘리트의 이성 담론, 규율 주체 생산과 헤게모니 구축」 『개념과 소통』 12
- 임종명 2012a 「해방 공간과 신생활운동」 『역사문제연구』 27
- 임종명 2012b 「해방 직후 이범석의 민족지상·국가지상론」 『역사학연구』 45
- 임종명 2011a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한국현대사 서술과 민족·국가·대한민국」 『역사와교육』 13 91-92쪽.
- 임종명 2011b 「해방 공간의 소설과 ‘서울/비(非)서울’의 표상 체제」 임종명 외 『역사 속의 중앙과 지방』 북 엔터
- 임종명 2010 「소설과 역사, 그리고 1945년」 임종명 외 『역사에서의 지역 정체성과 문화』 엔터
- 임종명 2009 「소설과 해방 직후: 익숙함과 낯섬」 임종명 외 『지역 교류 문화로 본 역사』 심미안
- 임종명 2008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 미국기행문의 미국 표상과 대한민족(大韓民族)의 구성」 『사총』 67
- 임종명 2007a 「脫식민지시기(1945-1950) 남한의 국토 민족주의와 그 내재적 모순」 『역사학보』 193
- 임종명 2007b 「설립 초기 대한민국의 북한 실지화(失地化)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타자화(他者化) (1948.8~1950.6)」 『사학연구』 88
- 임종명 2005 「여순사건의 재현과 공간(空間)」 『한국사학보』 19
- 임종명 2003 「여순 ‘반란’ 재현을 통한 대한민국의 형상화」 『역사비평』 64
- 에릭 홉스봄 지음 정도영·차명수 옮김 2004 『혁명의 시대』 한길사
- 에릭 홉스봄 지음 이용우 옮김 1998 『극단의 시대: 20세기 역사』 삼각지
- 테사 모리스-스즈키 저 임성모 역 2006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산처럼
- 제민일보 4·3 취재반 1997 『4·3은 말한다』 4 전예원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and Struggle of Memory

한국현대사와 기억투쟁

Byung Joon Jung
Professor of Modern Korean History, Ewha Womans University
정병준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and Struggle of Memory



Byung Joon Jung

Professor of Modern Korean History, Ewha Womans University

During '10 year of post cold war era' (1987 to 1996),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has faced great transformation of history. The great transformation can be represented by achievement of 'institutional democracy' (1987) politically, growth achievement represented by joining of the OECD economically, collapse of socialism and communism and post cold war globally, spread of argument on collapse of North Korea by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death of Kim Il Sung (1994) in the perspective of North and South Korea relationship, and holding Seoul Olympics (1988) culturally. Korea's 'pride' reached its peak and this brought two reinterpretation tendencies of Korean society and history. First was a request from civil society to bring back past affairs from Japanese occupat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Korean War era, and dictatorship and settle repeated conflicts after all. The second was a request led by conservative press to positively reinterpret society and history along with overall conservative shift of Korean society. Past affairs scheme of 'clearing up past affairs' vs. 'glamorizing past affairs' has become serious during this era.

'Clearing up past affairs' raised an issue on pro-Japanese, civilian massacre, and pro-democracy movement and highlighted truth ascertainment,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commemoration of victims. Civic organizations such as Jeju 4·3 Research Institute (1989), Korean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1990), and Institute for Research in Collaborationist Activities (1991) have been established in this era and they asserted for 'clearing up past affairs'. National Assembly made an attempt for truth ascertainment of assassination of Kim Gu. Memorial hall of Kim Gu was built lastly.

'Glamorizing past affairs' is a scheme continuing from Rhee Syng-man's 'establishment of the country' to Park Chung-hee's 'national prosperity' and it started to become serious by conservative press in 1995. Historical reconciliation between Rhee Syng-man and Park Chung-hee was attempted while there was a conflict of argument of merits and demerits and the spirit of constitution.

In the 2000's, struggle of memory surrounding past affairs has become a main issue of administration, not from civic perspective. Kim Dae-jung/Roh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Park Geun-hye government were confronted with each other with a totally different past affairs issue. Kim Dae-jung/Roh Moo-hyun government proposed 3 'past affairs' categories; (1) pro-Japanese, (2) civilian massacre, (3) democratization against dictatorship, and emphasized on voice of 'victims' of the country. Jeju 4·3 has been regulated as sacrifice of state violence, and there was a public apology from the president. Organizations for suspicious deaths, Jeju 4·3, compulsory mobilization under Japanese imperialism, Truth and Reconciliation, pro- Japanese collaborator, and Committee of Pro-Japanese Property have been established.

Lee Myung-bak/Park Geun-hye government propounded (1) new right view of history, (2) Museum of Contemporary History, (3) government-designated textbook, and defended anticommunism and nationalism. 4·3 was claimed to be a riot by the left wing and victims were a collateral damage of reasonable suppression by the country. A committee for abductees was established.

This past affairs scheme has evolved in a form of a bitter struggle surrounding public memory. 'Past affairs war' of the 2000's, continued to be an extreme confrontation by intervention of politics and government, not by civil society or academia. History war, where past affairs are being used as weapon for politics, is continued not only in Korea, but in northeast Asia in general. Past affairs issue in Korea will be converged in the direction of (1) aim and regulation of constitution and (2) proving position of the victims.

It is not an easy task to rationally face past affairs in Korea and reunification will bring other past affairs issues.

한국현대사와 기억투쟁



정병준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탈냉전기 10년’ (1987~1996) 동안 한국현대사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이했다. 정치적으로 ‘제도적 민주주의’ 달성(1987), 경제적으로 OECD 가입으로 대표되는 성장의 달성(1996), 국제적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몰락과 탈냉전(1989), 남북관계에서 북핵위기·김일성사망(1994)으로 대표되는 북한붕괴론의 확산, 문화적으로 서울올림픽(1988) 개최로 대표되는 대전환이었다. 한국의 ‘자신감’은 절정에 달했고, 이는 한국사회와 역사에 대한 두 가지 재해석 경향을 불러왔다. 첫째는 일제시대, 미군정기, 한국전쟁기, 독재정부기에 청산되지 못하고 중첩적으로 쌓인 과거사를 소환해 해결하자는 시민사회의 요구였다. 둘째는 한국사회의 전반적 보수화에 발맞춰 사회 및 역사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자는 보수언론 주도의 요구였다. 이 시기 한국현대사를 둘러싼 ‘과거사청산’ 대 ‘과거사미화’라는 과거사 기획이 본격화되었다.

과거사청산은 친일, 민간인학살, 민주화운동의 문제를 제기하며 진상규명, 국가의 책임과 희생자 기념을 강조했다. 제주4·3연구소(198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990), 반민족문제연구소(1991) 등의 시민단체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고, 과거사청산을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김구암살 진상규명이 시도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김구기념관이 설립되었다.

과거사미화는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부국’으로 이어지는 기획으로 보수언론에 의해 1995년 이래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공과론과 헌법정신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승만과 박정희의 역사적 화해가 시도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과거사를 둘러싼 기억투쟁은 민간 차원이 아닌 행정부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와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전혀 다른 과거사 이슈로 대립했다. 김대중·노무현정부는 (1) 친일, (2) 민간인학살, (3) 반독재민주화라는 ‘과거사’ 3가지 범주를 제시했고,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한 ‘희생자’의 목소리를 중시했다. 제주4·3은 국가폭력의 희생으로 규정되었고,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있었다. 의문사, 제주4·3사건, 일제하강제동원, 진실화해, 친일반민족, 친일재산 위원회 등이 조직되었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1) 뉴라이트역사관, (2) 현대사박물관, (3) 국정교과서를 내세우며 냉전반공

주의·국가주의를 옹호했다. 4·3은 좌익폭동이며, 희생자들은 정당한 국가의 진압에 따른 부수적 피해로 주장되었다. 납북자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과거사 기획은 공적 기억을 둘러싼 격렬한 투쟁의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2000년대의 ‘과거사 전쟁’은 시민사회나 학계가 아닌 정치·정부의 개입으로 극한적 대립이 지속되었다.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과거사가 현실정치의 무기가 되는 역사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 내에서 과거사 문제는 (1) 헌법의 규정과 지향, (2) 희생자의 입장 중시의 방향에서 수렴될 것이다.

한국에서 과거사와 정면으로 대면하기, 냉정하게 대면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이며, 통일은 또다른 과거사의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제주국제포럼 (2018. 7)

한국현대사와 기억투쟁

정병준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1

I. 다차원의 한국현대사

1. 경험: 개별성, 무정형, 구체성, 주관성
2. 연구: 자료·시대정신·연구자의 노력으로 구성
구체성-추상성의 교직, 객관성을 지향하는 '해석'
시대정신-개인적 경험 사이에 위치
3. 과거사담론: 기획된 '시대정신', 시민단체, 언론, 지식인의 주도, 추상성
4. 공적 기억: 권력이자 승리한 기억투쟁을 반영
현시대의 기념과 기억, 후대의 교육(교과서)

2

II. 탈냉전기 10년(1987~1996)의 전환과 과거사 기획

- ‘탈냉전기 10년’ (1987~1996)의 역사적 전환
 - (1) 정치: ‘제도적 민주주의’ 달성(1987)
우익의 쿠데타·좌익의 혁명 봉쇄, 선거제도를 통한 합법적 권력획득
 - (2) 경제: 경제성장, OECD 가입(1996)
 - (3) 국제: 냉전의 해체(1989~1990), 동구 사회주의·공산주의 몰락, 소련·중국 수교
 - (4) 남북: 동독붕괴·서독흡수통일, 북한붕괴론, 북핵위기 김일성사망(1994)
 - (5) 문화: 서울올림픽(1988), 한국의 ‘발전’의 과시

3

- 한국의 ‘자신감’ 절정: 자기 사회·역사에 대한 2가지 재해석 본격화
 1. 역사적 희생자의 목소리
일제시대, 미군정기, 한국전쟁기, 독재정부기에 청산되지 못하고 증첩적으로 쌓인 과거사를 소환해 해결하자는 시민사회의 요구
 2. 과거사에 대한 긍정적 재해석
한국사회의 전반적 보수화에 발맞춰 사회 및 역사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자는 보수언론 주도의 요구
- ‘과거사 청산’ vs ‘과거사 미화’라는 과거사 기획 본격화
- 시민단체와 언론이 주도하는 민간영역의 과거사 기획

4

1. '과거사 청산'

- 친일, 민간인학살, 민주화운동 제기: 진상규명-희생자위로-국가배상-기념·기억
- 1988년 광주청문회
- 1989년 제주 4·3연구소: 제주 4·3 진상규명, 희생자 기념, 국가배상
- 199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윤정옥
- 1991년 반민족문제연구소(1995년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청산 문제, 임종국
- 1996년 김영삼대통령 신년사 역사바로세우기, 제2의 건국
- 1994~1995년 국회 백범김구선생암살진상규명조사위원회
- 1998년 백범김구건립추진위원회 설립, 2000년 기공식, 2002년 완공: 임시정부, 이승만
- 민간인학살, 의문사 문제제기 → 2000년대 '위원회'·'공적 기억'으로 전환.

5

2. '과거사 미화'

-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부국' 기획
- 1995~1996년 중앙일보 유명익 '이승만의 삶과 꿈' 연재 (이건희50억)
- 1995년 조선일보 해방50주년 '이승만과 나라세우기' 전시회
- 공과론: 공7·과3 vs 헌법정신: 4·19 계승
- 이승만과 박정희의 '역사적 화해' 시도
- '과거사 청산'·역사학계·교과서 공격: '민족주의' 공격 (포스트모더니즘+탈민족주의+탈'국사')
- 한국전쟁 복침설류 '상상'된 기획

6

III. 2000년대 한국의 ‘공적기억’ 투쟁

1. 김대중·노무현정부

(1) 친일, (2) 민간인학살, (3) 반독재민주화라는 ‘과거사’ 3가지 범주
민족주의, 민주화운동, 분단체제 : ‘희생자’의 목소리 중시, 4·3은 국가폭력 희생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0~2004): 1기 19건, 2기 44건
- 제주4·3사건진상규명위원회 (2000~2007): 1만3,595명 심사. 1만3,564명 인정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4~2010):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의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2010~2015)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2005~2010): 독립운동, 민간인희생, 반민주 사건 11,172건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5~2009): 친일행위자 1,005명 발표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06~2010): 168명, 2359필지(1,113만 9,645㎡)

2. 이명박·박근혜정부

(1) 뉴라이트역사관(식민지근대화론, 건국·부국)
(2) 현대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3) 국정교과서
냉전반공주의·국가주의 옹호, 4·3은 좌익폭동·정당한 진압·부수적 피해

- 교과서포럼(2005. 1. 25): 근현대사교과서 ‘좌편향’ 공격 (민족주의, 분단체제론)
- 뉴라이트전국연합(2005. 11): ‘대한민국’ 정통성, 이승만·박정희 강조
- 건국절논란(2006. 7): 이영훈교수, 건국60주년기념사업회(2008)
대한민국역사박물관(2008-2012): 이명박
- 해방전후사의 재인식(2007. 5), 대한민국건국의 재인식(2009)
-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2008. 3): 박근혜 출판기념회 참석, 역사학자 전무
- 교학사 고등학교 역사교과서(2013. 8): 국편 검정 통과, 채택반대 운동, 실패
- 국정교과서(2013~2016): 정홍원총리 국정화 언급(2013. 11. 5), 국정추진·참담한 실패

3. 에피소드

-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2012. 11): 레지스탕스 vs 콜라보
 이승만, 박정희를 거칠게 비판

B급 다큐멘터리 필름과의 ‘역사전쟁’ (검찰의 기소)

- 역사가 학문적·문화적 효용이 아닌 권력투쟁의 도구
- 일국적 범위를 벗어난 동북아시아 차원의 역사전쟁
- 이승만 평가논쟁

- (1) 이승만·신화’론: 영웅주의 사관, ‘건국’의 아버지
- (2) 이승만·괴뢰’론: 강대국(미국) 결정론, ‘독재’의 어머니
- (3) 인간 이승만과 역사의 주체로서 ‘한국인’은 존중되지 못함.

영웅·강대국이 역사의 길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역사를 ‘결정’했다는 시각

- (4) 이승만·신화’론자는 박정희신화론으로, 이승만·괴뢰’론자는 김구신화론으로

9

대별	연도	선출방법	당선인	투표율	득표율	득표수/투표자수 (백만)
초대	1948	국회	이승만	99.0%	91.8%	180명/196명
제2대	1952	직접	이승만	88.1%	74.61%	523/727
제3대	1956	직접	이승만	94.4%	69.98%	504/960
제4대	1960	직접	이승만	97.0%	100%	963/1,086
제5대	1963	직접	박정희	85.0%	46.64%	470/1,103
제6대	1967	직접	박정희	83.6%	51.44%	568/1,164
제7대	1971	직접	박정희	79.8%	53.19%	634/1,241
제8대	1972	간접	박정희	100%	100%	2,357명/2,359명
제9대	1978	간접	박정희	100%	100%	2,577명/2,578명

10

IV. 헌법과 현대한국의 '과거사' 인식

1. 이승만정부

- 1948년 제헌헌법 전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도를 수립”
- 헌법: 3·1운동, 임시정부 계승 표방, 농지개혁, 반민특위, 경제조항 (국유·공유·사유=통제경제+시장경제)
- 현실: 독립운동 포상·연구·기념 전무, 반민특위 해체, 반공주의, 개인숭배
- 이승만은 개인적으로 고종·대한제국 혐오, 헌법에 실질적 의미 부여하지 않음(부산정치파동, 사사오입)

11

- 1952년 부산정치파동 : 헌법 전문 변화 없음. 대통령 직선제.
- 1954년 사사오입개헌 : 헌법 전문 변화 없음. 대통령 임기제한 철폐. 경제조항의 변화 (통제경제 - 시장경제의 도입), 경제가 아닌 정치적 우극만 기억됨.



12

2. 박정희정부

- 1963년 헌법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은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
- 1972년 유신헌법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
- 헌법: 3·1운동, 임시정부 계승 표방, 이승만·장면정부 부정, 5·16혁명
- 현실: 독립운동 포상·연구·기념 본격화, 반공주의+민족주의 결합, 민족주의 역사 교육 강조(국가동원 vs 저항의 이념)
- 이승만 비판·부정은 헌법정신(1963~1979), 개인적으로도 혐오
- 해방전후사의 인식(1979) 출간, 친일파 청산문제 대두

13

3. 전두환정부

- 1980년 5·18민주화운동: 한국현대사, ‘과거사’를 소환, 블랙홀
- 한국현대사 연구의 출발: 해방 3년사, 한국전쟁, 미국 문제 논의, 경험·담론으로서의 한국현대사

4. 노태우정부

- 1987년 헌법전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 제헌헌법, 유신헌법, 6월항쟁의 타협적 계승: 임시정부 법통, 4·19 계승을 통해 이승만과 박정희를 부정

14

V. 공적기억과 ‘과거사 전쟁’

1. 한국의 과거사 전쟁

- 탈냉전 이후 한국 내의 과거사 인식과 기억투쟁 :
1990년대 시민사회, 언론의 운동.문제제기 →
2000년대 국가적 ‘공적기억’ 투쟁으로 전환
- 한국의 ‘과거사 전쟁’: 학계가 아닌 정치·정부의 개입, 극한적 대립
- 귀착점·합의점
 - (1) ‘헌법’의 가치·지향
 - (2) 국가가 아닌 희생자의 입장 중시

15

2. 동북아시아의 역사전쟁

- ‘과거사’가 현실 정치의 무기
한국-일본(교과서, 위안부·강제동원, 야스쿠니, 망언)
한국-중국(동북공정, 청사공정, ‘한국전쟁’)
중국-일본(교과서, 난징대학살, 야스쿠니, 망언)

3. 해법은 존재하는가

- ‘과거사와 정면으로 냉정하게 대면하기’
- 통일은 또다른 ‘과거사전쟁’을 불러올 것, ‘겸허하게 대비’해야.

16

끝

17



Teaching Korean War Through Cinema:
Case Study of *Ode to My Father*

영화를 통한 한국 전쟁 교육:
국제시장을 통한 사례 연구

Kim, Kyung Hyun
Professor,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Teaching Korean War Through Cinema: Case Study of *Ode to My Father*



Kim, Kyung Hyun
Professor,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Released in December 2014, the same year when the tragedy of Sewol, the capsized ferry that killed 304 people, hit the Korean shores, *Ode to My Father* (Kukje sijang, dir. Yoon Je-kyun) became one of the most hotly debated films. If a Richter Scale were made available that could gauge a film's impact on public sector, it would be difficult to pick a film that produced more intense political reaction than *Ode to My Father* not only in that year, but in the entire history of Korean cinema.¹⁾ Despite *Ode's* astounding commercial success, selling more than 13 million tickets that was second only to *The Admiral: Roaring Currents* (2014) in the history of Korean box office, it drew raspberries from local critics for failing to depict critically the Korean War generation. The comment that irked conservative critics came from one of the young film critics who had just emerged as a media star, Hô Chi-ung, who asserted in one of the end-of-the-year roundtable discussion hosted by *Hangyoreh*, a progressive newspaper that “what *Kukje sijang* is arguing is quite dangerous. It is saying unapologetically the hardship (kosaeng) was shouldered by the Korean War generation, and not its descendants. This position makes me puke.”²⁾ The invocation of a violent bodily response of “puke” (t'o) was widely disseminated by conservative pundits through Facebook, Twitter, and other social media as an instance of typical left-wing position that remains disloyal to parents, to older generation, and ultimately to the nation. The comment made by Hô was heavily contrasted against the compliments made by the then President Park Keun-hye on the film. She had openly discussed one of the scenes in *Ode* where the

1) *The Attorney (Pyônhoin)*, a depiction of a young human rights lawyer, whose cases resembles that of Roh Moo-hyun, the activist lawyer-cum-liberal president (2004-2008), which was also released in the same year as *Ode to My Father* provoked passionate responses from those far beyond the usual bucket of Korean cinephile culture, but it did not create the kind of political controversy *Ode* had generated.

2) “Chin Chung-gwôn, Hô Chi-ung, Chông Yu-min ûi ‘2014 yok naonûn sagôn sago ch’ongchôngri,’” (Chin Chung-gwôn, Hô Chi-ung, Chông Yu-min Reviews F.ked-up Incidents in 2014) *Hangyoreh* December 24, 2014. Accessed on May 1, 2016.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670629.html

protagonist and his wife se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1970s momentarily stops arguing to pledge their allegiance to the flag when the national anthem is played on a loudspeaker as an exemplary citation of patriotism, though many critics thought that the scene had an opposite effect.³⁾ Despite the loud dissent that young liberal critics had voiced against the film, the ordinary public ended up giving *Ode* raving reviews.⁴⁾

What I like to consider in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hifting paradigm of Korean War films through *Ode*'s comparison with other films that depict Korean War and division. While *Ode* does not bring to light an alternate history of the nation nor does it necessarily affirm a deeply conservative political agenda in Korea (i.e., valorize Korean dictatorship, poke fun at North Korean leadership, et c...), it does exploit hidden layers of Confucian values that are deeply embedded in Korean society for its commercial melodramatic purposes. The linking of Confucianism with the melodramatic genre against the backdrop of Korean War and the subsequent division, I argue, is one of the latest commercial maneuvers Korean cinema has acquired. As will be explicated later, previous films that had dealt with the Korean War were at odds with genre of melodrama since Korean cinema began to reuse it as a subject in the late 1980s. The Korean War films that predate *Ode* instead had focused on either the reconciliation or the impossibility of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ideological sides North and South were representing during the war. However, *Ode*'s disassociation from the ideological struggle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subsequent years prohibits its viewers from exploring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war and instead provides an access towards remythologization of Korea's Confucian values. The insistence of Confucian mantra of revering the ancestor of course is already made explicit in the film's English title, *Ode to My Father*, which has no relationship to the original Korean title, *Kukje sijang*, that refers to the International Market, one of the oldest markets in Busan, Korea. *Ode*'s plotline, which begins with the 10 year-old Tôksu's separation with the father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n ends with his acknowledgement of the father's death more than 60 years later after having spent the entire life without him, affirms the deeply seated Confucian values that dictate both the tempo and the central leitmotif.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spects of *Ode to My Father* is that it gives far more attention to the father of the male protagonist, Tôk-su, than it does to his children. Though there are many offspring that he has reared (in one scene, I counted eleven), none are singularly more important than Tôk-su's father who, throughout the film, becomes conspicuous by his absence. Unlike a typical holocaust film, such as *Life is Beautiful* (1998), which is about a father who remains resilient and cheerful to his son in

3) Chin Chung-gôon, one of the leading leftist intellectuals in Korea, thought that the same very scene where the couple stops arguing to salute the flag when the national anthem is being blared in the loudspeaker was best in the film for it ridiculed the obligatory patriotism demanded during the 1970s. Obviously many conservatives did not see the irony raised in the same scen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31/2014123101133.html?Dep0=twitter&d=2014123101133

4) On naver.com, critics on the average gave the film only 5.7 on a 10 point scale, while the public voted to give 9.2. *Ode to My Father*'s split ratings showcases probably one of the most lopsided discrepancies that exist between ordinary audiences and critics.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02875>

a Nazi concentration camp until the very end when he is taken away to die, *Schindler's List* (1993), which celebrates the lives of survivors and their offspring rather than mourn the dead, or *Sophie's Choice* (1982), which focus on the life of a mother who was forced to make a choice to save one of her child while giving up on another, *Ode*, which is also a film about genocide, reverses the conventional familial ties that attempt to protect the children from being harmed. It is the spirit of the father for which Tôk-su will make a decision in life that causes him even to sacrifice his aspirations to become a marine captain and ultimately his leg. The central question also that is begged in the film is when the right time is to mourn the father who could not escape from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refore cannot be presumed either alive or dead for the six plus decades since then.

Inability to express sentimental emotion and instead keeping them repressed is what characterizes Tôk-su as an ordinary man from a generation which has first-hand experiences with the hardship of Korean War and the ensuing post-war poverty. He is responsible for he is also a man who is shrouded in secrecy. He, for instance, does not reveal even to his wife the real reason behind his trip to Vietnam in the 1970s that was taken in order to save the family store. No member of his family understands why he is unable to let go of his store even when he is too old to run it. In one of the first scenes of *Ode*, Tôk-su, now a recalcitrant septuagenarian, is seen shouting and wailing his wrinkled fists against the merchants' association reps who are much younger than him in front of his store Kotppunyine (Flower Girl's) located in *kukje sijang* (international market) district in Busan. Kotppunyine, which has been open for more than six decades, is under threat to close by the merchants' association. The association wants to renovate the entire marketplace. The pressure to sell his store as well as his unexpected fall after bumping into a crowd of pedestrians in the busy market district triggers for him a piece of dark memory where a decades-old scar remains untreated. The viewers are asked to travel through time when Korea is still wrapped intensely in a war. Central to the setting of original trauma of Tôk-su, who was only about 10 years old in 1950, is the Hungnam evacuation, which is to many almost a folkloric story. Hungnam serves a central theme to many of the Korean popular songs including perhaps the all-time favorite, "Kutseôra Kûmsun-a," (Be Strong, Kumsun!) and several of the Korean War memoirs and novels on the very subject alone were published in English (Gilbert 2000 and Watts Jr. 2012).

By selecting four of the most critical 'historical' events that represent the vicissitudes of the fifty years of latter half of 20th Century in Korea such as Hungnam, enrollment of Koreans in the West German *gastarbeiters* (guest workers) program in the 1960s, Vietnam War in the 1970s, and the KBS (Korean Broadcasting Company) campaign to reunite separated family members in the 1980s, *Ode* shuffles between snapshots of national history and the candid character Tôk-su, a simpleton who, not unlike Forrest Gump--the titular character in a classic Hollywood film from the 1990s, is blown by the winds of chance. If there was a feather blown in the direction of Forrest Gump that infamously opened the American film, it is now a butterfly that is flown over the sky of Busan that lands in the rooftop of

Tôk-su's apartment building that opens the Korean film. Tôk-su however is different from Gump, a character carved out through the removal of excesses of human emotions. Tôk-su is a weeper, as he emotively responds to the tragedies of many historical events that have befallen personally on him. Each of these historical events conflates a considerable fictional injury etched on either the body or the psyche of Tôk-su; Hungnam is the site of the separation from his father and his sister, memory of Germany produces a near-death scene when a coalmine accident nearly has him and his friend Tal-gu killed, Vietnam is associated with the loss of his own leg, and the 1983 KBS campaign in Seoul does set up a stage of a reunion between him and his sister, reconnected after almost 33 years of separation, but produces a futile result when it comes to his father. These landmark events over the past 70 years in Korean history are interactively interwoven with Tôk-su's personal life. By make him cry, the film presumes the audience will also be affected by the melodramatic immersions the film has made. In many ways, weepy Toksu contrasts heavily against laconic Forrest Gump but *Ode's* similarity to these two films are many as they both engage in, as Vivian Sobchack suggests in her critique of *Forrest Gump*, deflating "the historical event" (Sobchack 1995: 2). If the previous Korean War genre that stretched from *The Southern Army* (Nambugun, 1994) to *The Front Line* (Kojijôn, 2011) had forced an entire generation of moviegoer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Korean War not only through stories of personal lamentation, but also as from a series of intense ideological query where the birth of an anti-communist South Korean government was interrogated, *Ode* sublates the bigger ideological questions into melodramatic conventions--to a point they vanish.

That a commercial film that had spent over US\$ 10 million for its production had depicted one of the most storied events in the war is not surprising. Perhaps the opposite is true: that the Hungnam evacuation was never depicted fully as a subject matter previously in a feature film subject, despite the epic scale of humanitarian proportions it has always carried, is incomprehensible. Each of the successful feature films that depict the Korean War during the commercial renaissance period has specifically addressed a single or multiple dramatic events that highlight the Korean War. *The Front Line* (Kojijôn, 2011) depicts the Battle of Highlands, which was one of the last battles of Korean War over the hills near the DMZ, which ended up determining the final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Welcome to Dongmakgol* (Welk'ôm T'u Tongmakkol, 2005) the central protagonist is a South Korean army captain, played by Sin Hakyun, who is traumatized by a tragedy he has helped to create. He was responsible for pressing the button of a bomb that detonated the only bridge of River Han in the capital Seoul to prevent the North Korean army's rapid movement toward the South. The blowup of the Hangang Bridge is generally regarded as one of the most humiliating, self-inflicted acts of Korean War because it was bombed without warning to the civilians and refugees who were crossing the bridge during the very moment it had bombed, causing 800 of them to die. *Taegukgi: The Brotherhood of War* (T'aegükki Hwinallimyö, 2004), a Kang Chekyu blockbuster that set the then box office record by selling more than 11 million tickets, focuses on the Battle of River Naktong, which

was the series of intense fighting engaged throughout the summer of 1950 when South Korean forces desperately tried to defend the Busan Perimeter before turning the war around through the Incheon Landing in September that year.⁵⁾ Over 120,000 soldiers (40,000 South Korean, 4500 American, and over 60,000 North Korean) would lose their lives only within a span of a period of little over 6 weeks during the Battle of Naktong River (also called as the Battle of Busan Perimeter in the U.S.). What separates the Hungnam evacuation plan, which took place in December 1950 when the U.N. coalition was forced to retreat from North Korea after having captured Pyongyang just merely two months before, from these other bloodied events depicted in the Korean War, is the remnant of a feel-good element, because the lives of ten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 refugees trying to escape to the South were saved.

Every Korean War film made during the era of Korean blockbusters, which also roughly overlaps with the Sunshine Policy Era (Haetpyöt chŏngch'aek, 1999-2008), searches for a tone of post-Cold War entity, articulating within itself a critique of previous anti-communist ideological positions from which Korean military dictatorships were carved out. *The Front Line*, *Welcome to Dongmakgol*, and even *Taegukgi* all embrace humanist values that problematize the senseless killings and the subsequent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 that pits each other against irreconcilable enmities. In all three films, North Koreans are depicted not just as villainous killers, but also as traumatized estranged brothers or friends who are sick of fighting a war that is endless and unproductive. The most critical thematic element that is unequivocally reclaimed in these commercial films that focus on Korean War is the rejuvenation of a rational sense of manhood. In them, at least one male character remains the calm and rational center in the midst of a storm of violent spree under the duress of war. For instance, in *The Front Line*, Lieutenant Kang (played by Sin Hakyun) of South Korean Army is not only battling North Korean communists, but repelling himself also the madness of the war that has already victimized his best friend Su Hyök (Ko Su) who has turned into a ruthless killer who will later die in a combat. Also significant is the humane North Korean leader character with whom Kang had befriended at the outbreak of the war. The war, not unlike the prolonged division of Korea, with no end in sight, has transformed the civil North Korean leader (played by Ryu Sŭngryong) into also a killing machine. Almost every central male character portrayed in these seeks salvation through the remembrance and forgiving of the incessant killing that took place. If previous Korean War films, through the depiction of the struggle between male hysteria and rejuvenation of coherent male subjecthood, sought to pave a path toward post-traumatic recovery, *An Ode to the Father* may have irked the film critics in Korea because the main character, Tök-su, cannot necessarily be folded into a system of recovery through repentance.

5) *Inchon!*, a 1982 American film directed by Terence Young and perhaps more importantly executive produced by Rev. Moon Sung-myong, the leader of the Reunification Church, is generally regarded as one of the worst war movies of all time despite its star-studded cast and an astronomical budget expended then. It of course focuses on the singular event in the Korean War: the Incheon Landing.

Each of the previously mentioned events in the Korean War, the bombing of the Hangang Bridge, Battle of Naktong River, and Battle of Highlands, produced high casualties specifically because of policy failures. Therefore, each of the films showcases internal struggles among platoon or company members in order to further the cause of today's reawakening of burdens of historical consciousness, cruelty of war, and division. However, *Ode* ignores the reasons behind the making of the Korean War films by jettisoning the real reasons behind Hungnam's massive evacuation that forced the mobilization of high number of refugees in the industrial port city trapped in the enemy territory. The entry of Chinese forces in November 1950, as portrayed in the film, and the U.N. Coalition's embattled defeat in the Battle of Chosin Reservoir were the obvious reasons behind the need to rapidly move 100,000 troops, 17,500 vehicles and 350,000 tons of cargo out of North Korea during the cold months of 1950-51, but absent from *Ode* is any of the critique of U.N. Coalition's Commander Douglass MacArthur's stubborn underestimation of Chinese readiness to enter the Korean War nor the indifference Americans had displayed toward the North Korean refugee situation that had led up to the "Miracle of Christmas" story that is enacted in the film's beginning. In other words, the accentuation of the 'miracle' sidesteps around the policy failure and the subsequent tragedy that allowed then only a fragment of Tôk-su's family to board the ship.⁶⁾

Ode presents the shambles and horrors of the war as a backdrop to remythologize its hero—the North Korean boy who will grow up without a father in South Korea, and then as a young migrant in Germany and in Vietnam where he will continue his peregrination as an exile. Losing his father and his sister during the mayhem of the war was one thing, trying to settle in overpopulated Busan where the family of now four—mother, Tôk-su, and Tôk-su's two younger siblings whose only ties is the father's sister who is singlehandedly running a store Kkotbunyine that sells smuggled American goods while her good-for-nothing husband stays drunk all day—is another. Also vanished from the plotline is the good-boy-gone-corrupt sort of character that was once a staple of Korean War and division films. Lighthearted at times, *Ode* constantly seeks to depoliticize not only Korean War and the Cold War it has since then engulfed Korean Peninsula, but also the sufferings endured by Koreans as cheap migrant workers in West Germany and mercenary soldiers and laborers in Vietnam during the 1960s. In each of the episodes that portray Tôk-su placed in hazardous places such as deep in the heart of German coalmines or Vietnamese rainforests besieged by Vietcong, he is introduced first as a victim

6) In both U.S. and South Korea media, the sacrificial story of SS Meredith Victory under the stewardship of Captain Leonard LaRue that evacuated and thus saved the lives of 14,000 North Korean refugees seeking asylum in South Korea has been hailed as the "Christmas Miracle" story. This rescue story has been hailed as 'the greatest rescue operation by a single ship in the history of mankind' and was certified as such in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but not many people are aware that there were several more South Korean ships that also transported North Korean refugees out of Hungnam. While Captain LaRue was championed as Korean War's Oscar Schindler, what remains forgotten even by Koreans is SS Onyang, for instance, which departed Hungnam two days after the departure of Meredith Victory, ferrying 17,000 refugees. This means that Onyang rescued 3,000 more North Korean refugees via the East Sea than Meredith Victory did—a fact that the Guinness World Records still does not acknowledge. See <http://www.guinnessworldrecords.com/world-records/largest-evacuation-from-land-by-a-single-ship>

who are forced to serve as a plebian in the scheme to make anti-Communist superpowers such as West Germany or the U.S. even richer, rather than an agent responsible for the avaricious handling of his own private affairs. Furthermore, what makes Tôk-su's sacrifice, first as a miner in Duisburg, Germany and then as a military sales agent in Vietnam, even more noble and consequently less political is his reluctant acceptance of role as a young patriarchal head in a fatherless family. He had given up his study to become a lawyer in order to volunteer as a miner in an unknown land because the family needed him to help pay for his brother's tuition at prestigious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 he had gained admission. The need to also protect the Kkotpunyine, the family's only link left with the father stranded in North Korea, from falling into the hands of good-for-nothing alcoholic uncle, also is the discernible reason behind his trip to Vietnam, a war-raging country where safety is a real issue.

In both war-like environments of West Germany, where guest workers are susceptible to fatal mining accidents, and Vietnam, where a real war rages that make even non-military personnel like him extremely vulnerable, *Ode* makes it clear that every loss must be countered with a gain. In Duisburg, Tôk-su is able to find the love of his life Yông-ja, a Korean nurse stationed also in the gastarbeiter program, with whom he will remain faithful until he dies at the end of the film. In Vietnam, his reclamation of human dignity to rescue an entire Vietnamese village attempting to flee from Communist purge despite the potential risk and damage such a humanitarian action can cause to their safety and profit will still be met with a priceless payoff. Tôk-su delays the departure of Korean cargo boats by deciding to take Vietnamese refugees and leaving their commercial cargos on bay. The delay of the departure will result in the ambush attack by the Vietcong, claiming Tôk-su's leg as a victim. Tôk-su is now forced to live his remainder of his life without a leg, but gained also in the process is his best friend Tal-gu's Vietnamese bride, who was among the people saved in Tôk-su's rescue mission. Tôk-su, as a Korean, as were Americans before him, when SS Meredith Glory had decided to forfeit tons of military cargo in order to accommodate the refugees like himself, accomplishes the humanitarian mission, but his sacrifice is perhaps even more significant as he now suffers from a "symbolic castration." (No Americans were hurt in the Hungnam evacuation's Christmas Miracle.)

Tôk-su's long lost sister is found in the U.S., a place totally unsuspected by everyone, during the KBS Campaign in 1983 to reunite lost members of separated families. But even when the lost sister, who was adopted by a family of American military personnel during the mayhem of Hungnam, is re-connected to the family, the father is nowhere to be seen. And unlike a typical blockbuster ending, which must race toward a satisfying ending where every evil must be defeated and every trauma cured, this Korean family's loss of the father left stranded in North Korea carries too much historical weight for it to be flattened out for a miraculous melodramatic finish. The real father—who was once young and capable—has to be left in abeyance, without even the status of his life being either affirmed or denied, even in this commercial enterprise. With the nation state—well only one-half—incapable of confirming whether this figure is alive or dead, the subject of *isan kajok* produces an unintended yet a

discernible postmodern mystification of subjectivity that lies somewhere between ambiguous temporality and definitive temporality. Tôk-su, at the end of the movie, himself already well in his 70s, has to begin the process of ritual of mourning (*chesa*) by both confirming and denying its precondition—the death of the father for whom a physical burial or exhumation can perhaps never be performed.

Immediately before Tôk-su decides to sell his store, Tôk-su's entire family congregates to commemorate the death of Tôk-su's mother who is now deceased after living without a husband presumably for over a half a century in a Confucian-style ritual of *chesa*. While the rest of the family happily sing and eat in the post-*chesa* party in the living room, Tôk-su retreats to his bedroom and wails for the final time. While he—who has returned to the image of the 10-year old boy—muttered the phrase, “Daddy, I have made good on my promise,” the specter of the father—still clad in the traditional *hanbok* attire that he was last seen trying to disembark the SS Meredith Glory in order to search for the sister that fell from Tôk-su's back—returns. It is significant that the father has neither aged nor is he starkly dressed in gray North Korean Communist everyday attire. “I know you have done well. I had longed to see you” are the last words of the specter of the father, who confirms, in the tradition of Korean shamanism, both the spirit of his presence and perhaps his physical death.

Most of the Korean viewers with whom I had once watched *Ode* emotionally fall apart in this scene because it explicitly or implicitly reminds them that the *rendez-vous* between the two—the North Korean ghost father and the South Korean aging son—is a validation of not only the Confucian ideals but also an elusive dream of a Korean national reunion, which are, in many ways like Abraham's love for his son Isaac, absolute, unique and incommensurable. Jacques Derrida points out in his critique of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while laying out the foundation of his “gift of death” that this absolute kind of relationship embodied by Abraham is closely tied to the inevitability of his sacrifice where one must kill the thing he loves the most in order to ironically demonstrate an ultimate form of responsibility. The shuddering sense of sentimentality that is inspired by this meeting in *Ode* is precisely the moment where the ethics of the highest order of being Korean becomes both essentialized and therefore must be properly critiqued for there must never be the kind of duty—Confucian, proper *minjok*-ian (nationalist), filial, or otherwise—that could infinitely be legitimated to the point of sacrificing his own family, his wife, and his leg. Tôk-su has failed to live a life, as his wife once critiqued, for himself or for his own family that he himself has reared. He has instead chosen to sacrifice for his haunting father and fulfill his duty as the filial eldest son.

As Robert Rosenstone, one of the most important historians writing on historical films, asserts, “[f]ilm changes the rules of the historical game, insisting on its own sort of truths, truths which arise from a visual and aural realm that is difficult to capture adequately in words.” (Rosenstone 1995: 17) As I discuss in the powerpoint, all three positions of the film and media historians, Insdorf, Landy, and Rothberg, are all valid despite their varying viewpoints. The translation of historical past onto film is more challenging than perhaps literary adaptation of historical events not only because film is a

medium that is largely dependent on images than words, but because also film is a lot more expensive medium to produce than literature. Therefore, it is not surprising that Korean War films had to pivot around marketable genre conventions such as comedy (which was the case for *Welcome to Dongmakgol*), mystery crime (*The Last Frontier*), and combat action (*Taegukgi*) in a process of simulation and reification of the pure traumatic subject. What is however most surprising about *Ode* is that the traumatic subject seeks a recovery path by not interrogating history, but by conserving an absolute and essential Confucian value. The Confucian mantra trumps all other considerations. What make however Tök-su's sacrifice and then his mourning unique still are the spectral condition of his father. The meeting between the two—like Korea's unrealizable reunification—has been seized by an indeterminable determination that can be conveyed in neither an optimism for the future nor a clear path of access to completely mourn for the death for the other half—the North—which has been declared as illegitimate and undeserving by the rest of international community. *Ode* completes the act of giving the “gift of death,” by the son who has to presume the responsibility of a Confucian ideal of carrying out the impossible *chesa* for the North Korean father whose death not only is unknown, but for whom a mourning may be sacrilegious.

Works Cited

- Gilbert, Bill. 2000. *Ship of Miracles: 14,000 Lives and Miraculous Voyage*. Chicago: Triumph Books
- Rosenstone, Robert A. 1995. *Visions of the Past: The Challenges of Film to Our Idea of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obchack, Vivian. 1995. “History Happens.” In *The Persistence of History: Cinema, Television, and the Modern Event*, ed. Vivian Sobchack, 1-16.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Watts Jr., David. 2012. *Hope in Hungnam*. Amazon Digital Service.

영화를 통한 한국 전쟁 교육: 국제시장을 통한 사례 연구



Kim, Kyung Hyun

Professor,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014년 12월 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의 비극이 한국을 강타했던 해와 같은 해 국제시장 (윤제균)은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킨 영화 중 하나가 되었다. 영화가 대중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그 해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역사상 국제시장보다 더 강한 정치적 반응을 일으킨 영화를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¹⁾ 1300만표 이상의 관객 수를 기록하며 명량 (201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본 영화로 등극한 국제시장의 놀라운 상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한국 전쟁 세대를 비판적으로 그리는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평론가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 보수적인 비평가들을 괴롭혔던 논평은 당시 막 미디어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하던 허지웅이 내놓은 비평이었다. 허지웅은 한겨레가 주최했던 연말 토론회에서 국제시장이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 영화는 한국 전쟁 세대의 자손이 아닌 한국 전쟁 세대가 고생을 짊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위치는 나를 토하게 만든다.²⁾ “토”라는 격렬한 신체적 반응에 대한 표현은 페이스북 북, 트위터 기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부모, 노년층, 국가에 대한 존중이 없는 전형적인 좌파의 입장을 보여주는 예로 보수적인 전문가들 사이에 유포되었다. 허지웅의 이와 같은 발언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시장에 대해 칭찬한 것과 급격한 대비를 이룬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큰 스피커로 국기에 대한 경례가 흘러나오자 다툼을 멈추고 국기에 대한 충성을 거행하던 1970년대의 배경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많은 비평가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것과는 반대되는 효과³⁾를 내는 것으로 생각한 장면이다. 젊은 자유주의 비평가들이 이 영화에 대해 큰 목소리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은 국제시장에 호평을

1) 젊은 인권 변호사를 묘사한 변호인은 사회 활동가이던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를 그린 영화로 국제시장과 같은 해 출시되었으며 한국의 영화 관객들에게 열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국제시장이 만들어낸 것 만큼 정치적인 논쟁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2) “진중권, 허지웅, 정유민의 ‘2014 옥나오는 사건 사고’ 총정리” (진중권, 허지웅, 정유민이 2014년의 영망 진창인 사건들에 대해 평론한다) 2014년 12월 24일 한겨레. 2016년 5월 1일 접속: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670629.html

3)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좌익 지식인 중 한 명인 진중권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기 위해 커플이 싸움을 멈추는 이 장면이 영화 전체를 통틀어 가장 좋았던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면이야말로 1970년대에 강요되던 강제적인 애국심을 비웃는 장면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분명히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같은 장면에서 제기된 아이러니를 보지 못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31/2014123101133.html?Dep0=twitter&d=2014123101133

내렸다.⁴⁾

이 논문에서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한국 전쟁과 분단을 다룬 영화들과 국제시장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전쟁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조사하는 것이다. 국제시장은 한국에 대한 대체적인 역사를 조명하거나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정치적 의제를 확인해주는 것은 아니다(즉 한국의 독재 정권을 안정시키거나 북한의 정권을 비웃는 등). 국제시장은 상업적인 멜로드라마적인 목적으로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유교적 가치들의 숨은 층을 이용한다. 한국 전쟁과 이후 분단이라는 배경을 두고 멜로드라마적인 장르와 유교를 연결시킨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한국의 상업 영화들이 적용하고 있는 최신 기법이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이전에 한국 영화에 대해 다룬 영화들은 멜로드라마 장르와는 대립관계에 있었다. 한국 영화는 이 주제를 1980년 후반에서야 재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제시장 이전의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들은 전쟁 중 남북이 각각 대변하던 두 개의 이데올로기적 측면 사이의 화해나 불가능한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시장은 한국 전쟁 및 그 후 분단 시기 동안 벌어진 이데올로기적인 투쟁과는 분리된 영화이다. 이 때문에 관객들은 한국 전쟁의 역사적인 근본을 탐험하기 보다는 한국의 유교적 가치의 재 신화화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조상을 존경해야 한다는 유교의 주문은 이미 영화의 영어 제목인 Ode to My Father(아버지에 대한 송가)에 분명히 나타나있다. 이 영어 제목은 영화의 원래 제목인 국제시장(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영화는 한국 전쟁 중 10살이던 덕수가 아버지와 헤어지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후 덕수는 전 생애를 아버지 없이 보내다가 60년이 지난 후에야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장면은 영화의 템포와 중심 사상을 드러내주는 깊이 뿌리내린 유교적 가치들을 확인해 준다.

국제시장의 가장 흥미로운면 중 하나는 남성주인공 남성 주인공의 아이들에게보다 그 아버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는 많은 자녀들을 길렀지만 (한 신에서 세어보니 11명이었다) 영화 내내 등장하지 않았던 덕수의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없었다. 죽기 전까지 나치 캠프에서 아들을 격려하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생은 아름다워 (1998)나 죽은자를 추모하기 보다는 살아 남은 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삶을 축하하는 선들러 리스트 (1993), 아이들 중 한명만을 살리도록 강요받았던 소피의 선택 (1982) 등 전형적인 홀로코스트 영화들과는 달리 국제시장은 대량 학살에 관한 영화임에도 아이들을 폭력에서 구하는 기존 영화들의 전통적인 방식을 뒤집는다. 덕수는 아버지의 정신에 따라 해군 선장이 되려는 꿈과 그의 다리까지 희생한다. 이 영화에 또 포함되어 있는 중심적인 질문은 한국 전쟁 중 북한에서 탈출하지 못해 60년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모호한 아버지를 추모하는 올바른 시간이 언제느냐는 질문이다.

감정적인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대신 이러한 감정을 억압하는 모습은 한국 전쟁의 어려움과 그 후의 빈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의 사람인 덕수를 평범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장치이다. 그는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그는 1970년대 가족들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베트남으로 가게되지만 베트남에 가는 진짜 이유를 그의 아내에게까지 말하지 않는다. 가

4) naver.com을 보면 평론가들은 국제시장에 10 점 만점에 평균 5.7 점을 주었고 대중은 9.2 점을 주었다. 국제시장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는 일반 대중과 평론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보여준다.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02875>

죽 중 누구도 왜 덕수가 너무 늙어 가게를 경영할 수 없을 때 조차 가게를 포기하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국제시장의 첫 번째 장면 중 하나에는 이제는 고집이 센 70세가 된 덕수가 부산의 국제시장에 위치한 자신의 상점인 꽃분이네 앞에서 그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상인 협회 대표자들에게 주름진 주먹을 쥐며 울부짖는 모습이 나온다. 6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꽃분이네는 상인 협회에 의해 폐쇄될 위협에 처했다. 상인 협회는 시장 전체를 개조하고자 한다. 상점을 팔라는 압박과 바쁜 시장에서 한 무리의 보행자들과 부딪혀 넘어지는 장면은 덕수에게 치료되지 않은 수십 년 된 흉터가 어두운 기억의 한 부분을 끄집어내게 만든다. 관객들은 여전히 한국이 격렬한 전투의 한 가운데에 있던 시기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1950년 약 10세에 불과했던 덕수의 트라우마는 흥남 철수작전이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민간으로 전승되어 내려오던 이야기 같은 사건이다. 흥남은 군세어라 금순아 등 가장 사랑받는 대중 가요를 비롯하여 몇몇 한국 전쟁 회고록과 소설에 등장하는 중심 주제를 제공한다. 흥남이라는 주제 자체도 영어로 출판된적이 있다 (길버트 2000 및 와츠 주니어 2012).

흥남, 1960년대 서독의 가스트아르바이터스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1970년대의 베트남 전, 1980년대 KBS의 이산 가족 재결합 운동 등 20 세기 후반의 변화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4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국제시장은 한국의 역사와 솔직한 덕수의 캐릭터 사이를 오고 간다. 덕수는 1990년대의 할리우드 고전 영화인 포레스트 검프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이다. 포레스트 검프에 검프 쪽으로 날아온 깃털이 있었다면 국제시장에서는 부산 하늘 위로 올라가다 덕수의 아파트 옥상에 날아든 나비가 있다. 덕수는 그러나 과도한 인간적인 감정을 제거해 탄생한 캐릭터인 검프와는 달랐다. 덕수는 그에게 닮은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영화에 등장하는 각각의 역사적 사건들은 덕수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를 합체한다. 흥남은 덕수가 아버지와 여동생과 헤어진 장소이다. 독일에서 덕수를 거의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의 친구인 달구를 죽게 한 탄광사고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베트남은 덕수가 다리를 잃은 기억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1983년 서울에서 열린 KBS 캠페인은 헤어진 지 33년이 지나서야 덕수가 여동생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KBS 캠페인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난 70 년 동안 한국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사건들이 덕수의 개인적인 삶과 상호 작용하며 결합되어 있다. 많은 면에 있어서 울보 덕수는 무뚝뚝한 포레스트 검프와는 많은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국제시장에도 앞서 말한 영화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 비비안 소브책이 포레스트 검프에 대한 비평에서 언급했듯이 두 영화 모두 “역사적인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렇다 (소브책 1995: 2). 남부군 (1994)에서 고지전 (2011)까지 이어져온 국제시장 이전의 한국 전쟁과 관련된 영화가 개인적인 후회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반 공산주의 한국 정부의 탄생과 관련된 일련의 강렬한 이데올로기적인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한국 전쟁의 심각성을 다루도록 관객들을 몰아붙였다면 국제시장은 더 큰 이데올로기적인 질문은 부정하면서 멜로드라마적인 관습만을 따르고 있다.

제작에 1,000 만 달러를 쓴 상업 영화가 전쟁 중 가장 이야기거리가 풍부한 사건 중 하나를 묘사한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이야기거리가 풍부한 사건을 상업 영화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히려 놀랄만한 일이 될 수 있다: 흥남 철수작전은 그 사건 자체가 가지는 거대한 인도주의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 전에는 영화에서 잘 다루지지 않던 주제였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상업 영화의 르네상스 시기에 한국 전쟁을 묘사한 장편 영화들은 한국 전쟁을 묘사하는 극적인 사

건들을 하나 이상 다루고 있다. 고지전 (2011)은 고지에서의 전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전투는 DMZ에서 발생한 한국 전쟁 최후의 전투 중 하나이다. 이 전투로 인해 북한과 남한의 경계가 결정되었다. 웰컴 투 동막골 (2005)에서는 신하균이 연기한 남한군 장교가 주인공으로 그는 그가 도운 비극에 의해 트라우마를 겪는 인물이다. 그는 북한군이 서울로 진격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한강 다리를 이어주던 유일한 다리를 폭격할 폭탄의 버튼을 누른 자였다. 한강 다리의 폭파는 한국 전쟁 중 발생한 가장 굴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당시 다리를 건너던 민간인들과 피난민들에게 경고 없이 폭탄을 발사하는 바람에 800여명의 민간인들과 피난민들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태극기 휘날리며 (2004)는 강제규 감독이 만든 블록버스터 영화로 당시 1100만명 이상이 이 영화를 관람하며 박스 오피스의 역사를 새로 쓴 작품이다. 이 작품은 낙동강의 전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낙동강 전투는 인천 상륙 작전⁵⁾ 후 전세를 역전하기 전까지 필사적으로 부산을 지키고자했던 남한군이 벌인 1950년 여름 동안의 격전을 다루고 있다. 12만 명이 넘는 군사들 (한국군 4만명, 미국군 4500명, 북한군 6만명 이상)이 낙동강 전투가 벌어지는 6주 남짓한 기간 동안 목숨을 잃었다 (미국에서는 부산의 경계선을 건 전투라고도 불린다). 1950년 12월 유엔 연합군이 2개월 전 평양을 함락하고도 북한에서 퇴각해야했던 흥남 철수 작전을 앞서 말한 한국 전쟁에 관한 영화들에서 묘사한 유혈 사건들과 구분되게 만드는 것은 국제시장에는 기분 좋은 에피소드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남쪽으로 탈출하려는 수만명의 북한 피난민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햇볕 정책 시대 (1999-2008)와 겹치는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의 시대 동안 만들어진 모든 한국 전쟁 관련 영화는 냉전 시대 이후의 실체를 탐구하면서 한국 군부 독재 정권이 만들어낸 반공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에 대해 비판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고지전, 웰컴 투 동막골, 심지어는 태극기 휘날리며조차도 모두 무분별한 살인과 남한과 북한을 화해할 수 없는 적으로 대립시키는 남북의 분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간적인 가치들을 옹호한다. 세 편의 영화 모두 북한인들을 악의적인 살인자로, 끝이 없고 비생산적인 전쟁에 상흔을 입은 형제나 친구로 묘사한다. 한국 전쟁에 초점을 맞춘 이 상업 영화에서 명확하게 재조명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요소는 남성성에 대한 회복이다. 이들 영화의 경우 적어도 한 명의 남성 캐릭터가 전쟁 중 폭력이 휘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조용하고 합리적인 중심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고지전, 남부군의 강중위 (신하균 분)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울 뿐 아니라 이미 친한 친구인 수혁 (고수 분)을 희생시킨 전쟁의 광기도 털어놓는다. 수혁은 이후 무자비한 살인자로 변한 다음 전투에서 죽는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인간적인 북한군 리더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강중위는 전쟁이 발발하자 이와 친구가 된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한국의 장기적인 분단 상황과는 달리 전쟁은 눈에 보이는 종결 없이 민간인 북한군 지도자 (류승룡 분)를 살인 기계로 변하게 만들었다. 이들 영화들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중심이 되는 남성 캐릭터는 무자비한 살해에 대한 기억과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구원을 구한다. 이전의 한국 전쟁과 관련된 영화가 남성 히스테리와 일관성 있는 남성 주체성의 회복 사이의 투쟁을 묘사함으로써 트라우마 후의 회복을 향한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면 국제시장은 한국의 영화 비평가들을 괴롭히는 영화일 수 있다. 주인공인 덕수는 회개를 통한 회복의

5) 인천! 테렌스 영감독이 연출한 1982년 미국 영화이다. 통일교의 지도자인 문선명 목사가 책임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이 영화는 스타들을 캐스팅하고 천문학적 예산이 제작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관련된 영화 중 최악의 영화로 꼽히고 있다. 이 영화는 당연히 한국 전쟁 중 발생한 하나의 사건 (인천 상륙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틀 안에 갇힐 수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한국 전쟁과 한강 대교 폭파, 낙동강 전투, 고지전 등은 정책 실패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따라서 각 영화는 역사 의식, 전쟁의 잔인함, 분단 등에 대한 짐을 오늘날에 다시 재현하기 위해 소대 또는 군대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투쟁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제시장은 적군에 포위되어 있던 상업 항구 도시의 피난민들을 대이동 시킨 흥남 철수작전의 배후에 숨은 이유를 무시함으로써 한국 전쟁 관련 영화 제작의 뒤에 숨은 이유를 무시한다. 영화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1950년 11월 중국 군이 들어오자 유엔 연합군은 장진호전투에서 패한다. 이는 북한에서 10 만명의 군대와 17,500 대의 차량, 35 만톤의 화물을 신속하게 이동시켜야 하는 명백한 이유였다. 그러나 국제시장은 연합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가 중국의 준비 태세에 대해 완고하게 과소 평가한 점에 대한 비판이나 영화의 초반에 나온 '크리스마스의 기적' 이야기로 이어지는 남한 피난민들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 등을 다루지 않고 있다. 즉, '기적'을 강조하면서 정책 실패를 다루지 않고 넘어가고 이 때문에 덕수의 가족들 중 일부만이 배에 탈 수 있었던 비극을 국제시장은 다루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⁶⁾

국제시장은 전쟁의 난장판과 공포를 영화에 등장하는 영웅 (남한에서 아버지 없이 자란 북한의 소년)에 대한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년은 독일과 베트남으로 떠난다. 주인공은 이를 추방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의 포화 속에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은 것도 하나의 비극이지만 과밀화된 부산에 정착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른 문제이다. 어머니, 덕수, 덕수의 두 동생들의 유일한 끈은 남편이 술에 취해 있는 동안 미국에서 밀수한 상품들을 파는 상점인 꽃분이네를 홀로 운영하는 아버지의 여동생이다. 또 영화의 줄거리에 나오지 않는 점이 있다. 한때는 한국 전쟁과 분단과 관련된 영화에서 꼭 등장하던 과거에는 착했지만 타락한 캐릭터의 등장이다. 때로는 가벼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국제시장은 끊임없이 한국 전쟁과 냉전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없애려고 시도한다. 국제시장은 또한 서독으로 이주한 근로자들과 1960년대 베트남으로 떠난 용병들과 노동자들에 관해서도 정치적인 요소를 없애고자 시도한다. 독일의 탄광이나 베트남이 포위한 베트남의 열대 우림 지역과 같은 위험한 장소에 덕수를 배치하는 에피소드들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처음에는 그를 희생자로 묘사한다.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책임이 있는 행위자가 아닌 서독이나 미국 등 반공산주의 초강대국의 사적인 일에 희생되는 평범한 사람으로 덕수를 묘사하는 것이다. 또한 독일 뒤스부르크에서 광부로 일하다 베트남에서 군 판매원으로 일하던 덕수의 희생을 더 고귀하고 덜 정치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가족의 가부장적인 어린 가장의 역할을 하기를 꺼리는 그의 태도이다. 그는 고향을 떠난 땅에서 광부로 일하기 위해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포기했다. 덕수의 동생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자 덕수의 가족들은 덕수에게 동생의 학비를

6) 미국과 한국의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레너드 라루 선장의 지휘 아래 SS 메러디스 빅토리는 남한으로 대피하려는 북한 피난민 1만 4000명의 목숨을 살렸다. 이 이야기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구조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단일 선박이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을 구한 구조 작전'이라고 인정받았다. 이 기록으로 기네스 북에도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흥남 밖으로 북한의 피난민들을 대피시킨 몇 개의 한국선들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라루 선장은 한국전쟁의 오스카 선들러로 칭송받지만 한국인들에게도 잊혀진 선박이 있었으니 바로 SS 온양호이다. SS 온양호는 메러디스 빅토리가 흥남을 출발한 지 이틀 후 1만 7000명의 피난민들을 싣고 흥남을 떠났다. 즉 온양호는 동해를 통해 메러디스 빅토리보다 3000명 더 북한 피난민들을 구했다는 의미이다. 이 사실은 기네스 북에도 여전히 등재되지 않고 있다. 참고: <http://www.guinnessworldrecords.com/world-records/largest-evacuation-from-land-by-a-single-ship>

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북한에 남아 있는 아버지와의 유일한 연결의 고리인 꽃분이 네를 알코올 중독자 삼촌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필요도 덕수가 베트남으로 떠난 이유 중 하나이다.

광부들이 치명적인 광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서독과 덕수와 같은 비군사적 인물들조차도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전쟁이 극에 달한 베트남과 같은 전쟁과 같은 취약한 환경에서도 국제시장은 모든 시련을 긍정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뒤스부르크에서 덕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에 배치된 한국인 간호사인 영자였다. 덕수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영자에게 헌신한다. 베트남에서는 위험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도 공산주의자 숙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베트남 마을 전체를 구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다. 이는 결국 값진 결과를 맺는다. 덕수는 베트남 난민을 태우고 상업 화물을 만에 남겨놓기로 결정함으로써 한국 화물선의 출발을 지연시킨다. 출발이 지연되면서 베트남이 이들을 매복 공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덕수는 다리 한 쪽을 잃는다. 이제 덕수는 다리한쪽이 없는 삶을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달구가 베트남인 신부를 얻게 된다. 달구의 신부는 덕수의 구조 작전으로 구출된 사람들 중 한명이었다. 덕수는 한국인으로서 SS 메리디스 글로리가 자신과 같이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수많은 군사용 화물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을 때의 미국인들과 같이 인도주의적인 임무를 완수했다. 그러나 그의 희생은 그가 “상징적인 거세”로 고통받는 다는 데에서 더욱 값지게 여겨질 수 있다. (홍남 탈출작전 동안 벌어진 크리스마스의 기적 도중 다친 미국인들은 없었다)

1983년 KBS가 이산 가족들의 재결합을 위해 마련한 캠페인에서 덕수의 여동생이 미국에서 발견된다. 미국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나라였다. 그러나 홍남 탈출 작전 도중 미국인 군인 가족에 의해 입양된 여동생이 가족과 재결합하는 상황에도 덕수의 아버지의 생사를 알 길은 없었다. 그리고 모든 악인들이 처단되고 모든 트라우마가 치료되는 만족스러운 결말을 위해 달려가는 전형적인 블록버스터 영화의 마지막과는 달리 북한에 남겨진 아버지와의 헤어짐은 기적과 같은 멜로드라마적인 마무리로는 표현할 수 없는 너무도 많은 역사적인 무게를 담고 있다. 한때는 젊고 유능했던 아버지는 영화 속에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가 이 인물의 생사를 확인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산 가족이라는 주제는 모호한 일시성과 무한한 일시성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주관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신비화를 만들어낸다. 영화의 끝 부분에서 70세가 된 덕수는 영화의 전제 조건 - 시체를 묻거나 화장할 수 없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전제 조건-을 확인하고 부인함으로써 애도 의식을 시작한다.

덕수가 그의 가게를 팔기로 결정하기 바로 전에 덕수의 가족은 덕수의 제사라는 유교적 형식의 의식을 통해 어머니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모인다. 덕수의 어머니는 반세기가 넘는 기간을 남편 없이 살다가 죽은 인물이다. 나머지 가족들이 제사가 일어나기 전 거실에서 행복하게 노래하면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덕수는 침실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린다. 10살짜리 소년으로 돌아간 덕수가 “아버지,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라고 중얼거리는 가운데 아버지의 유령 (여전히 헤어지기 전 덕수의 등에서 떨어진 여동생을 찾기 위해 SS 메리디스 글로리 호에서 내리려고 하던 모습 그대로 한복을 입고있다)이 덕수에게 다가온다. 그의 아버지가 전혀 나이를 먹지 않았다는 사실과 북한 공산당의 일상복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 “니가 잘 해냈다는 것을 안다. 네가 보고싶었다”라고

아버지의 유령은 말한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유령은 한국 무속 신앙의 전통에서 그의 정신은 남았지만 육체는 죽은 것을 확인해주는 장치이다.

나와 함께 국제시장을 본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장면에서 감정적으로 동요되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북한 사람인 아버지의 유령과 한국 사람인 나이든 아들 간의 재회가 유교적인 이상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재결합이라는 꿈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한국의 재결합이라는 꿈은 많은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에 대한 사랑과 같이 절대적이고 독특하며 비교할 수 없는 이상이다. 자크 데리다는 “책임감”이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절대적인 종류의 관계는 그의 희생의 불가피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궁극적인 책임의 형태를 증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죽여야만 했던 것이다. 국제시장에 나타난 아버지와 만남에서 느낄 수 있는 몸서리치는 감상은 한국인을 구성하는 가장 높은 질서의 윤리가 본질화되고 적절하게 비판을 받아야하는 시점이 있다는 점이다. 유교, 적절한 민족주의자, 효자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그의 가족, 아내, 다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덕수는 그의 아내가 말한 대로 그를 위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 그가 일궈낸 가족을 위한 삶도 살지 못했다. 그는 대신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고 장남으로써 그의 효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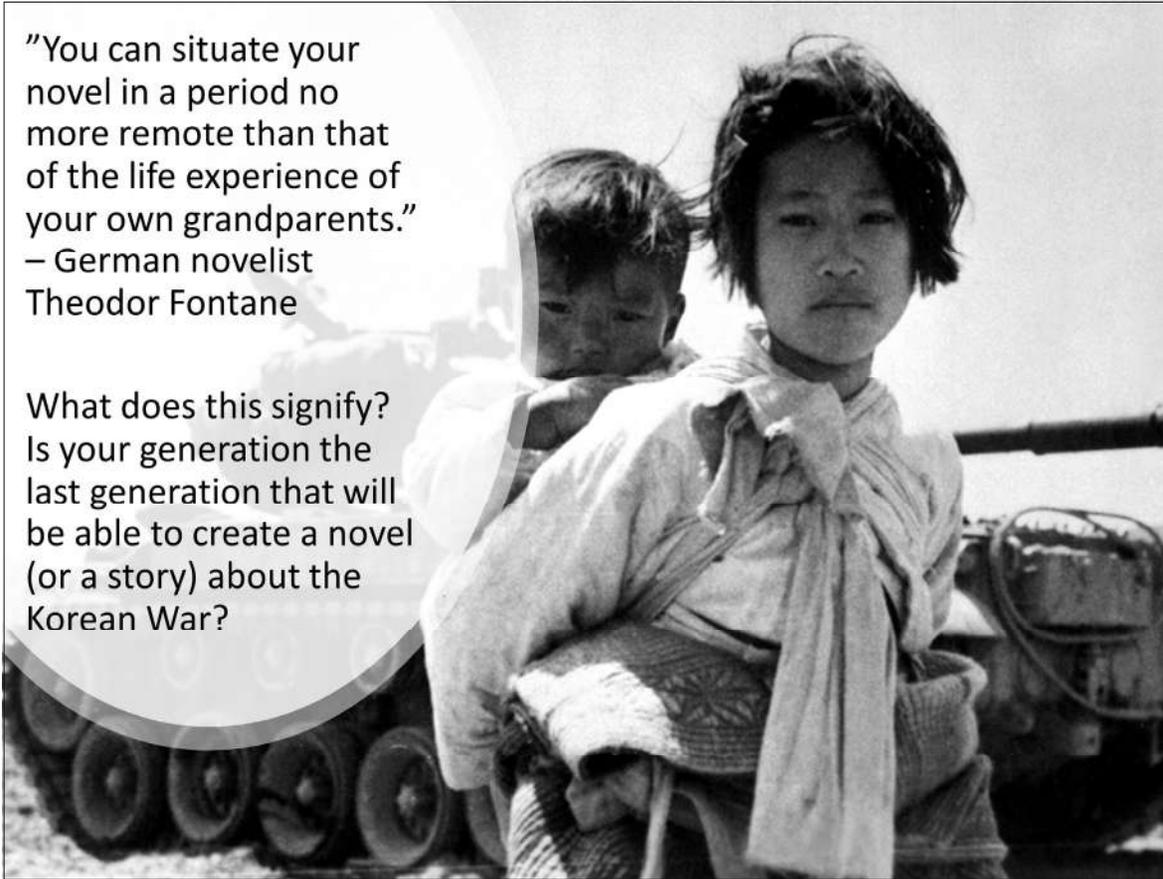
역사적인 영화에 대한 비평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들 중 한명인 로버트 로젠스톤이 주장하듯이 “영화는 역사적인 게임의 법칙을 변경하면서 그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진실을 고수한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란 말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힘든 시각적, 청각적 영역에서 나오는 진실이다.” (로젠스톤 1995: 17) 파워포인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스도프, 랜디, 로스버그의 다양한 견해도 불구하고 세 사람의 영화 및 미디어 역사가가 주장하는 바에는 모두 근거가 있다. 역사적인 사실을 영화로 옮겨오는 것은 이를 글로 표현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영화는 말 보다는 이미지에 더욱 의존하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는 글보다 제작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든다. 따라서 한국전쟁과 관련된 영화가 코메디 (웰컴 투 동막골의 경우)나 미스터리 범죄 (마지막 개척자의 경우), 전투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은 팔릴만한 장르를 중심으로 제작된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제시장과 관련해 가장 놀라운 점은 트라우마로 가득찬 인물이 역사를 심문하지 않고도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유교적 가치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회복의 길을 찾는다는 점이다. 유교적인 주문이 모든 다른 고려사항들을 뛰어넘는다. 그러나 덕수의 희생과 추모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주는 유령과 같은 지위이다.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은 한국의 실현 불가능한 통일과 같이 미래에 대한 낙관이나 다른 한쪽 - 북한 -의 죽음을 완전히 추모할 경로가 없는 불확실한 결단 사이에서 교착 상태에 이른다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비 합법적이고 원조를 받을 자격이 없는 국가로 낙인 찍혔다). 국제시장은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아버지를 위한 불가능한 제사를 수행하고자하는 유교적 전통에 대한 책임을 떠맡은 아들에 의한 '죽음의 선물'을 주는 행위를 완료한다. 그러나 누군가에는 생사여부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추모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Gilbert, Bill. 2000. *Ship of Miracles: 14,000 Lives and Miraculous Voyage*. Chicago: Triumph Books
- Rosenstone, Robert A. 1995. *Visions of the Past: The Challenges of Film to Our Idea of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obchack, Vivian. 1995. "History Happens." In *The Persistence of History: Cinema, Television, and
the Modern Event*, ed. Vivian Sobchack, 1-16.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Watts Jr., David. 2012. *Hope in Hungnam*. Amazon Digital Service.

"You can situate your novel in a period no more remote than that of the life experience of your own grandparents."
– German novelist Theodor Fontane

What does this signify?
Is your generation the last generation that will be able to create a novel (or a story) about the Korean War?



IS *Ode to My Father* a right-wing fi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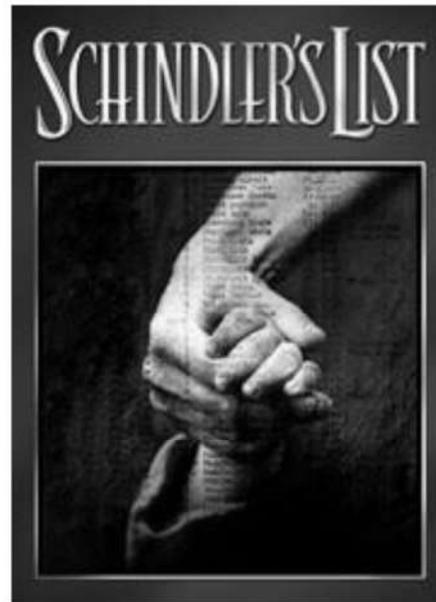


How do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nd child in *Ode* compare against Holocaust movies?



Should there be an injunction
against Hollywood films
(melodrama) about Holocaust?

- Hollywood can trivialize the Holocaust, but Hollywood is "a lesser evil than having the memory of the Shoah disappear from cultural attention" Annette Insdorf
- Melodrama "strikes an affective chord in the viewer in its appeal to the necessity of a moral response." Marcia Landy
- Exteremity of the Holocaust require "a form of documentation beyond direct reference and coherent narrative" Michael Rothberg



An Ode to My Father (Kukje sijang,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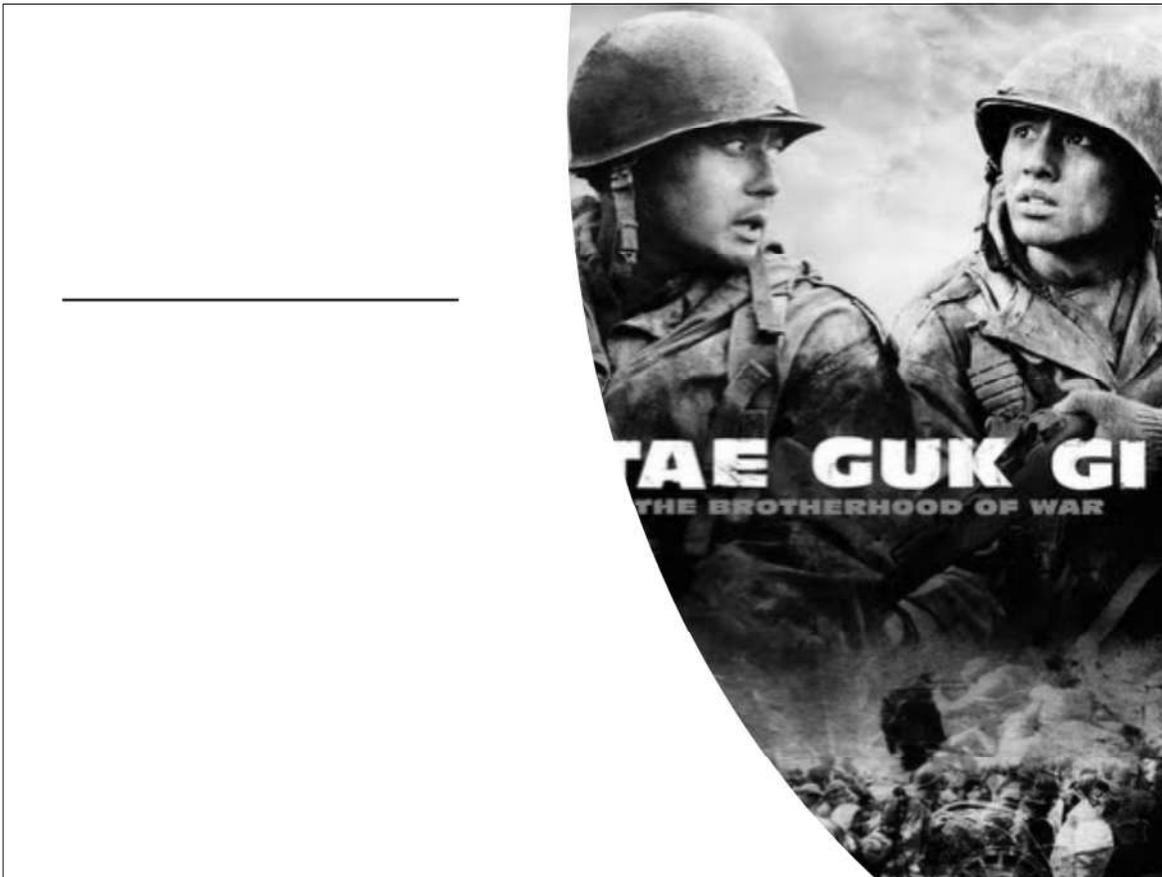


M*A*S*H* (1983)



Nambugun (Southern Army, 1990)







Does the Confucian Mantra Out-trump everything in Korea?



Who gets to speak
about Jeju?

- Does this affirm Rothberg's position (#3) who believes that the extremity of Holocaust requires both form of documentation (production of knowledge) and force the viewers to acknowledge their relationship to the disturbances of history without sweetening it through melodrama?
- But then again, doesn't this force the viewers not to think about making choices on their own about culpabilities of the war?



The Forgotten History of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해방과 한국 전쟁에 관한 잊혀진 역사

Kim, Michael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마이클 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The Forgotten History of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Kim, Michael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divided Korea into two rival nations. The chaotic situation that followed the departure of the Japanese in 1945 has been covered in many history books but there are still many elements that often get left out of the existing histories. The Jejudo Rebellion in 1948 was one of many incidents from the period that has largely vanished from the history books and are rarely mentioned in most history surveys courses except in passing. There are also many issues that rarely get discussed such as the problems of decolonization. The collapse of the Japanese empire left in its wake a sudden population displacement as millions of Koreans and Japanese departed on a long voyage to return back to their home country. Both the US and Soviets struggled against spontaneously organized political movements as they established control over their zones. The establishment of two separate Korean governments then launched the controversial sequence of events that led to the Korean War. The path to war was by no means a certainty and The Korean War is often called the Forgotten War. But this bloody conflicts many ways was not the only element erased from the historical memory of Koreans today. This presentation will try to highlight some historical anecdotes worth remembering and raises issue that will hopefully provide a more comprehensiv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era.

Decolonization and the Soviet and American occupations

The issues of the liberation period need to be understood within the context of different colonial policies for different regions of Korea. The Japanese developed parts of the North as industrial centres and did in fact transform certain areas like the industrial city of Hamhung in significant ways. The South also experienced major changes, but the intense overpopulation of the predominantly

agricultural region were difficult to manage.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left many rural areas of Korea nearly untouched as they lacked the capacity to implement changes. Therefore, the Soviets took over a more industrialised region with a smaller population base concentrated in some highly developed cities while the Americans zone contained a largely illiterate rural population that was mired in poverty.

In both cases, it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Korean society had been mobilised during World War 2 for a war against America. Millions of Koreans had been conscripted for military and labour duty and the entire peninsula had been preparing for an invasion by the United States. Japanese propaganda warned of the dire consequences of a US military occupation by highlighting the mistreatment of racial minorities and the perils of Western imperialism.

The Soviet, in contrast, enjoyed the reputation of a liberating anti-imperialist force that was welcomed by leftist intellectuals who clamoured for revolutionary action. The conservative forces that ultimately welcomed the US presence in Korea were tainted with collaboration as many had been educated in Japan and had worked closely with the Japanese. The lack of legitimacy among the political right in Korea greatly destabilised the situation.

The issues concerning decolonisation are important to keep in mind as the sudden disappearance of the draconian colonial state had unleashed social forces that had been suppressed for many decades. The American historian Gregory Henderson described post-liberation as the ‘politics of the vortex’ when he observed the ubiquity of mass movements that seemed to have no central core. The argument that the Soviets had allowed revolutionary forces to achieve their logical conclusion while the US had blocked them has some merit as both the North and South were full of revolutionary energy.

However, the irony of the division of Korea may be that the Soviets took over the Pyongyang region which had previously been a conservative Christian stronghold in Korea. Many of these Christians fled south, while many radically oriented Koreans went North with the hope that they could engage in revolutionary activity within the Soviet occupation zone. Therefore, the division of Korea had a polarizing impact that was somewhat self-selecting. Radical Koreans who sought to achieve social revolution flocked to the North while those with more conservative leanings went to the South. North Korea did not experience the ‘killing fields’ that often followed communist revolutions, since Koreans opposed to the regime could easily flee to the South.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America

The Korean situation, in contrast, did not allow for a deliberate planning process. When the Soviets suddenly agreed to the division along the 38th parallel, American military resources that had been earmarked for Japan were suddenly diverted to Korea. The US intelligence agencies like the Office of

Strategic Affairs (OSS) and the CIA did gather a significant amount of information about Korea from interviewing Americans like missionaries who had lived in Korea and from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in the United States. Declassified documents of this effort tell an interesting tale.

An important source of wartime contact between US officials an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was the United Korean Committee (UKC), which was established in April 27, 1941 and had its executive offices in Los Angeles, California. Although many Korean organizations came under this banner, the association was a merger between the two main factions of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in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Koongmin Hoi) composed of the followers of Ahn Chang Ho (1878-1938) and the Korean Comrades Association (Tongji Hoi) composed of the followers of Syngman Rhee (1875-1965).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as a long history of factional infighting ever since the forma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KPG) in Shanghai in 1919. The controversies often surrounded the polarizing influence of Syngman Rhee who had been selected to be the first presid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but was expelled in 1925. Afterwards, Syngman Rhee continued to act on his own to claim leadership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until he achieved a rapprochement with the KPG in 1939.

All Korean nationalist movements came together in United Korean Committee in 1941 and the goal was for Koreans in America to lobby and financially suppor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hich at the time had relocated to Chungking in China. The unified movement at first launched with great fanfare and according to an OSS report prepared in March 24, 1943 the effort reflected a major advance i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f the American government had accepted this achievement as evidence that a framework for making use of the Korean independence network then Korean history may have had a far different outcome. Perhaps the US might have been willing to train Koreans in the war against Japan and provide the KPG in Chungking with lend-lease materials for support.

However, the failure of Washington to formulate a coherent Korea policy resulted in largely inaction regarding the Korea question. The UKC eventually collapsed due to infighting between Syngman Rhee and other colourful personalities such as Kilsoo Haan (1900-1974) who claimed to have his own personal espionage network. By the fall of 1942, the UKC became impatient with Syngman Rhee's leadership in Washington, and the March 17-19, 1943 meeting in Los Angeles was filled with bitter infighting between pro-Rhee and anti-Rhee factions.

The inabilit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America to unify may have generated doubt among US officials as to the viability of overseas Korean organizations. Coordinating the far-flung network of independence activists in China, Hawaii, and mainland American proved to be a challenge that could not be met by the Korean leadership at the time. This history of disunity may have had a great impact on the politics of the immediate post-liberation years in Korea. In many ways, we have to

understand the rivalries and continued factional infighting among the Korean leadership as a direct legacy of historical conflicts that had spanned decades and stretched across the Pacific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The Liberation Moment in newspapers

An effusion of eloquence enlivened the initial publications of the post-liberation period, and Korean writers took their spark of inspiration from the anguish of Korea's colonial past and the exhilarating possibilities of fashioning a new nation. While the cherished hopes for a unified Korea would collapse with the establishment of two separate states in 1948, the infectiously triumphant spirit of liberation filled the publications of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day, the intensity of Liberation's fervour may remain buried beneath the maelstrom of social and political forces that led inexorably to the Korean War in June of 1950, yet the dynamism of the immediate post-liberation years still echo among the newspapers that survive from the period. The collapse of colonial rule in 1945 removed many of the barriers that had held back public expression due to strict censorship and opened the floodgates of new ideas. The clamour to express the frustration built up over several decades of colonial oppression was only limited by the availability of printing presses. Surveying the post-liberation scene, an article published in the *Tonga ilbo* newspaper on March 23, 1946 noted:

“Newspapers pour out, journals pile high, pamphlets are everywhere, posters cover everything, and words are turned into books just as soon as they are written down...Paper that is already scarce is fast whittling away. Indeed, the drinking establishments and the publishing industry are the two great spectacles of liberation. The amount of paper being consumed is probably unprecedented in Korean history.”

The amazement expressed over the cascade of print was echoed by countless other Koreans who gathered in record numbers in their favorite drinking establishments to celebrate the end of the colonial era. While the festive celebrations elicited considerable commentary on the rapid growth of post-liberation public sociability, Koreans writers were even more enthralled by the images of a freely circulating public discourse that coursed through the liberation scene. The same *Tonga ilbo* article continued:

“A flood is about to break. The frustration built up over 40 years, when we could not speak even though we had lips and could not write even though we had pens, has penetrated to our bones. Now that we have freedom, what do we have to fear? What has been held back for ages has finally exploded... So much so that even expressions of anger are now a distinct form of pleasure.”

The mere fact that Koreans were able to exchange ideas openly about what they read in print was an

unfamiliar but welcome sensation in 1945. Wartime censorship had closed down most vernacular publications and the official government media had produced a constant stream of propaganda. Koreans arrested for thought crimes and anti-state activities filled the colonial prisons. Liberation in 1945 finally allowed public discussions to flow unhindered throughout Korean society, and the publications were snapped up as quickly as they could be printed.

The genuine enthusiasm to establish a new nation can still be found in the hope and excitement in the newspapers that survive from this period. Korean history can be full of difficult moments, but there are also times when the entire nation comes together in collective triumph. During these expressions of celebration, such as the Olympics in 1988 and the World Cup in 2002, a far different Korea emerges than the constant images of collective tragedy that often fills the narratives of modern Korean history.

The return to Korea and Japan

The number of Japanese who had been scattered to various parts of the empire was also considerable. At the time of Japan's surrender, 3.2 million Japanese civilians and 3.7 million military personnel were outside of Japan, meaning that 6.9 million or nearly 9% of the Japanese population had left Japan during the war. In effect, one of the most under-appreciated aspects of the mid twentieth century is the massive population displacement that took place in East Asia at the end of WWII.

Thus, the simultaneous effort to repatriate millions of Koreans and Japanese back to their home countries was one of the most spectacular consequences of Japan's defeat in the Pacific War. The trauma of cross-border displacement and the untold personal tragedies during this repatriation process touched the lives of millions of Koreans and Japanese. Within this larger movement of Koreans and Japanese flowing in different directions, there was even a group of Japanese and Koreans who briefly travelled a similar path from Manchuria.

The shared trauma of this perilous journey through Manchuria and North Korea led to the first simultaneous best seller in Japan and Korea. A gripping account of an ordinary Japanese housewife's escape from Manchuria and her harrowing trek through the Korean peninsula became a best-seller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Fall of 1949 and early 1950. Fujiwara Tei (b. 1918) and her young children began a treacherous journey through North Korea and eventually back to Japan. In 1949, she published her memoir, entitled, "Nagareru hoshi wa ikite iru," (The shooting star lives on) which became a major best-seller in postwar Japan. Fujiwara's work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in Korea under the title "Naega nomun 38 son" (The 38th parallel that I crossed) in November 1949. The book was a phenomenal success and sold out its entire first edition in just three days. Over the next seven months, the book sold 45,000 copies until sales were interrupted by the start of the Korean War in June 1950.

Official South Korean records state that 317,000 Koreans had returned to the Republic of Korea from Manchuria, while perhaps as many as 300,000 or more Japanese had entered Southern Korea from Northern Korea and Manchuria. Thus, while the actual number of Koreans and Japanese who shared this journey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statistics leave little doubt that thousands of Koreans and Japanese had fled war-torn Manchuria, travelled through Northern Korea and finally crossed over the 38th parallel into South Korea.

Initially,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Japanese would be forced to leave Korea was unsettled, but the availability of US troop transport ships that brought US soldiers across the Pacific made the task far easier to implement. Japanese settler agencies like the Pusan Japanese Relief Society assisted Japanese return home after the collapse of their empire. Little is understood of this process that brought back 3.5 million Japanese who either voluntarily or were forcibly repatriated after 1945. However, what remains clear is that untold human suffering took place along the criss-crossing paths of Koreans and Japanese throughout East Asia.

The 1948 elections and the politics of assassination

The Moscow Conference in December 1945 established the Joint Commission, which met numerous times throughout 1946 to discuss how to establish a unified provisional government. However, the growing animosity between the two sides would lead to a prolonged stalemate. Once Syngman Rhee purged all moderate elements and took over the Representative Democratic Council in the spring of 1947, the path was set for a separate southern government.

The US asked the newly-founded United Nations to form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 to supervise the Korean Constitutional Assembly election on May 18, 1948 and the proces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gust 15, 1948. The Constitutional Assembly elected Syngman Rhee who ran unopposed to become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oviets refused to participate in this UN sponsored election because they controlled an area of Korea that was far smaller in population than the US. The Soviets quickly held their own separate elections on August 25, 1948 which inaugurat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e north. The question of why Syngman Rhee emerged as the paramount leader of South Korea is an interesting one and we must ask what happened to his rivals to power. Here we can see that there had been an irreconcilable and deadly politics of assassination ever since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As early as September 1945, the first victim of assassination was the communist Hyon Chun-hok (1896-1945). Hyon's death is still shrouded in mystery because he represented the leftist groups in North Korea at the time while with Cho Man-sik represented the conservative elements in the North.

Hyon was a domestic communist who may not have cooperated to the fullest with the Soviets, and there is speculation that his assassination was tacitly approved by them. His death may have been a signal that not all communists in Korea welcomed the arrival of the Soviet army.

The next victim of assassination of Song Chin-u (1890-1945), who had been an editor of the Tonga ilbo newspaper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one of the few conservative figures not tainted with Japanese collaboration. After declining to take over from Governor General Abe Nobuyuki, Song was assassinated for suggesting that Koreans should consider the trusteeship plan from the Moscow Conference in December 1945. The renowned independence activist and head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Kim Ku (1876-1949) may have been behind his assassination, and most elements of the right were staunching against the trusteeship.

Yo Un-hyong also fell victim to the assassin's bullet after surviving multiple attempts on his life. He escaped ten terror attacks against him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liberation, but he was finally gunned down on July 19, 1947. Many considered him to be the only true moderate leader among the Koreans, and his death ended the possibility of Koreans coming together under a centralist figure willing to work with all sides of the ideological spectrum.

Perhaps the most famous assassination during the immediate post-liberation years involved Kim Ku. Kim Il Sung invited Kim Ku to Pyongyang to discuss ways of preventing the division of Korea by forming a unified coalition of Korean leaders in April 1948. Kim Ku made the difficult decision to attend the northern conference at a time when most conservatives supported the separate elections in the South. He refused to acknowledge the legitimacy of the May 1948 election and wanted no part of the newly formed Constitutional Assembly that elected Syngman Rhee president. The Pyongyang Conference ultimately turned out to be a propaganda ploy, and Kim Ku was assassinated later in November 1948. The crowds that gathered for his funeral honoured him as one of the few genuine voices that opposed the division of Korea.

Thus even though the negotiations to unify the two Koreas continued throughout 1945-1947, in many ways the movement towards separate states started quite early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and the path became hardened through violence. Syngman Rhee emerged in the South and Kim Il Sung emerged in the North, because so many of their rivals had been systematically eliminated during the violence of the immediate post-liberation years and the Korean War. In effect, an entire generation of Korean leadership had perished during the struggle to establish the Korean nation after the end of Japanese rule in 1945.

The path to civil war

The violence began with the outbreak of guerilla warfare in the summer of 1948 on the peaceful

island of Jeju in the south-western corner of Korea. Demonstrations against the separate elections in Korea led to the National Police and army having to suppress the residents of Jeju Island. Massacres of civilians ensued as South Korean authorities struggled to bring the rebellion under control. Estimates vary but perhaps as many as 30,000 or more may have died in the fighting which may have been in the range of 1/6 to 1/7 of the total population.

The Jeju Uprising then triggered another series of violent incidents in the city of Yosu, where a contingent of soldiers awaiting dispatched to the suppression campaigns on Jeju Island decided to stage their own rebellion. They captured a large area of the Yosu-Sunch'on area and threatened the stability of the Southern regime. One of the young officers who was arrested for his participation in this rebellion happened to be Park Chung Hee, who would later become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Southern Korea on the whole underwent a tumultuous process of decolonization, as public trials were held to expose prominent collaborators with the Japanese during the colonial era. The newly elected National Assembly passed a law and installed a special commission in September 1948 to investigate and put collaborators on trial. The special commission identified approximately 7,000 individuals and issued 682 arrest warrants. The trials proved to be a humiliating experience for hundreds of the most prominent Koreans. However, right-wing groups disrupted the trials, claiming that they were disruptive to public order. Many of the collaborators, especially in the police and military were considered to be essential personnel in the looming battle with North Korea. On June 6, 1949 the National Police attacked and arrested members of the special commission. President Syngman Rhee refused the National Assembly's calls to investigate the incident and the collaborator trials ended without any further punishment of their actions.

While the social disorder leading up to the Korean War in South Korea was significant, it may also be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all signs indicat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was not about to collapse on its own. North Korea dispatched guerilla fighters to the South and tried to instigate further rebellions, but none materialized after the Yosu-Sunch'on incident. The guerilla suppression campaigns at the end of 1949 proved successful and the southern authorities were firmly in control at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Like many aspects of the Korean War, the outbreak of the conflict on June 25, 1950 is still shrouded in controversy. While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war started with a massive North Korean surprise attack, it is also true that both sides had been engaged in a border war for months leading up to the war. Some historians have argued that who started the war is almost irrelevant since both sides were eager to escalate the hostilities.

Much of the fighting had centred around the Ongjin peninsula, as the division along the 38th parallel had created a small strip of land that was difficult to defend along the extreme Western coastline of South Korea. Both sides exchanged fire as they tried to position themselves into better defensive postures. The North may have tried to obfuscate their actions by claiming that they launched the war as

a counter-attack to Southern aggression near the Ongjin peninsula.

Regardless of the tensions leading up to the Korean War, there is now a general consensus that North Korea was clearly the initiator of the conflict and the explanations have now shifted to why they received the approval of the Soviets and Chinese to launch the war. The return of tens of thousands of veteran Korean soldiers who had fought in the Chinese Civil War was critical for providing the North Korean army with the personnel necessary to attack the South. Chinese permission to release these soldiers in time to participate in the war proved to be highly significant. Generous Soviet military assistance was also crucial for providing the necessary fire power. The Korean War required considerable coordination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the Soviet Union. There was no similar effort between the South and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outbreak of the war.

Thus, both North and South may have been eager for war, yet only the North Koreans would have superpower support and the capacity to launch a major invasion. The Soviet Union had left behind ample military equipment and offensive weaponry behind, while the U.S. was reluctant to provide comparable arms to the South. The Americans feared that they would encourage Syngman Rhee to launch a war if they provided him with the necessary armaments. Thus, the situation was clearly ripe for conflict along the 38th parallel, yet this did not necessarily mean that war was an inevitability. The North Koreans clearly had the means to launch a war, and they were eager to interpret the southern situation as advantageous for spreading their revolution.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Such astronomical figures from the casualties from the Korean War are difficult to digest. Indeed, can any of us really imagine what it may have been like for so many people to be killed in such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hree years? Perhaps the truly ironic aspect of the Korean War was that it could have been much worse as there was a debate among the Americans of introducing atomic weapons to the conflict. When the war ground down to a stalemate, a dispute over the use of nuclear weapons emerged. General Douglas MacArthur wanted to broaden the campaign to attack Chinese forces north of the Yalu River, but he was refused permission. When MacArthur made inappropriate statements to the press, President Truman dismissed him for his public insubordination.

After the initial attack on June 25, the North Koreans rapidly pushed the South Korean military all the way down to the famed Busan Perimeter, which was a fifty-by-fifty mile area in the south eastern corner of Korea. Only the US decision to enter the conflict through a UN resolution would save the Republic of Korea. Historians still debate why the Soviets did not veto the resolution within the Security Council, for they had boycotted the session to protest the inclusion of the Nationalist Chinese government of Taiwan as the China representative to the UN. Ultimately, when the United States did

enter the war, it was considered to be a 'police action' rather than a formally declared war. The Korean War proved to be the first case of an undeclared war and establish the pattern for the Vietnam conflict. The passage of the War Powers Resolution of 1973 was an attempt by the US Congress to rein in the US President's authority to engage in military conflicts without a declaration of war.

The surprise landing in Incheon on September 15-16, 1950 cut off the North Korean army and allowed Seoul to be liberated by September 28, 1950. The fateful decision to cross north over the 38th parallel forever changed the character of the war from 'containment' to 'roll back' as US attempted to push back communism rather than simply stop its spread. The combined US-ROK forces quickly captured nearly all of North Korea and pushed towards the Yalu River when the Chinese decided to intervene in October 1950. The Chinese quickly repelled the US-ROK forces back below the 38th parallel and even captured Seoul on January 5, 1951 for three months. The war then stalemated into a battle for better defensive positions along the front lines.

This war of attrition would introduce the most destructive phase of the war as massive US bombings of North Korean cities left only smouldering smokestacks behind. US pilots eventually ran out of bombing targets, for they had destroyed nearly all North Korean urban centres, rail road facilities, dams and industrial sites. The US also introduced napalm into the conflict to destroy villages suspected of harbouring enemy soldiers. Had the war ended in a few short months with a victory for either side in 1950, the loss of life would have been far less, for most of the casualties took place during the war of attrition between 1951-1953.

The Korean War was significant on many levels for the Soviet Uni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hile there is still a tendency to view the conflict as forgotten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mpact of this event was international in scale and would forever change the Cold War interactions among the superpowers. What often gets lost in the historical accounts of the Korean War, though, is the magnitude of destruction and loss of life. Some scholars have noted that the amount of fire power used in the conflict was more than the amount used in the entire Pacific theatre during WWII in a shorter time frame. Today we debate the meaning of 'collateral damage' and the need to minimise 'civilian casualties', but such a discussion about saving non-combatant lives was largely missing from the Korean War.

The legacy of the Korean War

The US had never intended to occupy Korea and the hasty retreat from the peninsula in 1948 suggests that this region was not a high priority from the perspective of US policy makers at the time. Secretary of State Dean Acheson famously did not mention Korea and Taiwan in his National Press Club speech on January 12, 1950 that defined the US 'defensive perimeter' as running through Japan,

Okinawa and the Philippines. While evidence suggests that Dean Acheson's speech did not impact the North Korean and Russian preparations for the Korean War, the omission bolsters the suggestions that Korea was not an area of major strategic interest prior to 1950.

Syngman Rhee tried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delay the withdrawal of US troops. He wanted a military pact in the Pacific similar to NATO, but did not receive it. When the North invaded the South, the US might have adopted a similar position as China, where it had stood by while Chiang Kai Shek's Nationalist Chinese had to flee to Taiwan. Instead, the US decided to intervene in Korea, which resulted in a long-term US military presence. In 1953, some within the US hoped to end the war without a major long-term US commitment.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Eisenhower had been elected partly because of the popular discontent with the war in Korea.

The Americans in the late 1940s were reluctant to enter into a bilateral treaty with the ROK, because they did not want to diminish the UN's role and were worried that Syngman Rhee would entangle them in a Korean crisis. Ultimately, the US may have agreed to an alliance after the Korean War because of Syngman Rhee's insistence and his threats to sabotage the armistice talks. Rhee wanted to keep fighting and refused to accept a peace that would leave a divided Korea. Once the defence pact between the US and Korea was formalized, the US greatly expanded its aid program.

Before 1950, the US barely provided economic assistance to the ROK. The US Congress rejected an aid bill and the State Department had to scramble to provide some support. However, the aid provided as the US withdrew from Korea in 1948 was far less than requested. The Korean War changed this picture completely, and over a billion dollars of US aid was provided in the decade that followed. Regardless of the indifference shown by US policy makers before the outbreak of hostilities, the Korean War clearly turned the region into a high strategic priority. The importance of South Korea within the overall US Cold War framework would mean that the subsequent economic development plans benefited greatly from special access to US markets. The pro-US sentiments would last for decades as South Koreans looked to America for leadership and assistance.

In North Korea, the legacy of the Korea War was clearly psychological because of the immense devastation created by American bombing. The destruction of the Korea War from aerial bombardment led the North Koreans to dig deep into the ground when they rebuilt their cities. Decades after the Korean War, the North still remembers the American attacks and the leadership of North Korea gains great legitimacy by pointing to the wartime destruction and the rebuilding process that took place after the war. The deep-seated anti-Americanism of North Korea today must be understood within the unprecedented level of bombings conducted during the Korean War.

Conclusion

Over six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yet we still do not have a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a sense, the Cold War has ended nearly everywhere except for this part of the world. This fact makes research into the Korean War perhaps more significant than some of the other major conflicts of the twentieth century. Without a doubt, a peace treaty that can finally end the conflict is the most urgent issue in inter-Korea relations.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commemorate the Korean War both officially and unofficially. The devastating event still lives on in the countless testimonials generated by the survivors of the conflict and their efforts to keep the distant memory alive. At the same time, there are so many elements of the liberation period that is largely forgotten despite the sporadic efforts to remember. Memories of the Japanese who used to reside in Korea are largely gone. The memory of colonial collaboration persists but only in the most simplistic and binary form.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America are largely relegated to only a small number of esoteric academic articles. A survey of the forgotten elements of the liberation period can show that the Jeju Rebellion is just one of many historical memories that requires further reconstruction. Only through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auses of the Korean War and revealing the truth of the destruction that took place during the event can we come closer to a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complete the task of ending the Forgotten War.

해방과 한국 전쟁에 관한 잊혀진 역사



Kim, Michael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일본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은 한국을 두 개의 라이벌 국가로 나눴다. 1945년에 일본인이 떠난 뒤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많은 역사서에서 다루어졌지만, 아직도 기존 역사서에서 다루지 않은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남아있다. 1948년 제주도에서 벌어진 민중 봉기는 역사 서적에서 지워진 많은 사건들 중 하나였으며 지나가는 말로 잠깐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역사 연구 코스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주제이다. 탈 식민지화와 같이 거의 논의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일본 제국의 붕괴로 인해 수백만 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고국을 향한 긴 항해를 시작해야 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나눠 통치를 시작하자 자발적으로 구성된 정치적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미국과 소련은 이에 맞서 싸워야 했다. 이후 한반도에서 두 개의 독립된 정부가 설립되면서 한국 전쟁으로 이어진 사건들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게 된다. 전쟁까지 이르는 길은 결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한국 전쟁은 종종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리게 된다. 그러나 이 유혈 사태를 동반한 갈등은 오늘날 한국인의 역사적 기억에서 지워진 유일한 사건은 아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기억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 일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보다 포괄적으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탈식민지화와 소련과 미국의 점령

해방시기의 문제는 한국의 여러 지역에 대한 식민지 정책의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북한의 일부를 산업 지역으로 발전 시켰고 함흥 등의 일부 지역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남한 또한 큰 변화를 경험했으나 주로 농업 지역에서 발생한 인구 과밀화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일제 식민지 당국은 한국의 많은 시골 지역을 거의 관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역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은 인구가 적고 보다 산업화된 지역을 점령한 반면 미국은 빈곤에 시달리던 농촌 지역을 점유하게 된다.

두 지역 모두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 군에 대항해 동원되었던 지역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수백만의 한국인이 군대와 노동력을 위해 징집되었고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다. 일본은 서양 제국주의의 위협을 강조하고 미국의 소수 민족 학대를 이유로 미군이 점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경고했다.

반면 소련은 혁명적 행동을 요구하는 좌파 지식인들에 의해 환영 받는 반미 제국주의 세력으로서 명성을 누렸다. 미국을 환영한 보수 세력은 일본과의 협력으로 오염된 세력이었다. 보수 세력 중 많은 수가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국 내 정치적 우파의 부족한 정통성 때문에 상황이 크게 불안정해졌다.

수십 년 동안 억압받았던 사회적 세력들이 갑작스러운 식민지 상태의 종식으로 풀려남에 따라 탈 식민지화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음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심이 없는 대중 운동이 도처에서 나타나는 해방 이후의 상황을 미국의 역사 학자 그레고리 핸더슨은 '소용돌이의 정치'라고 묘사했다. 소련이 혁명군이 논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허용한 반면 미국은 혁명군을 막았다는 주장은 남북한이 모두 혁명의 에너지로 가득 찼다는 것을 고려하면 일견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을 둘러싼 아이러니는 소련이 과거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들의 본거지이던 평양을 점거했다는 점이다. 이 기독교인 중 많은 수는 남쪽으로 피난을 갔으며 많은 급진적인 한국인들이 북쪽으로 향했다.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혁명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서였다. 따라서 한국의 분단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영향을 낳았으며 이는 스스로 선택한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 혁명을 추구한 급진적인 한국인들은 북한으로 몰려들었고 보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남한으로 향했다. 북한에서는 종종 공산주의 혁명에 뒤따르는 '킬링 필드'가 발생하지 않았다. 북한 정권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쉽게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발생한 한반도 독립 운동

반면 한국의 상황은 고의적인 계획 과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소련이 갑자기 38선을 따라 한국을 나누는 것에 합의하자 일본에 배정 된 미국 군사력이 갑자기 한국으로 우회되었다. 전략 상황국 (Office of Strategic Affairs, OSS)과 CIA와 같은 미국의 정보 기관은 한국에 살았던 선교사들이나 미국 내에 있던 한국 독립 운동가들을 인터뷰해 한국에 관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이러한 노력에 관해 다루고 있는 기밀에서 해제된 문서를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를 볼 수 있다.

미국의 관리들과 한국인 독립 운동가들 사이의 주요 전시 접촉점은 연합 한국인 위원회 (United Korean Committee, UKC)였다. UKC는 1941년 4월 27일 설립되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집행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많은 한국 관련 단체들이 이 단체의 휘하에 있었지만 이 기관은 미국 내에 있던 한국 독립 운동가 단체 중 두 개의 주요 분파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중 하나는 안창호 (1878-1938)의 추종자들로 구성된 국민회였고 다른 하나는 이승만 (1875-1965)의 추종자들로 구성된 동지회였다.

한반도의 독립 운동을 둘러싼 파벌 싸움은 1919년 상하이 임시 정부 (KPG)가 설립된 이래 오래 지

속되어온 문제였다. 논란은 종종 한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 되었으나 1925년 탄핵된 이승만의 분열적인 영향력에 관한 것이었다. 이후 이승만은 1939년 KPG와 화해를 이룰 때까지 독립 운동의 주도권을 주장하기 위해 계속 행동했다.

1941년 연합 한국인 위원회에 모든 한국의 민족주의 운동가들이 모였다. 목적은 미국 내에 있던 한국인들이 임시 정부를 로비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 당시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는 충칭으로 이전한 상태였다. 1943년 3월 24일에 작성된 OSS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운동은 처음에는 큰 광파레로 시작되었는데, 이와 같은 노력은 한국의 독립 운동이 진전을 이룬 것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가 이와 같은 성과를 한국의 독립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틀의 증거로 받아들였다면 한국 역사는 전혀 다른 길로 흘렀을 것이다.

미국이 일본을 대항한 전쟁을 위해 한국인들을 훈련시키고자 했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또한 충칭에 있던 KPG에 지원을 위한 대외 자료를 기꺼이 제공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한국과 관련해 일관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실패함에 따라 한국 문제와 관련된 대책이 세워질 수 없었다. UKC는 결국 이승만과 기타 유력 인사들(한길수(1900-1974) 등) 간의 내분으로 인해 붕괴되었다. 한길수는 자신만의 개인적인 간첩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1942년 가을까지 UKC는 워싱턴 내의 이승만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품게 된다. 이에 따라 1943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회의는 이승만을 추종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간의 격렬한 내분으로 얼룩지게 된다.

미국 내 한국 독립 운동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미국 관리들 사이에 해외 한국인 조직들의 생존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을 수 있다. 중국, 하와이, 미국 본토의 독립 운동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당시 한국 지도부가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이러한 분열의 역사는 한국의 해방 직후 시기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 우리는 한국 내 지도부 간의 경쟁관계와 지속적인 파벌 싸움을 일본 제국주의 기간이 가져온 직접적인 역사적 유산으로 이해해야 한다.

신문에 나타난 해방의 순간

수사법이 등장함에 따라 해방 이후 초기 출판물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한국의 작가들은 식민지 시대의 고통과 새로운 국가의 탄생 가능성에서 영감을 얻었다. 1948년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희망이 붕괴되자 의기양양한 해방의 정신이 남한과 북한의 저작물을 가득 채웠다.

오늘날에도 강렬한 해방의 정신이 1950년 6월 한국 전쟁을 이끌었던 사회 정치 세력의 소용돌이 속에 묻혀 남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해방 직후의 역동성은 아직도 그 시대에 출판된 신문들 사이에 나타나 있다. 1945년 식민 통치가 붕괴되자 그간 억눌려있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홍수를 이뤘다. 수십 년 간의 식민지 시대 동안 억압받은 좌절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외침을 인쇄 기술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1946년 3월 23일 해방 후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나와 있다:

"신문이 쏟아져 나오고, 간행물이 높이 쌓였으며, 팸플릿이 도처에 널려 있고, 포스터가 모든 곳에 덮여 있다. 글은 작성되자마자 책으로 바뀐다..."

이미 부족한 종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술집과 출판 업계야 말로 해방으로 인해 가능해진 위대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소비되는 종이의 양은 한국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이다."

인쇄물의 홍수에 대한 놀라움은 식민지 시대의 종식을 축하하기 위해 술집으로 몰려든 수 많은 한국인들과도 맥을 같이한다. 해방의 기쁨은 해방 후 급증한 대중의 친목 행사에 대한 수 많은 논평을 이끌어냈지만 한국 작가들은 자유롭게 순환하는 대중의 담론에 더욱 매료되었다. 앞서 말한 동아일보의 기사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곧 홍수가 일어날 참이다.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펜이 있지만 쓰지 못했던 지난 40년 간의 좌절감이 뼈 속 깊이 스며들었다.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니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우리를 수십 년간 가로막던 것이 마침내 홍수처럼 터졌다...너무도 폭발적으로 터진 나머지 지금은 분노의 표현조차 뚜렷한 형태의 기쁨이 되고야 만다."

인쇄물에서 읽은 것을 공개적으로 교환 할 수 있다는 사실은 1945년의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기분 좋은 센세이션이었다. 전시 검열로 인해 대부분의 현지 출판물이 출판되지 못했고 정부의 공식 매체만이 선전에 동원되었다. 사상 범죄로 체포 된 한국인들과 반 국가 운동은 식민지 교도소를 가득 채웠다. 1945년의 해방으로 마침내 공개 토론이 가능해졌고 출판물들은 출판이 되자마자 팔려나갔다.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진정한 열정은 이 시대를 살아남은 신문들 속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역사는 어려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지만, 국가 전체가 승리를 이룩한 때도 있었다.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과 같은 기쁨의 표현을 보면 한국의 근 현대사를 가득 채운 집단적인 비극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한국을 엿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으로의 귀국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다. 일본이 항복할 당시 320만 명의 민간인들과 370 만 명의 군인이 일본 밖에 있었다. 즉, 전쟁 도중 일본 인구의 약 9% (690만명)이 일본을 떠나 있었다. 결과적으로, 20 세기 중반의 역사를 볼 때 가장 간과되는 부분은 2차 세계 대전 말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다.

따라서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을 모국으로 송환하려는 노력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함에 따라 나타난 가장 극적인 결과 중 하나였다. 이 송환 과정에서 국경을 넘으면서 사람들이 겪은 트라우마와 개인적인 비극들은 수백만 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던 한국인들과 일본인들 사이에서 일부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은 만주에서 나와 서로 비슷한 경로를 택하기도 했다.

만주와 북한을 통과하는 이 위험한 여행에 대한 공통된 트라우마로 인해 일본과 한국에서 최초로 베스트 셀러로 등극한 책이 나타나기도 했다. 만주를 탈출해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평범한 일본인 주부의 비참한 탈출기에 대한 흥미로운 기술이 1949년 가을과 1950년 초 한국에서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후지와라 테이 (1918 년)와 그녀의 아이들은 북한을 통과해 일본으로 향하는 위험한 여행을 시작했다. 1949년 그녀는 "나가레루 호시 와 이키테 이루" (유성은 살아간다)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발표한

다. 이 회고록은 전 후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다. 후지와라의 작품은 1949년 11월 "내가 넘은 38선"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출판된다. 이 책은 놀라운 성공을 거뒀으며 단 3일 만에 초판이 매진되기에 이른다. 이후 1950년 6월 발발한 한국 전쟁으로 인해 판매가 중단될 때까지 7개월 간 4만 5000부가 팔려나간다.

한국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31만 7000명의 한국인이 만주에서 한국으로 돌아 왔으며 아마도 30만 명 이상의 일본인이 북한과 만주에서 남한으로 입국했다. 따라서 이 여정을 함께한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실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수천 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만주를 탈출하여 북한을 지나 38선을 통과해 남한으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에는 일본인들에게 한국을 떠나도록 강제할지 결정할 수 없었지만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군 병사들을 한국으로 데려온 미군 수송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자 결정이 쉬워졌다. 부산 일본인 구조회와 같은 일본인 정착민들을 위한 단체들이 일본 제국의 붕괴 후 일본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했다. 1945년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로 송환된 350만명의 일본인들을 고향으로 귀국시킨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아시아 전역의 교차로를 따라 펼쳐진 인간들의 고통이 있었다는 점이다.

1948 년의 선거와 암살의 정치

1945년 12월 모스크바 회의에서 공동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공동 위원회는 1946년 수 차례 만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정부를 수립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그러나 양측 간의 적대감이 커지면서 교착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승만은 모든 온건한 요소들을 제거한 다음 1947년 봄 대표 민주주의 위원회를 차치하자 별도의 남한 정부를 향한 길이 열리게 된다.

미국은 신설된 유엔에 국제연합한국위원회 (UNTCOK)를 조직하도록 요청한다. 1948년 5월 18일 치러지는 헌법 제정회의의 총선거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설립으로 이어진 절차를 감독하기 위해서였다. 헌법 제정회의는 반대 후보 없이 출마한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소련은 유엔이 지원한 이 선거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당시 소련이 통제하던 한국 내 지역은 미국이 통제하던 지역 보다 인구 수가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소련은 1948년 8월 25일 재빨리 그들 만의 선거를 치르고 이를 통해 북쪽에서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이 탄생하게 된다. 왜 이승만이 남한의 지도자로 선출되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은 흥미롭다. 그리고 우리는 이승만의 라이벌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이 일본에서 해방된 이래 타협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암살의 정치가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1945년 9월 첫 번째 암살의 희생자가 발생한다. 공산주의자였던 현준혁 (1896-1945). 현준혁의 죽음은 여전히 베일에 덮여있다. 당시 그는 조만식이 북한의 보수주의자를 맡고 있을 무렵 북한 내에서 좌파 그룹을 대표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현준혁은 공산주의자로 소련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련이 현준혁의 암살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는 추측도 있다. 그의 죽음은 한국내의 모든 공산주의자가 소련군의 도착을 환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신호일지 모른다.

다음 암살의 희생자는 식민지 시대 동아일보의 편집인이자 일본과의 협력으로 오염되지 않은 보수주의자였던 송진우 (1890-1945)였다. 일제는 패망 후 아베 노부유키 총독의 뒤를 이어 송진우에게 치안권 이양을 제시하였으나 송진우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송진우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 회의에서 신탁 통치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대가로 암살되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자 임시 정부의 총재를 지낸 김구 (1876-1949)가 암살의 배후에 있었다는 추측이 있다. 우파의 대부분은 신탁 통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여운형은 여러 번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지만 결국 총알의 희생양이 되었다. 여운형은 해방 초기 2년 동안 10차례의 테러 공격을 받았으나 살아남았다. 그러나 1947년 7월 19일 결국 총기 사건으로 사망했다. 많은 사람들은 여운형 만이 유일하게 진정한 한국인 온건파 지도자로 꼽았다. 그의 죽음으로 모든 이데올로기를 포용하고자 하는 중앙집권적인 인물 하에서 한국인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능성도 끝났다.

아마도 해방 직후 가장 유명한 암살은 김구와 관련된 것일 것이다. 1948년 4월 김일성은 한국 지도자들 간의 하나의 연합을 형성하여 한국의 분단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김구를 평양으로 초청하였다. 김구는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이 남한에서 개별 선거를 치를 것을 지지하고 있을 무렵 북측의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는 1948년 5월 치러진 선거의 정당성을 부인했으며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새로 설립된 헌법 제정 회의의 일부로 참여할 마음이 없었다. 평양 회의는 궁극적으로 선전을 위한 책략으로 드러났으며 김구는 이후 1948년 11월 암살당한다. 그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인파들은 김구야말로 진정으로 한국의 분단에 반대한 인물들 중 하나로 꼽았다.

따라서 남북을 통일하고자 하는 협상이 1945년부터 1947년까지 계속되었지만 두 개의 국가를 건립하고자 하는 운동이 해방 초기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폭력을 통해 강화되었다.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부상했다. 이들의 라이벌 중 많은 수가 해방 및 한국 전쟁 직후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1945년 일본의 통치가 끝나고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 지도부의 한 세대 전체가 사라졌다.

내전의 길

이 폭력 사태는 1948년 여름 제주도의 평화로운 남서쪽 구석에서 게릴라전이 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의 분리 선거에 대한 시위가 발생하자 경찰과 군대가 제주도의 주민들을 진압하였다. 한국 당국이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다양한 추정치가 있지만 아마도 총 인구의 1/6 ~ 1/7 수준인 3만명 이상이 전투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제주 봉기는 여수시에서 일련의 폭력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당시 이 곳에서는 제주도의 진압 작전에 파견될 군인들이 우연히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들은 여수 순천 지대의 넓은 구역을 점령하고 남한 정권의 안정을 위협했다. 이 반란에 가담 해 체포 된 젊은 장교 중 한 명은 나중에 한국의 대통령이 될 박정희였다.

식민지 시대 동안 일본에 협력한자들을 색출하는 재판이 개최되면서 남한 전체가 탈 식민지화 과정

에서 격렬한 몸살을 겪었다. 새로 선출된 국회는 1948년 9월 법안을 통과시키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일본에 협력한자들을 색출하고 재판에 회부시켰다. 당시 특별위원회가 색출한 인물은 약 7000명으로 이 중 682건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수백 명의 유명인들이 당시 재판으로 굴욕적인 경험을 했다. 그러나 우파 집단이 공공 질서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이 재판을 방해했다. 일본에 협력한자들 중 많은 수 (특히 경찰과 군부의 주요 인물들)가 북한과의 싸움에 필요한 필수 인물들로 간주되었다. 1949년 6월 6일 경찰은 반민 특위의 위원들을 공격해 체포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사건을 조사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으며 일본에 협력한자들에 대한 재판은 추가적인 처벌 없이 끝나고 만다.

한국 전쟁까지 이어진 남한의 사회적인 무질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스스로 붕괴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주는 모든 사인들을 명심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북한은 게릴라 전투원들을 남쪽으로 파견해 추가적인 반란을 시도했지만 여수 순천 사건 이후에는 어떠한 반란도 구체화되지 못했다. 1949년 말의 게릴라 진압 작전은 성공적이었고 남한 당국은 한국 전쟁 발발 시 확고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전쟁의 많은 측면에서 1950년 6월 25일 발생한 충돌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국 전쟁이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전쟁으로 이어지는 몇 달 동안 남북 양측이 국경을 사이에 둔 교전에 가담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양측이 적대 행위를 확대하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전쟁을 누가 시작했느냐를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투의 대부분은 옹진 반도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38선을 따라 남북을 나눈 것 때문에 한국의 극한 서부 해안선을 따라 방어하기 어려운 작은 땅으로 된 띠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양 팀은 더 나은 수비 자세를 취하기 위해 포화를 주고받았다. 북한은 옹진 반도 부근을 남쪽이 침략한 것에 대한 반격으로 전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했을 수 있다.

한국 전쟁으로 이어진 긴장 상황과는 관계없이 현재는 북한이 한국 전쟁을 시작했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며 이제 북쪽이 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소련과 중국의 승인을 얻었느냐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중국 내전에서 싸우던 수만 명의 베테랑 한국군이 귀국 하는 것은 북한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다. 남한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쟁에 앞서 중국이 이들 군사들의 귀국을 허락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 소련군이 관대하게 병력을 지원해주었다는 사실 또한 전쟁에 필요한 화력을 제공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한국 전쟁은 북한과 중국, 소련 간의 상당한 조정을 필요로 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남한과 미국 사이에는 비슷한 노력이 없었다.

따라서 남과 북 모두 전쟁을 열망했는지 모르지만 북한만이 대규모의 침략을 감행할 수 있을만한 능력과 강대국의 지원을 받았던 것이다. 소련은 충분한 군사 장비와 공격 무기를 남겨놓았고 미국은 남한에 이에 비견할만한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했다. 미군은 이승만에게 무기를 지원해줄 경우 전쟁을 시작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될 까봐 꺼려했다. 따라서 38선을 따라 분쟁이 일어났지만 이 것이 전쟁이 불가피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북한은 분명히 전쟁을 촉발할만한 수단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한의 상황을 혁명 확산에 유리한 것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한국 전쟁의 발발

한국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들의 어마어마한 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그토록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살해당한 상황을 실제로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한국 전쟁의 진정한 아이러니 한 측면은 한국 전쟁이 실제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미국인들 사이에서 전쟁에 핵무기를 쓰자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이르자 핵무기 사용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압록강 북쪽의 중국군에 대한 공격 작전을 확대하고 싶어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 맥아더가 언론에 부적절한 성명을 발표하자 트루먼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맥아더를 해임했다.

6월 25일 첫 공격 이후 북한은 한국을 부산 주변까지 급속하게 남하시켰다. 이 지역은 한국의 남동쪽에 있는 50 평방미터에 달하는 지역이다. 유엔 결의안을 통해 분쟁에 참가하겠다는 미국의 결정만이 한국을 구할 수 있었다. 역사가들은 아직도 소련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내에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논쟁한다. 소련은 이미 일전에 대만의 민족주의적 정부를 중국 대표로 UN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회의 참석을 거부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자 이는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간주되기 보다는 '경찰 행동'의 일환으로 간주되었다. 한국 전쟁은 선전포고 없이 발생한 전쟁의 첫 번째 사례이며 베트남 전쟁을 위한 패턴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1973년에 통과된 전쟁권 결의안은 미 의회가 선전 포고 없이 군사 분쟁에 관여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억제하려는 시도였다.

1950년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UN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해 북한군을 해체했으며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북한군에서 벗어나게 된다. 38선을 넘어 북쪽까지 진격한 운명적인 결정은 한국 전쟁의 성격을 '봉쇄'에서 '격퇴'로 영원히 바꿔놓았다. 미국은 단순히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보다는 공산주의를 뒤로 물리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한미 연합군은 북한의 거의 모든 부분을 점령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해갔다. 이로 인해 중국은 1950년 10월 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한다. 중국은 신속히 한미 동맹군을 38선 이남으로 격퇴하고 1951년 1월 5일에는 서울을 함락하기까지 한다. 이에 따라 서울은 3개월 동안 중국의 손에 놓이게 된다. 이후 전쟁은 전선을 따라 더 나은 수비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로 교착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제 한국 전쟁은 가장 파괴적인 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미군이 북한의 도시들에 대규모의 폭격을 가함에 따라 불에 탄 굴뚝들만이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군 조종사들은 거의 모든 북한의 도심, 철도 시설, 댐, 산업 현장을 파괴했기 때문에 더 이상 폭격할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미국은 또한 적군을 숨겨주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마을을 파괴하기 위해 네이팜을 사용했다. 전쟁이 한쪽의 승리로 1950년에만 끝났더라도 사망자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1951년부터 1953년까지 발생한 교전 동안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은 여러 면에 있어서 소련, 중국, 미국에 중요한 전쟁이었다. 여전히 한국 전쟁을 잊혀진 전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한국 전쟁의 영향력은 그 규모에 있어서 국제적이었고 초강대국 간의 냉전 기간 동안의 상호 작용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발생시킨 파괴의 정도와 사라진 생명들에 대한 기록은 종종 한국 전쟁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일부 학자

들은 한국 전쟁에서 사용된 화력의 양이 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전체 태평양을 무대로 사용된 양보다 많다고 지적한다. 한국 전쟁이 제 2차 세계 대전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부수적인 피해'의 의미와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할 필요성에 대해 논쟁하지만 한국 전쟁 동안에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생명들을 구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전쟁의 유산

미국은 한국을 점령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1948년 한반도에서 급히 철수했다는 사실은 당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의 관점에서 한국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무장관이던 딘 아첸슨은 1950년 1월 12일에 일본과 오키나와, 필리핀을 경유하는 미국의 방어 경계선을 정의한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한국과 대만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딘 아첸슨의 연설이 북한과 러시아의 한국전 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지만 이와 같은 누락은 한국이 1950년 이전에 중요한 전략적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승만은 미군의 철수를 지연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 비슷한 군사 협약을 원했지만 이를 체결하지는 못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 미국은 중국의 경우와 유사한 입장을 취했을지도 모른다. 대신 미국은 한국에 개입하기로 결정한다. 이 때문에 한국에 오랜 기간 미군이 남게 된다. 1953년 미국 내의 일부 사람들은 전쟁을 끝내기를 희망했다. 당시 아이젠하워는 한국 전쟁에 대한 대중의 불만 때문에 선출된 면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1940년대 후반 미국인들은 한국과 양자 조약을 체결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유엔의 역할을 축소하지 않고 싶어했을 뿐 아니라 이승만이 미국을 한국의 위기에 얽히게 할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이승만의 고집과 휴전 협상을 방해하겠다는 위협 때문에 한국 전쟁 이후 동맹에 합의했을 수도 있다. 이승만은 끝까지 싸우고자 했고 대한민국을 분단시키는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단 미국과 한국 간의 국방 협정이 공식화되자 미국은 원조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했다.

1950년 이전까지 미국은 거의 한국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미국 의회는 원조 법안을 거부했고 국무부는 고군분투해 약간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48년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제공한 원조는 한국이 요청한 것에 훨씬 못 미쳤다. 그러나 한국 전쟁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후 10년 동안 미국은 10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한국에 제공한다. 전쟁 발발 전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보여준 무관심과 관계 없이 한국 전쟁은 한국을 전략적 우선 순위로 전환시켰다. 미국이 냉전 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남한의 중요성은 이후 미국 시장에 대한 특별한 접근을 통해 한국이 크게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 한국이 미국에 지도력과 원조를 요구함에 따라 친미 감정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한국 전쟁의 유산은 심리적인 부분이 컸다. 미군의 폭격으로 막대한 파괴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공중 폭격으로 영토가 파괴되자 북한 주민들은 도시를 재건할 때 땅굴을 팔 수 밖에 없었

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공격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지도부는 전쟁 동안의 파괴와 전쟁 후 시작된 재건 과정을 지적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오늘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깊은 반미 감정은 한국 전쟁 중에 자행된 유례 없는 수준의 폭격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결론

한국 전쟁이 끝난 후 60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한반도에는 영구적인 평화가 오지 않고 있다.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세기의 다른 주요 분쟁들을 연구하는 것 보다 한국 전쟁에 대한 연구가 더 중요하다. 의심의 여지없이,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기리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그러나 한국 전쟁의 생존자들의 증언과 오래된 기억을 유지하려는 이들의 노력 속에는 여전히 비극적인 전쟁의 기억이 스며 있다. 이와 동시에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잊혀져 가는 해방 시기의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 한국에 살았던 일본인들에 대한 기억도 거의 사라졌다. 식민지 시대 동안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가장 단순하고 이분법적인 형식으로만 남아있다. 미국 내의 한국 독립 운동에 관한 역사는 소수의 학술 논문에서만 다뤄지고 있다. 해방 시대의 잊혀진 사건들에 대한 조사는 제주도의 반란이 추가적인 조사를 요하는 많은 역사적인 기억들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한국 전쟁의 원인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한국 전쟁 발생 당시 자행된 파괴에 얽힌 진실을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서만 역사적인 화해에 이르고 잊혀진 전쟁을 종식시키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THE HISTORY OF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MICHAEL KIM

INTRODUCTIONS: THE FORGOTTEN HISTORY OF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THE REOCCUPATION OF KOREA



In many respects, WWII in the Pacific ended far quicker than anyone anticipated due to the dropping of the atomic bombs. This left the victors unprepared to handle the myriad of problems brewing in the Korean peninsula. Even the Japanese were at a loss about who should be in charge of the interim government until the arrival of the occupying forces.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AMERICA



The United States spent an enormous amount of time and effort preparing for the military occupation of Japan as WWII drew to an end. American planners had ambitious goals to reshape Japan and their plans for postwar Japan formed over many years of intensive research. However, despite their high level of preparation, the American occupation authorities also known as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 encountered numerous unforeseeable problems.

LEGACY OF COLONIAL RULE: THE CHAOS OF LIBERATION



Major changes took place during final decade that greatly transformed Korean society. The social chaos and tensions that erupted with the end of Japanese rule in 1945, would ultimately provide fertile ground for radical ideological activity and generate considerable social discontent. The disruptive influences from the colonial era would be interpreted in a radical light by American occupation authorities who suspected leftist activity at every corner.

DECOLONIZATION AND THE SOVIET AND AMERICAN OCCUPATIONS



The historical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immediate liberation period involve the claim of some historians that the Soviet Union largely let revolutionary forces take their course in the North while the United States blocked social movements from taking their course in the South.

THE LIBERATION MOMENT IN NEWSPAPERS



Moments of unrestrained promise are rare sights to behold; August 1945, was one such summer of ebullient expectations. To the enthusiastic crowds that thronged the streets to celebrate the passing of Japan's colonial regime, a unique opportunity to build a new society was at hand, and the task fell upon a generation eager to express its particular vision for the nation.

THE RETURN TO KOREA AND JAPAN



Hundreds of thousands of Koreans desperately struggled to return to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collapse of the Japanese empire in August 1945. Millions of Koreans had been abroad at the end of the colonial era, and they could mostly be found in either Manchuria or Japan. The numbers of Koreans flowing out of the Korean peninsula swelled during the forced labour and military mobilization during WWII. While available statistics vary, as many as 1 million Koreans may have returned from Manchuria and 1.4 million returned from Japan during the immediate post liberation years. All total, about 10-15 percent of the Korean population may have been abroad and desperate to return to Korea in 1945.

THE RUSSIAN OCCUPATION OF NORTHERN KOREA



Sources for studying the Russian occupation of North Korea are limited, but much of what we know comes from the Soviet archives and captured North Korean documents by the US army when Pyongyang fell during the Korean War. Michael Robinson explains what happened during the initial phase of the Russian occupation to the Committee for the Prepa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CPKI). Rather than constructing an entirely new administrative apparatus, the Russians chose to work within the political structures that they encountered upon their arrival in Korea.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he events that took place in the South unfolded in a different direction than in the North. General Hodge tried to work with the conservative Koreans who tended to speak English and were pro-American, even though they were tainted with Japanese collaboration. Rather than work within the existing people's committees, the Americans chose to dismantle them and conduct their own direct rule. Michael Robinson explains that the Americans attempted some reforms but held back from any radical measures for fear of destabilizing South Korean society.

THE EMERGENCE OF NORTH KOREAN STATE AND SOCIETY



Kim Il Sung created a state in his image and rebuilt North Korea out of the ashes of the Korean War. His particular vision of self-reliance or Chuche characterizes a close society with a unique hereditary social structure.

THE 1948 ELECTIONS AND THE POLITICS OF ASSASSINATION



The Americans and Soviets discussed the formation of a joint trusteeship for the Korean peninsula at the highest levels, yet the actual policies on the ground by the military occupations had moved towards division shortly after liberation. Both the Soviets and Americans formed separate advisory and administrative bodies in Seoul and Pyongyang immediately upon their arrival. They promoted certain leaders or in the case of the Soviets eliminated some like Cho Man-sik (1883-1950) who threatened their authority. By the fall of 1946 a northern army had already been formed and the US started a similar effort to organize a South Korean police force and constabulary that would become the basis of the South Korean army.

THE PATH TO CIVIL WAR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Korean War broke out in June 25, 1950 as a result of a surprise attack by North Korea forces. However, in many ways the North Korean invasion can also be viewed as the culmination of two years of warfare that had engulfed the Korean peninsula ever since the two separate elections that established two rival governments.

RESEARCHING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The orthodox view of the Korean War used to be quite simple. The North Koreans, acting as puppets for the Soviet Union, had launched an unprovoked proxy war against the South. This was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American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throughout most of the postwar period. Yet during the 1970s and 1980s a number of scholars like John Halliday and Bruce Cumings began to question the orthodox view of the Korean War. Bruce Cumings represents the revisionist view of the Korean War, and he completely challenge the official understanding of why the war broke out.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Without a doubt, the Korean War was one of the most destructive wars of the 21st century. It had the third most deaths after World War I and II of around 2-3 million people, mostly civilians. The actual death toll among civilians may well be higher since we will never know exactly how many people died from the indiscriminate bombings and civilian massacres that took place. The number of military deaths is not clear, but there may have been as many as a million soldiers killed during the conflict.

THE LEGACY OF THE KOREAN WAR



One of the primary legacies of the Korea War may be the strong Korean-American alliance was forged from the loss of 37,000 Americans lives. Even today there are still tens of thousands of US troop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war. This US commitment reflects a major change from the state of US-Korea ties before 1950.

CONCLUSION





**Public Memory of the Jeju 4·3
Massacres and the Reversal of
Historical Erasure:
A Critique of “Dark Tourism”**

**기억 연구를 통해 제주 4·3 사건 가르치기:
역사적인 삭제의 전환에 대한 윤리적인 증거 -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비판**

Kim, Nan

Associate Professor and Public History Program Director,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Public Memory of the Jeju 4·3 Massacres and the Reversal of Historical Erasure: A Critique of “Dark Tourism”



Kim, Nan
Associate Professor and Public History Program Director,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Prefatory note

This paper draws upon the history of Jeju 4·3 in order to explore a case study that challenges the prevailing discourse of “dark tourism” with regard to sites of traumatic memory related to the Jeju 4·3 Massacre. It analyzes how the Jeju 4·3 Peace Park and Peace Memorial Hall provide important examples for critiquing “dark tourism” in favor of alternative approaches that instead emphasize themes of ethical witness, sites of conscience, and memorial museums. These are key topics in the study of public memory which I discuss with my graduate students in a seminar on Public History and Museum Studies. Although I have also incorporated material on Jeju 4·3 in my courses on Korean history, I chose to focus instead on this analysis as a way to illustrate how scholarship on Jeju 4·3 can be introduced to students interested in the ethics of traumatic memory but who may not otherwise have the opportunity to study Korea’s modern history in any depth.

Paper abstract

This paper seeks to critique the concept of “dark tourism,” arguing against its apparent ascendance as a prevailing discourse across a number of analytical fields while contending that South Korea’s Jeju Island offers a particularly compelling case study for highlighting what is highly problematic about this term and approach. Leisure tourism on Jeju has a history of centralized state-driven development that is particularly fraught for native Jeju residents, and the developmentalist enterprise of establishing the tourism industry itself factors into past efforts to censor and attempt to efface the traumatic history of the Jeju 4·3 Massacre. In contrast, the establishment of the Jeju 4·3 Peace Park represents the culmination of a process that starkly contrasts with the island’s commercial touristic development.

Rather than repeating such associations with “dark tourism,” this paper seeks to emphasize the relationship of the Jeju 4·3 Peace Park and the 4·3 Peace Memorial Hall to the growing transnational phenomena of establishing “sites of conscience” and “memorial museums.” Such a shift in identification would foreground the endeavor of *ethical witness* as a central mission of these Jeju sites, and offer a necessary alternative to the framework of tourism, whose orientation is inevitably a commercial one. In this paper, I consider the process by which Jeju 4·3 went from having been a silenced taboo subject to becoming established within public memory, and I consider the efforts by contemporary peace activists to recast Jeju’s place within narratives of traumatic war memory, not only in Korea but more broadly in the greater Northeast Asian region. In this way, the 4·3 Peace Park highlights the complex temporality of Jeju’s “war heritage,” whereby grappling with the island’s tragedies of mass death in the past overlaps with understanding how their ongoing legacies extend into the present. To reject the prevailing discourse of “dark tourism” as objectionable to the context of Jeju’s traumatic history is also to underscore how the Jeju 4·3 Peace Park as a site of conscience and memorial museum provides a critical space for considering the convergence of memory activism and transitional justice

Introduction

On Jeju Island, in a central location within the April Third Peace Memorial Hall, an artwork in the permanent collection comprises the upper half of an entire room, surrounding the visitor from above with bas relief sculptures set into walls on all sides of a circular space. The plaster castings are embedded overhead near a mirrored ceiling so that they appear in double when seen from below. Like the walls of the room, the sculptures are entirely white. Yet, they are lit so that shadows accentuate contours and recesses with contrasting darkness, yielding a dramatic effect that makes the pieces arresting to behold from afar, even before one can make out exactly what the figures are. From a closer viewpoint, the installation reveals itself to be a series of harrowing vignettes. Contorted bodies with hands bound behind their backs. Three heads mounted on stakes. A boxed-in stack of yet more human heads, about two dozen in all. Decapitated corpses lying as if strewn about near other dismembered remains. An adult cradling the limp body of a small child, a *pietà* for one who died much too young. The scenes evoked are horrifying in the violence they represent but also strangely sterile, rendered in pure white. In this gruesome tableau, the only figure standing upright is a bare-chested man, gripping a spear horizontally with two hands, evidently an executioner.

The installation was created by the artist Goh Kilchun, who is also a Jeju native and prominent

political activist. The sculptures are haunting depictions of harrowing experiences based on the testimonies of survivors of Jeju April 3rd massacre (henceforth Jeju 4·3 or *sasam*).

The April Third Peace Memorial Hall is located within the 4·3 Peace Park. These sites memorialize what is regarded as the deadliest of civilian massacres in Korea's modern history, but one which had been silenced for decades by government censorship amid the consolidation of state anticommunism in South Korea during the years following the Korean War's cessation by armistice in July 1953. Amid the progressive political changes that occurred during the decade of center-left administrations from 1998 and 2008 in South Korea, the 4·3 Peace Park was established as part of a process that has served to counter such erasure. The 4·3 Peace Park represents the most visible outcome of the Jeju Commission, which was the truth commission that conducted investigations from 2000-2003 into the armed conflict and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Jeju 4·3. Although the South Korean Truth &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K) is more well-known, the Jeju Commission actually predated the TRCK by five years. Indeed, as Hun Joon Kim has pointed out, the Jeju Commission is the South Korea's first truth commission and therefore a significant achievement in the process of transitional justice as part of Korea's democratization (Hun Joon Kim 2014).

Despite the historically specific backgroun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4·3 Peace Park and Peace Memorial Hall, those sites have been commonly analyzed within the context of so-called "dark tourism." This is true both with respect to academic studies and the popular press. To explain, "dark tourism" is defined as travel to places associated with death or tragedy, and it also represents a topic that has attracted growing interest within recent years (e.g. Foley and Lennon 2000, Tumarkin 2005, Sharpley and Stone 2009, Stone et al. 2018). While academic scholarship on "dark tourism" represents an established subfield in tourism and heritage studies, it has also been addressed in interdisciplinary work on collective memory that spans public history, anthropology, cultural studies, and visual studies. Regarding the 4·3 Peace Park and Peace Memorial Hall, stand-alone studies in both Korean and English show a predominant tendency toward this framing (Jang and Choi 2011; Jang 2012; Kang et al. 2012; Kim and Kim 2011). The term has also surfaced in the popular media, as the island's tourism board has itself been promoting Jeju as a destination for "dark tourism" (Choi 2017, Erwin 2009).

However, this emphasis on "dark tourism" – which has also been called "dark heritage," "thanatourism," "death tourism, or "trauma tourism" – can be misleading and in fact highly inappropriate from an ethical standpoint when used as a primary lens for understanding these memorial sites in Jeju. This paper seeks to critique the concept of "dark tourism," arguing against its apparent ascendancy as a prevailing discourse across a number of analytical fields. I contend that Jeju offers a particularly compelling case study for highlighting what is highly problematic about this term and approach. Regarding significant sites associated with Jeju's overwhelming tragedy of mass death, what is objectionable about employing "dark tourism" as an operative mode of analysis? Leisure tourism on Jeju Island has a history of centralized state-led directives that is particularly fraught for native Jeju

residents. As discussed further below, the state-driven developmentalist enterprise behind establishing the tourism industry itself factors into earlier efforts to efface Jeju's traumatic history.

In contrast, the establishment of the Jeju 4·3 Peace Park represents the culmination of a process that starkly contrasts with the island's commercial touristic development and the island's tourist industry. In this paper, I consider the process by which Jeju 4·3 went from having been a silenced taboo subject to becoming established within public memory, and I consider the efforts by contemporary peace activists to recast Jeju's place within narratives of traumatic war memory, not only in Korea but more broadly in the greater Northeast Asian region. In this way, the 4·3 Peace Park highlights the complex temporality of Jeju's "war heritage," whereby grappling with the island's tragedies of mass death in the past overlaps with understanding how their ongoing legacies extend into the present.

This paper therefore seeks to emphasize the relationship of the Jeju 4·3 Peace Park and the 4·3 Peace Memorial Hall to the growing transnational phenomena of establishing "Sites of Conscience" (Sevcenko 2011) and "memorial museums" (Williams 2006). Such a shift in identification would foreground the endeavor of *ethical witness* as a central mission of these Jeju memorial sites, and that in turn would furnish necessary alternatives to the framework of "tourism," whose orientation is inevitably a commercial one with a pernicious underside in Jeju history's history from past decades under South Korea's military authoritarian rule. To reject the prevailing discourse then of "dark tourism" as objectionable to the context of remembering Jeju's traumatic history is also to underscore how the Jeju 4·3 Peace Park as a site of conscience and memorial museum provides a critical space for considering the convergence of memory activism and transitional justice (Hun Joon Kim 2014, Baik 2007, Wright 2015).

From repressive silence to public memory

Until the turn of the millennium in South Korea, among massacre survivors and families of the victims, Jeju's traumatic past was the object of suppression, rather than memorialization. Accounts of the massacre were silenced by anticommunist government censorship for over five decades. The sole exception to this silencing, as Seong-nae Kim has analyzed, came through the voices of the dead spoken through shamans in the form of ritual lamentations (Seong-nae Kim 2014). Amid a wider suppression, the massacre was furthermore obscured by the fact that this period of extreme violence had been long known by the minimizing euphemism the "April Third incident." In fact, the mass killings actually occurred over several years beginning in 1948, a prolonged episode of devastating ideological conflict and political violence that resulted in the deaths of an estimated 60,000 to 80,000 people¹⁾ — up to a quarter of the island's population — in what has been described as a prelude to the Korean War (Kwon 2009). The suppression of the Jeju Uprising of April 3, 1948, occurred during the

transition from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1945–1948) to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How did a revolt of a few hundred rebels eventually result in the deaths of thirty to eighty thousand island residents, roughly a tenth to a quarter of Jeju’s population? The uprising in 1948 was not instigated by Soviet or North Korean forces, contrary to characterizations by the US military occupational authorities (USAMGIK) and later the South Korean state. Rather, the initial smaller-scale civil unrest was rooted in multiple concerns over local autonomy: protests against police violence, resentment over interference by mainland authorities, and opposition to the May 1948 elections, which was widely seen as jeopardizing the prospects for Korean unification. Beyond the circumstances of the initial local uprising, a fierce battle for territory and a counterinsurgency operation overseen by the USAMGIK—carried out by Korean police forces, rightist groups, and later by the South Korean Army—amounted to one of the most violent events in Korea’s modern history. Regarding the extreme measures taken in the suppression of the 1948 uprising, amid a series of clashes between rebels and police, Hwang argues that what intensified the violence exponentially was the escalation of a counterinsurgency strategy to a scorched-earth policy, which the USAMGIK had initially opposed but eventually condoned, supported, and promoted; the resulting state of siege rendered Jeju what Su-kyoung Hwang calls “a space of death” that terrorized the entire island’s population. In this way, the suppression of the Jeju Uprising marked the onset of intense political violence rationalized by a wartime state of emergency, which effectively legalized the use of state-sanctioned violence not only against presumed enemies but also against the population at large (Hwang 2016).

Jeju’s painful history of mass death points to a bitter irony when contrasted with the island’s development since the 1970s initially under a military authoritarian regime, which sought to remake Jeju as a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stination for escapist leisure. That prior redevelopment of the island laid the groundwork for Jeju’s present-day tourist industry (Tran 2015). That sector has mushroomed in recent years in what has been characterized as rapid overdevelopment, growing from 4 million to 10 million visitors over the last decade. One characteristic is the rapid proliferation of tourist-oriented museums, currently numbering over 100 with a majority of them constructed since 2010. Unlike the handful of established museums that were curated based on scholarly research, such as the Jeju National Museum and the Jeju Folklore and Natural Museum, a new wave of themed museums have rapidly developed with a notably commercial orientation. This museum boom is targeted toward foreign and domestic tourists, particularly the busloads of Chinese tourists who can visit Jeju without a visa and have driven the growth of Jeju’s tourist industry (Frangos 2014). To create new tourist destinat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nder the past two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helped to finance the new museums and offered a variety of tax incentives. What

1) This figure reflects the historiographical understanding of estimated deaths during Jeju 4·3 (Cumings 2010 and Hwang 2016) and is much higher than the official number of 30,000, putting the number at odds with the number cited at the Peace Memorial Hall itself. For a discussion of the discrepancies over determining an estimated total of deaths by Jeju 4·3 political violence and related controversies, see Koh 2016 and Hong and Yook 2015.

resulted was a crop of new institutions that have no connection to the island's history or location, many of which reflect tacky or lurid pretexts such as not only one but three separate sex-themed museums.

This overheated trend of museum construction recalls Jeju's history of state-directed top-down tourist development. Those directives began during South Korea's period of military dictatorship when Park Chung-hee commissioned a group in 1963 to study the development of Jeju, yielding a comprehensive plan in 1972 to develop the island as a tourist-oriented region. Driven by projects contracted to chaebol, or large multinational conglomerates, the touristic development further disempowered local communities vis-à-vis powerful state interests and corporate capital. By 1991, when a second development plan was announced, local resistance opposed the dispossession of native Jeju residents and the damage caused to the island's communities and natural ecology. That resistance would eventually be symbolized by the death of 25-year-old Yang Yong Chan, who committed suicide in protest by self-immolation. Before his death, he wrote a vigorous denunciation of the efforts to develop Jeju as "a 2nd Hawaii, a global tour site that exploits our flesh and bones and makes us playthings" (Heo 2016, Save Jeju Now 2012). Occurring when the civilian massacres were taboo during the decades of military authoritarian rule, the state-led remaking of Jeju as holiday destination were widely understood by the island's native residents as furthering the historical erasure of the Jeju 4·3 civilian massacres.

In contrast, the eventual realization of the 4·3 Peace Park highlights a different trajectory oriented toward the recuperation of historical memory. The Jeju 4·3 Peace Park includes a memorial and burial place for the victims of the 4·3 massacre as well as an interpretive museum, officially called the 4·3 Peace Memorial Hall. These sites are part of the reparations achieved through the Jeju Commission, the truth commission that in 2003 concluded its three years of investigation and deliberation with seven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memorial park and continuous support for further investigation and commemoration projects. In his recent book, *The Massacres at Mt Halla*, Hun Joon Kim Kim writes against the assumption that truth commissions occur in the wake of democratic transition primarily amid the shift of power between old elites and new elites. He argues instead for recognizing the centrality of local activists in furthering the various stages of social and political developments that culminated in the Jeju Commission and the official recognitio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 form of the formal apology by the late President Roh Moo-hyun (Hun Joon Kim 2014). Kim traces the beginnings of such local activism regarding the public memory of Jeju 4·3 as far back as May 1960 by recognizing the work of student activists at Jeju National University. However, following the coup in 1961 by military dictator Park Chung Hee, all mention of the massacres were suppressed. It was not until 1978, with the publication of the novella *Sun-i Samch'on* (*Aunt Suni*), by the prominent Jeju-born novelist Hyun Ki-young, that the massacre received its first public depiction after two decades of silence (Hyun 1978). The novella centers on a protagonist returning to Jeju for his grandfather's memorial service, who died 30 years ago during the April 3

massacre, to learn that a close neighbor, *Sun-i Samch'on*, committed suicide on her farm in recent days. Those events frame the retelling of the horrific violence during Jeju 4·3 by family members, who recall how people were terrorized by the killings (Kim 1989).²⁾ In breaking the silence surrounding Jeju 4·3, *Sun-i Samch'on* also highlighted the continuing repression during the military authoritarian period as the publication resulted in the arrest and torture of the author by government agents who warned Hyun never to write again about Jeju 4·3 (Ryang 2013).

In subsequent efforts to recuperate Jeju 4·3 historical memory in the realms of both cultural and political recognition, other major turning points involved bereaved family members, researchers, journalists, and local and national politicians, as well as activists. After the beginning of procedural democratization in 1988, annual commemorations of April 3rd began to be held by bereaved family organizations, and those events eventually generated the momentum to develop into a month-long arts festival. Those commemorations in turn also provided a recurrent occasion for special reports to be published by local news organizations. One such report set the context for the next major breakthrough, which was the discovery by a team of researchers of the Darangshi Cave in December 1991. There the remains of eleven bodies were discovered, and for the first time it provided extant material evidence of the 4·3 events. The bodies included children, women and the elderly, and researchers gathered corroborating testimonies that overcame the government's attempts to discredit the discovery (Hun Joon Kim 2014, Angela Kim 2012). When the story was broken to the public on April 3, 1992, it received coverage from all the major South Korean news outlets, marking the first time Jeju 4·3 received national media coverage.

Following the stories about Darangshi Cave, 1993 saw the beginning of a movement to submit peti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which was intended to put Jeju 4·3 on the agenda of national politics. At this point, external events abroad also provided an influence: namely, the transitional justice process in Taiwan. Jeju Island council members took a two-day visit to Taiwan, where they learned about the truth commission addressing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nnected to Taiwan's White Terror, the suppression of political dissidents following the Feb 28 incident in 1947. Despite the striking parallels between the legacies of Taiwan's Feb 28th and Jeju's April 3rd, Taiwan was much further along in its process of transitional justice, having secured an official apology and reparations for the victims. That was a point that had been emphasized by local activists and journalists, and directly learning about this comparative precedent helped inspire the council members to back and support the petition movement (Hun Joon Kim 2014). Beginning in 1998, under what would eventually become a decade of center-left governments of first Kim Dae-jung and then Roh Moo Hyun, this was the period when earlier decades of local memory activism would bear fruit on a national level. The Jeju Commission was launched in 2000 until 2003, resulting in a codification of the

2) For a contemporary ethnographic analysis of widowed women who witnessed countless deaths during Jeju 4·3, see Kim 2018.

Jeju 4·3 events a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tate violence. The Jeju Commission concluded its three years of investigation and deliberation with the policy recommendations that led to the creation of the Jeju 4·3 Peace Park and the interpretation of materials in the Jeju 4·3 Peace Memorial Hall, along with continuous support for further investigation and commemoration projects.

Alternative discourses: Memorial museums and Sites of Conscience

In his 2006 monograph *Memorial Museums: The Global Rush to Commemorate Atrocities*, museum studies scholar Paul Williams describes the extraordinary proliferation of memorial museums, a trend that has taken off particularly since the early 1990s. This includes the renovation of the Hiroshima Peace Memorial Museum, and the opening of several new institutions: Memorial Museum of Dominican Resistance, Nanjing Massacre Memorial Hall, and the United States 9/11 Memorial Museum. Williams notes a contradiction in this hybrid convergence of memorial and museum, particularly noting the incongruity of combining on the one hand, memorials of mass suffering, which are generally associated with reverent remembrance; and on the other hand, history museums, which are presumably concerned with interpretation, contextualization, and some inevitable degree of bias or criticism.

Drawing upon a wide array of examples, Williams lays out the thematic similarities shared among memorial museums:

“The victims were mostly civilians, meaning that women and children were not spared; they were killed in circumstances that range from the morally problematic to the utterly inhumane; those who died did so “unnaturally,” meaning that their deaths cannot easily be interpreted and represented as heroic, sacrificial, or somehow benefiting the greater good of society or the nation; …finally, issues surrounding the identity, culpability, and punishment of perpetrators are often contentious or unresolved. (20)

He also describes how memorial museums often contrast strongly with conventional historical exhibitions:

“…their site is usually integral to their institutional identity; they often maintain a clientele who have a special relationship to the museum (such as former members of a resistance, or the families of victims of persecution); they regularly hold politically significant special events (such as memorial days); they have an especially strong pedagogic mission that often includes a psychosocial component in their work with survivors; educational work is stimulated by moral considerations and draws ties to issues in contemporary society in a way

that is uncommon in standard museum presentations of history.” (21)

Particularly notable here is how memorial museums share a concern with contentious interpretations of mass tragedies. Also central to their identity is their relationship with communities of survivors, family members, and advocates.

In all of these respects, the Jeju 4·3 Peace Park falls within this sweeping development in museological practice, the international rise of memorial museums. Thus, other institutional framings are available that depart from the default identification with “dark tourism.” These alternative approaches prioritize the integrity of historically grounded interpretations while they emphasize an orientation toward planning memorial events, creating and maintaining relationships among an engaged network, and educating the public, particularly younger generations. Fostering such linkages also reflect a defining characteristic of museums that belong to an international network of Sites of Conscience. As Liz Sevchenko has noted, many Sites of Conscience that are dedicated to the remembrance of victims of atrocities resist being narrowly understood as sites of suffering,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 “dark tourism” framework. Instead institutions that identify as Sites of Conscience share multi-layered stories that include accounts of resistance, as well as the struggles of daily life in times of extreme hardship (Russell-Ciardi and Sevchenko 2008, Sevchenko 2011), along with more ambiguous dimensions, such as the issue of how victims can fall prey to co-optation by dominant authorities. In other words, these institutions extend their pedagogical role to adopting a moral dimension by linking the past to ongoing legacies and relevant controversies that persist in the present. By shifting the interpretive frame from a focus on militarized power or violent conflict to the victims of such violence and conflict, that furthermore challenges narratives of “war heritage” and instead emphasizes what Sevchenko terms “conscience heritage,” which includes a heritage based on the collective memory of moral acts, ethical choices, compassion, resilience, as well as cruelty (Sevchenko 2011).

Activist routes of circulation

In this vein, a notable constituency of visitors to the Peace Park are those who come to the island not for leisure tourism, but to participate in present-day peace activism rooted in the moral politics of anti-militarism. These are activists drawn to Jeju by the Peace and Life Movement in Gangjeong, opposing the remilitarization of Jeju as evidenced by a newly constructed massive South Korean naval base on land that had once comprised the coastline of Gangjeong Village, despite the overwhelming opposition of local residents. Over the last several years, the village has become a node in domestic and transnational networks of peace activists, who travel to the village to voice their alarm about the

new base. Given the terms of the US-South Korean military alliance, they argue that the presence of American warships and nuclear submarines at the Jeju base, only a two-hour flight from Beijing, would inevitably contribute to military tensions in the region and elevate the risks for a future conflict. Whether they come as short-term visitors or relocate to the village as residents, these peace activists explicitly reject the subject-position of “tourist.” This is what I learned from volunteering in the village during several visits in 2015 and 2016, when I helped with various activities in peace education and protest events. Although at least a few members of the activist community first learned about the movement at Gangjeong while on holiday in Jeju, for the most part there was a clear sense of difference between the anti-base activists, who were engaged in a difficult long-term struggle, and the carefree and largely oblivious holidaymakers passing through on the main road while walking, driving, or biking past the daily activist demonstrations.

Another difference between tourists and activists on Jeju involves the way that they engage with Jeju 4·3 memorial sites. A number of analyses have already commented upon the sculptures and installations within the Peace Park and Peace Memorial Hall (Hong and Yook 2015, Koh 2016, Wright 2015), but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how the 4·3 Peace Park figures into another kind of curatorial practice, one that takes place outside of a formal institutional or museum space. This is the “curation” and reproduction of Peace Tours by local activists. The village a destination for peace activists and eco-activists from the rest of Asia and all over the world. In recent months and years, international activists on short- and long-term visits to the village hailed from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laces of origin as diverse as Sri Lanka, Okinawa, Taiwan, the Philippines, Malaysia, Australia, Ireland, and the West Bank. These international activists as well as South Korean progressives—both from the mainland and elsewhere on the island— come to participate in the daily ritual protests in front of the base. They often travel to the 4·3 Peace Park learn about the history of 4·3 as the first stop in what are called “Peace Tours.” These include visits to significant massacre sites and incorporate a tour of the peace activist community at Gangjeong Village, where visitors participate in direct actions in front of the naval base.

More recently, the sensitivity of siting a base on Jeju has grown only more acute amid regional developments evidently in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WJ] such as the recent bolstering of the trilateral alliance between the US, Japan, and ROK, and Japan’s alteration of its pacifist constitution. Such circumstances have haunting historical implications specific to Jeju Island. During the second Sino-Japanese War and World War II, in order to refuel its bombers to launch aerial attacks against Shanghai and Nanjing, the Japanese Imperial Navy Air Service used as its forward base the airfield that it had constructed on Jeju Island at Mosŭlp’o. It is in fact this history that Gangjeong activists have sought to highlight more recently. Beginning two years ago, peace activists organize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held a memorial service at the abandoned hangars still standing at Jeju’s Alddreu Airfield (알뜨르 비행장). This has become an annual commemoration for victims of the Nanjing

Massacre, precisely to underscore the dangers of re-militarizing Jeju Island and to warn of Korean's indirect complicity; also part of their own rationale why they cannot allow the base to go unopposed. Through the circuits of these peace-education projects and activist solidarity programs, traumatic memory connected to both the Jeju 4·3 massacres and the Nanjing massacre becomes linked to the risks surrounding the new naval base on Jeju Island.

Conclusion: The moral grammar and diction of Jeju 4·3 historical memory

In a subtle analysis of naming in the Palestine-Israel conflict, the anthropologist Julie Peteet writes, “Words are extraordinarily important for the way they embody ideological significance and circulate moral attributes. In other words, in a conflict setting the words chosen from a vast lexicon to describe events, actions, peoples, places and social phenomena reverberate with, uphold or contest power. They constitute moral worlds and the humanity of participants and thus, ultimately, the distribution of rights” (Peteet 2005:154). Peteet describes how the practices of naming are a prominent part of historical transitions and thus serve as a means of tracking power insofar as they reveal the moral grammar that underpins and reproduces power.

The context surrounding the naming of the 4·3 Peace Memorial Hall itself proves to be revealing of Jeju's history of cultural contestation over traumatic memory, which in turn reflects the larger condition of Korea's unresolved war. While the 4·3 Peace Memorial Hall located within the 4·3 Peace Park is undoubtedly consistent with the global phenomenon of memorial museums, the institution is not explicitly called a “museum” for various reasons specific to the Jeju context. In the endeavor to establish the 4·3 Peace Park, the 4·3 Peace Memorial Hall held a particularly significant place as the site for exhibiting the material and archival evidence of the island's suppressed history. As the construction of the memorial park drew near completion, a debate arose over renaming the “Hall of Historical Records” (*saryogwan*), the building housing historical records that would provide public exhibitions for educational purposes. A citizens' solidarity group noted that it considered various terms to include in the official designation for that building housing the collection, including “history museum” (*saryogwan*), “history hall” (*yöksagwan*), “museum” (*pangmulgwan*), and “memorial hall” (*kinyömgwan*). They group finally reached consensus on “peace memorial hall” (*p'yöngwa kinyömgwan*). That version of the designation was chosen in part with the intention to convey a message of peace and convey a universal meaning of 4.3, rather than a narrow sense of presenting historical evidence (Won 2007). That argument prevailed so that, by the time the peace park opened in 2008, what had been formerly called the “Hall of Historical Records” was officially renamed the “4·3 Peace Memorial Hall.”

Another institution on Jeju Island bears a name that can lead visitors to confuse it with the 4·3 Peace Memorial Hall. There is another museum called the Jeju Museum of War History and Peace (*Jeju chŏnjaengyŏksa p'yŏngwa pangmulgwan*), and in Korean it also goes by the shortened name *Jeju p'yŏngwa pangmulgwan*, or “Jeju Peace Museum.” However, in comparison with the 4·3 Peace Park, it narrates Jeju’s tragic modern history from a conservative and pro-military anticommunist perspective. The existence of this museum, which opened in 2004, complicated the identity of “peace museum” on Jeju, around the time that planners were also developing the 4·3 Peace Park. On Jeju the term “peace museum” or “*p'yŏngwa pangmulgwan*” already had been appropriated with a politically conservative inflection. These contrasting identifications of these two peace institutions indicate how “*p'yŏnghwa*” (“peace”) has become an unstable and ambiguous signifier. For example, “*p'yŏnghwa*” is appropriated by Korean conservatives through a national-security narrative that presupposes the preservation of peace as a condition achieved through military means (Yeo 2013, Yeo 2018). In contrast, “*p'yŏnghwa*” is integrated into the 4·3 Peace Park’s symbolism through its focus on victims, to highlight the inhumanity of war and to underscore the imperative to avoid the possibility of future carnage that militarism risks.

Regarding the existence of two “peace museums” on Jeju Island that represent opposite ends of the ideological spectrum, their superficial similarity has real consequences beyond a momentary confusion over their names. On international travel websites, it should be noted that several English-speaking visitors to Jeju have commented on mistakenly visiting the Jeju Museum of War History and Peace, when they had actually intended to see the Jeju 4·3 Peace Park. Both museums are located in areas that are inconvenient to public transportation, requiring a journey between remote mountain spots on different sides of the island. So, even if someone discovers that they arrived at the wrong peace museum, it is unlikely that a short-term visitor could quickly regroup and re-route to visit both museums during a brief stay in Jeju. That means that the naming confusion very likely results in the conservative interpretation of Jeju’s war history may well be the version seen by unsuspecting international travelers, even if those visitors were actually hoping to learn more about Jeju 4·3 history from a progressive perspective.

In this paper’s exploration of memorial practices and spaces regarding Jeju 4·3, this inquiry has sought to disrupt the common tendency to approach those sites within the context of “dark tourism.” This, however, is not intended to criticize the efforts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tragic history, nor it is meant to deny the pedagogical value of having students and travelers engage with places and artifacts associated with death and violence. Rather, this analysis has focused on Jeju 4·3 Peace Park and 4·3 Peace Memorial Hall as comprising a key case study to demonstrate why “tourism” itself should not be regarded as the presumed field of activity in which such memorial sites operate. It is not for generating tourist revenue that such sites draw their meaning and rationale, and they do not only attest to a past of tragic suffering but also document a process of resistance and past activism to

recover that buried historical memory. Those who engage in present-day activism, seeking to connect traumatic Jeju 4·3 history with struggles against contemporary militarism, are those who actively reject the subject position of tourists. Finally, given the complicity of state-led touristic development in disempowering Jeju communities vis-à-vis global capital and mainland political power, it would be warranted to define an ethical position that critically challenges the implications of Jeju's tourism economy, rather than treat the tourist industry as the island's definitive context by default.

Just as tourism relies on routes of circulation — the circulation of capital, the circulation of tourist bodies, and also the circulation among sites — the Gangjeong peace activists have engaged in a reconfiguration of those routes, making the Jeju 4·3 Peace Park an anchor to an alternative circuit of sites related to Jeju's traumatic memory. In addition, the larger politics of naming and language continue to surround the meanings attached to April 3rd, 1948. In the case of contested memory regarding Jeju 4·3, this politics of naming is relevant not only to the more obviously contested terms, such as whether to call the events “riot,” “incident,” or an “uprising.” The politics of naming go beyond the terms that are readily identifiable as marginalizing slurs or ideologically based truth-claims. Instead, they color and encode everyday words — “peace,” “museum,” “tourism” — that would generally be regarded as neutral by those unfamiliar with the specific historical context and implicit field of meaning.

In particular, rather than relegate Jeju 4·3 memorial sites to the framework of “dark tourism,” the Jeju 4·3 memorial sites should be understood within a more critical trajectory that reflects how contemporary efforts are still continuing a tradition of memory activism, democratization, and social justice movements into the present. In this way, the Jeju 4·3 Peace Park and the 4·3 Peace Memorial Hall comprise a valuable space for considering the endeavors to go beyond memorializing and interpreting the complex history of an extremely violent period, in order to shed light on a collective history of dissent and activism to counter historical erasure. These sites thereby link a traumatic past to ongoing controversies in the present in order to give fuller recognition to the significance and place-identity of these sites in keeping with the tradition of ethical witness through memorial museums and Sites of Conscience.

Works Cited

- Baik, Tae-Ung. 2007. "Justice Incomplete: The Remedies for the Victims of Jeju April Third Incidents" in *Rethinking Historical Injustice and Reconciliation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Experience in Regional Perspective*, edited by Gi-Wook Shin et al. London: Routledge.
- Choi, Jieun. 2017. "Touring Jeju's Dark History." *Korea Exposé*. April 3.
- Erwin, Nicole. 2009. "Dark Tourism: Shining a Light on Tragic Histories." *Jeju Weekly*. December 30.
- Frangos, Alex. 2014. "Korea's Jeju Island's Battle of Museums Isn't Exactly a Culture War" *Wall Street Journal*, January 14.
- Gwon, Gwisook. 2013. "Remembering 4/3 and Resisting the Remilitarisation of Jeju: Building an International Peace Movement." In *Under Occupation: Resistance and Struggle in a Militarised Asia-Pacific*, edited by Daniel Broudy, Peter Simpson, and Makoto Arakai, 238-270.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 Heo, Hojoon. 2016. "Jeju nan'gaebal e chöhang'han yangyongch'an yölsa 25chugi wönmunbogi." *The Hankyoreh*. November 2.
- Jang Ae-Ock, Choi Byung-Gil. 2011. "Motive and Characteristics of the Visitors on Dark Tourism: Focused on JeJu April 3rd Peace Park." *Leisure Tourism Studies* 23, no. 1: 65-84.
- Jang, Hye-Won. 2012. "A Study on Attributes of Dark Tourism Storytelling: Focus on Jeju April 3rd Peace Park." *Tourism Study* 27, no. 1: 251-273.
- Hong Soon-Yong and Yook YoungSoo. 2015. "Jeju 4·3 p'yöngwagongwön e saegyöjin 'twiöngk'in kwöllyök'üi hünjök." *Chungangsaron* 42:113-157.
- Kang, Eun-Jung, et al. 2012. "Benefits of visiting a 'dark tourism' site: The case of the Jeju April 3rd Peace Park, Korea." 33, no. 2: 257-265.
- Kim, Angela. 2012. "Darangshi cave unearths yet more Jeju Massacre tragedy." *Jeju Weekly*, March 23.
- Kim Eun-Shil. 2018. "The Politics of the Jeju 4·3 *Holeomeong* Bodies: 'Speaking' and Emotion as Embodied Language." *Korean Anthropology Review* 2: 1-41.
- Kim, Dong-choon. 2010.
- Kim, Hun Joon. 2014. *The Massacres at Mt. Halla: Sixty Years of Truth Seeking in South Kore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im, Seong-nae. 1989. "Lamentations of the Dead: The Historical Imagery of Violence on Jeju Island, South Korea." *Journal of Ritual Studies* 3, no. 2: 251-85.
- _____. 2013. "The Work of Memory: Ritual Laments of the Dead and Korea's Jeju Massacre." In *A Companion to the Anthropology of Religion*. Edited by Janice Boddy and Michael Lambek. London: Wiley Blackwell.
- Kim Sögyun and Kim T'aeil. 2011. "Jeju 4·3 sagönüi 'Dark Tourism' kanüngsöng e kwanhan

kaenyömjök yön'gu." *Taehan könych'ukhakhoe Jeju jihoe haksul taehoe*.

- Koh, Sungman. 2015. "Transitional Justice, Reconciliation, and Political Archivization." *Routledge Handbook of Memory and Reconciliation in East Asia*.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5.
- Foley, Malcolm, and John Lennon. 2000. *Dark Tourism: 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 Boston: Cengage Learning.
- Peteet, Julie. 2005. "Words as Interventions: Naming in the Palestine – Israel Conflict." *Third World Quarterly* 26, no. 1: 153-72.
- Russell-Ciardi, Maggie, and Liz Sevckenko. 2008. "Sites of Conscience: Opening Historic Sites for Civic Dialogue," *The Public Historian* 30, no. 1 (February): 9-16.
- Ryang, Sonia. 2013. "Reading Volcano Island: In the Sixty-Fifth Year of the Jeju 4·3 Uprising"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1:36, no. 2, September 7.
- Save Jeju Now. 2012. "Emergency Rally in Gangjeong on November 10 with commemoration of Yang Yong-Chan." Save Jeju Now: No War Base on the Island of Peace, November 7. <http://savejejunow.org/gangjeong-rally-nov-10/>
- Schattle, Hans. 2014. "Testing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Global and National Public Spheres: Lessons Learned from the Campaign to Stop a Military Base in South Korea" *Globalizations* 12(2): 169-183.
- Sevckenko, Liz. 2011. "Sites of Conscience: Heritage of and for Human Rights." In *Cultures and Globalization: Heritage, Memory and Identity*, edited by Helmut K Anheier and Yuhishthir Raj Isar, 114 - 123. Thousand Oaks, CA: Sage.
- Sharpley, Richard & Stone, Philip R., eds. 2009. *The Darker Side of Travel: The Theory and Practice of Dark Tourism*. Briston, UK: Channel View Publications.
- Stone, Philip, et al.,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Dark Tourism Studies*. London: Palgrave Macmillan.
- Tumarkin, Maria M. 2005. *Traumascapes: The Power and Fate of Places Transformed by Tragedy*.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ublishing.
- Williams, Paul. 2007. *Memorial Museums: The Global Rush to Commemorate Atrocities*. New York: Bloomsbury.
- Won, Seong-shim. 2007. "4·3 saryogwan 4·3 p'yöngwaginyömgwanüro myöngch'ingbakkwöya." *Media Jeju*, November 19, 2007.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91>.
- Wright, Brendan. 2015. "Politocidal Violence and the Problematics of Localized Memory at Civilian Massacre Sites: The Jeju 4·3 Peace Park and the Köch'ang Incident Memorial Park." *Cross-Currents: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Review* 14 (March).
- Yeo, Andrew. 2013. "A Base for (In)Security? The Jeju Naval Base and Competing Visions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Under Occupation: Resistance and Struggle in a Militarised*

Asia-Pacific, edited by Daniel Broudy, Peter Simpson, and Makoto Arakai, 224-237.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_____. 2018. "Realism, Critical Theory, and the Politics of Peace and Security: Lessons from
Anti-base Protests on Jeju Island."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ecurity* 3(2): 235-255.

기억 연구를 통해 제주 4·3 사건 가르치기: 역사적인 삭제의 전환에 대한 윤리적인 증거 -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비판



Kim, Nan
Associate Professor and Public History Program Director,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서문

이 논문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역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는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가득한 장소들을 방문하는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지배적인 논의에 도전하는 사례 연구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제주 4·3 평화 공원과 평화 기념관이 “다크 투어리즘”을 비판하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윤리적 증거, 양심과 관련된 장소들, 기념 박물관 등의 주제를 강조하는 대안적인 접근법들을 선호한다.

이러한 주제들은 필자가 공공의 역사와 박물관 학에 관한 세미나에서 대학원생들과 논의한 공공의 기억에 관한 연구에 포함된 주요 주제들이다.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내 한국사 코스에 포함시키긴 했지만 한편으로 나는 제주 4·3 장학금이 어떻게 외상적인 기억에 관한 윤리에 관심이 있는지 한국의 근 현대사를 깊이 있게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에게 도입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초록

이 논문은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개념을 비판하면서 다크 투어리즘의 지위가 수 많은 분석적인 학문 분야에 걸쳐 우세한 논의라는 주장을 반대한다. 또한 제주가 이 용어와 접근법에 관한 매우 문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데 특히나 매력적인 사례 연구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제주의 레저 관광은 국가 주도로 발전해왔으며 이는 특히나 제주도민들에게 문제를 발생시켰다. 또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업들의 노력으로 제주 4·3 사건의 비극적 역사는 지워지게 되었다. 반면 제주 4·3 평화 공원의 건립은 여러 가지 면에서 관광 개발 및 관광 산업 발달에 집중해오던 이 섬의 과정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논문은 "다크 투어리즘"과의 연관성을 반복해서 설명하기 보다는 제주 4·3 평화 공원과 4·3 평화 기념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건축물들의 건립이 "양심의 장소"와 "기념 박물관"을 짓고자 하는 전환적인 현상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변화는 윤리적인 증거를 제주의 역사적 장소들의 주요 임무로 설정하면서 필연적으로 상업적일 수 밖에 없는 투어리즘의 틀에 필수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나는 제주 4·3 사건이 침묵해야 하는 금기에서 대중의 기억 속에 자리잡아가는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현대의 평화 운동가들이 제주를 한국에서 뿐만이 아닌 동북아 전체에 있어서 트라우마적인 전쟁의 기억에 관한 내러티브 속으로 재등장시키는 노력을 언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4·3 평화 공원은 제주의 "전쟁 유산"의 복잡한 시간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거 제주에서 발생한 학살의 비극이 어떻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우세한 담화를 거부하는 것은 제주 4·3 평화 공원이 어떻게 양심의 장소로 거듭나고 기념 박물관이 어떻게 기억 행동주의와 과도기적 정의에 관한 모범적인 사례 연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머리말

제주도에 있는 4·3 평화 기념관의 중심부에는 영구 보존소의 작품이 전체 전시관의 위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작품은 위쪽에서부터 관람객들을 둘러싸고 있으며 부조로 된 조각이 원형 공간의 모든 면에 있는 벽에 조각되어 있다. 석고로 된 주물이 거울과 같은 효과를 내는 천장 근처에 내장되어 있어 아래에서 보면 이중으로 보인다. 방의 벽과 같이 이 조각은 완전히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 조명이 조각의 윤곽을 돋보이게 하면서 움푹 파인 부분에는 어두움을 드리운다. 이 때문에 멀리서 보면 관객들이 작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에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더 가까이서 보면 이 설치 작품은 수 많은 끔찍한 삽화들을 드러낸다. 손이 뒤로 묶인 일그러진 몸들. 막대기에 매달린 세 구의 머리. 박스로 쌓여 있는 이십여 개의 머리들. 절단된 시체들이 파괴된 잔해들과 함께 놓여있다. 축 처진 작은 아이의 몸을 잡고 있는 어른의 모습은 너무도 일찍 죽은 아이를 위한 피에타다. 이러한 장면들은 끔찍한 폭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메말라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순수한 하얀색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이 끔찍한 장면 속에 똑바로 서 있는 유일한 물체는 맨손으로 창을 들고 있는 남자다. 아마도 처형자일 것이다.

이 설치 작업은 제주 출신의 저명한 정치 활동가인 고길춘이 제작했다. 작품은 제주 4·3 사건 (이후 제주 4·3 또는 4·3 이라고 칭한다)의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4·3 평화 기념관은 4·3 평화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장소들은 1953년 7월 한국 전쟁이 휴전 협정을 맺은 후 수년간 반공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수십 년 동안 제주 4·3에 대한 침묵을 지켜온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민간인 학살 사건을 보여주는 장소들이다. 1998년과 2008년 한국에서 중도 좌파 정권이 집권함에 따라 진보적인 정치적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4·3 평화 공원이 설립되게 된다. 4·3 평화 공원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제주 4·3 사건 동안 벌어진 무력 분쟁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진

실 위원회 (제주 위원회)가 이룩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물이다. 대한민국 진실과 화해 위원회 (TRCK)가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제주 위원회는 TRCK에 비해 5년이나 앞서 설립된 단체이다. 김현준 (Hun Joon Kim)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주 위원회는 남한에서 처음으로 생긴 진실 위원회이며 따라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정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룩한 중요한 업적이다 (김현준 2014).

4·3 평화 공원과 평화 기념관의 건립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들 장소들은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분석되어왔다. 이는 학술 연구 및 대중 매체와 관련해서도 적용되는 사실이다. "다크 투어리즘"은 죽음이나 비극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이 주제는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불러모아왔다 (예: 폴리와 레논 2000, 터마킨 2005, 샤플리 및 스톤 2009, 스톤 등 2018).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학문은 관광과 유산관련 학문의 하위 분야지만 공공의 역사, 인류학, 문화 연구 및 시각적 연구를 포괄하는 집단 기억에 대한 학제간 연구에도 다루어졌다. 4·3 평화 공원과 평화 기념관에 관해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독립 연구들이 모두 이 틀을 향한 가장 큰 경향을 보였다 (장 및 최 2011, 장 2012, 강 등 2012, 김 및 김 2011). 이 용어는 대중 매체에서도 등장했다. 제주 관광청 위원회가 제주도를 "다크 투어리즘"의 목적지로 홍보해왔기 때문이다 (최 2017, 어원 2009).

그러나 제주의 역사적인 장소들을 이해하기 위한 주된 렌즈로 "다크 투어리즘" (다크 투어리즘은 또한 "어두운 유산", "사거 관광", "죽음 관광" 또는 "트라우마 관광"이라고도 불린다)을 사용할 경우 진실을 호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개념을 비판한다. 다크 투어리즘의 우세가 여러 가지 분석적인 분야에 널리 퍼진 담론이라는 대에 반대하는 것이다. 나는 제주도가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와 접근법에 있어서 매우 문제적인 부분들을 강조해주는 설득력 있는 사례 연구를 제공해 준다고 주장한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대학살과 관련된 중요한 장소들을 분석하는 데 "다크 투어리즘"을 사용하는 것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 우선 국가가 주도해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제주도의 비극적인 역사는 지워지게 되었다. 제주의 레저 관광은 국가 주도로 발전해왔으며 이는 특히나 제주도민들에게 문제를 발생시켰다.

반면 제주 4·3 평화 공원의 건립은 여러 가지 면에서 관광 개발 및 관광 산업 발달에 집중해오던 이 섬의 과정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논문에서 나는 제주 4·3 사건이 침묵해야 하는 금기에서 대중의 기억 속에 자리잡아가는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현대의 평화 운동가들이 제주를 한국에서뿐만이 아닌 동북아 전체에 있어서 트라우마적인 전쟁의 기억에 관한 내러티브 속으로 재등장시키는 노력을 언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4·3 평화 공원은 제주의 "전쟁 유산"의 복잡한 시간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거 제주에서 발생한 학살의 비극이 어떻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제주 4·3 평화 공원과 4·3 평화 기념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건축물들의 건립이 "양심의 장소 (세브첸코 2011)"와 "기념 박물관" (윌리엄스 2006)을 짓고자 하는 전환적인 현상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변화는 윤리적인 증거를 제주의 역사적 장소들의 주요 임무로 설정하면서 필연적으로 상업적일 수 밖에 없는 투어리즘의 틀에 필수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우세한 담화를 거부하는 것은 제주 4·3 평화 공원이 어떻게 양심의 장소로 거듭나고 기념 박물관이 어떻게 기억 행동주의와 과도기적 정의에 관한 모범적인 사례 연구가 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헌준 2014, 백 2007, 라이트 2015).

억압적인 침묵의 사건에서 대중의 기억 속에 자리잡기까지

대한민국에서 새 천 년이 시작될 때까지 제주의 비극적인 과거는 희생자들과 희생자들의 가족에게 있어서 기념해야 할 무엇이 아닌 억압의 대상이었다. 50년이 넘게 이어진 정부의 반공주의를 표방한 검열로 학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김성내가 분석했듯이 무당들이 의식의 형태로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형태의 굿을 할 때에만 예외가 적용되었다 (김성내 2014). 억압이 심화됨에 따라 "4·3 사건"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써 대학살을 가리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실제로 대학살은 1948년부터 수년에 걸쳐 발생했다. 비극적인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정치적인 폭력이 장기화됨에 따라 6만명에서 8만명으로 추산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¹⁾—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진 것이다 — 이 사건은 한국 전쟁의 서곡으로 묘사되었다 (권 2009). 1948년 4월 일어난 제주 봉기의 진압은 미군 정부 (1945-1948)에서 새로운 남한 정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단 몇 백 명에 달하는 반란자들이 일으킨 봉기가 어떻게 3만명에서 8만명 (어림 잡이 제주 인구의 10분의 1에서 4분의 1에 달하는 인구)에 달하는 섬 주민들을 사망하게 했을까? 1948년 일어난 이 봉기는 이후 당국 (USAMGIK) 및 이후 한국 정부가 정의한 바와는 달리 소련이나 북한군이 부추긴 것이 아니었다. 그 보다는 지방 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즉 경찰의 폭력에 대한 항의, 본토 당국의 간섭에 대한 분개, 1948년 5월 선거에 대한 반대로 인해 소규모의 소요 사태가 일어났으며 이는 한국 통일에 대한 전망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초기의 봉기를 일으킨 상황들 외에도 영토를 둘러싼 치열한 전투와 USAMGIK이 지휘하던 대 계릴라전 작전 - 한국 경찰과 우익 단체, 그리고 이후에는 남한 군이 수행함 - 은 한국의 근 현대사 중 가장 폭력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다.

1948년 발생한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극단적인 조치들에 관해서 말해보면 반군과 경찰 간의 일련의 충돌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대 계릴라전을 위해 수행되었던 초토화 작전이었다고 황은 주장한다. USAMGIK은 처음에는 이 작전에 반대했으나 이후 이를 묵인했고, 지원했으며, 장려하기까지 했다. 이 결과 제주도는 황구경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주도 인구 전체에 공포를 드리운 "죽음의 공간"이 되고 만다. 이런 방식으로 제주 봉기를 진압하면서 전시 비상 사태로 합리화 된 치열한 정치 폭력이 시작되었다. 이를 빌미로 국가는 적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뿐만이 아닌 제주도 인구 전체에 대한 폭력을 효과적으로 합법화했다 (황 2016).

제주도의 고통스러운 대량 학살의 역사는 1970년대 군사 정권의 주도로 섬을 국내 및 국제적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던 것과 쓸쓸한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개발의 결과 오늘날과 같이 제주도의 관광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트란 2015). 제주도의 관광 산업은 지난 10년간 400만에서 1천만 명의 방문자를 끌어들이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또 한가지 특징은 관광 중심 박물관의 급속한 확장이다.

1) 이 수치는 제주 4·3 사건 동안 추정된 사망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커밍스 2010 및 황 2016) 공식 수치인 3만 명에 비해 훨씬 많은 수치이다. 이 수치는 평화 기념관에 기록된 수치에 비해서도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제주 4·3 사건 및 관련된 사건으로 인한 총 사망자수를 결정하는 데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고 2016 및 홍 및 육 2015를 참조하라.

2010년 이래 제주도의 관광 중심 박물관은 1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된다. 제주 국립 박물관과 제주 민속 박물관, 자연 박물관과 같은 학술 연구를 기반으로 설립 된 소수의 박물관과는 달리 상업적인 이유로 새로운 테마 박물관들이 급속도로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박물관 붐은 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나 제주도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겨냥한 바가 크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제주도의 관광 업계의 성장을 이끌었다 (프랑고스 2014). 새로운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는 지난 2년간 보수적인 관리하에 새로운 박물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그 결과 섬의 역사나 장소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기관들이 생겨났다. 그 중 많은 곳은 촌스럽고 선정적인 이유로 지어진 곳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는 1개가 아닌 무려 3 곳의 섹스 박물관이 지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과열 된 박물관 건설 붐은 국가 주도의 하향식 관광 개발의 역사를 상기시킨다. 국가 주도의 하향식 관광 개발은 남한의 군사 독재 시기에 시작되었다. 1963년 박정희는 한 단체에 제주도의 발전에 대해 연구하도록 의뢰했다. 이에 따라 1972년 제주도를 관광 특구로 만들자는 포괄적인 방안이 마련되게 된다. 재벌과 계약을 맺은 프로젝트들에 힘입어 관광 산업의 발전은 지역 공동체를 더욱 위축시켰다. 1991년 두 번째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제주도민들은 부동산 불법 탈취와 공동체와 자연 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이유로 이에 저항했다. 이 저항은 마침내 25세의 양용찬을 죽음으로 이르게 했다. 양용찬은 제주 개발 계획에 반대해 분신 자살했다. 그는 죽기 전 제주도를 제 2의 하와이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유서를 남겼다. 그는 "제 2의 하와이로 제주도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살과 뼈를 이용하여 우리를 장난감으로 만드는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허 2016, 지금 제주를 살리자 2012). 수십 년에 걸친 군사 독재 정권 하에 민간인 학살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되었으며 제주도민들은 제주도를 휴양지로 만들기 위한 국가 주도의 계획을 제주 4·3 민간인 학살을 역사적으로 지우기 위한 시도로 해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4·3 평화 공원의 건립은 역사적 기억의 회복을 지향하는 이와는 다른 궤적을 보여준다. 제주 4·3 평화 공원에는 제주 4·3 학살 희생자를 위한 기념관 및 매장 장소와 4·3 평화 기념관이 라고 불리는 박물관이 있다. 이와 같은 장소들은 제주 위원회의 노력으로 받아들인 배상금의 일부로 지어졌다. 진실위원회는 2003년 기념 공원 설립 및 추가 조사, 기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 7 가지 정책 권고를 바탕으로 3 년간의 조사와 심의를 마쳤다. 김현준은 최근 그의 저서인 한라산에서 벌어진 학살에서 구 엘리트와 신흥 엘리트 사이의 권력 이동에 따라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발생해 진실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었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는 대신 다양한 사회, 정치적 발전을 이뤄낸 현지 운동가들의 노력이 제주 위원회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김현준 2014).

김은 제주 4·3에 대한 대중들의 기억에 관한 현지의 운동이 시작된 것은 1960년 5월까지 거슬러올라간다고 주장한다. 당시 제주 대학교 학생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62년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쿠데타 이후 제주 4·3 학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억압되었다. 1987년 저명한 제주 출신의 소설가 현기영이 저서 순이 이모를 출판하자 제주 4·3 사건이 재조명 받게 된다. 20년간에 걸친 침묵이 유지된 후였다 (현 1978). 이 중편 소설은 4·3 학살 사건으로 30년 전 사망

한 조부모님의 제사를 위해 제주로 돌아온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다. 제주로 돌아온 주인공은 가까운 이웃인 순이 삼촌이 최근 그녀의 농장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제주 4·3 사건을 겪은 가족들이 떠올리는 끔찍한 폭력을 재조명한다 (김 1989)²⁾. 순이 삼촌은 제주 4·3을 둘러싼 침묵을 깨고 군주 독재 기간 동안 계속된 억압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작가는 정부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다. 이들은 작가에게 제주 4·3과 관련된 글을 다시는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 (량 2013).

문화적, 정치적 인식의 영역에서 회복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제주 4·3에 관한 역사적 기억은 유족, 연구자, 언론인, 지역 정치가, 활동가들이 주요 전환점이 되었다. 1988년 민주화를 위한 절차가 시작된 후 유족으로 구성된 조직들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기념식을 매년 개최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한 달에 걸친 예술 축제가 개최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념 행사로 인해 지역 신문에 제주 4·3에 대한 언급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보도 중 하나가 주요 전환점이 되었다. 1991년 12월 한 연구자들로 구성된 팀이 다랑쉬 오름에서 발견한 것을 보도한 것이다. 당시 다랑쉬 오름에서는 11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최초의 현존하는 물리적 증거였다. 시체에는 아이들, 여성,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연구자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을 모아 이와 같은 발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시도를 극복했다 (김현준 2014, 안젤라 김 2012). 1992년 4월 3일이 이야기가 대중에 공개되자 남한의 모든 주요 대중 매체들이 이를 다루었고 이는 제주 4·3 사건이 최초로 전국적으로 조명을 받는 계기가 된다.

다랑쉬 오름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된 시체들에 관한 이야기에 뒤이어 1993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 움직임은 제주 4·3 사건을 국가의 정책 의제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이 당시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 - 즉 대만의 과도기적 정의 정책 -도 이와 같은 움직임에 영향을 주었다. 제주도 의회 의원들은 이틀간 대만을 방문해 대만의 하얀 공포 (1947년 2월 28일 발생한 사건 이후 이어진 정적들에 대한 억압)와 관련된 인권 유린을 다루는 진실 위원회에 대해 알게 되었다. 대만의 2월 28일과 제주도의 4월 3일에는 놀랄 만큼 유사한 점이 많았지만 당시 대만은 과도기적 정의를 위한 절차에서 훨씬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배상한 점이 한국과 다른 점이었다. 지역 활동가들과 언론인들은 이 점을 강조했다며 제주 의회의원들은 제주 4·3 사건과 비교되는 사건이 어떻게 다루졌는지를 직접 배움으로써 청원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김현준 2014). 1998년 김대중의 중도좌파 정부가 시작되자 (이 정권은 이후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10년간의 중도 좌파 정권으로 이어진다) 지역 기억주의 운동가들의 활동이 국가적인 수준에서 결실을 맺게 된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제주 위원회가 출범하여 제주 4·3 사건을 인권 유린 및 국가가 국민에 행한 폭력 사태로 성문화하게 된다. 제주 위원회는 3년간에 걸친 조사와 심의를 걸쳐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이 권고안으로 인해 제주 4·3 평화 공원과 제주 4·3 평화 기념관이 건립되게 된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와 기념 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2) 제주 4·3 사건 동안 무수히 많은 사망자를 목격한 과부 여성들에 대한 현대 민족 지학적 분석을 보려면 김 2018을 참조하라.

대체 담론: 기념 박물관 및 양심의 장소

박물관 학자 폴 윌리엄스는 2006년 발표한 논문인 박물관: 잔악 행위를 기념하기 위한 세계적인 러쉬에서 기념 박물관의 비정상적인 확산에 대해 언급한다. 이와 같은 트렌드는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확산에는 히로시마 평화 박물관의 개축과 몇몇 새로운 기념관들(도미니카 저항 기념관, 난징 대학살 기념관, 9/11 기념관)의 개관이 포함되었다. 윌리엄스는 기념비와 박물관을 한 데 모으는 것과 관련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한쪽에서는 대량 학살을 기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역사 박물관을 짓는 모순에 대해 말한다. 윌리엄스는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기념 박물관 간에 서로 유사한 주제들이 있음을 지적한다:

"희생자들은 주로 민간인이었는데, 이는 여성과 어린이들 또한 희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부터 완전히 비인간적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해되었다. 죽은 사람들은 "부자연스럽게" 죽었다. 이 뜻은 이들의 목숨이 영웅적이거나, 희생적이거나, 사회나 국가의 더 큰 이익을 위해 희생되었다고 해석되기 힘들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신원, 형벌, 처벌을 둘러싼 쟁점들이 종종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미해결된 경우가 많았다. (20)

그는 또한 기념 박물관이 종종 기존의 역사적인 전시회와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설명한다.

"한 국가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제도적인 정체성에 필수적이다. 박물관은 종종 박물관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고객(예전의 저항 세력이나 박해 받은 희생자들의 가족)을 유지한다. 박물관은 종종 정치적으로 중요한 특별 행사(예: 추모일)를 연다. 박물관들은 종종 강렬한 교육학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작품에 희생자들과 심리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교육적인 작업은 도덕적인 고려에 자극을 받고 현대 사회의 이슈와의 관계를 표준적인 박물관들에서 볼 수 있는 역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낸다." (21)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기념 박물관이 대량 학살에 대한 논쟁적인 해석에 관심을 갖는 방식이다. 또한 박물관의 정체성의 핵심은 생존자, 가족 및 옹호자 공동체와의 관계이다.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제주 4·3 평화 공원은 국제적으로 기념관들이 급속하게 생겨나기 시작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다크 투어리즘"에서 벗어난 다른 제도적인 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 접근 방식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해결의 무결성을 우선시하는 동시에 추모 행사를 계획하고, 관련된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대중(특히 젊은 세대)을 교육시키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연결 고리를 육성하는 것은 국제적인 '양심의 장소'들에 속하는 박물관의 특징을 보여준다. 리즈 세브첸코가 지적한 것처럼 잔학 행위에 대항한 희생자를 기념하기 위해 헌정된 양심의 장소들은 고통의 장소로 편협하게 이해된다. 이는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이름 붙은 관광의 특징이다. 대신 양심의 장소로 인식되는 기관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공유한다. 여기에는 저항에 대한 증언, 극단의 고난을 겪는 시기의 일상적 어려움(러셀-키아디 및 세브첸코 2008, 세브첸코 2011), 더 모호한 차

원들(희생자들이 어떻게 지배 당국의 공동 선전의 희생양이 되었는지와 같은 문제)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이들 기관들은 과거를 현재의 유산과 관련이 있는 논쟁과 연결시킴으로써 도덕적 차원을 채택하는 쪽으로 그들의 교육 학적 역할을 확장한다. 군대의 권력이나 폭력적인 갈등에서 그러한 폭력과 갈등의 희생자들에게 초점을 옮기는 방식으로 "전쟁 유산"에 대한 서술에 도전하고 세브첸코가 "양심 유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도덕적 행위, 윤리적 선택, 공감, 탄력성, 잔인함에 대한 집단적 기억에 기반한 유산이 포함된다(세브첸코 2011).

운동가들의 순환 경로

이 평화 공원의 방문자 중 주목할만한 대상은 레저 관광을 위해 섬을 방문하는 자들이 아닌, 반 군국주의를 표방한 도덕 정치에 뿌리를 둔 평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강정 마을의 평화 및 생명 운동에 이끌려 제주에 온 활동가들로서 제주의 재 군사화에 반대했다. 이와 같은 이들의 반대는 한때 강정 마을의 해안선이던 부지에 신축된 대규모 한국 해군 기지에서 나타난다. 이 해군 기지는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강정 마을은 평화 운동가들의 국내외적 네트워크의 교점이 되었다. 이들은 강정 마을을 방문하여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한미 군사 동맹의 조건을 감안할 때 베이징에서 2시간 비행 거리인 제주 기지에 미군 함정과 핵 잠수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지역 내 군사적 갈등과 미래의 충돌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평화 운동가들은 단기간에 강정 마을을 방문했던 강정 마을의 주민으로 정착했던 간에 "관광객"으로서의 위치를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이것은 내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여러 번 강정 마을을 방문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배운 것이다. 당시 나는 평화 교육 및 시위 행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도왔다. 이들 활동가들 중 일부는 휴가 차 제주도를 방문할 당시 강정 마을의 운동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친 투쟁에 관여해 온 대부분의 운동가들은 걷기, 운전, 자전거타기 등 휴가를 즐기기 위해 자유롭게 거리를 지나다니는 관광객들과는 구별된다.

관광객들과 운동가들의 또 다른 차이점은 운동가들이 제주 4·3 사건을 기념하는 장소를 참여하는 방식에 있다. 평화 공원과 평화 기념관 내 조각 및 설치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의 분석이 이루어졌지만(홍 및 육 2015, 고 2016, 라이트 2015) 4·3 평화 공원이 다른 종류의 큐레이터의 행위(공식적인 기관이나 박물관 공간의 밖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지역 운동가들에 의한 "큐레이션"이자 평화 투어의 재생산이다. 한국 외 아시아 전역과 전세계에서 온 평화 운동가들과 환경 운동가들의 목적지가 된 마을로, 최근 수년간 미국을 비롯해 스리랑카,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호주, 아일랜드, 요르단 강 서안지구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장, 단기 환경운동가들이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했다. 이 국제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진보주의자들(한국 본토와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서 온 진보주의자들)은 해군 기지 앞에서 매일 같이 시위를 벌이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 이들은 종종 제주를 찾은 후 첫 번째 목적지로 4·3 평화 공원을 방문해 4·3의 역사에 대해 배운다. 일종의 "평화 투어"인 셈이다. 대학살이 자행된 장소를 방문하기도 하고 강정 마을 내 평화 운동가들의 공동체를 방문하는 일도 이러한 투어에 포함된다. 강정 마을 내 평화 공동

체에서 방문자들은 제주 해군 기지 앞에서 열리는 시위에 참여한다.

최근에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제주도에 기지를 세우는 것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미국, 일본, 대한민국 간의 3군 동맹을 강화한 것과 일본의 평화주의자 헌법의 개정 등이 이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상황은 제주도가 갖는 특유의 역사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번째 중일 전쟁과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은 모슬포에 비행장을 세웠다. 상하이와 난징을 공중 포격하기 위해서는 폭격기에 연료를 재 급유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강정 마을의 운동가들이 최근 강조하고자 한 것이 이 부분이다. 2년 전부터 평화 운동가들은 국제 회의를 조직하고 제주 알뜨르 비행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격납고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이 행사는 난징 대학살 당시 희생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연례 행사로 자리잡았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해 운동가들은 제주도를 재 군사화하고 한국이 이에 간접적으로 공모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를 알리고 있다. 또한 운동가들은 위와 같은 이유를 제주 해군 기지에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이러한 평화 교육 프로젝트와 운동가들을 위한 결속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제주 4·3 사건과 난징 대학살과 연결된 비극적 기억을 제주 해군 기지를 둘러싼 위험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결론: 제주 4·3과 관련된 역사적 기억에 대한 도덕적 기초와 용어

인류학자인 줄리 프티(Julie Peteet)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에 관한 섬세한 분석에서 "이 데올로기적 중요성을 구현하고 도덕적 속성들을 순환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단어는 매우 중요하다. 즉, 갈등 상황에서 사건, 행위, 사람들, 장소,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단어들 이 권력을 지지하거나 권력에 대항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단어들은 도덕적인 세계와 참가자들의 인간성을 구성하며 궁극적으로는 권리의 배포를 구성한다" (프티 2005: 154). 프티는 이름을 붙이는 관행이 어떻게 역사적 전환 시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데 사용된 단어들 이 권력을 지탱하고 재생산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 권력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의미이다.

4·3 평화 기념관의 명칭을 둘러싼 상황으로 인해 제주도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미 해결된 전쟁이라는 보다 큰 상황을 드러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4·3 평화 공원 내에 존재하는 4·3 평화 기념관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글로벌한 추모관 건립 붐과 맥을 같이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박물관"이라고 불리지는 않는다. 4·3 평화 공원을 건립하기 위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4·3 평화 기념관은 제주의 억압된 역사를 증명하는 자료와 기록들을 전시하는 장소를 세웠다. 기념 공원의 완성이 다가오자 "역사적 기록의 전당" (사료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논쟁이 제기되었다. 사료관이란 교육적인 목적으로 대중들에게 역사적인 기록물을 보여주는 건물을 말한다. 시민 연대 그룹은 역사 박물관(사료관), 역사 홀(역사관), 박물관, 기념관 등의 이름을 포함해 이 건물을 어떻게 부를 지와 관련해 다양한 표현들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결국 "평화 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는 좁은 의미를 표방하기 보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보편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이름이 붙게 된 면이

있다(원 2007). 2008년 평화 공원이 문을 열 당시 이와 같은 의견이 가장 우세했기 때문에 "역사의 전당"으로 불렸던 곳이 공식적으로 4·3 평화 기념관으로 재 탄생 하게 된다.

제주도의 또 다른 기관 중 하나는 방문객들이 4·3 평화 기념관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제주 전쟁역사 평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박물관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이름의 짧은 버전인 제주역사박물관(또는 제주 평화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4·3 평화 공원과 비교해 이 박물관은 보수적이고 친 군대적, 반공적인 관점에서 제주도의 비극적인 근 현대사를 서술한다는 차이가 있다. 2004년 문을 연 이 박물관의 존재는 4·3 평화 공원을 개발할 즈음에 제주 평화 박물관의 정체성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미 제주에서 평화 박물관이라는 용어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쪽으로 그 의미가 변형되어 있었다. 이 두 평화 박물관의 대비되는 정체성은 평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모호한 용어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군사적 수단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국가 안보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해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여 2013, 여 2018). 이와는 반대로 4·3 평화 공원에 사용된 평화라는 단어는 희생자들에 초점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쟁의 비인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데올로기 적 스펙트럼의 반대편을 대표하는 제주도에 있는 두 개의 "평화 박물관"의 존재와 관련하여 그 표면적 유사성은 그들의 이름에 대한 일시적인 혼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온다. 국제 웹 사이트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일부 관광객들이 실제로 두 박물관을 혼돈해 방문했다는 후기가 기재되기도 했다. 두 박물관 모두 대중 교통으로는 가기 힘든 곳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두 박물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섬의 다른 두 지역에 위치한 외딴 산간 지대까지 가야 한다. 때문에 단기 관광객들의 경우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박물관에 도착했어도 짧은 체류 기간 동안 원하던 박물관에 다시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명칭의 혼란 때문에 진보적인 관점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역사에 대해 배우고 싶은 방문자들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제주도에서 벌어진 전쟁의 역사를 배울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방문하는 기존의 관행을 분열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비극적 역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죽음과 폭력과 관련된 장소와 작품들로 학생들과 여행객들을 이끄는 것의 교육적 효과를 부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논문에서 제시된 분석은 제주 4·3 평화 공원과 4·3 평화 기념관에 초점을 맞추면서 "관광" 그 자체가 추모 장소를 방문하는 활동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핵심 사례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비극적인 제주 4·3의 역사를 현대의 군국주의에 대항한 투쟁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현대의 운동가들은 관광객들의 주관적인 지위를 적극적으로 부인한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 국가가 주도해 관광 산업을 개발하던 것을 고려하면 제주도의 관광 산업을 당연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제주의 관광 경제가 가지는 함의에 비판적으로 도전하는 윤리적인 입장을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관광 산업이 사람들의 방문에 의존하고 있듯이 강정마을의 평화 운동가들은 이러한 루트들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 4·3 평화 공원을 제주의 비극적인 역사와 관련된 대안적인 장소로 떠오르게 한다는 목적이다. 또한 1948년 4월 3일에 붙인 의미를 둘러싸고 이름과 언어를 통한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름 붙이기의 정치는 제주 4·3 사건을 "폭동", "사건", 또는 "

봉기"로 부르는 등 보다 논쟁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름 붙이기의 정치는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는 모호한 말이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주장으로 쉽게 치환될 수 있는 용어들을 넘어서야 한다. 대신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이나 의미의 함축적인 영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중립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 "박물관", "관광"이라는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특히 제주 4·3과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들을 "다크 투어리즘"의 틀 안에 가두기보다는 제주 4·3과 관련된 장소들을 보다 비판적인 귀적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어떻게 현대인들이 기억 행동주의, 민주화, 사회 정의 운동의 전통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소로 이들 장소들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4·3 평화 공원과 4·3 평화 기념관은 매우 폭력적인 시대의 복잡한 역사를 추모하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는 노력을 연구하는 사례 연구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제주 4·3 사건을 지우고자 했던 노력에 맞선 항의와 운동의 역사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장소들은 비극적인 과거를 오늘날에도 지속되는 논쟁에 연결시킨다. 이는 이러한 장소들의 중요성과 정체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추모 기념관들 및 양심의 장소들을 통해 윤리적 증거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시도이다.

참고 문헌

- Baik, Tae-Ung. 2007. "Justice Incomplete: The Remedies for the Victims of Jeju April Third Incidents" in *Rethinking Historical Injustice and Reconciliation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Experience in Regional Perspective*, edited by Gi-Wook Shin et al. London: Routledge.
- Choi, Jieun. 2017. "Touring Jeju's Dark History." *Korea Exposé*. April 3.
- Erwin, Nicole. 2009. "Dark Tourism: Shining a Light on Tragic Histories." *Jeju Weekly*. December 30.
- Frangos, Alex. 2014. "Korea's Jeju Island's Battle of Museums Isn't Exactly a Culture War" *Wall Street Journal*, January 14.
- Gwon, Gwisook. 2013. "Remembering 4/3 and Resisting the Remilitarisation of Jeju: Building an International Peace Movement." In *Under Occupation: Resistance and Struggle in a Militarised Asia-Pacific*, edited by Daniel Broudy, Peter Simpson, and Makoto Arakai, 238-270.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 Heo, Hojoon. 2016. "Cheju nan'gaebal e chöhang'han yangyongch'an yölsa 25chugi wönmunbogi." *The Hankyoreh*. November 2.
- Jang Ae-Ock, Choi Byung-Gil. 2011. "Motive and Characteristics of the Visitors on Dark Tourism: Focused on JeJu April 3rd Peace Park." *Leisure Tourism Studies* 23, no. 1: 65-84.
- Jang, Hye-Won. 2012. "A Study on Attributes of Dark Tourism Storytelling: Focus on Jeju April 3rd Peace Park." *Tourism Study* 27, no. 1: 251-273.

- Hong Soon-Yong and Yook YoungSoo. 2015. "Cheju 4·3p'yöngwagongwön e saegyöjin 'twiöngk'in kwöllyök'üi hünjök." *Chungangsaron* 42:113-157.
- Kang, Eun-Jung, et al. 2012. "Benefits of visiting a 'dark tourism' site: The case of the Jeju April 3rd Peace Park, Korea." 33, no. 2: 257-265.
- Kim, Angela. 2012. "Darangshi cave unearths yet more Jeju Massacre tragedy." *Jeju Weekly*, March 23.
- Kim Eun-Shil. 2018. "The Politics of the Jeju 4·3 *Holeomeong* Bodies: 'Speaking' and Emotion as Embodied Language." *Korean Anthropology Review* 2: 1-41.
- Kim, Dong-choon. 2010.
- Kim, Hun Joon. 2014. *The Massacres at Mt. Halla: Sixty Years of Truth Seeking in South Kore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im, Seong-nae. 1989. "Lamentations of the Dead: The Historical Imagery of Violence on Cheju Island, South Korea." *Journal of Ritual Studies* 3, no. 2: 251-85.
- _____. 2013. "The Work of Memory: Ritual Laments of the Dead and Korea's Cheju Massacre." In *A Companion to the Anthropology of Religion*. Edited by Janice Boddy and Michael Lambek. London: Wiley Blackwell.
- Kim Sögyun and Kim T'aeil. 2011. "Cheju 4·3 sagönüi 'Dark Tourism' kanüngsöng e kwanhan kaenyömjök yön'gu." *Taehan könych'ukhakhoe chejujihoe haksul taehoe*.
- Koh, Sungman. 2015. "Transitional Justice, Reconciliation, and Political Archivization." *Routledge Handbook of Memory and Reconciliation in East Asia*.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5.
- Foley, Malcolm, and John Lennon. 2000. *Dark Tourism: 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 Boston: Cengage Learning.
- Peteet, Julie. 2005. "Words as Interventions: Naming in the Palestine - Israel Conflict." *Third World Quarterly* 26, no. 1: 153-72.
- Russell-Ciardi, Maggie, and Liz Sevcenko. 2008. "Sites of Conscience: Opening Historic Sites for Civic Dialogue," *The Public Historian* 30, no. 1 (February): 9-16.
- Ryang, Sonia. 2013. "Reading Volcano Island: In the Sixty-Fifth Year of the Jeju 4·3 Uprising"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1:36, no. 2, September 7.
- Save Jeju Now. 2012. "Emergency Rally in Gangjeong on November 10 with commemoration of Yang Yong-Chan." Save Jeju Now: No War Base on the Island of Peace, November 7. <http://savejejunow.org/gangjeong-rally-nov-10/>
- Schattle, Hans. 2014. "Testing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Global and National Public Spheres: Lessons Learned from the Campaign to Stop a Military Base in South Korea" *Globalizations* 12(2): 169-183.
- Sevcenko, Liz. 2011. "Sites of Conscience: Heritage of and for Human Rights." In *Cultures and*

- Globalization: Heritage, Memory and Identity*, edited by Helmut K Anheier and Yuhishthir Raj Isar, 114 - 123. Thousand Oaks, CA: Sage.
- Sharpley, Richard & Stone, Philip R., eds. 2009. *The Darker Side of Travel: The Theory and Practice of Dark Tourism*. Briston, UK: Channel View Publications.
- Stone, Philip, et al.,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Dark Tourism Studies*. London: Palgrave Macmillan.
- Tumarkin, Maria M. 2005. *Traumascapes: The Power and Fate of Places Transformed by Tragedy*.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ublishing.
- Williams, Paul. 2007. *Memorial Museums: The Global Rush to Commemorate Atrocities*. New York: Bloomsbury.
- Won, Seong-shim. 2007. "4·3 saryogwan 4·3 p'yöngwaginyömgwanüromyöngch'ingbakkwöya." *Media Jeju*, November 19, 2007.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91>.
- Wright, Brendan. 2015. "Politicial Violence and the Problematics of Localized Memory at Civilian Massacre Sites: The Cheju 4·3 Peace Park and the Köch'ang Incident Memorial Park." *Cross-Currents: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Review* 14 (March).
- Yeo, Andrew. 2013. "A Base for (In)Security? The Jeju Naval Base and Competing Visions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Under Occupation: Resistance and Struggle in a Militarised Asia-Pacific*, edited by Daniel Broudy, Peter Simpson, and Makoto Arakai, 224-237.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 _____. 2018. "Realism, Critical Theory, and the Politics of Peace and Security: Lessons from Anti-base Protests on Jeju Island."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ecurity* 3(2): 235-255.

Public Memory of the Jeju 4.3 Massacres and the Reversal of Historical Erasure: A Critique of 'Dark Tourism'

Nan Kim, Ph.D.

Associate Professor & Public History Program Director |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 ynkp@uwm.edu

2018 International For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 July 2-6, 2018 | Jeju, Korea
Co-organizers: Jeju 4-3 Peace Foundation and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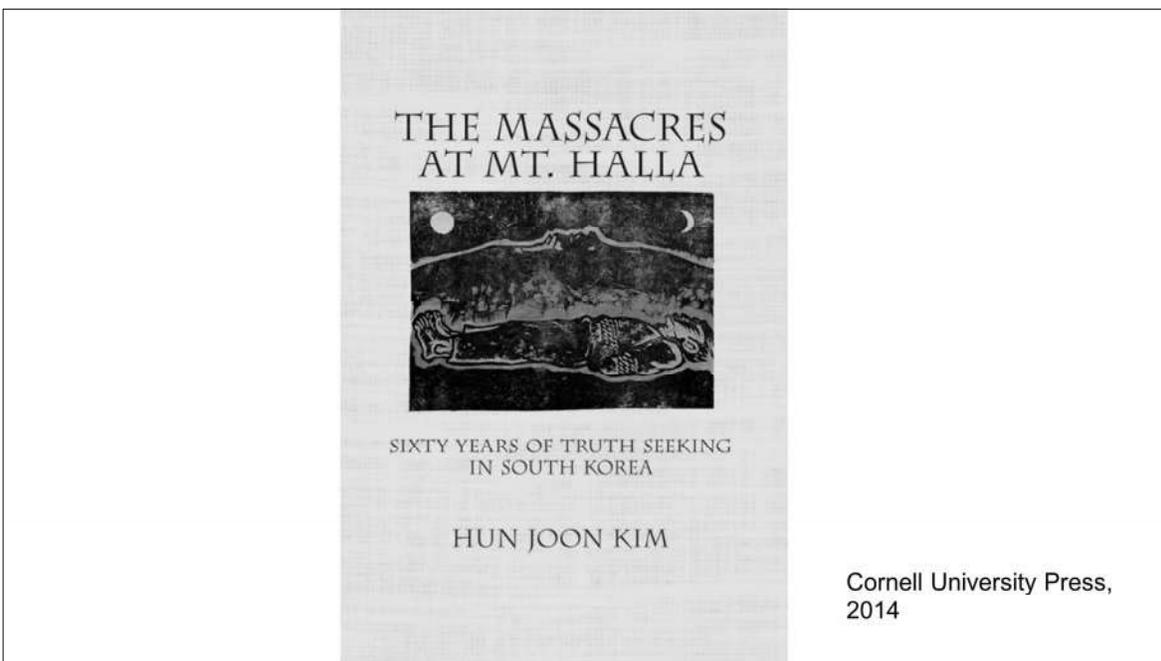
제주4.3평화기념관 Jeju 4.3 Peace Memorial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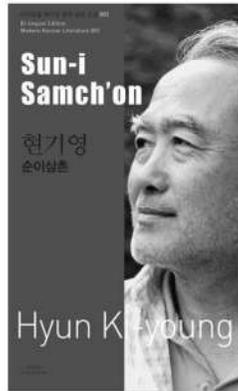


**Installation by Koh Gilchun
Jeju 4.3 Peace Memorial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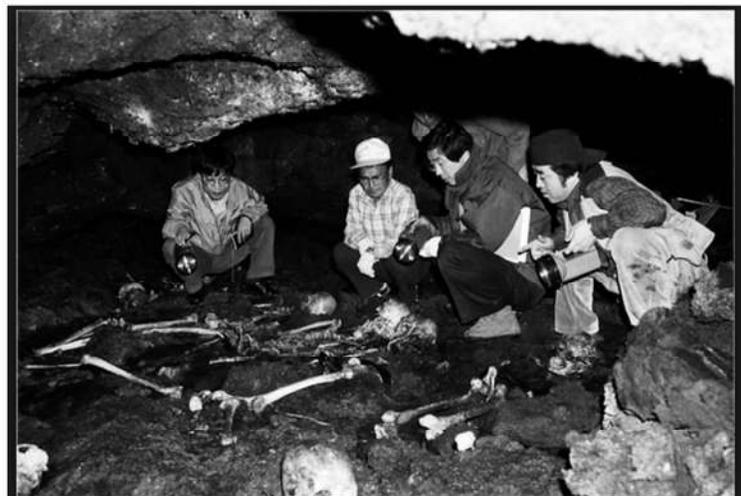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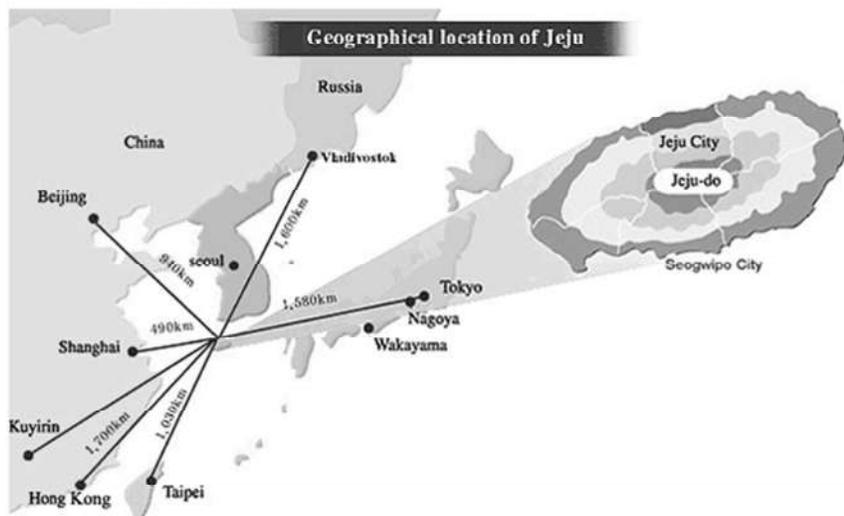
“Aunt Suni” (1978)



Darangshi Cave Excavation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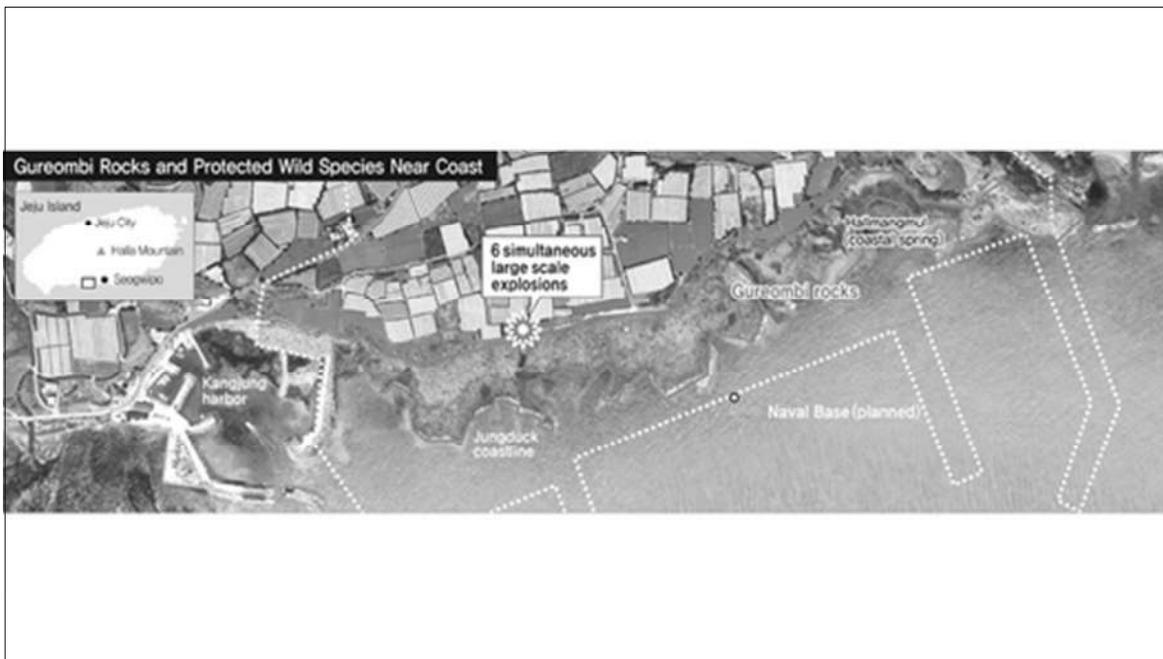


Jeju 4.3 Peace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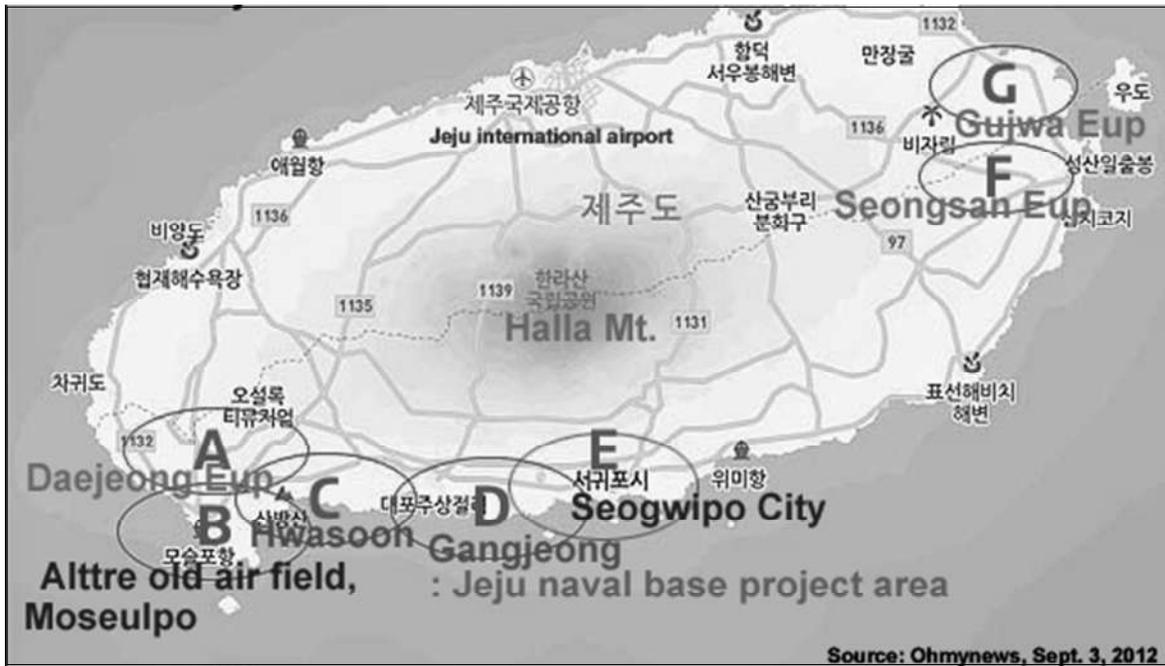
Jeju Naval Base / "Jeju Civilian-Military Complex Port"
(Under construction, June 2013)





Protest at the Main Construction Gate, Gangjeong (2016)





Aldreu Airfield



Nanjing Massacre commemoration at Alddreu Airfield on Jeju (December 13, 2014)







How shoul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be taught?

Presentation of the Korean History Classes by Participants (2)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 현대사 강의사례 발표(2)



**Teaching Korean History and
the Jeju Uprising**
대한민국 역사 강의 그리고 제주봉기

Kwak, Tae Yang
Associate Professor of History, Ramapo College

Teaching Korean History and the Jeju Uprising



Kwak, Tae Yang
Associate Professor of History, Ramapo College

Abstract

I have been teaching Korean history in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for about twenty years, as both an adjunct professor in various institutions in New England, and as a professor of East Asian history at Ramapo College of New Jersey for more than a decade. I teach Korean history in three contexts: as the primary subject of an upper level modern Korean history courses typically taken by advanced history majors, as a main component of intermediate level courses on East Asian history or US-East Asian relations typically taken b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majors, and as a component in General Education courses in modern world civilizations typically taken by entering first year students of all majors. In the past, I've only included explicit mention of the Jeju Uprising (*Jeju sasam sagŏn*) in my upper level modern Korean history course, but with the inspiration and resources I acquire at the International Forum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d Jeju 4·3 Peace Foundation, I hope to incorporate the Jeju Uprising into more of my courses.

I have been teaching Korean history in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for about twenty years, as both an adjunct professor in various institutions in New England, and as a professor of East Asian history at Ramapo College of New Jersey for more than a decade. I teach Korean history in three contexts: as the primary subject of an upper level modern Korean history courses (HIST 310: Modern Korea and the World and HIST 308: Korean Cinema and Modern Society) typically taken by advanced history majors, as a main component of intermediate level courses on East Asian history or US-East Asian relations typically taken b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majors, and as a component in General

Education courses in modern world civilizations typically taken by entering first year students of all majors. In the past, I've only included explicit mention of the Jeju Uprising (*Jeju sasam sagŏn*) in my upper level modern Korean history course, but with the inspiration and resources I acquire at the International Forum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d Jeju 4·3 Peace Foundation, I hope to incorporate the Jeju Uprising into more of my courses.

As a graduate student twenty years ago, I helped my advisor, Carter Eckert, develop the first Core Curriculum course on Korean history (HS A-75: The Two Koreas) at Harvard University, designed to be a general survey course for undergraduates of all majors. I also helped to teach this course for many years to a very diverse student body from those with absolutely no prior familiarity with Korea to international students who had been born and raised in South Korea. In reflection, it's clear that Koreans studies in the American academy is interdisciplinary and transnational explicitly due to its origins in Cold War area studies initiatives, but also a "late-late" field. Specifically, Western history and civilization still constitute the foundational curriculum supplemented by "late" fields such as Chinese or Japanese history and civilizations, and then further supplemented by "late-late" fields such as Korean or Vietnamese history. Consequently, Chinese or Japanese studies curricula rely on Western references for context and meaning, such as the application of Marxist teleology to transition from feudal to modern stages. Furthermore, Korean studies curricula rely on both Western and Chinese or Japanese references for context and meaning. For instance, the *pansori* "Ch'unhyangga" and the novel Hong Kildongjŏn are routinely described as Korean versions of Shakespeare's *Romeo and Juliet* and English Robin Hood, and never the other way. The Jeju Uprising (濟州4·3事件) is described as the Korean version of the February 28 Incident (2·28事件) in Taiwan, and never the other way. However, this isn't simply a product of the sequence that specific non-Western histories were layered onto the fundamental liberal art of Western history, but both reflects and reinforces the perceived importance and significance. To understand Chinese or Japanese history, one must know Western history. To understand Korean history, one must not only know Western history, but also Chinese and Japanese history. But to understand Chinese, Japanese, or Western history, there is no expectation of familiarity with Korean or other "late-late" histories.

Later in graduate school, when I began to independently design and teach my own classes, I borrowed much of the basic materials from that Harvard course, but I changed much of the framework and underlying assumptions. In my modern Korean history classes in particular, I deliberately reject this notion of historical hierarchy that overvalues core histories and undervalues peripheral histories. I repeatedly emphasize that the deep study of any history leads to a greater understanding of human history, of humanity itself. The premodern Mongolian Empire and the modern British Empire may be the most expansive and "greatest" empires in history, but the Chosŏn dynasty is the longest lasting dynasty, the continuous transmission of monarchical rule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anywhere in the world. It never reached great heights of direct influence of the largest empires, but its sheer length

allows us to better understand the mechanisms and liabilities of any dynastic government and society.

In order to be effective teacher, one must have a clear goal. I hope that my students will become active citizens and critical thinkers who challenge anti-intellectualism, question sources, and generate their own informed conclusions about the world in which we live, about politics, social justice, and authority. My goal is to positively contribute to this maturation process. The key to my teaching philosophy is relevance. I try to show my students how significant and relevant history is. I tear things down, and we rebuild them together. I am not preparing my students for standardized, multiple-choice tests. I avoid linear, teleological narratives. I teach them that no single account and no single perspective is authoritative. In fact, in many cases the significance of a past event is directly related to how many different accounts, how many different interpretations, how much passion and controversy that event inspires. I try to dispel the dangerous myth of inevitable progress, the idea that conditions improve simply as a function of time without human agency, engagement, and sacrifice. I provide context and guidance. In every class, in every writing assignment, in every exam question, I encourage recognizing connections. My students must arrive at their own conclusions, and they must be able to articulate and support these positions with relevant evidence and logical argument. Students respond more, learn more, and retain more if they believe what they are studying is relevant to their lives. I deny my students easy answers, easy grades, and simple narratives. Through multiple perspectives, approaches, and examples, I lure my students into making connections and forming their own opinions. Most students find my approach challenging, but ultimately rewarding.

By showing students the complexity and subjectivity of the past, all history becomes relevant. For example, throughout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Korean women were disenfranchised, losing the rights of inheritance, property ownership, divorce, and remarriage that they had previously enjoyed. This deliberate patriarchal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was orchestrated by Neo-Confucianization activists. What does this mean about the inevitability of progress? More than six hundred years later,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women still have not recovered all of the rights stripped from them by these ideological zealots of the past. What does this mean about the sacrosanctity of “tradition?” Gender discrimination in Korea, or Asia, or the Middle East, or anywhere else, is not a product of inherent “Oriental backwardness” (which was the justification for so much colonialism). Sexual, racial, cultural, religious dynamics are all constructs and products of particular historical contexts. However, political and social leaders in Korea today defend contemporary gender discrimination as an essential part of “Korean tradition” that must be preserved from the cultural imperialism of the West. These leaders are either ignorant of a more ancient past, or they are exploiting the historical ignorance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t large. Although this extended example is from a time and place alien to most of our students, the lessons are universal. The ultimate lesson in this is that we clearly have too much to lose by ignoring history. Progress is not inevitable. Ahistorical tradition is a myth. Anything historical (and nearly everything concerning humans is historical) has

evolved over time and will change in the future. It will change for the better only if there are enough engaged, conscientious, and informed people, and it will change for the worse if apathy and ignorance predominates.

I am particularly interested in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I am an expert on the Park Chung Hee era, and wrote my dissertation on nation-building and Korean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Many South Koreans demonstrate a powerful nostalgia for the leadership of Park Chung Hee as evidenced by the election of his daughter Park Geun-hye as president in 2012. It is true that many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contemporary Korea are a consequence of Park Chung Hee's leadership, particularly the extraordinary partnership with American leaders to deploy 312,000 South Korean troops in the American Vietnam War (1964-1973). But these contemporary features, including a hardened inter-Korean division, chaebol-dominated political economy, and uneven prosperity, are largely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Park Chung Hee's prosecution of a Korean Cold Wa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often international students from Korea, or indeed Korean students in Korea, are often the most uncritical and closed-minded because they inaccurately believe that they know a lot about Korea and its history. Absurdly, many Korean and Korean-American students believe this by virtue of their genetics alone since they readily admit to not having read anything beyond assigned textbooks in Korean or nothing at all in America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ronically, non-heritage students, despite the linguistic and cultural gap, are often the most open-minded and least burdened with prejudices counterproductive to understanding.

Koreans are very fond of the word, "*uri*" (our), particularly in the phrase "*uri nara*" (our country or our nation). It can be used when other expressions are problematic, for instance, in describing Korean history or language, one has to choose South Korean (*Han'guksa*, *Han'gugŏ*), North Korean (*Chosŏnsa*, *Chosŏnŏ*), or colonial (*kuksa*, *kugŏ*, based on Japanese *gokusi*, *gokugo*). This problem can be avoided by saying "our" history or language (*uri nara yŏksa*, *uri nara mal*). However, this solution introduces another problem, as privileging inclusion through *uri* necessarily involves distinction and exclusion. In teaching the Jeju Uprising, or Korean history generally, abroad or in Korea, to Korean or non-Korean students, we should not emphasize its uniqueness in context, scale, or significance, but its universality. Humans everywhere naturally desire to be free and abhor injustice. Inevitable progress is a dangerous myth, and very many sacrificed to stand up to the indefinite division of Korea as it was happening. All of this was suppressed by decades of authoritarian South Korean governments whose leaders drew their tenuous legitimacy in large part to the continued division of Korea and the vilification of communism.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Jeju Uprising is not only vital to Koreans attempting to reconcile and ultimately to reunify, but it's can be a way for any student to better understand the human struggle for the better future of all humanity.

대한민국 역사 강의 그리고 제주봉기



Kwak, Tae Yang
Associate Professor of History, Ramapo College

초록

필자는 미국의 칼리지와 대학교에서 약 20년간 한국사를 가르쳐 왔으며 뉴잉글랜드주의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도 외래 교수로 재직했다. 또한 라마포 뉴저지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 교수로 10년 이상 강의를 했다. 필자의 한국사 강의는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역사 전공 상급 수업에서 상급 한국 현대사라는 주요 과목, 인문학부나 사회 과학 전공의 동아시아학이나 미국-동아시아 관계사 중급 수업에서 주요 과목으로, 그리고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1학년 때에 일반적으로 수강하는 현대 세계 문명의 종합 교육 과목으로 나뉜다. 여태까지 필자는 상급 한국 현대사 수업에서만 제주 항쟁(제주 4·3사건)을 명확하게 언급했으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제주 4·3평화재단의 국제포럼에서 얻은 영감과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수업에서 제주항쟁을 다루고자 한다.

“한국사와 제주항쟁 교육”

필자는 미국의 칼리지와 대학교에서 약 20년간 한국사를 가르쳐 왔으며 뉴잉글랜드주의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도 외래 교수로 재직했다. 또한 라마포 뉴저지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 교수로 10년 이상 강의를 했다. 필자의 한국사 강의는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역사 전공 상급 수업에서 상급 한국 현대사라는 주요 과목(HIST 310: 현대 한국과 세계, HIST 308: 한국 영화와 현대 사회), 인문학 부나 사회 과학 전공의 동아시아학이나 미국-동아시아 관계사 중급 수업에서 주요 과목으로, 그리고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1학년 때에 일반적으로 수강하는 현대 세계문명의 종합 교육 과목으로 나뉜다. 여태까지 필자는 상급 한국 현대사 수업에서만 제주 항쟁(제주 4·3사건)을 명확하게 언급했으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제주 4·3평화재단의 국제포럼에서 얻은 영감과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수업에서 제주항쟁을 다루고자 한다.

20년 전에 대학원생이던 필자는 지도 교수인 Carter Eckert를 도와 하버드 대학에서 모든 전공의 학부생들의 종합 개론 강좌로 한국사 핵심 교육과정 (HS A-75: 남북한)을 최초로 개발했다. 또한 필자는 이전에는 한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학생들부터 시작해 남한에서 나고 자란 국제 학생들에게 이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것을 수년간 도왔다. 돌아보면 미국 교육기관의 한국학은 명백히 냉전 시대 연구 이니셔티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학제적, 초국가적이지만 말 그대로 가장 늦게 개발된 분야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양사와 문명이라는 기초 커리큘럼에 중국 또는 일본 역사와 문명 등 늦게 개발된 분야가 추가되었고, 그 이후에 가장 늦게 개발된 한국이나 베트남 역사 분야까지 추가되었다. 그 결과, 중국학이나 일본학 커리큘럼은 봉건제도에서 근대로 전환하는 과정에 마르크스 이론을 적용하는 등 서양의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상황과 의미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한국학 커리큘럼은 서양자료 뿐만 아니라, 중국 또는 일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상황과 의미를 해석한다. 예를 들어, 판소리 “춘향가”와 소설 홍길동전은 일반적으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영국 로빈후드의 한국 버전으로 묘사될 뿐이다. 마찬가지로 제주항쟁 (제주 4·3사건)은 대만 2.28 사건의 한국 버전으로 소개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서양사라는 인문학 토대 위에 구체적인 서양의 사건이 축적되면서 발생한 부산물이 아니다. 이 문제는 그보다는 인식의 중요성과 의미를 보여주고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이나 중국사를 이해하려면 서양사를 필수로 알아야 한다. 한국사를 이해하려면 서양사 외에도 중국사와 일본사까지 알아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중국, 일본, 서양사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한국사나 다른 가장 늦게 개발된 역사를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학원 과정의 후반부쯤 필자는 독자적으로 자체 수업을 설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하버드 교과과정에서 기본 수업 자료는 많이 차용했으나 그 체계와 근본적인 전제는 대부분 변경했다. 특히 한국 현대사 수업에서 필자는 핵심 역사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지역적인 역사는 평가절하하는 역사적 위계질서의 개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필자는 모든 역사를 깊게 탐구해야 인류사나 인간 자체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전근대의 몽골 제국과 근대의 대영제국이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고 소위 “가장 위대했던” 제국일 수는 있으나, 조선왕조야 말로 그 역사가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국가이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여러 세대에 걸쳐 군주제 통치를 계속 이어간 국가이다. 조선왕조는 영토가 가장 넓었던 제국들만큼 큰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는 못했으나, 그 장구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모든 왕조 정권과 사회의 체계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훌륭한 강사가 되려면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필자는 학생들이 반지성주의에 맞서고, 자료의 원천에 대해 질문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정치, 사회 정의, 권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의견을 내는 주체적인 시민이자 비판적인 사상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필자의 목표는 이렇게 학생들이 성숙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필자의 교육 철학 핵심은 바로 연관성이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역사가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필자는 역사를 분해하고 학생들과 함께 재구성한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선다형 시험을 내지 않는다. 일차원적인 목적론적 설명 또한 하지 않는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그 어떠한 단일한 설명이나 관점도 정당한 권위를 지니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실상 역사적 사건의 의미는 그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얼마나 다양한지, 또 그 사건을 둘러싼 열정과 논쟁이 얼마나 뜨거운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필자는 인간의 조직, 활동, 희생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그저 개선된다는 필연적인 진보에 대한 위험한 미신을 부

리 뽑고자 한다. 필자는 역사적 상황을 알려주며 학생들을 지도한다. 모든 수업의 모든 작문 과제와 모든 시험 질문에서 필자는 학생들이 연관성을 인식하도록 장려한다. 학생들은 자신만의 결론을 도출해야 하고, 관련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으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며 분명하게 서술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배우는 것이 자신의 삶과 관련 있다고 확신하면 더 크게 반응하고, 더 열심히 학습하며,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간다. 필자는 학생들이 간단하게 대답하고 쉽게 성적을 받고 간략하게 서술하게 하지 않는다. 다양한 관점과 접근법과 사례를 바탕으로, 필자는 학생들이 여러 사실을 연결하고 자신만의 입장을 세우게 독려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다가도 결국 큰 보람을 얻고 돌아간다.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건의 복잡성과 주관성을 알려주면 모든 역사의 연결성이 드러난다. 그 예로, 15세기와 16세기에 걸쳐 한국 여성들은 이전에 누렸던 상속권, 사유재산권, 이혼권, 재혼권을 박탈당했다. 이 고의적인 부계중심사회로의 전환은 성리학자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이 사건이 필연적인 진보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600년도 더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한 (그리고 북한) 여성들은 과거의 성리학 열광자들이 빼앗아간 모든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국, 아시아, 또는 중동이나 세계 여러 곳의 성차별은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흔하게 사용된) 내재적인 “동양적 후진성”의 산물이 아니다. 성, 인종, 문화, 종교적 역학은 모두 특정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산물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의 사회, 정치 지도자들은 현대의 성차별을 서양의 문화적 식민주의로부터 보존해야 할 “한국 전통”의 본질적 요소라고 옹호한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그 이전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거나, 한국 현대사회에 대한 역사적 무지를 악용하는 셈이다. 이렇게 확장된 사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모르는 시기와 장소를 배경으로 하지만 그 교훈은 보편적이다. 이 사례의 궁극적인 교훈은 바로 역사를 무시하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진보는 필연적이지 않다. 비역사적인 전통은 미신이다. 역사적인 모든 것들은 (인류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은 역사적이다) 시간에 걸쳐 발전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계획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사람들이 깨어 있어 충분히 배우고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 무관심이나 무지가 만연하다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뿐이다.

필자는 특히 민주주의와 독재에 관심이 있다. 필자의 전문 분야는 박정희 시대이고, 대한민국의 국가수립과 베트남전 참전에 대해 논문을 썼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을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2012년에 그의 딸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현대 한국의 가장 눈에 띄는 모습 대다수가 박정희 대통령의 지휘 아래 탄생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국 베트남전에 (1964-1973) 312,000명의 남한 병력을 파견하는 엄청난 협약을 미국 지도자들과 체결한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열 고착화, 재벌 중심의 정치 경제, 빈부 격차 등의 현대적인 모습 대부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식 냉전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결과물이다. 사실상 한국에서 온 국제 학생들과 실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학생들은 흔히 자신이 한국과 그 역사에 대해 많이 안다는 잘못된 믿음을 바탕으로 가장 무지하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터무니없게도, 많은 한국 학생들과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주어진 한국어 교과서나 미국 초, 중등학교에서 배운 것 외에 다른 책은 하나도 읽지 않았다고 이미 고백했으며, 그저 자신이 한국인 핏줄이기 때문에 다 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이 아닌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린 자세로 편견 없이 한국사를 받아들인다.

한국인들은 “우리” 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한다. 특히, “우리나라” 라는 단어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단어는 다른 표현이 문제가 될 때, 예를 들어 사람들이 한국사나 한국어를 칭하면서 한국식 표현 (한국사, 한국어), 북한식 (조선사, 조선어), 또는 식민지 시기 용어 (일본어 고쿠시, 고쿠고에 기반을 둔 국사, 국어) 중 선택해야 할 때 대안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역사 또는 말이라고 부르면서 빠져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말). 그러나 “우리”라는 용어를 통해 필연적으로 “나”와 “너”가 구분되고 “너”가 배제되며 “나”는 특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한국이든 해외에 있든, 어느 나라 학생이든지 제주항쟁 또는 일반 한국사를 배울 때는 특정한 사건의 고유한 상황, 규모,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보편성을 논해야 한다.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기를 갈망하고 불평등에 맞서 싸운다. 필연적인 진보란 위험한 미신이며,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진행 중이던 한국의 무기한 분열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다 희생되었다. 이 모든 사건은 독재적인 남한 정부에 의해 수십년간 억압되었고, 지도자들은 한국의 지속적인 분단과 공산주의에 대한 비방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집권을 겨우겨우 정당화했다. 제주항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남북한을 화해시켜 통일을 이끌어 내려는 한국인들에게만 필수적일 뿐 아니라, 학생들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The 4·3 Jeju Uprising in the curriculum
of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Freie Universität Berlin**

**베를린 자유 대학 (Freie Universität) 한국학
센터의 커리큘럼에서 다루는 제주 4·3사건**

Lee, Eun-Jeung

Professor,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al Studies, Freie Universität Berlin

The 4·3 Jeju Uprising in the curriculum of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Freie Universität Berlin



Lee, Eun-Jeung
Professor,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al Studies, Freie Universität Berlin

Abstract

This paper provides a brief overview on how the 4·3 Jeju Uprising has been addressed in the curriculum of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Freie Universität Berlin. The draft is divided into three subsequent sections. The first section addresses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and teaching about modern history and politics of Korea in Europe and Germany in order to provide the context in which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Freie Universität Berlin is located. Based on personal experience but also on surveys the paper reports that in particular in comparison to Chinese Studies and Japanese Studies Korean Studies has always been and is still greatly underdeveloped. This is mostly apparent in regard to quantity, i.e. the number of Korean Studies departments and faculty. But also in regard to Korean Studies departments dealing with modern Korea, and by way of applying social scientific approaches and methods, there is still a large gap. The second part briefly reports on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Freie Universität Berlin, including its curriculum. Here the paper introduces the short, but recently quite dynamic history of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nd provides insights on student numbers, and how the curriculum is designed. It is put forward that the Institute emphasizes a social scientific approach, though not exclusively, to the Korean Studies, and that student numbers are steadily rising. The third and final section deals with examples of how the topic of the 4·3 Jeju Uprising has been integrated in the in the curriculum. Here the paper provides two themes under which the Uprising has been used in teaching. One is addressing the Uprising as one of the key events in Korea's contemporary history, and which is, accordingly, part of the curriculum of history courses, even though it is dealt with only briefly due to the fact that many other historic events have to be covered. The other is to use the Uprising as a key example of political remembrance and political polarization, which are topics that can be part of various forms of courses in the Institute's curriculum.

I. Introduction

In the following pages we report on how the 4·3 Jeju Uprising has been addressed in the curriculum of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Freie Universität Berlin, and why it is an important historic phenomenon to deal with in Korean Studies at a German University. The paper begins with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and teaching about modern history and politics of Korea in Europe and Germany. The second part briefly introduces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Freie Universität Berlin, including its curriculum. The third and final section deals with examples of how the topic of the 4·3. Jeju Uprising has been integrated in the in the curriculum.

II. Status analysis

We will begin by talking about the social science of Korea in Germany. Problems with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in both Germany and Europe have been referred to many times in the last few years. Until recently, its main focal points were classical literature and language, whereas its young students were mainly interested in contemporary Korea - especially its politics and its economy. There was a distinct gap between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research and teaching of Korean studies.

The first survey on the state of social science of Korea in Germany is made in 2002. In 2005, it was updated information on academics that have engaged in the social science of Korea in Germany and has made this information available online.

In a survey from 2005 there are all together 65 academics listed as being engaged in studies of contemporary Korea. The survey includes political scientists, sociologists, economists, geographers etc. Only few of them are proficient in the Korean language, which is why the social science of Korea in Germany has not had a linguistic basis for its work for a long time; it has instead relied heavily on English language sources.

Since the survey 2005 the situation has not changed very much. It is true that the absolute number of the student for Korean Studies in Germany and Europe has increased rapidly. The number of the universities which provide the Korean Studies as major subject has been grown from two to five in Germany. But there are still very few scholars in social science and modern history with focus on Korea.

One could argue, of course, that 65 academics are not actually as few as one would think, even if compared to the number of academics engaged with Japan or China (as in the USA or in other countrie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most of these 65 academics' field of expertise does not actually lie with Korea, but with China, Japan or East Asia. As such, Korean Studies becomes a supplementary field. As such, it is no wonder that Korea is predominantly viewed from the

perspectives of Japan and China.

At this point, one is often reminded of 18th century European representations of Korea based on Jesuit reports from China. 18th century Jesuit missionaries wrote predominantly about China, and only occasionally on Korea. Of course, they could only write about what they had heard or read about Korea in China. In “A Handbook on World History” published in 1764 by Johann Christoph Gatterer, one of the greatest Göttinger world historians, one can find several examples of doubly-filtered perspectives on Korea. Gatterer based his chapter on Korea on a piece called “Extensive Accounts on Korea” written by the Jesuit du Halde. Gatterer wrote, “the only law that Koreans have is a collection of laws comprised of 8 parts from the Chinese schuking.” Even though this was incorrect, du Halde did not know better, and Gatterer could therefore not know any better either. The Jesuits, as well as du Halde, wrote about Korea without reference to Korean sources, which then led to the one-sided accounts in the secondary sources that followed.

As such, it must be said that Korean studies in Germany and Europe have more or less a strong Sino-Japanese bias. On top of that, the number of social scientists specialized in Korean-related fields is very low. The presence of Korean Studies within the social science East-Asia is therefore also quite low.

Even though many academics are prone to Sino-Japanese bias through which they view the study of Korea, it should still be welcomed that a good number of academics are not only interested in Japan and China but have also engaged with Korean Studies in some way. This number has been increased in last ten years, as in Germany as well as the rest of Europe the necessity to view “East-Asian Studies” as area studies is increasingly being recognized. This brings me to my second point.

This development towards area studies should be welcomed, as many political and economic problems in these three East-Asian countries are deeply interrelated. To understand th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m in a greater East-Asian context.

There are several good examples o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East-Asia. The research project on “identity-constructing discourses in East-Asia” is one of them. Academics from China, Germany, Japan, Korea and the USA were involved in this international research project. They have compiled a large number of case studies dealing with various aspects of the national construction of identity within these countries. They have shown that the patterns of identity construction in all three countries repeat themselves, including the tendency to value their own ‘uniqueness’. This project has shown how important it is to observe the similarities as well as the mutual interrelation of history and culture within this region.

The importance of ‘East-Asian’ contexts for the social science of Korea cannot be emphasized enough. That is why those 65 academics are so important, even though their interest in contemporary Korea is only supplementary and they lack proficiency in Korean. It would of course be welcomed if they were to engage more directly with the study of Korea, but for the sake of advancing the political science of Korea in Germany, they are indispensable allies. Amongst the 65 social scientists interested

in contemporary Korea, 9 were listed as Korean. This figure has not changed much in the last ten years; compared to American Universities, the proportion of Korean academics is quite small. But that is a discussion for another day.

Instead, we would like to say a few words on the fact that social sciences of Korea in Germany are endowed with something exotic. It is an important task for those engaged in the social science of Korea in both Germany and Europe to overcome its prevalent exoticization. Fortunately, there are plenty of research fields these days that no longer focus on the otherness of Korea, but rather on more sophisticated experiences observable in Germany or elsewhere. One can thus attempt to bring about a change in perspective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traditionalist and Eurocentric approaches that continue to endure in the political science of Korea. For far too long, European social scientists have taken for granted the context of western-specific experiences through which the politics and modern history of other countries is explained.

The method to explain East-Asian countries using theories based on western experiences has a long tradition in western academia. Even Max Weber was unable to overcome this limitation, even though he was well aware of the fact that a society was only to be understood through its own internal logic. In his preface to 'Confucianism and Taoism', Weber wrote that he could not satisfy his own methodological standards as he did not have access to a Sinologist to facilitate his studies of China. Therefore, as he himself stated, his analysis of Chinese society was based on European, especially west-European, paradigms. And after all, he approached the question of China from the view of how it differed from Europe, rather than as 'how it really was'. It is by no means an easy undertaking to establish a language-based social science of Korea in Germany and Europe. However, it is essential to overcome the 'exoticisation' of Korea, and simultaneously to bring about a change in perspectives in the social science, that is, the social science of Korea in order to gain an understanding of Korean politics and history from the inside.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ies in Germany, especially in Berlin, could become an important cornerstone for this.

III. History and state of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The history and state of the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IKS) at Freie Universität Berlin can be traced back to the year 1980 when the first lectures on Korea were delivered within the Japanese Studies Department. In the mid-1990s the university decided to prepare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Korean Studies Department, a plan that was realized nine years later in 2005. In the meantime, the Korea Foundation funded visiting professors from Korea to supplement Korean studies courses at Freie Universität. Only in 2008 Prof. Dr. Eun-Jeung Lee was appointed full professor for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which only had a bachelor program yet. A year later the Korean Studies master and PhD program was inaugurated. Also, the number of students applying for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increased steadily from year to year, and recently reached a level of around 70 BA students, 20 MA students, and 3 PhD students every winter semester. As of February 2016, there are around 250 BA students, 40 MA students, and 17 PhD students enrolled in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including PhD students from the Graduat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 GEAS; see below).

The IKS at the Freie Universität Berlin seeks to place modern Korea back into the center of research and teaching. In this context,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focuses its research on the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Korea. The aim of the study of Korean Studies is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and skills that include a broad spectrum of all aspects of Korea and enables a career in academics, business, medi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culturally-oriented institutions. For this study, special importance is placed on the intensive acquisition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n the scientific examination of the subject of Korean Studies, we deal with specific issues, methods, techniques and theories that serve to analyze the dynamics of Korean society and history. On the one hand, some subjects are borrowed from general research made at the regional level; on the other hand, issues that arise from the study of modern Korea are brought into the discussion of these subjects. The main research areas of Korean Studies are: the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of Korea, Korea's history of ideas and cross-cultural history of ideas, and cultural Studies.

In 2013 the Graduat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GEAS) was established, Prof. Dr. Eun-Jeung Lee is its Co-Speaker, and Prof. Dr. Hannes B. Mosler was appointed assistant professor. GEAS is funded by the German Research Council (DFG), is part of the Excellence Initiative Program and offers area studies research on East Asia with thorough, discipline-based methodological training in social sciences. GEAS builds on existing strengths in area studies at FU Berlin, graduate programs in Germany as well as partner institutions in China, Japan and Korea. The doctoral training program at GEAS is organized around the central theme of institutions, which can be investigat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social sciences, business and economics, anthropology, law, history and the humanities. The core research and empirical analysis will be conducted using interconnected lenses: the origins and change of institutions in East Asia, the effects of institutions and the consequences of institutional diversity, and the interdependence of institutions in East Asia in the broader regional and global context. The three-year doctoral program is open to candidates with a master's degree and knowledge of at least one Asian language. The program combines methods courses, research seminars, and Summer Schools with mandatory fieldwork in East Asia, with the provision of specific area-related transferable skills.

As an academic institute at the Freie Universität Berlin, the IKS regularly provides various lectures and seminars on Korea-related topics. The courses of the IKS are in general comprised of mainly two

parts: language courses and social scientific lectures and seminars (politics, society, economy, culture and history of ideas). Our language courses are systematically constructed to train our students to swiftly reach an advanced level of language competence. Currently, two regular lecturers are co-managing the programs, supported by two adjunct language teachers. The second part of academic training and education are the courses offered by our research and teaching staff including the institute's director, research fellows,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adjunct lecturers, guest professors and visiting scholars. This year, we provided various academic programs for students during each semester, which were also open to the public. They covered wide-ranging topics on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Korean society: such as history, intellectual history, the political party system, reunification policy of the Korean Peninsula, human rights, civil society, social policy, labor relations and cultural change, among others.

IV. The 4·3 Jeju Uprising in the curriculum

The topic of the 4·3 Jeju Uprising represents a key event in Korean contemporary history, which is why the topic is addressed in various courses. Students are induced to critically examine the Uprising as part of Korea's history development around the time of its occurrence as well as part of current developments of Korean society and politics in regard to political remembrance and political polarization.

1) The 4·3 Jeju Uprising as a key event in Korea's history

Courses usually run for 14 to 16 weeks per semester. Lectures on Korea's contemporary history usually address developments since liberation in 1945 until present day, and thus cover more than 70 years of a very eventful history. After having briefly recapitulated the hitherto developments in Korean history since the end of the 19th century until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second class deals with events happening right after the capitulation of the Japanese Empire. The third session give an overview on the development under the USAMGIK between 1945 and 1948 including, of course, the 4·3 Jeju Uprising. Here the Uprising is introduced as a phenomenon that has to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increasing internal friction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as a movement against the attempt of holding founding elections in the southern part unilaterally. Moreover, it is being made clear that the important factors leading to the events also include the role of the US-Military as occupying forces in Korea in general, and in the context of the emerging cold war as part of the global bloc building, as well as their role in concrete questions of domestic conflicts. In other words, the 4·3 Jeju Uprising is part of a whole set of events that can be understood as symptomatic for (or an

expression of) the conflictual development after liberation ultimately leading to the division of Korea. The 4·3 Jeju Uprising is thus a topic which is being addressed, though only briefly, and which we urge students to study further as a possible topic for term papers or essays.

The 4·3 Jeju Uprising once again is being dealt with when talking about the Korean War in the fourth session. In particular, when the issue of who started the war is being discussed in class the 4·3 Jeju Uprising's chain of events and background is recalled for thinking about whether the war has started already at this time. In this way students are sensitized for the complex question of when a war is started by whom, and that this question is not easily answered despite the fact that history books might suggest otherwise. This is not only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complexity of the events of the Korean War, but also to understand conflictual events leading to the full-fledged war as well as events following the war. Moreover, it provides the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better understand not only one side of the conflict, but also the other. This in turn prepares them to develop a more precise understanding of certain positions, interpretations, and evaluations of the Korean War in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and the USA. Again, in class the topic itself is only briefly addressed because many other events around this point of history have to be dealt with.

2) The 4·3 Jeju Uprising as a key topic in political remembrance and political polarization

Besides classes on Korean history the topic of the 4·3 Jeju Uprising is also addressed in courses that deal with questions of settling the past, or political remembrance and/or political polarization in Korea. In these cases it is not the historic events that can be ascribed to the Uprising, but the way how these are remembered or interpreted by contemporary actors in Korean society and politics. In this way the 4·3 Uprising's interpretation can be part of teaching dealing with political remembrance, for example, regarding different and contesting remembrance narratives, and at the same time, it can be used as one of many examples for the manifestation of political polarization in Korea.

In the case of the former, we usually begin with facts on how unsatisfactorily the events around the Uprising have been dealt with in the context of the truce commissions for settling with the past. Also, there are still people who purport positions according to which the Uprising was instigated by North Korean spies, or rather the Workers' Party. Also, the official recognition of the Uprising and respective sincere and sustainable apologies are time and again a topic of public controversy. This precarious state of the settling with past of the Uprising is also reflected in different approaches to address the Uprising in schoolbooks and other educative texts. Another related example of political remembrance and contestation is the 4·3 Uprising Memorial that exists within a remembrance and memorial landscape that is contradictive and contesting in its own right.

Closely connected to the question of political remembrance is the phenomenon of political polarization in South Korea between the so-called "liberal-progressives" on side and the so-called

“rightist-conservatives” on the other. Mostly actors belonging to one of the two groups clash over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of events in the past concerning Japanese occupation, state building, and the era of developmental dictatorship. Since the 4·3 Jeju Uprising is one of the key events in respect to this dramatic development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one of the regularly re-appearing topics on the stage of contestation between liberals and conservatives. In this way, this issue is a very illuminating and illustrative example and case to analyze and discuss when dealing with political polarization in South Korea. Thus, we make use of the topic in classes where we address themes of political remembrance, political polarization, or truce commissions.

3) Critical approach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contested history

The issue of settling with the past referring to cases such as the Uprising is an important issue for us in Korean Studies due to two reasons. First, the complexity and difficulty of the topic can be explored very well. For example, it help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and difficulties that remain to exist between Japan and Korea in regard to questions of settling with the past. Also, since our Institute of Korean Studies is located in Germany, questions of settling with the past in a comparative manner can also very well related to different countries such as Germany, but also to South Africa or South American countries. Accordingly, teaching contested history and the complexity of the related contestations does not only help our students to understand Korean history, but also comparable cases of other countries' history, not to mention thinking carefully in an analytical manner.

Against this backdrop, and due to the fact that issues such as the 4·3 Uprising are highly contested in politics and society, in class discussions we adhere particularly rigorously to the Beutelsbach Consensus, which constitutes a kind of basic standard of civic education in Germany, and which was developed to promote the exchange of different approaches to didactics when dealing with contested issues after a period of deep conflicts. The Beutelsbach Consensus comprises three fundamental principles: prohibition against overwhelming the student, treating controversial subjects as controversial, and giving weight to the personal interests of students. According to the first principle it is not allowed to coerce the students to adopt a desirable opinion on a given issues, which is understood as a form of indoctrination, but instead students have be given the room to forming their own opinion, because ultimately students shall be enabled to develop the capability of independent judgment. According tot he second principle, matter that are controversial must not be simplified or beautified, but taught or put to discussion while maintaining controversial character of the issue at hand. According to the third principle, the students have to be given the possibility to analyze a situation and to assess how their own interests are affected, and, at the same time, to pursue means to influence the political situation. In other words, the practical and operational skills have to be focused on, which is, of course, complementary to the above two principles.

베를린 자유 대학 (Freie Universität) 한국학 센터의 커리큘럼에서 다루는 제주 4·3사건



Lee, Eun-Jeung
Professor,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al Studies, Freie Universität Berlin

초록

본 발표는 베를린 자유 대학 한국학 센터의 커리큘럼에서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한 개요를 제시한다. 내용은 3개의 섹션으로 나뉜다. 섹션 1은 유럽과 독일 내 한국 현대사와 정치 연구 및 교육 현황을 다루어 베를린 자유 대학 한국학 센터가 설치된 배경을 설명한다. 개인적 경험을 봤을 때, 또한 논문에서 보고하는 자료를 보더라도, 특히 중국학이나 일본학과 비교했을 때 한국학은 여태까지 발전이 미미했고, 지금도 그 상황에 변함이 없다. 특히 한국학 전공을 다루는 학부와 교수진 인원 등의 수치를 살펴보면 이 상황이 잘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다루는 한국학부, 그리고 사회과학적 접근법과 방법을 적용할 때에도 큰 격차가 있다. 섹션 2는 베를린 자유 대학 한국학 센터와 그 커리큘럼에 대해 간단히 보고한다. 본 발표는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국학 센터의 연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학생 수와 커리큘럼 설계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이 센터는 한국학과 기타 분야에서 사회과학적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 섹션 3은 제주 4·3사건이 커리큘럼에 통합된 사례를 살펴본다. 본 발표는 여태까지 교육에 사용된 제주 4·3사건의 두 가지 주제를 제시한다. 하나는 제주 4·3사건을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이 역사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역사적 사건들도 많이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짧게 다룰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한국학 센터의 커리큘럼 내 다양한 유형의 교과과정에 속하는 주제인 정치적 추모와 대립의 주요 사례로 제주 4·3사건을 활용하는 것이다.

I. 서론

이어지는 장에서 우리는 베를린 자유 대학 한국학 센터의 커리큘럼에서 어떻게 제주 4·3사건을 다루었고, 왜 이 사건이 독일 대학의 한국학에서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현상인지를 설명할 것이다. 본 문서는 우선 유럽과 독일의 한국 현대사와 정치 연구 및 교육의 현황을 살펴본다. 섹션 2는 베를린 자유 대학 한국학 센터와 그 커리큘럼을 간단히 소개한다. 마지막 섹션 3은 제주 4·3사건이 커리큘럼에 통합된 사례를 살펴본다.

II. 현황 분석

우선 독일의 한국사회과학을 살펴보자. 독일과 유럽의 한국학 분야 문제는 지난 수 년간 여러 번 언급되었다. 여태까지 그 주요 초점은 고전 문학과 언어에 있었으나, 젊은 학생들은 주로 현대의 한국, 특히 그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가졌다. 한국학 연구와 교육의 수요 공급 간 분명한 격차가 있었던 것이다.

독일의 한국사회과학 현황에 대한 최초의 설문조사는 2002년에 시행되었다. 2005년에 독일의 한국사회과학 교수 정보가 갱신되고 온라인에서 공개되었다.

2005년의 설문조사에서 총 65명의 교수가 현대 한국학을 연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설문조사에는 정치과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지리학자 등이 포함되었다. 그 중 극히 일부만 한국어에 능숙했으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독일의 한국사회과학이 오랜 기간 동안 한국어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 대신 영어 자료에 높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2005년 설문조사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독일과 유럽의 한국학을 배우는 학생 숫자는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학을 주요 과목으로 가르치는 독일 대학도 2곳에서 5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한국에 집중하여 사회과학과 현대사를 연구하는 교수들의 수는 여전히 매우 적다.

물론, 일본이나 중국을 연구하는 (미국이나 기타 국가의) 교수 인원과 비교하더라도 65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바로 그 교수 65명의 전문분야가 실제로 한국이 아니라 중국, 일본, 동아시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학은 보조 분야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을 일본이나 중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 당연하다.

현 시점의 사람들은 중국의 예수회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18세기 유럽이 바라본 한국의 모습을 흔히 떠올릴 것이다. 18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은 주로 중국에 대해 글을 작성했으며, 한국에 관한 글은 적었다. 물론 이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 듣거나 읽은 것만 기록했을 뿐이다. 가장 위대한 괴팅겐 세계 역사학자 중 하나인 Johann Christoph Gatterer가 1764년에 출간한 “세계사 안내서(A Handbook on World History)”를 통해 독자들은 한국에 대한 이중적 시각의 여러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Gatterer는 예수회원 장 바티스트 뒤 알드(Jean-Baptiste Du Halde)가 집필한 “한국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Extensive Accounts on Korea)”이라 불리는 작품에 기반을 두고 세계사 안내서의 한국 장을 작성했다. Gatterer는 “한국인의 법률은 중국 서경의 8가지 원칙으로 구성된 법령밖에 없다”고 기록했다. 이 문장은 틀렸지만, 뒤 알드도 그 이상의 사실은 몰랐고, Gatterer은 따라서 더 알 수가 없었

다. 뒤 알드 뿐만 아니라 예수회도 한국의 자료를 참조하지 않고 한국에 관해 기술했고, 따라서 그 이후에 발간된 모든 자료가 한쪽에 치우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독일과 유럽의 한국학은 한국에 대한 중국, 일본의 강력한 편견에 거의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 관련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사회과학자의 숫자도 매우 적다. 따라서 동아시아 사회과학 내 한국학의 입지는 매우 좁다.

많은 교수가 중국과 일본의 편견 어린 관점으로 한국학을 바라보지만, 그래도 중국과 일본 외에 한국학에도 관심을 가지는 교수들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환영할 소식이다. 독일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동아시아학”을 지역연구로 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이 숫자는 지난 10년간 계속 증가해 왔다. 이제 다음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 동아시아 3국의 정치, 경제 문제 대다수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연구가 발달한 것은 환영할 소식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더 넓은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을 보여주는 우수 사례가 여럿 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동아시아 정체성 구축 담론”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이다.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미국의 교수들이 이 국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 교수진은 이러한 국가들의 국가 정체성 구축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수많은 사례연구들을 편찬했다. 이 교수진은 이 3국의 정체성 구축 양상이 서로를 따라간다는 사실과, 3국이 공통적으로 자국만의 ‘독특함’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을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문화적 상호작용과 유사성을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했다.

한국사회과학을 연구할 때 ‘동아시아’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로 이 때문에 65명의 교수진이 현대 한국학을 보조 자료로만 사용하고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이다. 물론 이 교수진이 한국학을 더 직접적으로 공부하면 더 좋겠지만, 독일에서 한국의 정치과학을 발전시키려면 이들은 꼭 필요한 동맹군이다. 현대 한국학에 관심이 있는 65명의 사회과학자들 중 9명이 한국학자로 밝혀졌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고, 미국 대학과 비교했을 때 한국학자의 비율은 매우 적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자.

그 대신, 우리는 독일 내 한국 사회과학에 이국적 시각이 가득한 현황에 대해 몇 마디를 던지고 싶다. 독일과 유럽 내 한국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이들은 현재 만연하는 외래적 관점을 극복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여러 연구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타국의 관점보다는 독일과 기타 지역에서 관찰되는 더 구체적인 경험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관점의 변화를 꾀하고 한국사회과학 내 지속되고 있는 전통적이며 유럽 중심적인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너무 오랫동안 유럽의 사회과학자들은 유럽에 한정된 경험을 가지고 다른 국가의 정치학과 현대사를 설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

서양 경험에 입각한 이론으로 동아시아 국가를 설명하는 방법은 서양 학계의 오랜 전통이었다. 한 사회는 그 자체의 내부 논리를 통해서만 이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Max Weber조차도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유교주의와 도교(Confucianism and Taoism)’의 서문에서, Weber는 중국을 연구할 때 자신이 중국학자와 접촉할 수 없었기에 스스로 이 연구 방법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가 명시한 것처럼, 그의 중국사회 분석은 유럽, 특히 서유럽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었다. 결국 그는 ‘중국의 실체’가 아니라 중국이 유럽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설명했다. 독일과 유럽에서 언어 기반의 한국사회과학을 수립하는 것은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국적인’ 한국 연구를 극복하고, 사회과학, 즉 한국사회과학의 관점을 바꾸어 내부에서 바라보는 한국 정치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도록 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독일 대학, 특히 베를린에서 한국학을 발전시키면 이 과제의 중요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III. 한국학 센터(IKS, Institute of Korean Studies)의 역사와 현황

베를린 자유 대학 한국학 센터(IKS)의 연혁과 현상(現狀)은 일본학부에서 최초의 한국 강의가 이루어졌던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대 중반에 이 대학은 독립적인 한국학부의 창설을 준비하기로 결정했고, 이 계획은 9년 뒤인 2005년에 실현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자유 대학의 한국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초빙 한국교수를 파견했다. 2008년이 되어서야 이은정 박사 겸 교수가 한국학부의 전임 교수로 지명되었고, 당시 이 학부에는 아직 학사 프로그램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1년뒤 한국학 석사, 박사 프로그램이 개시되었다. 또한, 한국학부에 지원하는 학생 숫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겨울 학기마다 그 숫자가 학사 학생 약 70명, 석사 학생 20명, 박사 학생 3명에 이르렀다. 2016년 2월자로 학사 학생 약 250명, 석사 학생 40명, 박사 학생 17명이 한국학부에 지원했다(동아시아학 대학원(GEAS) 박사 학생 포함, 아래 참조).

베를린 자유 대학의 IKS는 현대 한국학을 다시 연구와 교육의 중심으로 가져오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학부는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학 연구 목표는 광범위한 한국의 모습을 포함한 지식과 기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학계, 기업, 언론, 국제기구, 그리고 문화교류 중심의 기관 등에서 종사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를 위해 능숙한 한국어 실력을 갖고 닦는 데 특히 주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때 우리는 한국 사회와 역사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특정 주제, 방법, 기술, 이론을 다루어야 한다. 일부 과목은 지역적 차원에서 실시된 종합 연구에서 차용 가능하지만, 현대 한국학 연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러한 과목에 대한 토론을 요구한다. 한국학 주요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정치학, 한국 사회경제, 한국 이념사, 비교문화적 이념사, 문화 연구.

2013년에 동아시아학 대학원(GEAS)가 수립되고, 이은정 박사가 공동 교수직을 맡고, Hannes B. Mosler 박사가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GEAS는 독일 연구 위원회(German Research Council (DFG))의 후원을 받으며, 우수 이니셔티브 프로그램(Excellence Initiative Program) 소속 기관으로, 동아시아 지역학 연구와 철저한 학문 중심의 사회과학 방법론적 교육을 제공한다. GEAS는 베를린 자유 대학, 독일 대학원 프로그램, 그리고 중국, 일본, 한국의 협력 기관의 지역학 연구의 기존 강점을 활용한다. GEAS의 박사 학위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과학, 기업, 경제, 인류학, 법, 역사, 인문학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여러 학교의 중심 주제에 맞추어 기획된다. 상호 연결된 시각을 바탕으로 다음 주제에 대한 핵심 연구와 실증적 분석이 수행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기원과 제도 변화, 제도의 효과와 제도적 다양성의 결과, 보다 지역적이고 전세계적 맥락에서 본 동아시아 제도의 상호의존성. 이 3년 박사 학위 프로

그램은 아시아 언어 최소 1개 이상을 구사할 수 있는 석사 학위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방법론 과목, 연구 세미나, 동아시아 의무 현장학습이 포함된 여름 학기를 결합하고, 특정 지역과 관련된 이전 가능한 기술을 보급한다.

베를린 자유 대학의 학술 기관인 IKS는 주기적으로 한국 관련 주제에 대해 다양한 강의와 세미나를 연다. IKS의 교과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언어 교과목과 사회과학 강의와 세미나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사상사). 본교의 언어 교과목은 학생들의 언어 실력을 신속히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기획되었다. 현재, 정규 교수 2명이 프로그램을 공동 관리하고 있으며, 2명의 비상근 언어 강사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학문 교육의 제2부는 한국학 센터 책임자, 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비상근 강사, 객원교수, 초빙강사로 구성된 본교 연구 및 강사진이 가르치는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올해 우리는 각 학기별로 학생과 대중에게 다양한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한국 사회의 구조와 역학에 관해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다: 역사, 지적 역사, 정당체제, 한반도의 통일 정책, 인권, 시민 사회, 사회 정책, 노사 관계, 문화 변화 등.

IV. 커리큘럼에서 다루는 제주 4·3사건

제주 4·3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과목에서 다뤄진다. 이 교과목들은 학생들이 사건 발생 시점의 한국 역사 발전과정과 정치적 추모와 대립과 관련된 현재 한국 사회와 정치적 맥락에서 이 사건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끔 유도한다.

1) 한국사의 주요 사건인 제주 4·3사건

교과목은 보통 학기당 14-16주간 진행된다. 한국 현대사 강의는 대개 1945년 광복 이후 현재까지의 발전, 즉 매우 획기적인 70년 이상의 역사를 다룬다. 1회차 수업에서 19세기 말에서 제2차 세계 대전 말까지의 한국사 발전과정을 간략히 설명한 후에, 2회차 수업에서 일본 제국의 항복 직후 벌어진 사건들을 다룬다. 3차 수업은 제주 4·3사건을 물론 포함하여 1945년에서 1948년까지 주한 미군청정 시기의 발전과정 개요를 제시한다. 이 때, 제주 4·3사건은 한반도 남쪽에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던 상황에 발생한 현상이자 남한의 정부 수립을 위한 단독선거 시행 시도에 대한 반발 운동으로 소개된다. 나아가, 이 사건을 야기한 중요 요인으로는 한국을 장악하고 있던 미군의 전반적 역할, 전세계를 분열시킨 냉전 초기의 상황, 국내 갈등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에서 미군의 역할 등이 있었음을 명확하게 밝힌다. 다시 말해, 이 제주 4·3사건은 결국 한반도 분단으로 이어진 광복 이후 갈등 상황의 징후(또는 증상)로 이해될 수 있는 일련의 사건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단하게라도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학기말 리포트나 에세이로 이 주제를 추가 연구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4차 수업에서 한국 전쟁을 논할 때 제주 4·3사건을 다시 한 번 다룬다. 특히, 수업 시간에 누가 전쟁을 시작했는지 토의할 때, 제주 4·3사건의 일련의 사건과 배경을 상기하며 전쟁이 이미 그 시기에 시작된 것은 아닌지 고찰한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전쟁이 언제,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복

잡한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역사책이 어떤 답을 제시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러한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전쟁의 복잡성 뿐만 아니라, 전면전으로 이어진 갈등 상황과 전후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더욱이, 이 프로그램 덕분에 학생들은 분쟁의 한쪽 측면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도 살펴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남한, 북한, 중국, 미국의 한국 전쟁에 대한 특정한 입장, 해석, 평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시점에 다른 주요 사건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주 4·3사건은 간략하게만 다룬다.

2) 정치적 추모와 대립을 보여주는 핵심 주제인 제주 4·3사건

한국사에 관한 수업 외에도 제주 4·3사건이라는 주제는 한국의 과거 청산, 정치적 추모, 또는 정치적 대립과 관련된 질문을 다루는 교과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경우,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전개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 사회와 정치의 현대 주체들이 이를 기억하고 해석하는지에 주목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대립적인 과거 묘사 등과 관련된 정치 추모를 다루는 교육과정에서 4·3사건의 해석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을 한국의 정치적 대립의 징후 사례 중 하나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우리는 대개 휴전위원회가 과거를 청산할 때 제주 4·3사건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음을 확인하며 시작한다. 또한 아직도 이 사건이 북한 스파이 또는 노동당의 사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게다가 제주 4·3사건에 대한 공식적 인식과 진실하고 지속적인 사과에는 기한이 있으며, 다시 말하지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다. 이렇듯 제주 4·3사건의 과거 청산이 불안정한 탓에 이 사건을 다루는 학교 교과서나 기타 교육 자료의 시각 차이가 발생했다. 정치적 추모 및 논쟁과 관련된 또다른 사안으로는 모순적이며 대립되는 추모와 기억 속에 세워진 제주 4·3사건 추모관이 있다.

남한의 소위 ‘자유 진보’와 ‘보수 우파’ 사이 정치적 대립 현상이 이 정치적 추모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둘 중 한쪽에 속한 대부분의 주체는 일제강점기, 정부수립, 개발독재 시기와 관련된 과거 사건의 권위적 해석을 놓고 충돌한다. 제주 4·3사건은 20세기 중반 한반도의 급격한 발전 과정에서 주요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유파와 보수파 간 갈등 시에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이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남한의 정치적 대립을 다룰 때 분석하고 논의하기에 적합한 매우 명확하고 분명한 사례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 추모, 대립, 또는 휴전위원회 등의 주제를 다루는 수업 시간에 이 사건을 활용한다.

3)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사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비판적 접근법

제주 4·3사건과 같은 과거 청산 문제가 한국학 공부를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 주제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많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 간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존재하는 입장 차이와 어려움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한국학 센터가 독일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 청산 문제를 비교주의적 관점에서 독일, 남아프리카, 남미 국가 등의 다양한 국가와 잘 비교해볼 수도 있다. 따라서 대립적인 역사와 관련 분쟁의 복잡성을 배우는 학생들이 한국사를 더 잘 이해하고, 다른 국가의 역사의 유사한 사례도 파악하고, 분석적으로 더 깊게

고찰하는 능력도 함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그리고 4·3사건이 정치와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논란이 많다는 문제를 감안하여, 수업 토의 시간에 우리는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 Consensus)를 엄격히 준수한다. 이 합의는 일종의 독일 시민 교육 기본원칙에 해당하며, 치열한 갈등 후에 논란이 되는 문제를 다룰 때 다양한 교수법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다음의 3가지 기본 원칙으로 구성된다: 학생 압박 금지, 논란이 되는 문제는 논쟁하며 다룰 것, 학생들의 개인적 이익에 집중할 것. 첫 번째 원칙에 따라 특정 주제에 관해 학생들의 의견을 강요하는 세뇌 행위를 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소양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두 번째 원칙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간소화하거나 미화하지 말고 논쟁이 되는 부분을 그대로 가르치고 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에 따라 학생들은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이익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평가하며, 동시에 정치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위의 두 원칙을 보완하여 실용적이고 사용 가능한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



The Persistence of Coldwar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pril 3 Jeju Uprising

한반도의 냉전 체제 지속과 제주 4·3 항쟁

Lee, Namhee

Associate Professor of Modern Korean History, UCLA

The Persistence of Coldwar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pril 3 Jeju Uprising¹⁾



Lee, Namhee
Associate Professor of Modern Korean History, UCLA

Abstract: This presentation situates the brutal massacre of the people of Jeju during the Jeju Uprising in the context of the coldwar regime and the nation-building process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imposed but also deeply internalized anticommunism. It was only after the persistent and repeated efforts by the people of Jeju and the minjung movement that what had been known merely as an “incident” (*satae*) was reconstructed as the “Jeju Minjung Hangjaeng” (Jeju People’s Uprising), reinscribing the Jeju people as political actors who consciously acted on their beliefs and ideological commitments. Even after the transition to a parliamentary democracy in South Korea, however, the persistence of the coldwar and anticommunism, among others, have hindered the efforts to find the “truth” and restore full justice to the people of Jeju.

Anticommunism: Historical Context

A nation’s concept of “the Other” is usually not a primordial or stable social category but rather is contested and reconfigured throughout its historical development. The communist as the Other in South Korea is a product of its specific colonial and postcolonial condition, as well as its political development. During the colonial period, Japanese authorities vilified communists as “criminals” and “sinners,” as they did anyone opposing Japan at the time; in Manchukuo, bandits were commonly called communists.²⁾

1)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is derived from Namhee Lee, *The Making of Minjung: Democracy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76-79, 59-61.

2) Han Seokjeong, *Manjuguk geonguk ui jae haeseok* [Reinterpret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Manchukuo (Busan: Donga

Although internal division between the leftists and rightists accounted for much of the political mayhem in the immediate post-1945 period, U.S. policy in Korea was decisive in helping rightists' power to increase, while that of the communists and leftists was eliminated. Dictated by U.S. military and security interests in Asia, at the heart of U.S. policy in South Korea was "the containment of the spread of Soviet communism,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stability, and the securing of Korean allies who would promote an American style democracy and capitalist development."³⁾ American ideals of freedom and democracy guiding South Korean political development were, as Bruce Cumings succinctly points out, the "American code words for anti-communism."⁴⁾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roved to be a highly effective proselytizer for anticommunism in post-colonial South Korea.⁵⁾ By the time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the revolutionary situation of the first few years after 1945 was completely brought under control, leftist groups that had mounted a vigorous challenge to the regime were driven underground, and General Douglas MacArthur declared South Korea "an impregnable bulwark against all dissident elements."⁶⁾

In the cold-war environment, the variegated sociopolitical issues that defied easy categorization were framed in a simplistic division of anticommunism and pro-communism, as exemplified by the trusteeship case. Those individuals whose previous political allegiance and activities would have been a target for the post-1945 purge of pro-Japanese elements were given a new political life and identity as anticommunists. In this world of stark divisions between communist and anticommunist, communists, or anyone accused of being one, had become not only "antinational" but also an "impure element." They were branded as "thieves, bandits, seditious, heretic, vampire, and evil spirits."⁷⁾ Society was to dispose of these elements, "[j]ust as *japgwi* [sundry evil spirits] are feared and exorcised as evil in the shamanic rituals."⁸⁾ They were not only denied full citizenship, they were deemed to be less than human beings.⁹⁾ Under the system of punishing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of those accused of a major crime such as *lèse-majesté*, known in Korean as *yeonjwaje* (guilt-by-association), the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of an alleged leftist were barred from employment as public servants, attending military academy, and travel abroad.¹⁰⁾

Daehakkyo Chulpanbu, 1999) , 168-69.

3) Hyun Sook Kim, "The Politics of Repression, Resistance, and Revolution: State-making in Postwar Korea, 1945-1948" (PhD diss.,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1991), 20.

4)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8.

5) Kim Tongch'un, *Bundan kwa Han'guk sahoe* [The division and Korean society] (Seoul: Yeoksa bipyeongsa, 1997), 44.

6) Quoted in Kim, "Politics of Repression," 25.

7) Quoted in Kim, *Bundan gwa Hanguk sahoe*, 47, note 8.

8) Kim Seong Nae, "Chronicle of Violence, Ritual of Mourning: Jeju Shamanism in Korea" (PhD diss., University of Michigan, 1989), 290.

9) Kim Tongchun, "20-segi Hanguk esoui 'gungmin'" [The "citizen" in twentieth-century Korea], *Changjak gwa bipyeong* 27:4 (1999), 37.

10) Although *yeonjwaje* was officially abolished in 1981, it is said to have continued well into the 1990s, particularly in the hiring of staff and faculty in the conglomerate-owned universities.

Throughout the postcolonial period, elimination of the dissident elements in South Korea was conducted with brutality and violence that was unparalleled eve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¹¹⁾ The “red hunt” in the South was carried out with added ferocity when Christians and others fleeing from the North joined in.¹²⁾ The police made frequent, indiscriminate arrests, claiming that a person might be a leftist, thereby creating a new term—government-manufactured communist (*gwanje gongsandang*). Some who had previously had only brief encounters with the leftist movement volunteered to serve in the National Defense Patrol to avoid the wrath of the police.¹³⁾ A Chicago *Sun-Times* reporter visiting South Korea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noted in 1946 that “the victim was already damned as a Communist and Enemy of the State. To ‘prove’ their case, the police set about wringing a ‘confession’ from them.”¹⁴⁾

The April 3 Juju Uprising

Mass murder and rape of those considered leftists and dissenters were not isolated incidents in the immediate post-1945 period. The massacre of the Jeju people occurred two years before the Korean War, in 1948, and is now known as the Jeju Uprising. The combined forces of police and paramilitary groups, with the guidance of American military officers, killed more than ten percent of the island’s population. When the 6th and 14th Regiments stationed in Yeosu and Suncheon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suppression of the Jeju people and rebelled, which now known as the Yeosu-Suncheon Rebellion, citizens of these cities were subjected to summary executions and indiscriminate detention in concentration camps.¹⁵⁾ Thousands were executed and imprisoned; those who were left in prison were executed during the Korean War. So many people were killed during this period, and so many of their family members were subsequently barred from employment and other social activities, that one observer was led to comment, “It is no wonder that Jeolla Province is void of the talented.”¹⁶⁾

Even as late as in the 1980s, many post-1945 historical events were officially deemed antistate and pro-communist, and open contestation of these events resulted in imprisonment and loss of their nationalist public image. As late as August 1994, for example, eight professors were indicted on charges of “benefiting the enemy” (*ijeokseong*) for positively portraying North Korea in their

11) Kim, “20-segi Hanguk,” 36.

12) See Kang Incheol, “Hanguk jeonjaengi bangong idiologi gwanghwa, baljeon e dae- han jonggyoin ui giyeo” [Contributions of the religious to the intensif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anti-communist ideology during the Korean War]. In Hanguk saehoe hakoe, ed., *Hanguk jeonjaeng gwa Hanguk sahoe byeondong* [The Korean War and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Seoul: Pulbit, 1992)

13) Kim Kyeyu, “1948-nyeon Yeosun ponggi” [Yeosu-Suncheon rebellion of 1948] *Yeoksa bipyeong* 15 (1991), 249.

14) Mark Gayn, *Japan Diary* (New York: William Sloane Associates, 1948); quoted in Kim, “Politics of Repression,” 193.

15) Cumings,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259–67.

16) Kim Kyeyu, “1948-nyeon Yeosun ponggi,” 249.

undergraduate liberal arts textbook.¹⁷⁾

Reconstructing Social Memory of the April 3 Juju Uprising

Despite continuing state suppression and the lack of historical research, a number of post-1945 events began to make their way into the public arena from the 1980s onward, especially during the height of the minjung movement. Known until the late 1980s simply and ambiguously as the 4·3 *satae* (April 3 incident), the previously little-known April 3 Jeju Uprising took place on Jeju Island in 1948, when a group of leftists, protest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s decision to uphold an election on May 10 to set up separate governments in Korea, attacked police and right-wing paramilitary groups. The combined forces of the U.S. military and the South Korean police hunted down insurgents and burned entire villages in a manner that anticipated tactics used in the Vietnam War. Although the exact number of deaths related to this event remains in dispute, various records indicate that close to ten percent of the population was killed. Only about 550 of the dead were acknowledged by the army to have been armed insurgents.¹⁸⁾

Unlike other armed rebellions that broke out on the mainland in the same year, such as the Yeosu-Suncheon Rebellion, this event did not enter the realm of public discourse until the late 1980s.¹⁹⁾ Until then, a willed amnesia ruled the island and the public at large. Family members feared mentioning the names of the dead or even memorializing them in ancestral memorial services (*jesa*). Family members of those who were killed also suffered from the guilt-by-association (*yeonjwaje*), denied of job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among others. The official version of the event prevailed, and only in fictionalized accounts by novelists born in Jeju was any counter-memory suggested.²⁰⁾ The most well known of these is Heyon Giyeong's "Suni samchon" (Aunt Suni). Soon after this story was published in 1979, Hyeon was taken to the Army Security Command and tortured, and the story was banned until the 1980s.

From the mid-1980s, however, the Kwangju Uprising and the growing minjung movement

17) See "'Kongan' beolpan e seon siryon eui tdehak" [The university on trial by "public security"], *Sisa jeoneol* (August 25, 1993), 36-37.

18) Kim Seong Nae, "Chronicle of Violence, Ritual of Mournings," 5. Kim lists the number of deaths at 80,065, based on official military records. A 1956 government publication (*Hanguk pyeollam*) set the number of fatalities at 40,000; in 1960, assemblyman Kim Songsuk claimed 50,000 dead. In 1963, a Jeju-based publication listed the number as 86,500. See "Teukjip: Oneurui daehaksaeng, mueoseul saenggak hana" [Special topic: Today's students, what are they thinking?], *Wolgan jungang*, (May 1988), 378. Bruce Cumings lists the number of dead as "one in every five or six islanders." See his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258.

19) The Yeosu-Suncheon Rebellion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see, for example, Cumings'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259-67. Much literary work is also devoted to this incident, with the monumental ten-volume novel *Taebaek Sanmaek* (Mount Taebaek) being perhaps the most representative.

20) See Hyeon Giyeong, "Nae soseorui motaeneun 4·3 hangjaeng" [The womb of my novel is the 4·3 Uprising], *Yeoksa bipyeong* 20 (1993): 163-70.

encouraged various activities that would rearticulate the 4·3 Jeju Uprising. Against the official account of the 4·3 Jeju Uprising as a “communist guerrilla insurgency,” alternative perspectives, such as that presented by the Jeju-based research and social action group named the Jeju 4·3 Yeonguso (Jeju 4·3 Research Institute), rearticulated the event as the Jeju people’s resistance against national division and “American imperialism.”²¹⁾ To this end, the Institute proposed renaming the 4·3 incident “Jeju Minjung Hangjaeng” (Jeju People’s Uprising), reinscribing the Jeju people as political actors who consciously acted on their beliefs and ideological commitments.²²⁾ This view not only challenged the official one but also directly represented the concerns of the minjung movement that considered democratization, national autonomy, and the reunification of Korea to be its most urgent issues at the time. The 4·3 Jeju Uprising, redefined as a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an anticolonial and anti-imperial resistance,²³⁾ could be thus regarded as a direct predecessor to the minjung movement. From 1988, the Jeju Uprising became one of the persistent topics on university campuses. In 1988, Yi Sanha’s poem “Hallasan” (the name of the mountain located in the center of Jeju Island) circulated widely on university campuses, while the author was arrested and sentenced to four years and six months (it was later commuted to a year and six months).²⁴⁾ Publications on the Jeju Uprising such as the *Jeju minjung hangjaeng* (Jeju People’s Uprising) and *Jamdeulji anneun Namdo: (The Southern Island that could never sleep)* became steady sellers.²⁵⁾ Academic symposia on Jeju attracted hundreds of people, the majority of them reportedly college students. Conference proceedings were immediately put up on wall newspapers in universities, with some university newspapers printing verbatim the insurgents’ statements (*hosomun*).²⁶⁾

Transitional Justice?

Even after the transition from the military dictatorship to a parliamentary democracy, however, the National Security Law (NSL), a most draconian law whose indiscriminate application became one of the principal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previous authoritarian regimes controlled and disciplined society. In fact, it was during the presidency of Kim Dae-jung (1998-2003), who was one of the most

21) The Jeju 4·3 Research Institute was established in 1989 and published its first journal, *Jeju hangjaeng* (Jeju uprising) in 1991.

22) Kim Seong Nae, “Mourning Korean Modernity: Violence and the Memory of the Jeju Uprising.” Paper presented at the Rethinking East Asia Workshop, University of Chicago, (May 3, 1996), 13–14.

23) Ibid.

24) See Yi Sanha, *Hallasan* [Mount Halla] (Seoul: Sihaksa, 2003).

25) Asia Ap’urik’a Lat’in Amerik’a Yon’guwon, *Jeju minjung hangjaeng* [The Jeju People’s Uprising] (Sonamu, 1988; No Minyong, ed. *Jamdeulji anneun Namdo: Jeju-do 4·3 hangjaeng ui girok* [The southern island that never sleeps: The record of the Jeju-do 4·3 Uprising] (Cheongju-si, Chungbuk-do: Onnuri, 1988).

26) “Teukjip: Oneurui daehaksaeng,” 379.

serious and persistent victims of the atrocitie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at Seo Junsik, a human rights activist, was on trial for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for screening a film “Red Hunt” that is based on the Jeju Uprising at a human rights film festival.²⁷⁾

Only in 2000 a special law was enacted to investigate the facts of the massacre and to recover the honor of those who were killed and wrongly accused as communists, and in 2008 the 4·3 Peace Park was opened. In 2006, the then president Roh Moo-hyon apologized on behalf of the state for the violence committed against the people of Jeju.²⁸⁾ During the presidency of Pak Geun-hye, however, there again circulated a claim that the “4·3 was instigated by the communists of the South Korean Labor Party.” The author Yi Sanha recalls how he had trembled with fear, recalling his own past experience of torture and the charge of anti-state and pro North Korea labeled against him, whenever he saw the face of the then Prime Minister Hwang Gyoan on TV (Hwang was formerly a state prosecutor).²⁹⁾

There still remain a number of major questions that has not been answered, such as what were the role and the responsibility, if any,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At the time of the massacre, the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PMAG)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led the command and control of the South Korean Army, as the actual authority over the South Korean Army was still under the control of the US Army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³⁰⁾ US military advisors were present in the National Defense Guard (the predecessor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regiment stationed on Jeju during the April 3 Jeju Uprising. According to *Hankyoreh*, US military reconnaissance aircraft pilots aided the operation by providing the 9th Regiment of the Korean National Guard with details on the combat situation and the sites of armed groups. Brigadier General William Lynn Roberts of the PMAG even recommended to the then Prime Minister Lee Beom-seok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ublicize broadly the successful outcome of the military operation.³¹⁾ The above discussion illustrates that even after the transition to a parliamentary democracy in South Korea, the persistence of the Coldwar on the Korean peninsular, anticommunism, among others, have hindered the efforts to find the “truth” and to restore full justice to the people of Jeju.

27) The film was screened earlier at the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thout any problem, but was later deemed by the authorities as “benefiting” North Korea. Kim Dang, “Ingwon undongga Seo Junsik ssi gusok pamun,” *Sisa Jeoneol* (November 20, 1997); available at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81831> (accessed on May 18, 2018).

28) For details, see, Hunjoon Kim, “Seeking Truth after 50 Years: The National Committee for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4·3 Ev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3:3 (Nov 2009): 406-423.

29) Won Huibok, “Jeju 4·3 ‘Hallasan’ siin Yi Sanha ‘Hallasan eun nae bimyeong ija tonggogida,’” *Kyunghyang sinmun* (March 24, 2018).

30) The National Committee for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The Jeju 4·3 Incident Investigation Report” (Jeju 4·3 Peace Foundation, 2003), 315-316.

31) Heo Ho-joon, “Special Feature Series: April 3 Jeju Uprising, Part III: US culpability for the bloodshed on Jeju Island,” *Hankyoreh* (April 1, 2018), available at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838533.html (accessed on May 19, 2018).

한반도의 냉전 체제 지속과 제주 4·3 항쟁¹⁾



Lee, Namhee
Associate Professor of Modern Korean History, UCLA

초록

본 발표는 제주 항쟁 때 있었던 잔혹한 제주도민 대학살을 냉전 체제, 대한민국 국가 수립 과정, 그리고 국가의 강요와 국민들 깊숙이 내재화된 반공산주의 측면에서 조명한다. 제주도민들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노력과 민중 운동 덕분에 이전에는 단순히 “사건” (사태)으로 불리다가 “제주 민중 항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제주도민들이 자신의 신념과 이념 성향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적 주체로 다시 명명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의회민주주의로 전환한 뒤에도, 무엇보다도 냉전과 반공산주의가 지속되면서 “진실”을 되찾고 제주도민들에게 진정한 정의를 보여주려는 노력이 방해받았다.

반공산주의: 역사적 상황

한 국가에서 말하는 “적군”이라는 개념은 원초적이거나 확고한 사회적 범주인 경우보다는 오히려 역사가 전개되면서 그 정의에 이의가 제기되고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를 적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특수한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의 상황, 그리고 남한의 정치적 발전에 따른 부산물이다. 식민지 시기에 일본 당국은 당시 일본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를 “범죄자” 또는 “죄인”이라 비방했다. 만주국에서는 흔히 노상강도를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다.²⁾

좌파와 우파의 내부 갈등이 1945년 직후의 정치적 대혼란을 야기한 주원인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이 펼친 정책 또한 우파에 힘을 실어주고 공산주의자와 좌파의 힘을 빼앗는 데 기여했다. 미군

1) 본 발표의 1부는 이남희의 *민중 형성: 남한의 민주주의와 대의정치* (Ithaca: 코넬 대학교 출판부, 2007), 76-79, 59-61쪽에서 파생되었다.

2)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9), 168-69.

의 주도 하에 아시아 내 안보 이익에 따라 남한에서 미국은 “소련 공산주의 확산 방지, 정치적 안정 수립,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할 동맹국 한국 확보”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³⁾ 남한의 정치적 발전을 이끈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는 Bruce Cumings가 간단 명료하게 지적한 것처럼 “반공산주의를 의미하는 미국식 암호전보”였다.⁴⁾ 주한미군정부는 강점기 후의 남한을 사상적으로 전향시키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⁵⁾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1945년 이후 몇 년간의 변혁이 완전히 통제되었고, 정권의 난관이었던 좌파 세력이 지하로 숨었으며,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남한을 “모든 반정부 요소에 대한 난공불락의 벽”이라고 선언했다.⁶⁾

냉전 체제 하에서 단순한 범주화를 거부하던 많은 사회정치적 문제가 신탁 통치 사례처럼 간단하게 반공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고 말았다. 광복 후에 청산의 대상이 된 친일 활동 경력과 정치적 성향을 지닌 개인들은 반공산주의자라는 새로운 정치적 생명과 정체성을 얻게되었다. 이렇듯 공산주의자와 반공산주의자를 극명하게 구분하는 세계에서 공산주의자와 공산주의자로 의심받는 사람은 “반국가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불순분자”로 분류되었다. 이들은 “도둑, 강도, 불온한 사람, 이단자, 흡혈귀, 잡귀”로 불렸다.⁷⁾ 한국 사회는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고자 했다. “사람들이 잡귀를 두려워하고 무속 행위를 통해 잡귀를 퇴치하는 것과 같았다.”⁸⁾ 이들은 시민권을 거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⁹⁾ 대역죄와 같은 큰 범죄로 기소된 사람의 가족과 친척들을 처벌하는 체제(한국에서는 연좌제로 알려짐) 하에서, 좌파로 의심받는 사람의 가족과 친척은 공무원 취업, 육군 사관 학교 입학, 해외여행이 모두 금지되었다.¹⁰⁾

일제강점기 후에 있었던 남한의 반정부 세력 청산은 일제 강점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극심하게 잔인하고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¹¹⁾ 남한의 “빨갱이 소탕”은 기독교인들과 탈북자들이 합류하면서 더 잔인해졌다.¹²⁾ 경찰은 좌파로 의심된다며 시민을 빈번하게 무차별적으로 체포했고, 이에 따라 정부가 만들어낸 공산당(강제 공산당)이라는 새로운 용어도 탄생했다. 우연히 좌파 운동 현장을 맞닥뜨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경찰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국방부 순찰대 근무를 자원했다.¹³⁾ 미군정 시기에 남한을 방문했던 한 시카고 선타임즈 리포터는 “희생자들은 공산당원이자 국가의 적이 되어 이미 지옥에 떨어진 셈이었다. 경찰들은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가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이들의 목을 비틀었다” 라고 1946년에 묘사했다.¹⁴⁾

3) 김현숙, “억압, 저항, 혁명의 정치학: 전후 한국의 국가 수립, 1945-1948” (박사 논문, 뉴스쿨 사회과학대학원(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1991), 20.

4) Cumings, *한국전쟁의 근원(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제2권 (프린스턴: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 1990), 28.

5) 김동춘, *분단과 한국 사회*(서울: 역사 비평사, 1997), 44.

6) 김현숙, “혁명의 정치학” 25 인용.

7) 김동춘, *분단과 한국 사회*, 47, 부가 정보 8.

8) 김성내, “폭력의 연대기, 애도 의식: 한국의 제주 샴니즘” (박사 논문, 미시건 대학교, 1989), 290.

9) 김동춘, “20세기 한국에서의 ‘국민’”, *창작과 비평* 27:4 (1999), 37.

10) *연좌제*는 1981년에 공식 폐지되었으나, 1990년대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업 소유의 대학에서 교직원을 고용할 때 그러했다.

11) 김동춘, “20세기 한국,” 36.

12) 강인철, “한국전쟁기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 발전에 대한 종교인의 기여” 참조. 한국사회학회, 편집본, *한국전쟁과 한국 사회의 변동*(서울: 풀빛, 1992)

13) 김계유, “1948년 여수봉기” *역사비평* 15 (1991), 249.

14) Mark Gayn, *일본일기(Japan Diary)*, 뉴욕: William Sloane Associates, 1948); 김현숙, “혁명의 정치학” 193 인용.

제주 4·3 항쟁

좌파와 정치적 반대세력으로 간주된 사람들의 대학살과 강간은 1945년 직후에만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 한국전쟁 2년 전인 1948년에 발생한 제주도민 대학살 사건은 현재 제주 항쟁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과 불법 무장 단체가 힘을 합쳐 미군의 지휘 하에 제주도 전체 인구의 1/10 이상을 죽인 사건이다. 여수와 순천에 주둔 중이던 6연대와 14연대가 제주도민 진압 동원을 거부하고 저항하며 우리가 말하는 “여수, 순천 사건”이 발생하자, 이 두 도시의 시민들은 즉결 처형을 당하고 강제 수용소에 무차별적으로 구금되었다.¹⁵⁾ 수천 명이 사형되고 수감되었으며,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은 한국전쟁 때 사형되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사망했으며, 그들의 가족들은 추후 취업이나 기타 사회 활동으로부터 배제되었고, 한 목격자는 이렇게도 말했다 “전라도에 인재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¹⁶⁾

심지어 1980년대에도 1945년 후의 여러 역사적 사건을 공식적으로 반국가적, 공산주의적 행위로 취급했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사람은 구금되고 민족주의자 이미지를 잃게 되었다. 그 사례로 1994년 8월에 8명의 교수가 학부 교양과목 교과서에서 북한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적을 이롭게 했다” (이적성)는 혐의로 기소되었다.¹⁷⁾

제주 4·3항쟁의 사회적 기억 재구성

지속적인 국가적 억압과 부족한 역사 연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1945년 이후 사건들이 1980년대부터, 특히 민중운동의 정점 시기부터 공공연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까지 사람들이 단순하고도 애매모호하게 4·3사태로 (4·3사건으로) 알고 있었으며 알려진 바가 적었던 제주 4·3항쟁은 1948년에 제주도에서 좌파 단체가 5월 10일 총선을 통한 단독정부수립에 대한 미군정부의 지지에 반대하고, 경찰과 우익 무장단체를 공격한 사건이다. 미군과 남한 경찰이 힘을 합쳐 이 반항분자들을 추적하여 잡고 이후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마을 전체를 불태웠다. 이 사건으로 인한 정확한 사망자 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기록에서 전체 인구의 약 10%가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그 중 군대에서 무장 저항 세력으로 식별한 인구 수는 고작 550명이다.¹⁸⁾

여수, 순천 반란사건처럼 동일한 연도에 한반도에서 발발한 기타 무장 저항운동과 달리, 이 사건은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¹⁹⁾ 그 때까지는 제주도민과 대중이 고의적

15) Cumings, *한국전쟁의 근원(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제2권, 259-67.

16) 김계유, “1948년 여수봉기”, 249.

17) “‘공안’ 별판에 선 시련의 대학”, *시사저널*(1993.08.25), 36-37 참조.

18) 김성내, “폭력의 연대기, 애도 의식” 5쪽. 김성내는 공식 군사 기록에 따라 사망자 수를 80,065명으로 기록한다. 1956년 정부 출간물인 한국 편람은 사망자 수를 4만 명으로 집계했다. 1960년에 국회의원인 김송숙은 5만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1963년에 제주 지역의 출간물은 이 숫자가 86,500이라고 기록했다. “특집: 오늘의 대학생, 무엇을 생각하나”, 월간 중앙, (1988년 5월호), 378쪽 참조. Bruce Cumings는 사망자 수를 “주민 5~6명당 1명”으로 기록한다. 그의 책 *한국전쟁의 근원*, 제2권, 258쪽 참조.

19) 여수, 순천 반란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예: Cumings의 *한국전쟁의 근원*, 제2권 259-67쪽 참조. 이 사건을 기록한 많은 문헌이 있는데, 10권으로 된 기념비적인 소설 *태백산맥*이 가장 대표적이다.

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었던 셈이다. 가족들은 사망자의 이름을 언급하기를 두려워했고, 조상제례(제사) 때에도 그들을 추모하기를 겁냈다. 또한 사망자의 가족들은 연좌제로 인해 고통받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일자리와 교육 기회에 있어 배제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만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제주에서 태어난 소설가의 소설화된 설명만이 그에 반박하는 기록이었다.²⁰⁾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소설은 현기영의 “순이 삼촌”이다. 1979년에 이 소설이 출간된 직후, 현기영은 보안사령부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고, 이 소설은 1980년대까지 금지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광주항쟁과 점점 더 늘어나는 민중운동과 함께 제주 4·3항쟁을 재조명하는 여러 활동이 추진되었다. 제주 4·3항쟁을 “공산당의 게릴라 폭동”으로 묘사한 공식적인 설명에 반박하여, 제주 기반 연구 및 사회 운동 단체인 제주 4·3 연구소 등에서 제시한 대안적 시각이 이 사건을 국가 분단과 “미국 식민주의”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저항으로 재조명했다.²¹⁾ 이 맥락에서 제주연구소는 4·3사건을 “제주 민주항쟁”으로 부를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민들을 자신의 신념과 정치적 성향을 따라 의식을 가지고 행동한 정치적 주체로 재조명한 것이다.²²⁾ 이 시각은 기존의 공식입장에 도전했을 뿐 아니라 민주화, 국가 자치, 한반도 통일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간주했던 민중 운동의 관심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 독립 운동이자 식민지 저항 운동으로²³⁾ 재정의된 제주 4·3운동은 민중 운동의 직접적인 선례로 취급 받았다. 1988년부터 제주 항쟁은 대학 캠퍼스에서 지속적으로 논하는 주제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1988년에 이산하의 시 “한라산”(제주도 중앙에 위치한 산의 이름)이 여러 대학 캠퍼스에 광범위하게 퍼지자, 이산하는 체포되었고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나중에 1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²⁴⁾ 제주도민중항쟁과 잠들지 않는 남도: 제주도 4·3 항쟁의 기록과 같은 제주항쟁에 관한 출간물은 스테디셀러가 되었다.²⁵⁾ 제주 학술 심포지엄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 들었고, 보고에 의하면 그 대다수가 대학생이었다. 회의 자료는 대학 대자보에 즉시 게재되었고, 일부 대학 신문에서는 반항분자들의 진술(호소문)을 그대로 실었다.²⁶⁾

전환기의 정의?

그러나 군사독재가 의회민주주의로 바뀐 뒤에도 기존의 독재 정권이 사회를 통제하고 정리하기 위해 가장 가혹한 법인 국가보안법(NSL)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의 폐해에 끊임 없이 시달린 희생자 중 하나인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1998-2003) 인권운동가인 서준식이 인권 영화 축제에서 제주항쟁에 관한 영화인 “레드헌트(Red Hunt)”를 상영한 것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20) 현기영, “내 소설의 모태는 4·3 항쟁”, *역사비평* 20 (1993): 163-70 쪽 참조.

21) 제주 4·3 연구소는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1991년에 첫 저널인 *제주항쟁*을 출간했다.

22) 김성내, “한국 현대사에 대한 애도: 제주항쟁의 폭력과 기억.” 동아시아 재고 워크숍(Rethinking East Asia Workshop)에서 발표된 논문, 시카고 대학교, (1996.05.03), 13-14쪽.

23) 위와 같음.

24) 이산하, *한라산* 참조 (서울: 시학사, 2003).

25)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원, *제주 민주항쟁* (소나무, 1988; 노민용, 편집. 잠들지 않는 남도: 제주도 4·3 항쟁의 기록 (청주시, 충북도: 온누리, 1988).

26) “특집: 오늘의 대학생,” 379.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²⁷⁾

2000년에서야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 대학살의 전말을 조사하고 공산당원으로 오해 받아 사망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2008년에는 4·3 평화공원이 수립되었다. 2006년에는 당시 대통령이던 노무현이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한 범죄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했다.²⁸⁾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다시 한 번 “제주 4·3사건은 남한 노동당의 공산주의자들이 사주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퍼지기 시작했다. 작가 이산하는 TV에서 당시 총리였던 황교안의 얼굴을 볼 때마다, 과거에 겪었던 고문과 자신에게 씌어졌던 반국가, 친북 혐의를 떠올리고는 몸서리 쳤다고 한다 (황교안은 이전에 국가 검찰관이었다).²⁹⁾

미군정부의 역할이나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과연 무엇일지 등에 관한 많은 중요한 질문의 답변이 아직 제기되지 않았다. 제주 4·3항쟁 시기에 주한미군의 임시 군사고문단(PMAG)이 남한군의 명령을 지휘하고 통솔을 맡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남한군에 대한 실제적 권한이 아직 미군에 있었기 때문이다.³⁰⁾ 또한 4·3항쟁 시에 제주도에 주둔한 국방경비대(대한민국 육군의 모체) 연대에 미군 사령관들이 있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미국 정찰 비행기 조종사들이 국방경비대 9연대에게 전투 상황과 무장 단체가 있는 장소를 상세히 알리며 이 작전을 도왔다고 한다. PMAG 준장인 William Lynn Roberts는 심지어 당시 총리이던 이범석에게 남한 정부가 군사 작전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을 제안했다.³¹⁾ 위의 논의는 남한에 의회민주주의가 도입된 후에도 한반도에 남아있던 냉전체제와 반공산주의가 “진실”을 찾고 제주도민들의 정의를 회복하려는 여러 활동을 어떻게 제한했는지 보여준다.

27) 이 영화는 이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무 문제없이 상영되었으나, 이후에 당국이 북한에 “이익을 준다”고 판단했다. 김당,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구속 파문,” *시사저널* (1997년 11월 20일);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81831> (2018년 5월 18일자 접속).

28) 원희복, “제주 4·3. ‘한라산’ 시인 이산하 ‘한라산은 내 비명이자 통곡이다,’” *경향신문* (2018.03.24).

29) 세부정보는 김현준의 “50년 후의 진실 조사: 제주 4·3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과도기 정의 국제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3:3 (2009년 11월호): 406-423쪽 참조.

30)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제주 4·3사건 조사 보고서” (제주 4·3평화재단, 2003), 315-316쪽.

31) 허준호, “특집: 제주 4·3항쟁, 제3부: 제주도 유혈 사태에 대한 미국의 책임,” *한겨레* (2018.04.01),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838533.html (2018.03.19일자 접속).



4.3 as A Prelude of Hot War during the Cold War in Asia

Park Tae Gyun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전공

4.3 as A Prelude of Hot War during the Cold War in Asia



Park Tae Gyun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 Communist Riot

- 4.3 in South Korea during the Cold War era: A communist riot in 1948 with the Yosu Rebellion. (“Harvest Riot in 1946)
- It should be suppressed for peace and stability because it was led by subversive communists.
- Very unique case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South Korean textbooks.)
- John Merrill, *Chejudo Rebellion*, 1980 was the first one before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The most critical Barrier

- Trauma on the communism: a leader during the uprising escaped and being elected as representatives in DPRK legislative body.
- Jeju people in extreme rightist youth group who had lived since 1948.
- Government censorship for her legitimacy during the cold war era.
- The uprising was failed and there was no one to memorize publicly except who lived in exile in Japan.

Interpretation in History

- Interpretation of riots: Taiping Tienguo(太平天國), Eastern Learning(東學), Lim Geojong(林巨正), Robin Hood, etc.
- From the leader's side => Riot, Treason, or Bandit.
- From the participants side => Why did people join spontaneously? Why did people consider them not as a riot? What was the social problems?
- Although both should be needed, the latter is more crucial to historians.
- The events during the Cold War are the exceptional cases in historical interpretation. Very ideological.

How to interpret?

1. From perspective of participant

- Why did they join?
 - What encouraged them to join?
 - Why did the government to respond sensitively and aggressively?
- ⇒ Birth of another perspective. From the viewpoint of victims during violent suppression. Innocent victims. Why were they victimized? War crime?
- ⇒ However, this perspective might make participants communists and rebellions. (Same in massacres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Vietnam War.)

How to interpret?

2. Universalizing in the Cold War History

- In Asia
 - 2.28 in Taiwan
 - 1965-1966 Mass Killings in Indonesia: At least 500,000 were killed. One of three massacres in the world history.
<https://www.youtube.com/watch?v=kaBnJKnqPMg> (00:35~01:12)
- In Europe
 - Hungary(1956) and Prague(1968)

In particular

- Jeju and Indonesia
 - Jeju: 2 years before the Korean War.
 - Indonesia: a prelude to Vietnam War.
 - Why in Indonesia?
- => Trauma of the US from the Korean War caused by the Chinese entry in October, 1950.

Nevertheless

- Problems in reconciliation.
- How to do between the victimized and the victimizing?
- Conflict happened every ceremony. (like the Vietnam War case.)





**Teaching the History of the Jeju
Massacre and Korean National Division
to Studen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 관계 대학원 학생들에게 제주 학살 사건과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강의하며

Person, James F.
Professor of Korean Studies,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Teaching the History of the Jeju Massacre and Korean National Division to Studen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Person, James F.
Professor of Korean Studies,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I teach a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where I am a professor of Korean Studies. SAIS is generally considered one of the top graduate school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world. The institution, which is a division of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located in Washington, D.C., is devoted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affairs, economics, diplomacy, and policy research and education. While the school focuses primarily on preparing professionals for careers in public policy, diplomacy, etc., SAIS also considers the study of history to be of central importance to understanding the world today. As such, I teach a number of Korean history courses and others that apply a broader historical sensibility, enabling SAIS students to more accurately interpret contemporary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All of the courses that I teach are seminars that require a significant amount of reading and discussion.

SAIS offers a Korea Studies major. The program admits approximately 8 to 10 students per year, though that number continues to increase. Students who take my courses are primarily Korea Studies concentrators, though I frequently have a number of students in my classes who are concentrating in other fields, such as strategic studies, conflict management, or in the study of another country or region. Enrollment in each class is fifteen to eighteen students, which is the ideal size for a graduate seminar. Each of my classes last 150 minutes. I structure each classes so that students get an introductory lecture to provide the necessary background, and then assign a student to lead discussion on the readings for the week. Students then spend the rest of each session discussing the readings, assessing how the subject challenges their understanding of Korea, and informs their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developments on the peninsula. Give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focus of the university, each session ends with a "so-what" question to determine how the knowledge helps us better understand Korea today.

At SAIS I teach two classes where I cover the events surrounding the 1948-1949 Jeju Massacre. These include my course “The Politics of the Vortex?: Political History of South Korea,” and “The Two Koreas: Research and Record.” The “Politics of the Vortex” course gives a historically informed overview of politics and society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or South Korea), focusing on profiles in political leadership and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institutions. It considers the legacies of pre-modern tradition, colonial regimentation, Cold War militarism, and national division on domestic politics. Specific topics include authoritarianism,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civil society, government-led industrialization, and debates on Korean unification.

The “Two Koreas” course explores how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t only came into being but also how it shaped the socio-political, cultural, and ideological trajectories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since 1945. Through scholarly writings, primary source documents, and fiction, the course examines particular themes relevant to understanding the two Koreas today, including colonialism, communism, modernization, nationalism, industrialization, ideology, US-Korean and Sino/Soviet-North Korean relations.

In teaching about the Jeju Massacre, I aim to situate it in the broad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s of the period. First, I teach about Japanese colonial rule. I teach not just about the policies implemented by the Japanese during the periods of military rule, cultural rule, and wartime mobilization, I also try to introduce students to how Koreans responded to the loss of sovereignty. In particular, I focus on different methods taken by political leaders—on the left and on the right—for achieving national independence. This is critical background as these political cleavages that emerged during the colonial era shaped Korea’s political future after liberation.

Considering international developments that impacted Korea, I provide background to the decisions made on the future of Korea at meetings of the Allie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is includes decision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made at the 1943 Cairo Conference, and decisions surrounding Korea and Soviet participation in the war against Japan taken at the 1945 Yalta Conference. I then cover the U.S. and Soviet agreement to divide responsibilities in dismantling the Japanese colonial system in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two zones of occupation. I do so, I examine the occupation policies of both the United States in southern Korea, and the Soviet Union in northern Korea. In particular, in southern Korea, I teach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and the suppression of the spontaneous outpouring of popular participation that found expression in the People’s Committees immediately after national liberation from over three decades of Japanese colonial rule. I also teach about the support for rightist elements who established powerful instruments of police repression and bureaucratic control.

In teaching about Soviet policies in northern Korea, I discuss the abuse of Koreans in the first weeks

after liberation, the establishment of order by the Soviet Red Army after a brief period of chaos, and the re-constitution of the People's Committees so they were communist in their orientation. I also teach about Soviet support in the establishment of a political institutions, from as early as 1946, dominated by the Northern Korean Workers' Party (after the fall of 1946 when the Korean Communist Party and the New People's Party merged).

Finally, pertaining to the events that led to the Jeju Massacre, I teach about the road to national division through the failed Soviet-U.S. Joint Commission and the decision by Washington to turn the Korea problem over to the newly-established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 All of this background—both the international and local developments—is critical in introducing the students to the events of 1948 and 1949 in Jeju and also in Yeosu and Suncheon.

In both of my courses, I am only able to lecture on the actual Jeju Massacre and its aftermath for approximately fifteen minutes. I do so during the class on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regimes on the peninsula, and occupation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I largely cover the broader contours of the massacre. I describe how the Island, unlike the mainland, enjoyed a greater degree of autonomy during the initial post-liberation period, under the leadership of a progressive People's Committee. I then describe how the residents of Jeju opposed the unnatural political division of the peninsula following the Soviet rejection to hold elections supervised by UNTCOK in their zone of occupation. I then describe the start of the indigenous peasant movement, and the horrendous toll once police forces and rightist groups, at times advised by the USAMGIK, began to suppress the movement. Though atrocities were committed on both sides (the incident started with attacks on the police), the harsh methods used by the newly-established South Korean government were especially ruthless. U.S. reports reveal that U.S. military officials uncovered evidence of government atrocities, where the remains of dozens of women and children were discovered. While the official ROK figure was 27,719 casualties, I explain that we will never truly know the number of casualties, through it likely exceeds 30,000 (and even the governor of Jeju told U.S. officials that the number was 60,000). This was roughly ten percent of the island's population. Moreover, nearly 40,000 people fled to Japan, Korea's former colonial overlord. This was likely not a decision taken lightly. People abandoned their ancestral homes to flee repression to the country that had oppressed the Korean people for over thirty-five years. To provide further perspective, I explain that nearly 40,000 homes had been demolished, and of the 400 villages on the island, only 170 remained by the time the peasant movement was suppressed in April 1949. I then describe how the harsh government tactics in the suppression of the Jeju uprising led to a revolt of troops in the South Jeolla towns of Yeosu and Suncheon in the autumn of 1948.

While I am only able to spend approximately fifteen minutes lecturing about the Jeju Massacre itself, the students get much more exposure through assigned writings and discussion.

There are unfortunately only a few texts in English that examine in any detail the Jeju Massacre. Two texts that I assign are excerpts from books from retired State Department official John Merrill and

University of Chicago Professor Bruce Cumings.¹⁾ These works go into considerable detail on the massacre and the aftermath, and provide different perspectives. Merrill focuses on the domestic actors, including the activities of the South Korean Labor Party in the wake of the call for separate UN-supervised elections in southern Korea, while Cumings focuses on the role of U.S. military commanders, who he holds largely responsible for the massacre. Other scholars to have provided summaries of the massacre include Sheila Miyoshi Jager, who in her book *Brothers at War*, provides a helpful, if brief, summary of the major developments leading up to the massacre.²⁾

While the above works provide helpful background on the massacre, and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events leading up to the conflict and to the massacre itself, I also integrate primary sources into my courses to get students to work with historical documents from the period 1948-1949. Though my classes are technically not “history” classes, I use the documents to achieve a few things. First, as many of my students plan to go into government, I consider it important for them to work with sources produced by the U.S. and other governments. I also utilize primary source documents to get students to think more like historians by critically analyzing sources, analyzing and interpreting them, and synthesizing them with the available literature. They also help students develop critical thinking skills. Working with these materials also gives them an opportunity to fully evaluate the scholarly writings that I assign. In introducing primary source documents, I seek to find materials from a variety of sources. This includes materials from U.S., Soviet, United Nations, and Korean archives.

I utilize primary source materials not just to teach about the Jeju Massacre, but to teach about the entire post-liberation period that provides the context for the events of 1948-1949. For example, when teaching about the period after liberation until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48, I utilize materials from the U.S. National Archives, materials from the United Nations Archive (particularly from the summer of 1948), and the papers of key military officials in Korea, including General Hodge. I have obtained a number of materials from the personal papers of James H. Hausman and Leonard M. Bertsch deposited the Harvard Yenching Library. Both of these individuals were involved in the operations of the U.S. government in South Korea, and reported on operations on Jeju Island in 1948 and 1949. I have also obtained papers from the Army Heritage and Education Center in Carlyle Pennsylvania. These materials, which include the personal papers of Army officers, shed light on their thinking toward Korea, political actors in Korea, and developments on the peninsula in the late 1940s.

To teach about the broader international context of national division, I also use materials from former communist bloc archives. In particular, I ask students to read translations of documents I obtained from Russian archives that shed light on the activities of the Soviet-US Joint Commission.

1) See John Merrill,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Newark: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See also Merrill, “The Jeju-do Rebell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v. 2 (1980). Cumings discusses the massacre in his 2010 book, *The Korean War: A History* (New York: Random House).

2) See Sheila Miyoshi Jager, *Brothers at War: The Unending Conflict in Korea* (New York: Norton, 2013), pgs. 47-54.

The Soviet role in national division, I feel, is not well understood, or described in the available literature. Few works fully explore Soviet tactics in preventing Korean broader representation (beyond the Korean Worker's Party) in what would have constituted a Provisional Korean Government. Moscow blocked participation of any party that did not fully support the Moscow Declaration, which called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trusteeship over Korea, under which the Provisional Korean Government would prepare for full independence, with the guidance of Moscow and Washington. Soviet efforts to force the Korean Communist Party, and its leader, Park Heonyeong, to come out in support of this extremely unpopular declaration, which denied Koreans of the right to immediate political independence, have not been fully examined by scholars. By refusing to work with any parties that did not fully support the Moscow Declaration, the Soviets effectively sabotaged international efforts to peacefully reunify the two zones of occupation. After nearly two years of dealing with Moscow's obstructions, the U.S. walked away from the joint Soviet-U.S. Commission and handed the Korea question over to the United Nations, which then created UNTCOK.

My students have responded very well to my methods of teaching about the post-liberation period and the Jeju Massacre, and all seem very well-informed about the period. They particularly receptive to working with primary source materials from the period, and to get multiple perspectives on the developments that led up to the Jeju Massacre.

I was encouraged over the years by increasing efforts by the Republic of Korea since democratization to acknowledge the atrocities, and to seek to make amends through the official apologies. While President Moon's recent participation in the ceremony, and renewed apology, is welcomed, even more welcomed is the decision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to hold an exhibition on 4.3. The museum, which had a reputation as one that celebrated the achievements of Korea's past military leaders, especially Park Chung Hee and Chun Doo Hwan, is right to hold this exhibition to teach younger generations that the nation's path to modernity was complicated.

I recognize that I still have much to learn on the Jeju Massacre, and am grateful that I have been selected to participate in this week-long program in Korea. I look forward to the on-site visits, and to the seminar. I expect, that by participating in this seminar, I will be able to improve my ability to teach about the massacre, and hope to find ways to write about the events on Jeju, utilizing many of the primary source materials I have amassed over the years.

국제 관계 대학원 학생들에게 제주 학살 사건과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강의하며



Person, James F.
Professor of Korean Studies,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나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 관계 대학원 (Johns Hopkins University'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 SAIS)에서 한국학 교수를 맡고 있다. SAIS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 대학원 중 하나이다. 국제 관계 대학원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부서로 국제 문제, 경제, 외교, 정책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SAIS는 주로 공공 정책, 외교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SAIS는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나는 보다 넓은 역사적인 이해를 기를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한국학 과정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에 따라 SAIS 학생들은 현대 한반도의 발전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가르치는 모든 과정은 상당한 양의 독해와 토론을 요구하는 세미나이다.

SAIS에는 한국학 전공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학 학위를 받는 학생은 매년 8-10명 정도이며 학생 수가 매년 늘고 있다.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주로 한국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전략 연구, 갈등 관리, 또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 대한 연구와 같이 다른 분야를 연구하는 학생들도 내 수업을 종종 들곤 한다. 각 수업은 15명에서 18명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대학원 세미나에 적합한 크기이다. 각 수업은 150분 동안 진행된다. 나는 학생들이 필요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입문 강좌를 듣게 한다. 그런 다음 한 주 동안 읽어야 할 자료들에 대한 토론을 이끌도록 한 학생을 지목한다. 학생들은 세션의 나머지 부분 동안 읽기 자료를 논의하고, 이 과목이 한국에 대한 이해에 어떠한 도전 과제를 던지는지 평가하고, 현대 한반도의 발전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국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감안해 각 세션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끝난다. 이 질문은 지식이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의 한국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해 준다.

SAIS에서 나는 1948년부터 1949년 사이에 벌어진 제주 학살 사건을 둘러싼 일들을 다루는 두 개의 과정을 가르친다. 과정의 이름은 각각 "소용돌이의 정치?: 남한의 정치사"와 "두 개의 한국: 연구 및

기록"이다. 소용돌이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역사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치적 리더십 및 정치 제도의 발전에 관한 개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수업에서는 전 근대적 전통, 식민지 시대의 통제, 냉전 시대의 군사주의, 국내 정치의 분단 등에 대해 다룬다. 구체적인 주제에는 권위주의, 민주적 전환 및 통합, 시민 사회,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화, 한국 통일에 대한 논의 등이 포함된다.

"두 개의 한국"과정은 어떻게 한반도가 분단되게 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이 것이 어떻게 1945년 이래 대한민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사회 정치적, 문화적, 이데올로기 적 궤도를 형성했는지를 탐구한다. 학술적 글쓰기, 코스 자료, 소설 등을 사용해 이 코스는 식민주의, 공산주의, 근대화, 민족주의, 산업화, 이데올로기, 한미 및 중소-북한 관계 등 두 개의 한국을 이해하는 데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주제들을 탐험하고 있다.

제주 학살 사건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내 목표는 이 사건을 이 시대의 국내 및 국제적인 전개 양상 속에 배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나는 일본의 식민 통치에 관해 가르친다. 군사 통치, 문화 통치, 전시 동원 기간 동안 일본인들이 시행한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주권의 상실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특히 나는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 지도자들이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취한 다양한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다. 식민지 시대에 등장한 이러한 정치적 틈이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한국에 영향을 미친 국제 사회의 전개 양상을 고려해 나는 제 2 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군 회의에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을 배경 지식으로 제공한다. 여기에는 1943년 카이로 회의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을 자유 독립 국가로 만들기로 한" 결정과 1945년 알타 회의에서 한국과 소련이 일본에 대한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 포함된다. 이 부분을 지나면 미국과 소련이 한국에서 일본의 식민지 해체를 위해 책임을 분담하기로 한 미소간 합의와 두 개의 점령 지역을 설치한 일 등을 다룬다. 이 과정에서 남한의 미군정과 북한의 소련이 채택한 점령 정책을 살펴본다. 특히 남한과 관련해서는 한국 내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USAMGIK)의 설립과 30년이 넘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해방된 직후 인민 위원회가 실시한 대중 참여의 역압을 다룬다. 또한 나는 경찰의 진압과 관료적인 통제라는 강력한 도구를 확립한 우파적 요소에 대한 지지에 대해 가르친다.

북한에서 실시한 소련의 정책들에 대해 가르칠 때에는 해방 후 첫 주에 발생한 한국인들의 학대, 단기간의 혼란이 끝난 후 소련의 붉은 군대가 확립한 질서, 인민 위원회의 재구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나는 또한 1946년부터 조선 노동당이 장악했던 정치 제도의 설립을 소련이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가르친다 (1946년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병된 후).

마지막으로, 제주 대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나는 실패로 끝난 미소 합동 위원회를 통한 분단으로 이르는 길과 한국 문제를 새롭게 창설된 국제연합한국위원회 (UNTCOK)로 넘기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 등에 대해 가르친다. 학생들에게 1948년과 1949년 발생한 사건과 여수와 순천 사건을 소개하는데 있어서 이 모든 국제적, 국내적인 배경이 중요하다.

두 코스에서 실제 제주 학살 사건과 그 여파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약 15분 남짓에 불과하다. 한반도에서 두 개의 정권이 세워지고 미국과 소련의 점령 정책에 대해 다룰 때 제주 학살 사건과 그 여파를 간략하게 다룰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제주 학살 사건의 개략적인 윤곽에 대해 다룬다. 본토와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진보적인 인민위원회의 지도 하에 해방 초기 더 큰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음을 설

명한다. 그런 다음 국제연합한국위원회 (UNTCOK)가 자신의 점령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소련이 반대하면서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에 반대하는 제주 도민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건을 설명한다. 그런 다음 토착 농민 운동의 시작과 경찰 병력과 USAMGIK가 이 운동을 억압하기로 결정하면서 우파 단체가 이에 개입하면서 발생한 끔찍한 결과에 대해 다룬다. 양측 모두가 잔학 행위를 저지르긴 했지만 (경찰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된 사건) 새로 설립된 한국 정부가 사용한 방법은 특히 무자비했다. 미국 보고서에 따르면 수십 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의 유해가 발견된 현장에서 미국 관계자들이 정부가 자행한 잔학 행위의 증거를 밝혀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수치에 따르면 제주 학살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는 2만 7719명이지만 나는 실제 사상자 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가르친다. 실제 사상자 수가 3만 명을 넘길 수도 있다 (심지어 제주도지사는 미국 관료들에게 사상자 수가 6만 명에 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대략 잡아 제주도 인구의 10분에 1에 달한다. 또한 거의 4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식민 통치자였던 일본으로 탈출했다. 일본으로의 도주는 가볍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억압을 피하기 위해 대대로 살아온 집을 떠나 한국을 35년 이상 식민 통치했던 나라로 탈출했던 것이다. 이 사건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나는 1949년 4월 농민 운동이 진압될 당시 약 4만 채의 집이 파괴되고 제주도에 있는 400개의 마을 중 170개의 마을만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그런 다음 제주 봉기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채택한 가혹한 정책이 어떻게 1948년 여름 전라도 남부의 여수와 순천에서 군대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제주 대학살에 관한 강의는 약 15 분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학생들은 과제와 토론을 통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제주 학살 사건에 다루고 있는 영문 텍스트는 소수에 불과하다. 내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두 개의 텍스트는 은퇴 한 미국무부 관리인 존 메릴과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¹⁾. 이 책들은 대학살과 그 여파에 대해 상당한 세부 사항을 다루면서 기존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메릴은 국내의 주요 인물들에 초점을 맞춘 반면 (남한에서 UN이 감독하는 별도의 선거를 치르자는 요구에 뒤이은 남한 노동당의 활동 포함) 커밍스는 제주 대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군 지휘관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 다른 또 다른 학자들로는 셰일라 미요시 예거가 있다. 예거는 그의 책 전시의 형제들 (Brothers at War)에서 제주 4·3 사건에 까지 이르게 한 주요 사건들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²⁾.

위의 책들은 제주 4·3 사건의 배경과 제주 4·3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사건들과 제주 4·3 사건 자체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나는 학생들이 1948-1949년에 작성된 역사적인 문서들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을 내 수업에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 내 수업은 엄밀히 말하면 "역사" 수업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몇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자료들을 사용한다. 먼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 많은 수가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학생들이 미국과 다른 나라의 정부들이 출판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또

1) 존 메릴, 한국전쟁의 기원과 진실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뉴욕: 델라웨어 대학교 프레스, 1989)를 참조하라. 또한 메릴 제주도 반란, 한국학 저널, v.2 (1980)도 참조할 수 있다. 커밍스는 2010년 출판한 그의 책 "한국 전쟁: 하나의 역사 (뉴욕: 랜덤 하우스)"에서도 제주 4·3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 셰일라 미요시 예거, 전시의 형제들: 한국에서 발생한 끝없는 갈등 (뉴욕: 노트, 2013), 47-54페이지 참조.

한 주요 수업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이 보다 역사가처럼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수업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분석 및 해석하고, 사용 가능한 책들과 수업 자료를 통합하도록 시킨다. 이러한 방법은 또한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내가 배정한 학술 저서들을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자료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나는 다양한 출처들에서 자료를 찾아가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소련, 유엔, 한국의 기록 보관소에서 찾은 자료들이 포함된다.

나는 제주 학살 사건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1948-1949년의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방 후 전체 기간에 대한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수업 자료들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해방 후 1948년 대한민국이 설립되기까지의 기간을 가르칠 때에는 미국 국립 문서 보관소와 유엔 문서 보관소(특히 1948년 여름에 발간된 문서들)의 자료들과 한국에 주둔했던 주요 군사 관계자들(호지 장군 포함)이 작성한 문서들을 활용한다. 나는 하버드 옌칭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제임스 H. 하우스만과 레너드 M. 버치의 개인 논문에서 많은 자료를 얻었다. 두 사람 모두 남한에 있던 미국 정부의 활동에 관계되어 있었으며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제주도에 수행된 활동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나는 또한 펜실베이니아 칼라일에 있는 육군 유산 및 교육 센터에서도 논문을 확보했다. 육군 관료들의 개인적인 논문을 포함한 이와 같은 자료들은 한국과 한국의 정치가들, 1940년 대 후반 한반도에서 전개되던 상황에 대한 주요 인물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

한국을 분단시킬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을 가르치기 위해 나는 또한 전 공산권 국가들의 기록 보관소에서 확보한 자료들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나는 학생들에게 미소 공동 위원회의 활동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러시아 기록 보관소에서 확보한 번역된 자료들을 읽게 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분단되는 과정에 있어서 소련의 역할이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활용 가능한 문헌에 잘 기술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임시적인 한국 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었던 한국의 통합 대의권(한국 노동당을 넘어서는)을 막기 위해 소련이 취했던 전략에 대해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 문서는 거의 없다. 소련 정부는 모스크바 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참여를 막아 국제 사회가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를 채택하자는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소련과 미국 정부의 안내에 따라 임시 정부가 완전한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도였다. 조선 공산당과 그 지도자인 박헌영이 이 극도로 불공평한 선언(이 선언은 한국이 즉각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정하고 있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해 소련이 가한 활동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 학자들은 없다. 소련은 모스크바 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정당과는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한국에 있던 두 개의 점령 지역을 평화롭게 재 통일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효율적으로 저지했다. 미국은 소련의 이와 같은 방해 공작에 거의 2년간이나 대처 한 끝에 공동 미소 위원회에서 발을 빼기로 결정하고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겨버렸다. 이후 UNTCOK가 탄생하게 된다. 내 학생들은 한국의 해방 후 기간과 제주 학살 사건에 관한 내 교수법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를 통해 이 기간에 대해 잘 배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특히 이 기간에 작성된 주요 수업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과 제주 학살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을 듣는 것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

나는 대한민국이 민주화 후의 잔악 행위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통해 이를 보상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지난 수년간 격려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제주 4·3 사건 기념식에 참석한 것과 새롭게 공

식 사과를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하나 이 보다 더 반가운 것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제주 4·3 사건에 관한 전시회를 열기로 결정한 것이다. 과거 한국의 군사 지도자들 (특히 박정희와 전두환)의 업적을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유명한 이 박물관은 젊은 세대들에게 현대화를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이 복잡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와 같은 전시회를 마땅히 개최해야 한다.

나는 아직도 제주 학살 사건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번에 한국에서 일주일간 열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선정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현장 방문과 세미나를 기대하고 있다. 이 세미나에 참여함으로써 나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가르치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지난 수년간 축적해온 자료들을 활용하여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글을 쓰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Teaching Korean Contemporary history
in Paris Diderot University**
**파리 디드로 대학(Paris Diderot University)의
한국 현대사 교육**

Rivé-Lasan, Marie-Orange
Associate Professor in Korean Studies, Paris Diderot University,
Centre for Korean Studies, CCJ (CNRSEHESS-UPD)

Teaching Korean Contemporary history in Paris Diderot University



Rivé-Lasan, Marie-Orange¹⁾

Associate Professor in Korean Studies, Paris Diderot University, Centre for Korean Studies, CCJ (CNRSEHESS-UPD)

Abstract

In Paris Diderot University three historians are teaching Korean history to the 350 students enrolled in Korean studies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Korean studies programs. Pr. Yannick Bruneton is dealing with ancient history, with a speciality on Koryŏ era. Associate-Pr. Pierre-Emmanuel Roux focuses on pre-modern history, with a speciality on late Chosŏn era and early 20th century. I do teach contemporary Korean peninsula history including the 20th century and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I deal with the history of the Korean Empire, the colonial Korea,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so-called “third Korea”. Concerning the level of teachings, I have three separate classes to teach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s.

For the first year of the undergraduate program (total of 3 years), I teach “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Korean History” during the first semester. This class is compulsory for the first year students in Korean studies (about 130 students, including students repeating the year), but is also optional for students coming from other departments (about 60 more students). The class is given during 12 weeks with 3 hours per week. In 2017-2018, 193 students attended the class. The program is chronological. The “4·3 event” is taught during the course concerning the after 1945 Liberation period.

Concerning the 2nd year of the undergraduate program, I teach “Socio-political history of Korea” during the second semester. This class is optional for the Korean studies students (one choice out of four), but students from other departments can also attend the class. In spring 2018, 83 students attended the class. The program is organised according to subjects. The “4·3 event” is taught during the course concerning the history of the State repression of civil society.

1) Associate professor, *East Asia Language and Civilisation Department* (UFR LCAO) in Paris Diderot University (Paris 7, Sorbonne Paris Cité). Member of the *Centre for Korean Studies Center in the China, Korea, Japan Laboratory* (UMR 8173 CCJ, CNRS-EHESS-UPD)

Finally, I propose in the master program a research seminar opened to the first and the second year of master program, “Social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 As it is a research seminar course, and as the students can attend to it during the first and the second year of their master, the content of the seminar is changing every year. For example, in 2017-2018, the subject was “the South Korean elite originating from the northern part of the peninsula who established in the South before the end of the Korean war.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We worked about biographies of *Silhyang-min* of the first or second generation. The “4·3 event” was taught during the course when we took into consideration the case of Syngman Rhee President, or Paik Sönyöp, and the use made of the *Söbuk ch'öngnyön-dan* militia in the South against Communists. 13 students attended the seminar in 2017-2018 (9 master 1 students, 4 “master 2” students).

The *Korean studies section* at the Paris Diderot University²⁾ was set up in the early 1970's by Pr. Charles Haguenaer, the founder of Korean studies in France, and by the Korean historian Pr. Li Ogg who put Korean studies on the map in Europe, especially through AKSE³⁾. This section is part of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sations (UFR LCAO)⁴⁾ and offers comprehensive university courses in Korean languages and civilisation for undergraduate, master and doctorate levels, which are increasingly in demand since 2010. The permanent faculties of the the *Korean studies section* are also members of the *Centre for Korean Studies Center* in the *China, Korea, Japan Laboratory* (UMR 8173 CCJ, CNRS-EHESS-UPD).

More than 350 students are currently enrolled in the *Korean studies section* at the Paris Diderot University. There is a *numerus clausus* since 2012 . The section received more than 1 400 applications this year. 135 students will be able to enrol on the first year of undergraduate level in 2018-2019. The growing number of students also led to the creation of three new faculty positions. In 2019-2020, we will be 9 permanent faculty members with 2 linguists, 3 historians, 3 anthropologists and one more faculty to be recruited next year. The master program is given jointly with the INALCO Korean studies faculties (5 permanent faculties + 2 in 2019-2020), and students can attend the research seminars given at EHESS (3 permanent faculties).

Paris Diderot University is a member of “*Paris Consortium – Réseau des études sur la Corée* (RESCOR)⁵⁾” with two other Parisian institutions: INALCO and EHESS, where are Korean studies in Paris. Beyond joint research projects, the RESCOR develops a Francophone Korean studies network

2) <https://www.univ-paris-diderot.fr/>

3) http://94.136.40.103/~koreanstudies.eu/?page_id=54

4) http://w3.univ-paris-diderot.fr/ufr_lcao/pg.php?np=MOTDIR

5) <http://www.reseau-etudes-coree.univ-paris-diderot.fr/> and <http://parisconsortium.hypotheses.org>

and a new generation of French Koreanists through on-line materials (articles and translations), the production of educational materials in French, and a blog featuring all academic events and publications in Francophone Korean studies. This programme had been supported for five years b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SPS Core-University) and was renewed for another five years in 2015. The Korean studies section of Paris Diderot University hosts the RESCOR office.

Concerning our students : following the French public education system, there was no entrance examination, nor selection of students until now. The selection is done during the exams period, especially the first year (58 % of the first year students pass successfully the exams and attend the second year ; 64 % of the second year students pass successfully the exams and attend the third year ; and 74 % of the third year students pass successfully the exams and get the diploma). Students have the right to repeat a year. There is a selection of students for the entrance in the Korean studies master program based on a research project and the level of Korean or French language. The master students can be Koreans.

In Paris Diderot University three historians are teaching Korean history to the 350 students enrolled in Korean studies in undergraduate, graduate, and PhD Korean studies programs⁶⁾. Pr. Yannick Bruneton is dealing with ancient history, with a speciality on Koryŏ era. Associate-Pr. Pierre-Emmanuel Roux focuses on pre-modern history, with a speciality on late Chosŏn era and early 20th century. I do teach contemporary Korean peninsula history including the 20th century and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I deal with the history of the Korean Empire, the colonial Korea,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so-called “third Korea”. Concerning the level of teachings, I have three separate classes to teach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s.

In this paper, I will present the content and philosophy of the three courses I teach and put the emphasis on the parts concerning the 4·3 event history.

1. “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Korean History”

For the first year of the undergraduate program, I teach “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Korean History (44AE07LK - INTRODUCTION À L’HISTOIRE CONTEMPORAINE DE LA CORÉE 현대사 입문 (36h))” during the first semester. This class is compulsory for the first year students in Korean studies (about 140 students, including students repeating the year), but is also optional for students coming from other departments (about 60 more students). The class is given during 12 weeks with 3 hours per week. In 2017-2018, 193 students attended the class. The program is chronological. Two courses are devoted to the watching of documentaries and the meeting with the director.

6) The programs can be download at : http://w3.univ-paris-diderot.fr/ufr_lcao/pg.php?np=BROCHURES

I teach the two first hours (general history) and Pr. Eunsil Yim is teaching the last hour (focus). Our goal is to provide to students a presentation of Korea in the 20th century and to give them points of reference and landmarks in order to understand the two Koreas current affairs and news. We offer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Koreas contemporary societies and their relations with the rest of the world.

In order to pass the exam, the students have to prepare a note about a book dealing with contemporary Korea and present it verbally, complete some readings and answer questions about it in the on-line system (Moodle), and pass the university term-end examination (3 hours : multiple-choice questionnaire and a dissertation/ essay)

The “4·3 event” is taught during the 5th course concerning the after 1945 Liberation period. I present 8 slides about :

- the context of the disagreements between Soviets and Americans in Korea after 1945
- the organisation of general elections in 1948
- photo of the General election (votes) in the South
- results of the votes in the South
- details about the Jeju “uprising”
- what is at stake in the Jeju “uprising” / citizens-State opposition
- assessment of the Jeju “uprising”
- about the truth and national reconciliation / the role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 explain roughly the Jeju events, but also how it has been taken into account in the collective memory and the national history.

The indicative bibliography given for the 5th course is as follow :

A concise History of Modern Korea :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Michael J. Seth, Rowmann & Littlefield, 2010 (chapitre 3)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Korea – Tradition & Transformation, Andrew C. Nahm, Hollym, 1988, (Chapitre 9)

A New History of Korea, Ki-baik Lee, Ilchogak, 1984 (chapitre 16 The beginnings of Democracy)

Histoire de la Corée, André Fabre , Éditions de l’Asiathèque

Korea Old and New : A history, Carter J. Ekert, Ki-baik Lee, Young Ick Lew, Michael Robinson, Edward W. Wagner, Ilchogak (for Kor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1994 (chapters 18)

Korea's Place in the Sun : A modern History, Bruce Cumings, WW Norton & Company, 1997 (chapters 4 et 5)

La Corée des origines à nos jours, Li Ogg, Léopard d'Or / Aesan Hakhoe, 1989 (Livre IX, chapters 1 & 2)

La Corée, Claude Balaize, Li Jin-Mieung, Li Ogg, Mar Orange, PUF, que sais-je ?, 1991 (pp. 74-78)

La Nouvelle Question d'Extrême-Orient : L'ère de la Guerre froide (1945-1959), François Joyaux, Payot, 1985 (Chapitre 1, Chapitre 5, Chapitre 9)

The Unending Korean War – A Social History, Dong-Choon Kim, 2000, Tamal vista publications, traduit du coréen en 2009, 321p.

Contributeurs à Wikipedia, '*Soulèvement de Jeju*', Wikipédia, l'encyclopédie libre, 11 septembre 2017, [Page consultée le 11 septembre 2017], https://fr.wikipedia.org/w/index.php?title=Soul%C3%A8vement_de_Jeju&oldid=140578599

Contributeurs de Wikipédia, "*Guerre de Corée*," Wikipédia, l'encyclopédie libre, https://fr.wikipedia.org/w/index.php?title=Guerre_de_Cor%C3%A9e&oldid=148661348 (Page consultée le mai 20, 2018).

The course program :

Séances	Jedi	14h45-16h45 M-O Rivé-Lasan	FOCUS 16h45-17h45 Eunsil YIM
1	21/09/17	<p>Introduction : Généralités sur l'organisation du cours, les modalités de contrôle des connaissances, et sur le programme <i>Qu'est-ce que la Corée aujourd'hui ? Qu'est-ce que l'Histoire contemporaine de la Corée ? Quelle période ? Quel objet ?</i> PROJECTION COMMENTÉE : <i>Corée, L'impossible Réunification (Partie 1)</i>, documentaire de Pierre-Olivier François, 2013, 50 minutes, ARTE https://www.youtube.com/watch?v=ksC3Gpi631g</p>	
2	28/09/17	<p>La péninsule coréenne à la fin du 19ème siècle : évolutions politiques, sociales, intellectuelles, religieuses et géopolitiques <i>De la fin du Royaume Chosŏn ermite... Bouversements d'un ordre socio-politique vieux de 500 ans.</i></p>	<p>Les mouvements de protestations : Les réformateurs autour de l'<i>Association pour l'indépendance</i> (Tongnip hyŏphoe 1896-1899) et les révoltes paysannes</p>
3	05/10/17	<p>De l'Empire de Corée à l'annexion de la Corée par le Japon, 1876-1910 <i>Le passage à la modernité au prix de la perte de la souveraineté coréenne ?</i></p>	<p>Biographie du Roi - Empereur Kojong (광무제 光武帝 Gwangmuje), (8/9/1852-21/01/1919), 26^e roi de la dynastie des Yi du Royaume Chosŏn, premier Empereur de Corée. Règne de 1863 à 1907.</p>
4	12/10/17	<p>La colonisation japonaise en Corée 1910-1945 <i>Conséquences socio-politico-économiques de la colonisation. Le mouvement d'indépendance à l'étranger. Quel héritage ?</i></p>	<p>Collaborateurs et résistants : Deux trajectoires d'écrivain coréen sous l'occupation japonaise : les cas de Yi Kwang-Su et Hong Myŏng-Hŭi</p>
5	19/10/17	<p>1945 et 1953 : l'époque de la « Libération » sous tutelle <i>De la démilitarisation des Japonais en 1945 à la fin (?) de la Guerre de Corée en 1953. Fondation des deux États coréens. La non-frontière entre les deux États.</i></p>	<p>Projets contre projets : Deux figures du leader politique dans la Corée libérée : Kim Ku et Yŏ Un-Hyŏng (Yeo Un-Hyung). Syngman Rhee.</p>

Séances	Jeudi	14h45-16h45 M-O Rivé-Lasan	FOCUS 16h45-17h45 Eunsil YIM
6	26/10/17 semaine de lecture	Corée du Sud : de la 1ère à la 6ème République : organisation politique <i>Vers la démocratisation ?</i>	Le Président Park Chung-Hee (Pak Chōng-Hūi) (1917-1979) : dictateur ou père de la nation ? Figure d'un dictateur.
7	02 ou le 09/11/15	PROJECTION COMMENTÉE : <i>Corée, L'impossible Réunification (Partie 2)</i> , documentaire de Pierre-Olivier François, 2013, 50 minutes, ARTE Rencontre avec le réalisateur. https://www.youtube.com/watch?v=W5bFJ5fTLiA	Les projets et les visions de la Réunification ...
	09/11/15	Rendre la fiche de lecture sur Moodle dans l'espace du cours	
8	16/11/17	Corée du Sud : histoire du développement économique <i>Miracle économique ?</i>	Acteurs économiques : Chaebōl et ouvriers : Yi Byōng-Ch'ōl (Lee Byung-Chul), fondateur de Samsung / Chōn T'ae-Il, symbole du mouvement ouvrier
9	23/11/17	Corée du Nord :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1948-...) <i>Logique et priorités idéologiques ?</i>	Le Président éternel Kim Il-Sung (Kim Il-Sōng) (1912-1994) et la fabrique d'une hagiographie.
10	30/11/17	Corée du Nord : organisation économique <i>Mythes et réalités ?</i>	Le Sommet inter-coréen (2000) et les deux figures de dirigeant Kim Dae-Jung (Kim Tae-Chung) et Kim Jong-Il (Kim Chōng-Il).
11	07/12/17	La Corée du Sud et la Corée du Nord aujourd'hui <i>En crise ? Les enjeux majeurs.</i>	Suicides et exécutions : Sur la mort de l'ancien président No Mu-Hyōn (Roh Moo-Hyun) en 2009.
12	14/12/17	La « troisième Corée » : <i>les Coréens dans le monde et les étrangers en Corée</i>	Les réfugiés nord-coréens en Corée du Sud
Oraux	Semaine du 18 au 22 déc. 2017	Présentation des fiches de lecture à l'oral pour le contrôle continu	(10 minutes de préparation / concentration ; 5 minute de présentation + 5 minutes de questions)
Examen	Semaine du 8 janvier 2018	QCM + question de cours	2 heures

2- “Socio-political history of Korea”

Concerning the 2nd year of the undergraduate program, I teach “Socio-political history of Korea (44EE08LK - Histoire socio-politique de la Corée (1945-) 정치 및 사회사 (24h))” during the second semester. This class is optional for the Korean studies students (one choice out of four), but students from other departments can also attend the class. In spring 2018, 83 students attended the class. The program is organised according to subjects with the goal of explaining the socio-political organ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fter 1945.

Students have to complete some readings and answer questions about it in the on-line system (Moodle), participate in a on-line forum about Korea current affairs and pass the university term-end examination (3 hours : multiple-choice questionnaire and a dissertation/ essay).

The “4·3 event” is mentioned during the course concerning the history of the State repression of civil society (6th course about independence movements and 12th course about resistance against the State).

The course program :

Séances	Date	Programme et invités
	24/01/2018	Cours annulé.
1	31/01/2018	Introduction : le contexte de la péninsule coréenne de l'après 1945 : Un passé commun, mais deux Etats. ; Repères chronologiques ; Repères linguistiques (transcription des noms, lieux...)
2	07/02/2018	Les différents types de régimes politiques présents sur la péninsule à partir de 1945 : en Corée du Nord et en Corée du Sud ; Tutelles américaine ou soviétique, régimes autoritaires et totalitaires, dictature militaire, système démocratique parlementaire, système démocratique présidentiel, régimes en guerre, démocraties, etc....
3	14/02/2018	(suite)
4	21/02/2018	L'année 2017 en Corée du Sud.
5	21/02/2018 : de 18h à 20h	Projection débat du documentaire : “ <i>Songs from the North</i> ” - Corée du Sud, États-Unis, Portugal 2014 72 minutes / Soon-Mi YOO (Documentaire sur la société nord-coréenne à travers les chansons...)
	28/02/2018	Pas cours pendant la semaine de lecture.
6	07/03/2017	Les mouvements de résistance à l'Occupation japonaise : comparaison concernant leurs place dans la mémoire collective et leurs conséquences en Corée du Sud et en Corée du Nord après la Libération. ; Histoire de la résistance, question de la collaboration, le « camp » des pro-japonais et leurs descendants, l'épuration à la Libération, etc... ; la Collaboration ; lieux de mémoire
7	14/03/2017	Idéologies politiques et organisation socio-économique 1 de la péninsule coréenne de l'après-1945 : les choix de société en matière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 L'économie de marché avant et après la crise de 1997 ; L'économie socialiste à la soviétique avant et après l'effondrement du bloc soviétique de 1989

Séances	Date	Programme et invités
8	21/03/2017	(suite)
9	28/03/2017	Idéologies politiques et organisation de la société 1 sur la péninsule coréenne de l'après-1945 : comparaison des choix de société en matière d'organisation sociale au Nord et au Sud ; Les classes sociales, la démographie ; Les groupes sociaux ; Les minorités marginalisées ; Les institutions religieuses
10	04/04/2017	(suite)
11	11/04/2017	L'élite de la nation : élites du pouvoir, contre-pouvoirs, reproduction des élites, trajectoires sociales ; Cas de la Corée du Nord ; Cas de la Corée du Sud ; Dialogue impossible ?
	17/04/2017	Vacances
	25/04/2017	Vacances
12	02/05/2017	Résistance ou Adhésion face aux régimes politiques en place : les divers mouvements sociaux ou initiatives individuelles les mouvements étudiants et syndicaux en Corée du Sud le culte de la personnalité du Grand Leader en Corée du Nord et ses conséquences ; la liberté d'expression

3- “Social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

Finally, I propose in the master program a research seminar opened to the first and the second year of master program, “Social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 (44OE02KR ou 44RE02KR Séminaire de recherche en histoire contemporaine de la Corée”. As it is a research seminar course, and as the students can attend to it during the first and the second year of their master, the content of the seminar is changing every year. 13 students attended the seminar in 2017-2018 (9 “master 1” students, 4 “master 2” students). During the seminar, we analyse different kind of text or videos from Korean or western sources about contemporary history including North and south Korea. The aim is to compare the different ways to write and build the Korean history in different political and historical contexts where history discourses are produced.

There are no term examinations in research seminars, but students have to be active during the seminar by contributing with oral presentations about biographies and places of memory. A term paper is requested with one of the following subject : “What I have learnt about the “making of Korean history” in the seminar ?” or “A biography with annotations”

For example, in 2017-2018, the subject was “the South Korean elite originating from the northern part of the peninsula who established in the South before the end of the Korean war.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We worked about biographies of *Silhyang-min* of the first or second generation. The “4·3 event” was taught during the course when we took into consideration the case of Syngman Rhee President, or Paik Sŏnyŏp, and the use made of the *Sŏbuk ch'ŏngnyŏn-dan* militia in the South against

Communists.

In 2018-2019, the subject of the seminar will be anarchists and anarchism in Korea. The link with « 4·3 » events is not obvious, so it is not certain that we will talk about it next academic year.

The master seminar program in 2017-2018 :

	Thème de la séance	Exposé : Portraits (Biographie)
1	Introduction	-
2	Elite issue de la résistance sous la colonisation japonaise	Un homme politique : 김구 (金九), Kim Ku, né à Haeju le 29/08/1876-26/06/1949), du Gouvernement provisoire coréen en exil.
3	Elite issue de la collaboration sous la colonisation japonaise	Un militaire : 백선엽(白善燁) Paek Sŏn-yŏp Paik Sun-yup, (23/11/ 1920-..., Kangso, Corée du Nord), premier général quatre étoiles de la Corée du Sud. (Mandchoukouo, puis la Corée du Sud, notamment pendant la guerre de Corée).
4	Les hommes d'État	Un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이승만 (李承晩) Yi Sŭng-Man, Syngman Rhee (26/03/1875-19/07/1965, né à Pyongsan, Hwanghae du Nord, mort à Honolulu), homme d'État sud-coréen
5	Les élus à l'Assemblée nationale	Un député de gauche : 노회찬 (魯會燦) No Hoe-Ch'an, Roh Hoe-Chan, (31/08/1956, né à Pusan), homme politique élu député (17-19-20), (홍남·정의당, 2016).
6	Les leaders politiques	Un représentant de parti politique progressiste : 우원식(禹元植), U Wŏn-Sik, Woo Won-Sik (18/09/1957-..., né à Séoul) (연백·더불어민주당)
7	La haute administration et les membres du gouvernement	Un chef de la KCIA : Un proche du Général Park Chung-Hee, militaire devenu homme politique : 김형욱(金炯旭) Kim Hyŏng-uk, (16/01/1925-07/10/1979, né à Sinch'ŏn, Hwanghae).
8	Les grands patrons	Un chef d'entreprise : 정주영(鄭周永), Chŏng Chu-Yŏng, (25/11/1915-21/03/2001, né à T'ongch'ŏn, Kangwŏn), fondateur du groupe <i>Hyundai</i> .
9	Les hommes des media	Un propriétaire de journal : 방응모(方應謨) Pang Ŭng-Mo (29/9/1883?- ?/08/1950, P'yŏng'an nord), <i>Chosun Ilbo</i> .
10	Les religieux	Un pasteur / éducateur : 백낙준(白樂濬), Paek Nak-Chun, Baek Nak-Jun, (09/03/ 1895-13/01/1985, né dans le P'yŏng'an du Nord (<i>Changno</i> kyohoe , Président de <i>Yonsei</i> (1957-1960).
11	Les intellectuels	Un écrivain : 황석영(黃皙暎), Hwang Sŏk-Yŏng (04/01/1943-..., né à Changch'un en Mandchourie et rentre à P'yongyang en 1945)

Concluding remarks

The « 4·3 » events are taught in Paris Diderot University, not only in History courses, but also in the courses of Pr. Florence Galmiche, one of the anthropologist who study ghosts and haunting memory. It is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undergraduate course that the more information are given to students about « 4·3 » events history.

My « 4·3 » history teachings include a reflexion about the making of history in South Korea.

The sources of the informations are in English or Korean, but the readings for the undergraduate students are only in French or in English.

We need a documentary with English or French subtitles as pedagogic tool. Books in French are also needed.

Bibliography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원 Asia Africa Latin America yŏn'guwŏn 엮음, <제주민중항쟁 Jeju minju hangjaeng 1>, 소나무 Sonamu, 1988, 497쪽.

Kim, Hun-Joon (1975-), *The massacres at Mt. Halla : sixty years of truth seeking in South Korea* / 2014

National Committee for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The Jeju 4·3 incident investigation report*, Jeju 4·3 Peace Foundation / 2014

파리 디드로 대학(Paris Diderot University)의 한국 현대사 교육



Rivé-Lasan, Marie-Orange¹⁾

Associate Professor in Korean Studies, Paris Diderot University, Centre for Korean Studies, CCI (CNRSEHESS-UPD)

초록

파리 디드로 대학에서는 세 명의 역사학 교수가 한국학 학부생과 한국학 프로그램 대학원생들 총 350명에게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다. Yannick Bruneton교수는 고대사를 가르치며, 전문분야는 고려 시대이다. 부교수 Pierre-Emmanuel Roux는 근대에 집중하며, 조선 후기와 20세기 초 전문이다. 필자는 20세기와 21세기 초를 포함한 한반도 현대사를 가르친다. 필자는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북한, 남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제 3의 한국 (third Korea)”을 다룬다. 필자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세 개의 수업을 가르친다.

(3년제) 학부 프로그램 1년차 첫 학기에 필자는 “한국 현대사 입문”을 가르친다. 이 수업은 한국학과 1학년 (유급생 포함 약 130명)의 필수 과목이지만, 기타 학과 전공생들(약 60명 이상)에게는 선택 과목이다. 이 수업은 주당 3시간씩 12주간 진행된다. 2017-2018년에 193명의 학생이 이 수업을 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연대 순서를 따른다. “제주 4·3사건”은 1945년 해방기 이후 수업 시간에 가르친다.

학부 프로그램 2년차 2학기에 필자는 “한국의 사회 정치사”를 가르친다. 이 수업은 한국학과 학생들에게는 선택 과목이지만 (4개 수업 중 하나 선택), 다른 학부 전공생들도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2018년 봄 학기에는 83명의 학생이 수강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제에 따라 진행된다. “제주 4·3사건”은 시민 사회에 대한 국가 억압의 역사를 가르칠 때 다룬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석사 프로그램에서 1학년, 2학년에게 연구 세미나 “한국 현대 사회사”를 가르친다. 연구 세미나 코스이고 학생들이 석사 프로그램 1년, 2년차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미나 내용은 매년 바뀐다. 예를 들어, 2017-2018년에는 그 주제가 “한국전쟁이 끝나기 전에 남한에 정착한 북한 출신 남한 엘리트. 1, 2세대”였다. 우리는 1, 2세대 실향민의 전기들을 살펴 보았다. “제주 4·3사건”은 이승만 대통령 또는 백선엽의 사례와 남한에서 반공산주의적인 서북청년단 민병대를 어떻게 활용

1) 부교수, 동아시아 언어 문명 학부(UFR LCAO), 파리 디드로 대학 (파리 7대학, Sorbonne Paris Cité), 중, 한, 일 연구소의 한국학 센터 위원회 (UMR 8173 CCI, CNRS-EHESS-UPD)

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에 다루었다. 2017-2018년에 학생 13명이 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석사 1학년 9명, 석사 2학년 4명).

파리 디드로 대학의 *한국학과*²⁾ 1970년대 초기에 프랑스 한국학 창립자인 Charles Haguenaer 교수와 유럽에서 특히 AKSE를 통해 한국학을 발전시킨 한국역사학자인 Li Ogg교수에 의해 설립되었다³⁾. 디드로 대학의 한국학과는 동아시아 언어문명학부(UFR LCAO)⁴⁾에 속하며, 학부생, 석사, 박사 과정 학생에게 2010년 이래로 점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와 문명에 관한 종합 대학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학과*의 영구직 교수들은 *중. 한. 일 연구소의 한국학 센터 위원회* (UMR 8173 CCJ, CNRS-EHESS-UPD)의 위원직을 겸임하고 있다.

현재 350명 이상의 학생들이 파리 디드로 대학 *한국학과*에 등록 중이다. 2012년 이래로 학생 정원제가 시행되었다. 한국학과에는 올해 1,400명 이상이 지원했고, 2018-2019년에는 135명의 학생들이 학부 과정 1학년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학생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교수직 3개를 수립하게 되었다. 2019-2020년에 우리는 총 9명의 영구직 교수를 두게 될 것이다. 언어학 2명, 역사학 2명, 인류학 교수 3명과 내년에 고용할 기타 전공 교수 한 명으로 구성된다. 이 석사 프로그램은 INALCO 한국학 교수진과 (영구직 교수 5명+ 2019-2020년에 2명 추가) 공동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EHESS에서 열리는 연구 세미나에도 (영구직 교수 3명) 참석할 수 있다.

파리 디드로 대학은 파리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다른 두 기관, 즉 INALCO와 EHESS와 함께 “*파리 컨소시엄 한국 연구 네트워크* (Paris Consortium - Réseau des études sur la Corée, RESCOR)”의 회원이다⁵⁾. 공동 연구 프로젝트 외에도, RESCOR는 프랑스어로 가르치는 한국학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온라인 자료 (기사, 번역물), 프랑스어 교육 자료 제작, 프랑스어로 가르치는 한국학의 모든 학술 행사와 출간물에 대한 블로그 홍보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프랑스어 한국학자들을 배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5년간 후원했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도 후원을 지속할 것이다. 파리 디드로 대학 한국학과는 RESCOR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 현재 프랑스 공공교육 체제를 따라 입학 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생을 따로 선발하지도 않고 있다. 우리는 학기 중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데, 특히 1학년 때 판가름이 크게 난다 (1학년 학생 중 58%가 시험에 합격하여 2학년을 다니고, 2학년 학생 64%가 시험에 통과하여 3학년을 다닌다. 그리고 3학년 학생 74%가 시험에 통과하여 학위를 취득한다). 학생들은 유급할 수도 있다. 한국학 석사 프로그램은 연구 프로젝트와 한국어나 프랑스어 실력에 따라 입학생을 선발한다. 한국인이 석사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

파리 디드로 대학에서는 3명의 역사학 교수가 한국학과 학부생, 대학원생과 한국학 박사 프로그램

2) <https://www.univ-paris-diderot.fr/>

3) http://94.136.40.103/~koreanstudies.eu/?page_id=54

4) http://w3.univ-paris-diderot.fr/ufr_lcao/pg.php?np=MOTDIR

5) <http://www.reseau-etudes-coree.univ-paris-diderot.fr/> and <http://parisconsortium.hypotheses.org>

을 수강 중인 350명의 학생에게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다⁶⁾. Yannick Bruneton 교수는 고대사를 가르치며, 전문분야는 고려 시대이다. 부교수 Pierre-Emmanuel Roux는 근세에 집중하며, 조선 후기와 20세기 초 전문이다. 필자는 20세기와 21세기 초를 포함한 한반도 현대사를 가르친다. 필자는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북한, 남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제 3의 한국 (third Korea)”을 다룬다. 필자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세 개의 수업을 가르친다.

본 발표는 필자가 가르치는 세 교과과정의 내용과 철학을 제시하고,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할 것이다.

1. “한국 현대사 입문”

학부 프로그램 1학년생에게 필자는 “한국 현대사 입문 (44AE07LK - INTRODUCTION À L’HISTOIRE CONTEMPORAINE DE LA CORÉE 현대사 입문 (36시간)”을 첫 학기에 가르친다. 이 수업은 한국학과 1학년 (유급생 포함 약 140명)의 필수 과목이지만, 기타 학과 전공생들(약 60명 이상)에게는 선택 과목이다. 이 수업은 주당 3시간씩 12주간 진행된다. 2017-2018년에 193명의 학생이 이 수업을 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연대 순서를 따른다. 강의 두 회에서 다큐멘터리를 감상하고 책임자를 만나는 시간이 있다.

필자가 첫 2시간을 (종합 역사), 임은실 교수가 마지막 1시간을 (집중 교육) 가르친다. 우리의 목표는 학생들이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뉴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20세기의 한국 모습을 알려주고 유용한 참고자료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현대사와 한반도와 다른 국가의 관계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시험에 통과하려면 학생들은 한국 현대사를 다루는 서적 한 권을 읽고 그에 대해 구술 발표하고, 온라인 시스템 (Moodle)에서 여러 자료를 읽고 그에 관한 질문에 답해야 하며, 대학 기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3시간: 선다형 시험, 논문/에세이).

“제주 4·3 사건”은 1945년 해방기 이후를 다루는 5번째 강의에서 가르친다. 필자는 다음 주제에 관한 8개의 슬라이드를 제시한다.

- 1945년 후 한국에서 있었던 소련과 미국의 갈등 상황
- 1948년 총선 구성
- 남한 총선 사진
- 남한 선거 결과
- 제주 “항쟁”의 세부정보
- 제주 “항쟁”의 이해관계/시민-국가의 억압
- 제주 “항쟁”의 평가
- 진실과 국가적 화합/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6) 다음 주소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가능: http://w3.univ-paris-diderot.fr/ufr_lcao/pg.php?np=BROCHURES

필자는 제주 4·3사건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지만 집단 기억과 국사 측면에서 어떻게 이를 다루어 왔는지를 빼놓지 않고 언급한다.

5번째 강의에 사용되는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A concise History of Modern Korea: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한국 현대사 개괄: 19세기 후반에서 현재까지], Michael J. Seth, Rowmann & Littlefield, 2010 (3장)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Korea - Tradition & Transformation [한국인의 역사: 한국-전통과 변화], Andrew C. Nahm, Hollym, 1988, (9장)

A New History of Korea [한국의 새로운 역사], Ki-baik Lee[이기백], 일조각, 1984 (16장, 민주주의의 시작)

Histoire de la Corée, André Fabre, Éditions de l'Asiathèque

Korea Old and New: A history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 역사], Carter J. Ekert, 이기백, 유명익, Michael Robinson, Edward W. Wagner, 일조각 (하버드 대학교 Kora Institute), 1994 (18장)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한국 현대사 조명], Bruce Cumings, WW Norton & Company, 1997 (4, 5장)

La Corée des origines à nos jours, Li Ogg, Léopard d'Or / Aesan Hakhoe, 1989 (Livre IX, 1, 2장)

La Corée, Claude Balaize, 이진명, Li Ogg, Mar Orange, PUF, que sais-je?, 1991 (pp. 74-78)

La Nouvelle Question d'Extrême-Orient: L'ère de la Guerre froide (1945-1959), François Joyaux, Payot, 1985 (1, 5, 9장)

The Unending Korean War - A Social History [끝나지 않는 한국전쟁-사회적 역사], 김동춘, 2000, Tamal vista 출판, 2009년 한국어 번역판, 321p.

Contributeurs à Wikipedia, 'Soulèvement de Jeju', Wikipédia, l'encyclopédie libre, 11 septembre 2017, [Page consultée le 11 septembre 2017], https://fr.wikipedia.org/w/index.php?title=Soul%C3%A8vement_de_Jeju&oldid=140578599

Contributeurs de Wikipédia, "Guerre de Corée," Wikipédia, l'encyclopédie libre, https://fr.wikipedia.org/w/index.php?title=Guerre_de_Cor%C3%A9e&oldid=148661348(Page consultée le mai 20, 2018).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다.

Séances	Date	Programme et invités
	24/01/2018	Cours annulé.
1	31/01/2018	Introduction : le contexte de la péninsule coréenne de l'après 1945 : Un passé commun, mais deux Etats. ; Repères chronologiques ; Repères linguistiques (transcription des noms, lieux...)

Séances	Date	Programme et invités
2	07/02/2018	Les différents types de régimes politiques présents sur la péninsule à partir de 1945 : en Corée du Nord et en Corée du Sud ; Tutelles américaine ou soviétique, régimes autoritaires et totalitaires, dictature militaire, système démocratique parlementaire, système démocratique présidentiel, régimes en guerre, démocraties, etc....
3	14/02/2018	(suite)
4	21/02/2018	L'année 2017 en Corée du Sud.
5	21/02/2018 : de 18h à 20h	Projection débat du documentaire : “ <i>Songs from the North</i> ” - Corée du Sud, États-Unis, Portugal 2014 72 minutes / Soon-Mi YOO (Documentaire sur la société nord-coréenne à travers les chansons....)
	28/02/2018	Pas cours pendant la semaine de lecture.
6	07/03/2017	Les mouvements de résistance à l'Occupation japonaise : comparaison concernant leurs place dans la mémoire collective et leurs conséquences en Corée du Sud et en Corée du Nord après la Libération. ; Histoire de la résistance, question de la collaboration, le « camp » des pro-japonais et leurs descendants, l'épuration à la Libération, etc... ; la Collaboration ; lieux de mémoire
7	14/03/2017	Idéologies politiques et organisation socio-économique 1 de la péninsule coréenne de l'après-1945 : les choix de société en matière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 L'économie de marché avant et après la crise de 1997 ; L'économie socialiste à la soviétique avant et après l'effondrement du bloc soviétique de 1989
8	21/03/2017	(suite)
9	28/03/2017	Idéologies politiques et organisation de la société 1 sur la péninsule coréenne de l'après-1945 : comparaison des choix de société en matière d'organisation sociale au Nord et au Sud ; Les classes sociales, la démographie ; Les groupes sociaux ; Les minorités marginalisées ; Les institutions religieuses
10	04/04/2017	(suite)
11	11/04/2017	L'élite de la nation : élites du pouvoir, contre-pouvoirs, reproduction des élites, trajectoires sociales ; Cas de la Corée du Nord ; Cas de la Corée du Sud ; Dialogue impossible ?
	17/04/2017	Vacances
	25/04/2017	Vacances
12	02/05/2017	Résistance ou Adhésion face aux régimes politiques en place : les divers mouvements sociaux ou initiatives individuelles les mouvements étudiants et syndicaux en Corée du Sud le culte de la personnalité du Grand Leader en Corée du Nord et ses conséquences ; la liberté d'expression

2. “한국 사회 정치사”

학부 2학년생을 대상으로 2학기에 필자는 “한국 사회 정치사 (44EE08LK - Histoire socio-politique de la Corée (1945-) 정치 및 사회사 (24시간))”를 가르친다. 이 수업은 한국학과 학생에게는 선택사항이고 (4개 수업 중 1개 선택), 다른 학과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다. 2018년 봄 학기에 83명의 학생들이 이 수업을 수강했다. 이 프로그램은 1945년 이후 한반도의 사회정치적 구조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주제에 따라 설계되었다.

학생들은 몇몇 자료를 읽고 온라인 시스템 (Moodle)에서 그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하며, 한국 현안에 관한 온라인 포럼에 참여하고, 대학 기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3시간: 선다형, 논문/에세이).

“제주 4·3사건”은 시민 사회에 대한 국가의 억압 역사를 다루는 수업 시간에 언급된다 (독립 운동에 관한 6강, 국가에 대한 저항을 다루는 12강).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다.

	Thème de la séance	Exposé : Portraits (Biographie)
1	Introduction	-
2	Elite issue de la résistance sous la colonisation japonaise	Un homme politique : 김구 (金九), Kim Ku, né à Haeju le 29/08/1876-26/06/1949), du Gouvernement provisoire coréen en exil.
3	Elite issue de la collaboration sous la colonisation japonaise	Un militaire : 백선엽(白善燁) Paek Sŏn-yŏp Paik Sun-yup, (23/11/ 1920-..., Kangso, Corée du Nord), premier général quatre étoiles de la Corée du Sud. (Mandchoukouo, puis la Corée du Sud, notamment pendant la guerre de Corée).
4	Les hommes d'État	Un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이승만 (李承晩) Yi Sŭng-Man, Syngman Rhee (26/03/1875-19/07/1965, né à Pyongsan, Hwanghae du Nord, mort à Honolulu), homme d'État sud-coréen
5	Les élus à l'Assemblée nationale	Un député de gauche : 노회찬 (魯會燦) No Hoe-Ch'an, Roh Hoe-Chan, (31/08/1956, né à Pusan), homme politique élu député (17·19·20), (홍남·정의당, 2016).
6	Les leaders politiques	Un représentant de parti politique progressiste : 우원식(禹元植), U Wŏn-Sik, Woo Won-Sik (18/09/1957-..., né à Séoul) (연백·더불어민주당)
7	La haute administration et les membres du gouvernement	Un chef de la KCIA : Un proche du Général Park Chung-Hee, militaire devenu homme politique : 김형욱(金炯旭) Kim Hyŏng-uk, (16/01/1925-07/10/1979, né à Sinch'ŏn, Hwanghae).
8	Les grands patrons	Un chef d'entreprise : 정주영 (鄭周永), Chŏng Chu-Yŏng, (25/11/1915-21/03/2001, né à T'ongch'ŏn, Kangwŏn), fondateur du groupe <i>Hyundai</i> .
9	Les hommes des media	Un propriétaire de journal : 방응모(方應謨) Pang Ŭng-Mo (29/9/1883?- ?/08/1950, P'yŏng'an nord), <i>Chosun Ilbo</i> .
10	Les religieux	Un pasteur / éducateur : 백낙준(白樂濬), Paek Nak-Chun, Baek Nak-Jun, (09/03/ 1895-13/01/1985, né dans le P'yŏng'an du Nord (<i>Changno</i> kyohoe , Président de <i>Yonsei</i> (1957-1960).
11	Les intellectuels	Un écrivain : 황석영(黃皙暎), Hwang Sŏk-Yŏng (04/01/1943-..., né à Changch'un en Mandchourie et rentre à P'yongyang en 1945)

3. “한국 현대 사회사”

마지막으로, 필자는 석사 프로그램에서 1학년, 2학년에게 연구 세미나 “한국 현대 사회사(44OE02KR ou 44RE02KR Séminaire de recherche en histoire contemporaine de la Corée)”를 가르친다. 연구 세미나 코스이고 학생들이 석사 프로그램 1년, 2년차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미나 내용은 매년 바뀐다. 학생 13명이 2017-2018년에 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석사 1학년 9명, 석사 2학년 4명). 세미나에서 우리는 남북한의 현대사에 관한 글이나 영상 등의 다양한 한국 또는 서양 자료를 분석한다. 그 목표는 역사적 담론이 생성되는 다양한 정치, 역사적 맥락 하에서 한국사를 기술하고 구축하는 여러 방법을 비교하는 데 있다.

연구 세미나의 경우, 기말 시험은 없으나 학생들은 전기(傳記) 문학과 기념 장소에 대해 구술로 발표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다음 주제 중 하나를 골라 학기말 레포트를 내야 한다: “세미나에서 “한국사의 기록”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또는 “전기 문학에 주석 달기”.

예를 들어, 2017-2018년에는 그 주제가 “한국전쟁이 끝나기 전에 남한에 정착한 북한 출신 남한 엘리트. 제 1, 2세대”였다. 우리는 제 1, 2세대 실향민의 전기들을 살펴 보았다. “제주 4·3사건”은 이승만 대통령 또는 백선엽의 사례와 남한에서 반공산주의적인 서북청년단 민병대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에 다루었다.

2018-2019년의 세미나 주제는 한국의 무정부주의자와 무정부주의이다. 제주 4·3사건과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건을 다룰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2017-2018년의 석사 세미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Thème de la séance	Exposé : Portraits (Biographie)
1	Introduction	-
2	Elite issue de la résistance sous la colonisation japonaise	Un homme politique : 김구 (金九), Kim Ku, né à Haeju le 29/08/1876-26/06/1949), du Gouvernement provisoire coréen en exil.
3	Elite issue de la collaboration sous la colonisation japonaise	Un militaire : 백선엽(白善燁) Paek Sŏn-yŏp Paik Sun-yup, (23/11/ 1920-..., Kangso, Corée du Nord), premier général quatre étoiles de la Corée du Sud. (Mandchoukouo, puis la Corée du Sud, notamment pendant la guerre de Corée).
4	Les hommes d'État	Un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이승만 (李承晩) Yi Sŭng-Man, Syngman Rhee (26/03/1875-19/07/1965, né à Pyongsan, Hwanghae du Nord, mort à Honolulu), homme d'État sud-coréen
5	Les élus à l'Assemblée nationale	Un député de gauche : 노회찬 (魯會燦) No Hoe-Ch'an, Roh Hoe-Chan, (31/08/1956, né à Pusan), homme politique élu député (17-19-20), (홍남·정의당, 2016).
6	Les leaders politiques	Un représentant de parti politique progressiste : 우원식(禹元植), U Wŏn-Sik, Woo Won-Sik (18/09/1957-..., né à Séoul) (연백·더불어민주당)
7	La haute administration et les	Un chef de la KCIA : Un proche du Général Park Chung-Hee, militaire devenu homme politique : 김형욱(金炯旭) Kim Hyŏng-uk, (16/01/1925-07/10/1979, né

	Thème de la séance	Exposé : Portraits (Biographie)
	membres du gouvernement	à Sinch'ôn, Hwanghae).
8	Les grands patrons	Un chef d'entreprise : 정주영(鄭周永), Chǒng Chu-Yǒng, (25/11/1915-21/03/2001, né à T'ongch'ôn, Kangwŏn), fondateur du groupe <i>Hyundai</i> .
9	Les hommes des media	Un propriétaire de journal : 방응모(方應謨) Pang Ŭng-Mo (29/9/1883?-?/08/1950, P'yŏng'an nord), <i>Chosun Ilbo</i> .
10	Les religieux	Un pasteur / éducateur : 백낙준(白樂濬), Paek Nak-Chun, Baek Nak-Jun, (09/03/ 1895-13/01/1985, né dans le P'yŏng'an du Nord (<i>Changno</i> kyohoe , Président de <i>Yonsei</i> (1957-1960).
11	Les intellectuels	Un écrivain : 황석영(黃皙暎), Hwang Sŏk-Yŏng (04/01/1943-..., né à Changch'un en Mandchourie et rentre à P'yongyang en 1945)

결론

파리 디드로 대학에서 “제주 4·3사건”은 역사 수업뿐만 아니라 영혼과 잊히지 않는 기억을 연구하는 인류학자 중 하나인 Florence Galmiche 교수의 수업에서도 다뤄진다. 학생들이 제주 4·3사건의 역사에 대해 가장 많이 배우는 시기는 학부 1학년 때이다.

필자의 제주 4·3사건 역사 교육에는 남한의 역사 기록을 고찰하는 시간도 포함된다.

다양한 정보가 영어 또는 한국어로 제공되지만, 학부생들이 읽어야 하는 책들은 프랑스어 또는 영어로만 쓰여 있다.

교수법에 활용하기 위해 영어나 프랑스어 자막이 달린 다큐멘터리가 필요하다. 프랑스어로 된 책도 더 많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헌준(1975-), *한라산 대학살: 남한에서의 60년간의 진실 추적* 2014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원 엮음, <제주민주항쟁 1>, 소나무, 1988, 497쪽.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사건 조사 보고서*, 제주 4·3 평화재단/2014



Teaching Modern Korean History at Cambridge

캠브리지 대학의 한국 현대사 교육

Shin, Michael D.
Senior Researcher, University of Cambridge

Teaching Modern Korean History at Cambridge



Shin, Michael D.
Senior Researcher, University of Cambridge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how Korean history is taught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I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unique undergraduate curriculum at Cambridge, called the Tripos, and examines the structure of the Chinese Studies and Japanese Studies Tripos since there is no Korean Studies Tripos yet. The Tripos system and the lack of a Korean Studies major have posed limitations on how much Korean history can be taught to undergraduate students. This paper then discusses how Korean history is taught in the first-year survey course, “Introduction to East Asian History.” My approach has been to put more emphasis on the modern period, since that is what the far majority of students are interested in, and to introduce “internal development” theory since that provides a framework that links the various aspects of the modern era. The aim is for students to gain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causes of the division of the country. There are also other classes where some of the content is devoted to South Korean history.

I. Introduction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is still in the very early stages of development. After a few abortive attempts in the 1990s, it bega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lectureship in Korean Studies in 2008. Today, it still remains behind other more established programs. In the United Kingdom, there are only two institutions where it is possible to major in Korean Studies.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which established the first lectureship in Korean Studies in

Europe in 1953, has the largest number of faculty, including two historians. The University of Sheffield has more undergraduate students but has fewer faculty than SOAS. At Oxford University, it is only possible to minor in Korean Studies with a Chinese or Japanese Studies major, but it has almost as many faculty as Sheffield. The number of faculty at Cambridge is similar to that of universities that are just beginning to create Korean Studies programs; namely, the University of Edinburgh and the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The recent expansion of Korean Studies is a testament to the increasing interest in Korea in the United Kingdom.

As one would expect, each program has different strengths because of the specializations of the faculty. SOAS and Oxford emphasize the study of the premodern period while Sheffield has tended to focus on the modern era and the social sciences, never having a historian on its staff in its history. In the case of Cambridge, its emphasis is also on the modern period, but since I am a historian, there has been more teaching on history than Sheffield. However, the fact that there is no Korean Studies major at Cambridge has shaped the approach to teaching Korean history. First, since there are not many courses on Korea, it is only possible to give an overview of modern Korean history. Second, courses are designed for students whose primary interest is not Korea. In this paper, I discuss the general structure of undergraduate majors, give an overview of the Chinese and Japanese Studies majors, and explain how Korean history is taught.

II. Undergraduate Education at Cambridge

Undergraduate majors at Cambridge are structured very differently not only from those at American universities but also from those at other British universities. The equivalent of a “major” is called a “Tripos” at Cambridge. The term refers to the examinations that students take to complete their degree. A Tripos is usually divided into two parts; as most undergraduate degrees take three years, each part takes one or two years, depending on the subject. A passing mark in Part One is necessary to proceed to Part Two. There are two main differences between a Tripos and a major. First, students in general can only take classes within their Tripos; to put it another way, they are not allowed to take classes in other departments without special permission. There is no core curriculum as there is at most American colleges. Second, the final mark is in most cases determined solely by performance in the exams at the end of a part; essays or other coursework done during the term generally do not count toward the final grade.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has two Triposes, Chinese Studies and Japanese Studies. Despite their names, they focus on language training much more than American colleges; the two

languages are taught ab initio. Unlike most other Triposes at Cambridge, these are four-year degree programs. Part One takes two years, with students taking examinations at the end of both years; the first year is Part IA, the second Part IB. The curriculum of the first year consists entirely of required classes. Students spend 80 percent of their time in language classes; they also take a survey course that comprises 20 percent of their final mark. In the second year, the curriculum has slightly less emphasis on language, with 60% of classes devoted to it. Students are able to choose two subject-based classes. In the third year, students are required to study for a year in Japan or China; this is the reason that the program takes four years instead of three. The year abroad programs also focus on language training with subject-based classes also available. Even in the fourth year, half of their classes consist of required language classes. Students also have to write a dissertation of 12,000 words and take two other classes of their choice.

The structure of the Tripos, which is more rigid than other Triposes at Cambridge, does not leave much room for teaching Korean Studies. Courses on Korea are mainly in Part I of the Tripos when the department takes a more regional East Asian approach to the curriculum. The required survey course in the first year has covered Korean history. In the second year, there are two classes with Korea-related content. Students can choose to take Cinema East, which covers Chinese, Japanese, and Korean cinema, and Japanese Politics, which has a section on South and North Korea. In Part II, the only option on Korea is an elementary Korean language class that is available only to students in Japanese Studies.

III. Teaching Korean History at Cambridge

Our approach to teaching Korean history has been shaped by the peculiarities of the Cambridge system. Since there is no Korean Studies Tripos, there is no single course at Cambridge focusing on Korean history, let alone one on modern Korea history. With so little class time devoted to the subject, we have focused on providing students with the basic knowledge necessary to study the subject. Rather than providing comprehensive coverage, our goal has been to give students a framework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dynamics of modern Korean history. The aim has been to show them why it is necessary to know history to understand Korea today and to provide them a foundation that would help them to study Korean history more on their own if they wanted. In addition, since all the students are in Chinese or Japanese Studies, we have also tried to show them why it is important to study Korean history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East Asian history. By doing so, they would gain a new perspective on Chinese and Japanese history.

The course that has the most content on Korean history is “Introduction to East Asian History” (also known as EAS1). It is a required course in the first year of the Tripos that provides an overview of East Asian history. One-fifth of the course is devoted to Korean history, with Chinese and Japanese history each comprising two-fifths. This means that there are just eight lectures on Korean history over the course of the year. The focus of undergraduate education at Cambridge is not lectures but what are called supervisions. Supervisions are small classes with anywhere from one to five students where, in the cas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structors lead in-depth discussions on essays. EAS1 also has supervisions but fewer than most courses at Cambridge. Over the course of the year, students are required to do six essays, one of which focuses on Korean history. The survey course used to focus on history, but it was changed to include more content on literature and religion this past year.

In EAS1, there is more emphasis on the modern period since it is clearly what students are more interested in. Even in the sections on ancient history, I have made sure to explain its contemporary relevance. After providing an overview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my lecture tries to explain why ancient Korean history has become such a topic of contention with both China and Japan. My objective in this course is to give students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division of the country, which is of course the defining event of modern Korean history. I start with the breakdown of Joseon state and society and then give an overview of the colonial period, trying to show how both contributed to the division. In other words, my approach is to introduce “internal development” theory, which emphasizes the internal factors behind the country’s division. This theory is useful since it explains the historical dynamics that underlie the disparate events of the modern period and since it provides an explanation for the division that is both complex and comprehensible. It has also been of course the dominant historical paradigm in South Korea for the past few decades.

More specifically, there are two lectures on the Joseon period, two on the occupation period, and one on the Korean War. The second lecture on the Joseon period, which covers the years after the Imjin War, examines the breakdown of the Neo-Confucian order and introduces “internal development” theory. The lectures on the occupation period discuss the socioeconomic changes that occurred and the emergence of ideological splits. This part of the course complements the section on early twentieth century Japan, by showing Japanese imperialis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bject people. The lecture on the Korean War examines the politics of the Liberation Period as both the repetition and culmination of the historical conflicts of the early modern period. At the same time, it highlights the role of the war i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as well as how its dynamics differed in East Asia. There is another lecture on dictatorship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that is given by another colleague. The April Third Uprising is mentioned in the lecture on the Korean War, as one of the signs of the approaching civil war, but there is no time to discuss it further.

For the essay on Korean history, I have alternated between two assignments. One is to write an essay on how the story of Chunhyang reveals the breakdown of the Neo-Confucian order in the late Joseon period; the other is to examine military sex slavery as a microcosm of Japanese colonialism. The aim of the assignments is to see if students can identify the effects of historical forces in personal narratives. They are meant to test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socioeconomic trends that contributed to the aggravation of social and political divisions.

When I have taught the Cinema East class, I have used it as an opportunity to teach students about South Korean history. The course runs for sixteen weeks with the first four weeks devoted to an introduction to cinema analysis; then four weeks each are devoted to Chinese, Japanese, and Korean cinema. My approach has been to focus on the films of directors from the so-called 386 generation, such as Park Chan-wook and Bong Joon-ho. In order to show how the films reflect the worldview of the 386 generation, the class includes lectures on the military dictatorship and the democracy movement in South Korea. Students can also learn South Korean history in the course Japanese Politics, which includes ses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V. Conclusion

Since there is no Korean Studies major,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how successful my approach to teaching modern Korean history is. If there were a higher-level course on modern Korean history, then we could see directly whether students have acquired a strong foundation for further study. There is an indirect method of gauging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 For essay-based examinations at Cambridge, students are usually given a choice of six to ten questions, among which they have to choose three to answer. In any given year, 20 to 50 percent of students choose a question on Korean history. Anonymous feedback from students confirms that they are clearly more interested in the modern period. In my ten years at Cambridge, only one student has expressed a desire for more content on the premodern period. In this feedback, a good number of students have mentioned they found the essay on military sex slavery both useful and rewarding. There are some other indications that interest in Korea is growing. Some students have begun learning Korean on their own; some have attended a summer program at a Korean college. For some years, it has felt as if we have established a solid foundation for the further expansion of Korean Studies.

Let me conclude with a few reflections on what I have learned through my teaching, including points that I feel that foundations or funding agencies in South Korea have not always grasped. First, though interest in Korean Studies has grown, this growth has not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of

interest in Korean history. North Korea and the Korean Wave (and to a lesser extent Korean electronics) seem to be the main drivers of interest; we are still waiting for some aspect of Korean history to capture a wider audience. Korean history remains more of an interest for graduate students and specialists. Second, the nature of interest in Korea is of course different from that in China or Japan. Students are interested in China or Japan because they feel that knowledge of those countries is essential to their lives. This is not the case with Korea. It is a secondary interest or expected to be a source of fun and enjoyment. It continues to be a major challenge to broaden students' interest in Korea.

Third, we still do not have sufficient resources to teach Korean history properly in English. Though many textbooks and general interest books on Korea have been published in the last ten years, we still need more in order to create or satisfy interest in the subject. For instance, there are many general histories now but few books on specific periods of Korean history. There are also few books on specific historical events or figures outside of the Korean War. In addition, visual materials such as photographs, maps, and paintings are increasingly useful in undergraduate lectures and seminars. Though many such materials are available on the internet, there is no one central place that stores and archives them.

캠브리지 대학의 한국 현대사 교육



Shin, Michael D.
Senior Researcher, University of Cambridge

초록

본 발표는 캠브리지 대학의 한국학 교육법을 논한다. Tripos라 불리는 캠브리지만의 독특한 학부 커리큘럼 개요를 제시하며, 아직 한국학 Tripos는 없기 때문에 중국학과 일본학 Tripos의 구조를 검토한다. 이 Tripos 시스템과 한국학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학부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한국사 범위가 제한된다. 본 논문은 그 다음으로 1학년 개론강좌인 “동아시아 역사 입문”에서 한국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논의한다. 필자가 현대 시기를 더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수많은 학생들이 현대 그 자체와, 현대 시대의 다양한 측면을 연결하는 체계를 제시하는 “내부개발(internal development)” 이론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한국 분단의 원인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수업 시간에 남한의 역사를 살펴보는 또 다른 과목들도 있다..

I. 서론

캠브리지 대학의 한국학은 여전히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1990년대에 몇 번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뒤, 2008년에 캠브리지 대학은 첫 번째 한국학 교수직을 수립했다. 그러나 다른 견고한 프로그램에 비해 여전히 뒤처지고 있는 현황이다. 영국에는 한국학을 전공할 수 있는 곳이 두 기관밖에 없다. 유럽에서 1953년에 최초의 한국학 교수직을 수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대학(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이 역사학자 두 명을 포함하여 가장 많은 교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셰필드 대학(The University of Sheffield)은 SOAS에 비해 학부생이 더 많지만 교직원이 더 적다. 옥스포드 대학의 경우, 중국학이나 일본학 전공생들이 부전공으로만 한국학을 들을 수 있으나, 셰필드 대학과 교직원의 수는 동일하다. 캠브리지 대학의 교직원 수는 이제 막 한국학 프로그램을 창설한 대학, 즉 에든버러 대학교(the University of Edinburgh)와 센트럴랭커셔 대학교(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와 동일한 수준이다. 영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한국학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흔히 예상하는 것처럼, 각 프로그램은 교직원의 전문 분야에 따라 다른 강점을 지닌다. SOAS와 옥스포드 대학은 전근대 연구를 강조하는 반면, 셰필드 대학은 현대와 사회 과학에 집중하며, 교수진 중에 역사가자가 있었던 적이 없다. 캠브리지 대학 또한 현대를 강조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필자가 역사가자이므로 셰필드 대학에 비해 역사를 더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캠브리지 대학에 한국학 전공이 없어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데 여러 제약이 있었다. 우선 한국에 관한 강의가 적기 때문에 현대 한국사를 개괄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강의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가 한국이 아니었다. 이 발표에서 필자는 학부 전공의 전반적 구조를 논하고, 중국학과 일본학 전공의 개요를 제시하며, 한국사의 교육 방식을 설명할 것이다.

II. 캠브리지 대학의 학부 교육

캠브리지 대학의 학부 전공은 여타 미국 대학뿐만 아니라 영국 대학들과도 현저히 다른 구조를 취한다. 캠브리지 대학은 “전공” 대신에 “Tripos”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는 학생들이 학위를 마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을 일컫는다. Tripos는 대개 두 파트로 나뉘며, 대부분의 학부 학위는 3년 과정으로 파트별로 과목에 따라 1~2년이 소요된다. 파트 1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파트 2를 수강할 수 있다. Tripos와 전공 간에는 차이점이 두 개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Tripos에 있는 수업들만 들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특별 허가 없이 다른 학부의 수업을 들을 수 없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처럼 핵심 교육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대부분의 최종 성적은 파트별 기말 시험 성적만 반영하여 결정된다. 학기 중에 학생들이 제출하는 에세이나 다른 과제는 최종 성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아시아 학부에는 중국학, 일본학의 두 Tripos시스템이 있다.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다른 어느 미국 대학보다도 언어 교육에 주력하여, 초기부터 이 두 가지 언어를 가르친다. 캠브리지 대학의 다른 대부분의 Tripos와 달리, 이 Tripos는 4년제 학위 프로그램이다. 파트1은 2년 과정으로, 학생들이 각 연말에 첫째 해에는 파트IA, 둘째 해에는 파트IB시험을 치른다. 1년차 커리큘럼은 필수 과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80%의 시간을 언어 수업을 듣는 데 보내고, 최종 성적의 20%를 차지하는 개론 강좌도 수강한다. 2년차 커리큘럼에서는 언어 비중이 줄어들어 60%를 차지한다. 학생들은 두 과목을 기반으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3년차에 학생들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1년을 보내야만 한다. 바로 이 때문에 학위 프로그램이 3년이 아니라 4년이 걸리는 것이다. 해외연수 프로그램 또한 언어 교육에 주력하며, 이 때에도 학생들은 과목 중심으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심지어 4년차에도 수업의 절반이 필수 언어 수업이다. 또한 학생들은 12,000단어로 논문을 작성해야 하며 선택 수업 2개를 추가로 수강해야 한다.

이 두 Tripos의 구조는 캠브리지 대학의 다른 Tripos에 비해 엄격하며, 한국학을 가르칠 시간이 별로 주어지지 않는다. Tripos 파트 1에서 커리큘럼상 동아시아 지역을 더 다룰 때에 한국 강의가 주로 이루어진다. 1년차에는 필수 개론 강좌에서 한국사를 다루어 왔다. 2년차에는 한국과 관련된 내용의

수업이 두 개 있다. 학생들은 중국, 일본, 한국 영화를 다루는 동양 영화 수업이나 남북한을 다루는 일본 정치학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파트 2의 경우, 한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수업은 일본학 학생들에게만 공개되는 초기의 한국어 수업밖에 없다.

III. 캠브리지 대학의 한국사 교육

본교의 한국사 교육 방식은 캠브리지 대학 체제의 특성에 영향을 받았다. 캠브리지 대학에는 한국학 Tripos가 없기 때문에 한국 현대사 강의는 고사하고 한국사를 가르치는 수업 자체가 하나도 없다. 한국사를 다루는 수업 시간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이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지식만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역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한국 현대사의 기본 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오늘날의 한국을 이해하려면 왜 역사를 알아야만 하는지 가르치고, 본인이 원할 경우 한국사를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중국학이나 일본학 전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아시아사의 역학을 이해하려면 왜 한국사 공부가 중요한지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중국사와 일본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이다.

한국사를 가장 많이 다루는 교과목은 바로 “동아시아사 입문”(EAS1)이다. Tripos 1년차의 필수 과목으로, 동아시아사의 개요를 제시한다. 이 과목에서 한국사가 20%, 중국사와 일본사가 각각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1년간 한국사 강의가 딱 8개밖에 없다는 뜻이다. 캠브리지 대학 교육의 초점은 강의가 아니라 개인 지도(supervision)에 있다. 개인 지도 수업이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학생들 1~5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수업으로, 강사들이 에세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주도한다. EAS1에도 개인 지도 수업이 있으나 다른 캠브리지 교육 과정에 비해 그 수가 적다. 1년간 학생들에게 6개의 에세이 과제가 주어지며, 그 중 하나는 한국사를 주제로 써야 한다. 예전에 개론 강좌에서는 역사를 주로 다루었지만 지난 해에 문학과 종교 부분이 추가되었다.

EAS1은 학생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현대를 더 많이 다룬다. 심지어 고대사를 다룰 때에도 필자는 현대와의 연관성을 꼭 설명하려고 한다. 필자는 강의에서 삼국시대의 개요를 제시한 뒤, 한국 고대사가 중국과 일본에서 왜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교과목에서 필자의 교육 목표는 학생들에게 한국 현대사를 정의하는 사건인 한국 분단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필자는 우선 조선과 그 사회의 붕괴를 설명한 뒤, 일제강점기의 개요를 제시하며 이 두 상황이 분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필자는 한 국가의 분단에는 내부 요인이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내부개발” 이론을 소개한다. 이 이론은 현대의 이질적인 사건들 기저에 있는 역사의 역학을 설명하고, 복잡하고 종합적인 분단 현상의 설명을 제시하기 때문에 유익하게 활용된다. 이 분단 현상은 지난 수십년간 남한의 주요 역사적 패러다임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선 시대에 관한 강의 2 개, 일제강점기 시대 강의 2개, 한국전쟁 강의 1개가 열린다. 조선 시대에 관한 두 번째 강의는 임진왜란 이후의 시기를 다루며 성리학 질서의 붕괴를 살펴보고 “내부개발” 이론을 소개한다. 일제 강점기에 관한 강의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념적 대립의 출현

을 논한다. 이 강의는 일본 제국주의를 피해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20세기 초의 일본 관련 지식을 보완한다. 한국전쟁 강의는 해방기의 정치적 문제를 근세의 역사적 갈등이 쌓여 반복되는 것으로 분석한다. 동시에 한국전쟁이 냉전에 기여한 바를 살펴보고, 한국전쟁의 역학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알아본다. 필자 외에 다른 동료 교수가 지도하는 남한의 독재정치와 민주주의 강의도 있다. 제주 4·3항쟁은 한국전쟁 강의에서 한국전쟁의 징조로서 언급되지만 더 깊게 설명하는 시간은 따로 없다.

필자는 두 개의 한국사 에세이 과제를 번갈아 낸다. 하나는 춘향전이 조선 후기 성리학 질서의 붕괴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서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안부를 일제강점기의 축소판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과제의 목표는 학생들이 개인의 이야기에서 역사적 세력의 영향력을 찾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이 두 과제는 학생들이 사회 정치적 분열을 악화시킨 사회경제적 흐름을 이해하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필자는 동양 영화 수업을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교육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 교과목은 16주간 진행된다. 첫 4주는 영화 분석 입문을 교육하고, 다음으로 4주씩 각각 중국, 일본, 한국 영화를 다룬다. 필자는 소위 38세대라 불리는 박찬욱이나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집중했다. 이 영화들이 38세대의 세계관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보여주기 위해, 수업 시간에 남한의 군사독재정권과 민주주의 운동에 관한 강의도 진행한다. 또한 학생들은 일본 정치학 수업에서도 한반도 강의 등을 통해 남한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

IV. 결론

한국학 전공이 없기 때문에, 필자의 한국사 교육 방식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한국 현대사 고급 과정이 존재했다면, 학생들이 추가 연구를 위해 탄탄한 기반을 다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교육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은 존재한다. 캠브리지 대학의 에세이 기반 시험에서 학생들은 대개 6-10개의 질문 중 3개를 골라 답할 수 있다. 모든 연도에 20~50%의 학생들이 한국사 질문을 택했다. 학생들의 익명 피드백을 받아보니 확실히 현대에 관심이 더 많았다. 필자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10년간 교수로 있는 동안, 학생 단 한 명만이 전근대 시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표현했다. 피드백에서 많은 학생들이 위안부에 대한 에세이가 유용하고 보람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여럿 있다. 몇몇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한국 대학의 여름 학기 수업을 듣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한국학의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다진 것처럼 느껴졌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재단이나 자금 제공 기관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낀 부분을 포함하여 필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낀 것들을 결론 내리고자 한다. 첫째, 한국학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으나,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증가하지는 않았다. 북한과 한류(그리고 그보다는 적지만 한국 전자장비)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우리는 여전히 한국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다. 현재는 대학원생들과 전문가들이 한국사에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한국

에 대한 관심의 성격은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것과는 물론 다르다. 학생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이러한 지식이 자신의 삶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학은 이와 다르다. 부차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즐겁거나 재미 있어 배우는 것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아직 한국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영어 자료가 부족하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관한 교과서와 대중서적이 다수 출간되었으나, 이 과목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아직 모자라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서적은 많으나 특정 시기에 관한 책은 거의 없다. 또한 한국전쟁 외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쓴 책도 거의 없다. 나아가 사진, 지도,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가 학부 강의와 세미나에서 점점 더 활용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많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자료들을 보관하는 단일 기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Korean Studies outside of Korea -
Strategies of Survival and Integration:
How to Teach Korea's Contemporary
History to Scandinavians?**

**한국 밖에서 가르치는 한국학 - 생존과 통합 전략:
스칸디나비아인들에게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Tikhonov, Vladimir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e Studies and Oriental Languages,
Oslo University

Korean Studies outside of Korea - Strategies of Survival and Integration: How to Teach Korea's Contemporary History to Scandinavians?



Tikhonov, Vladimir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e Studies and Oriental Languages, Oslo University

Abstract

This presentation attempts to answer the question of how to make Korean Studies teaching and research relevant for the broader communities in Norway and, broader, other Scandinavian societies. By extension, it also deals with the issue of Korean Studies relevance in the Euro-American world outside of Northern Europe. It argues that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may constitute the aspect of Korean Studies which is most germane for the public outside of Korea, including the Scandinavians. Modern Korea, in the age of colonialism and externally imposed division of the Cold War and post-Cold War era, may be legitimately characterised as a society of extremes. It may serve as a quintessential representation of Hobsbawm's 'age of extremes.' After militarization was first imposed on the Korean society by the Japanese colonizers in the end of the colonial era (essentially in 1937-45), the mood of total mobilization has been maintained and strengthened in both parts of the tragically divided country. Especially in case of South Korea, total militarization of many spheres of life (workplace and childhood included) was underpinned not only by the disciplinarian regime of the Cold War-period barrack state, but also by the memories of massacres perpetrated by the South Korean state before 1953 against hundreds of thousands of its real, potential and (in most cases) imagined opponents. The regime of fear and discipline on the Korean Peninsula was instrumental in the process of general modernity development – industrialization included – after the 1950s, but also provided ample ground for systematic and structural human rights violations. In South Korea, it also laid fundament for the imposition of the neo-liberal mode of governability after 1997. It is argued in the presentation that the detailed, in-depth understanding of Korea's experiences in the "age of extremes"

may be conducive to the general comprehension of the most essential trait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worldwide and can be instrumental in building solidarity with the struggles for more inclusive democracy and justice being currently waged by the people of Korea.

Introduction: Korea in Norway/Scandinavia, the General Status

Korea hardly counts among the places familiar to Norwegians. That probably would apply to Scandinavia in general, but Norway is different from, for example, Sweden, which used to be pro-active as a diplomatic mediator between North Korea (where it maintains its embassy since 1973, acting as a protecting power for Australi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wider world. Norway's engagement with the Korean Peninsula is much more moderate. Norway did contribute with a field hospital, NORMASH, to war-torn South Korea in 1951-1954, and, concurrently with Denmark and Sweden, established th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in 1959. However, even while being Norway's third largest trading partner in Asia, South Korea largely remains a world away from Norway. The Norwegian media picture on Korea is largely dominated by the news on North Korea, mostly based on Western and South Korean Anglophone sources, as well as the news on the periodical South-North tensions. South Korea is mostly mentioned in connection with its industrial economy, inter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r – more often – the prominence of K-pop stars. Due to a number of international campaigns – many of them being conducted with collaboration of the mighty Norwegian unions and in Norwegian for the participants inside Norway¹⁾ – Norwegian labour activists are acutely aware of the issues pertaining to labour-capital relations and labour repression in South Korea. The topic, however, is seldom dealt with in any details by the Norwegian press, even left-leaning. In a word, Korea remains, by and large, almost a terra incognita on Norwegians' cognitive maps, its image is being dominated by the stereotypes and banalities peddled by the mainstream international media.

Relative obscurity of Korea in the public picture of the world in Norway is coupled with rather rudimentary level of Korean Studies development in the country. Korean language was taught at Oslo University (UiO) in 1999-2006, and was ultimately discontinued due to the lack of students. Attempts by some enthusiastic students to revive it since 2013²⁾ did not bring any visible progress so far. Currently, *Korea's Religion and Philosophy*, *Korea's Society and Politics* and *North Korea: Ideology*,

1) See, for example: http://www.labourstartcampaigns.net/show_campaign.cgi?c=2892

2) See a webpage on the Student Council for Korea Studies at UiO and its attempts to re-introduce Korean language into the university curriculum: <http://www.hf.uio.no/ikos/livet-rundt-studiene/studentdemokrati/fagutvalg/korea-studier/>

Society and Politics are three general elective courses offered to Oslo University's undergraduates. One more elective course, on the South Korean mass culture, is in the process of being prepared now. Importantly in relationship to the topic of the present forum, Korean contemporary history is included into all these three courses. For the graduates, the same courses are upgraded, with inclusion of the secondary sources in Korean language. Heritage learners of Korean or non-heritage learners who managed to learn Korean elsewhere may continue their studies at MA level at Oslo University's (Faculty of Humanities) MA program for East Asian Culture and History,³⁾ majoring in Korean issues and writing an MA thesis based on Korean primary sources. So far, five students have used – or currently are using – this opportunity. Furthermore, *in toto* three MA students at various faculties of Bergen University (UiB) are currently writing theses somehow related to Korea.

Relatively miniscule number of subjects dealing with Korea on the tertiary level and university students wishing to specialise in things Korean is related to **near-absence of Korean on pre-tertiary levels**. Korean is taught as a secondary foreign language at one high school (Berg Videregående Skole) in Oslo, the graduates of which sometimes sign up to the Korea-related classes at the university level. Non-academic learners in Oslo may benefit from a Korean language school run by Oslo Korean community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local South Korean embassy), originally chiefly for the second-generation learners from mixed Korean-Norwegian families.⁴⁾ Yet another opportunity is offered by Folkeuniversitet (People's University), an adult educational institution in Oslo which provides instruction in a number of foreign languages on demand, Korean included.⁵⁾ All in all,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at all levels remain largely a niche pursuit, often chosen by the Norwegians who have some sort of personal connection to (mainly South) Korea. The increasing visibility of South Korean popular culture is slowly changing the situation but hardly alters it essentially. Contrary to what appears to be a common (mis)perception in South Korea where public, misled by exaggerated reports in South Korean media, often seems to perceive 'Korean Wave' everywhere across Europe as a mass phenomenon, Korean mass culture fandom in Scandinavia is mostly limited to relatively small-scale groups, although a modicum of information about, for example, K-pop, has already become a common-sense fact of public knowledge. It has also to be remembered that even before the recent upsurge of interest in the "Korean Wave" of popular culture products, taekwondo since 1980-90s was a (mostly South) Korean cultural export with a solid market basis in Norway. The majority of the practitioners of this martial art, however, never developed any further interest in either Korean language or Korean Studies. Thus, to which degree the recent

3) See the description of the program here – <http://www.uio.no/english/studies/programmes/aas-master/programme-options/each/index.html> Unfortunately, this program may be discontinued after 2020.

4) See the webpage of the school here - <https://www.facebook.com/KORskole>

5) See the description of their Korean language program here – <https://www.folkeuniversitetet.no/Spraakkurs/Koreanskurs/Koreanskurs-nybegynner-A1>

fascination with South Korean mass culture among some younger Scandinavians will, or will not develop into a more long-term and deeper engagement with Korean studies, still remains to be seen.

What should be the tasks of Korean Studies in a peripheral Northern European country where Korea is largely relegated to a peripheral place in the public picture of the world, and most likely will remain there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 most obvious answer is a **search for relevance**. Korea experts should find the Korea-related issues which potentially are relevant for the Norwegian public, in order to integrate their knowledge into the Norwegian public domain. In this context, **Korea's contemporary history** appears to be the most germane subject to be offered to the Norwegian – and wider, Scandinavian – public, since many of the issues and problems found there are directly relevant for the public discussion, both in Norway and in other Northern European societies.

For example, given the prominence of peace movement and peace studies in Norway, the struggle of **South Korean conscientious objectors (COs)** – currently, ca. 95% of all the COs imprisoned worldwide are known to be South Koreans, with 600-700 people, mostly, but not exclusively, Jehovah's Witnesses, being imprisoned annually for their refusal to be conscripted – is a topic which does have a potential to attract the attention from both researchers and general public in Norway. Indeed, I make lengthy references to this issue during my lectures in the *Korea's Society and Politics* course but I do think that the issue deserves larger publicity than simply university lectures. Magazines and newspaper articles, as well as television and radio programmes could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nforming the Norwegian public about the struggle of South Korea's conscientious objectors against the domination of militarism in country's public life,⁶⁾ for the genuine realization of their right to the freedom of conscience, theoretically guaranteed by South Korea's Constitution. More publicity given to the issue could have facilitated cooperation between peace and anti-war NGOs in Norway and South Korea – cooperation which, so far, has been almost non-existent, despite the prominence of peace advocacy in the Norwegian civil society and the importance of various anti-militarist struggles for Korea.

It has to be noted, however, that the current **system of publication evaluation** at the Norwegian universities, which does not recognise popular(ized) publication printed in non-peer reviewed outlets (or visual mass media content created on the basis of one's research) as “academic” and does not bestow any “publication points” on their authors,⁷⁾ actively works to disinterest Norway-based university academics in producing any writings except from these publishable at peer-reviewed

6) See Seungsook Moon, *Militarized Modernity and Gendered Citizenship in South Korea*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5) on the patterns of ‘militarized citizenship’ in South Korea.

7) See the explanations on this system here: <https://snl.no/tellekantsystemet>

journals and presses. If the academics are to maintain contact with public via non-academic publications and to increase the public profile of their fields, they have to do it with the understanding that it is done at the expense of career-promoting academic publications. In effect, such a system isolates the academics from the wider community, turning academia into a world-in-itself – or, rather, market-in-itself, with “publication points” functioning as a substitute currency – largely incapable of communicating with the taxpayers who sustain it. This system, which was initially introduced with main focus on natural science and technology – the spheres where the need to communicate with the wider public is much less pronounced than in the humanities – appears to have a huge deleterious effect on the status of humanities in the country. I have to add that our South Korean colleagues appear to suffer from a similar insalubrious trend, as South Korea’s system of measuring the output of the academics is also heavily lop-sided towards the publications in (especially) international Anglophone journals and domestic journals approved by the Korean Research Council.

Since the market for Korea-related intellectual products – be it popular books or academic publications – is too small in Norway, and the Korea-relevant jobs are almost non-existent, the most obvious survival strategy for Korea experts of all kinds will be **internationalisation**. It is relatively easy for Norwegians, given their near-native levels of English proficiency and generally high degree of international connectedness. Welfare state indeed does encourage internationalisation: Norwegians studying abroad are eligible for the state support (stipend and student loans), Norwegian academics wishing to publish in English have their manuscripts edited (by qualified native speakers) at their institutions’ – ultimately, taxpayers’ – expense. So, it will be only natural if Norway-based authors writing on Korea would do so in English and publish internationally, or if Norwegians wishing to pursue undergraduate or graduate studies on Korea would do it outside of the country, most likely at a university using English as the language of instruction (now an increasing number of South Korean universities too are switching to English as the medium for teaching and offering advanced Korean studies programmes to foreigners), and would attempt to find employment elsewhere outside of Norway. The **switch to English** would not be necessarily beneficial for the broader reading public in Norway: outside of the academia, the majority of Norwegians prefer to consume popular books in their own tongue, their high levels of English proficiency notwithstanding. For the academics, however, at least a partial switch to English may be inevitable, given the necessity of having one’s work read and reviewed by fellow professionals. In this case too, however, the question will remain – how should Korea-related topics be made relevant to the Anglophone or broader English-reading public, with vastly different historical legacies and experiences?

Teaching on Korea's "Age of Extremes"

As long as the Korea-related writing in question deals with modern and contemporary, rather than pre-modern, topics and issues, one possible pathway to making Korea relevant for non-Koreans is an emphasis on one specific feature of Korea's modern experience, namely **Korea's modernity as an "age of extremes"** to a degree hardly seen elsewhere in the world. Colonialism was experienced by the majority of Africans, Asians, and Latin Americans. However, it is not easy to find any direct analogues to the **assimilationist strategy** pursued by the Japanese colonial masters of Korea in the last 7-8 years of their rule. Few colonial rulers went as far as to deny their subjects an opportunity to pursue education in their native tongues, but that was the case in late colonial Korea where, since 1937, Korean language teaching was almost completely absent. One reason why the colonizers resorted to such drastic measures was their intention to prepare Korean youth to the eventual **conscription** into the Japanese army, effective from 1943. Again, Japan provides a rare example of a colonial power applying conscription to the colonial subjects continuously denied the rights to political participation. Conscription introduced by the colonial authorities was re-introduced in both parts of divided Korea in 1949, on the eve of the Korean War (1950-53). In South Korea, the conscription system, reinforced and cemented under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the 1960-70s, provided the background for the general militarization of society mentioned above. Citizenship was tightly linked to the military service requirement. Consequently, women, handicapped or mixed-race individuals exempted from conscription found themselves being treated as second-rate citizens at best. Much worse fate awaited the conscientious objectors, who, after having served their prison terms, were to be regarded as 'former criminals,' with consequent de facto limitations on their socio-economical rights (for example, loss of access to the governmental jobs). With more than 90 per cent of all males actually being conscripted for active service – country's active service rates are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 South Korea is classifiable as **hard-core conscription society**. In such a society, conscription affects the absolute majority of all males and exerts dominant influence on general societal and behavioural patterns among the populace in general.

Absence of any civil alternative to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for the males and jailing of the conscientious objectors are among many aspects of the general pattern definable as a high degree of **militarization** of society – the pattern which is evidently classifiable as one of the 'extremes' in the Korean version of modernity. A multi-faceted phenomenon, militarization permeates many spheres of societal life in diverse ways. Acculturation to society's militarized atmosphere starts already in the childhood. According to a newspaper report, only during the years 2008-13, 111,397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in most cases, de facto forcibly) taken to the "barrack camps" – the boot camps where retired officers, often from the Marines Corps, drill the uniform-clad children for

several consecutive days in the ways closely resembling real-life military training.⁸⁾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over 16, military training camps may also include the experience of shooting with live ammunition. Military-style boot camps then reappear on the various stages of an average life-cycle; some of them, supposed to condition the new recruits to work in large monopolistic enterprises (*chaebŏl*) may include 100 kilometres-long hiking treks and other ‘survival games’ of rather extreme sort. Militarization of workplace relationships is often mentioned as one of the chief culprits beyond the high incidence of *kapchil*, power harassment with South Korean characteristics which may refer to forced kneeling, use of abusive and violent language by the superiors or even physical violence. In fact, it is exactly the militaristic features of the workplace relations that point out to the socio-political objectives of the militarization, namely disciplining of and control over the workforce, designed to maximize profits in an environment where labour productivity as such still lags behind the core capitalist countries. In this way, the ‘extremities’ of militarization are directly related to what is often referred, especially in non-specialist works, as ‘miracles’ of South Korea’s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80s. While the value judgements intrinsic to both terms are exactly the opposite of each other, both denote the streak of uncommonness – or, rather, exceedingly high degree of the development of certain features common to many modern societies – in the South Korean experience.

High-speed industrialization is hardly a rare phenomenon among the champions of catch-up modernization – but even by these standards, industrialization took place in an extremely short time span (20-30 years)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Korean miracle’ the term now commonly used for referencing to South Korea’s breakneck growth of the 1960-80s, was earlier – until mid-1970s, at least, - often applied to North Korea which in 1953-60 boasted some of world’s highest rates of industrial output growth. The **two rival Cold War regimes** were locked in fierce contest for the supremacy on the divided peninsula and, in the process of mutual competition, were, to a certain degree, **mirroring** each other. As I have briefly mentioned above, South Korea is perhaps among the most militarized societies on the globe: more than 90% of all South Korean males are conscripted into the military, with no alternatives – except for prison - allowed to the COs. One of the few nation states to outrival South Korea in this regard is North Korea, where the length of conscript’s service, initially 3,5 to 4 years (Cabinet’s Order no. 148, 1958), has reportedly reached 13 years (for males) now, females also being conscripted for ca. 4 years. In terms of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conscripted into the military in any given moment and the proportion of military expenses in the GNP (ca. 22%), North Korea almost tops the worldwide statistics for societal militarization. Militarization on the both sides implies also the absoluteness of the national division hardly seen elsewhere in the world. Cold War was a worldwide phenomenon, but, for example, in divided

8) See the report here: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7396.html

Germany of the 1970-80s, one could hardly imagine a complete ban on direct postal connections, phone calls or receiving broadcasts from the “other side.” In both Korean states, however, such bans are seen in a matter-of-fact manner, as inevitability. It testifies to the degree to which the militarized mode of governance has been internalized by the citizenry in both Koreas.

The question about **the reasons why the internalization of militaristic governability could happen** in relatively short historical time on the both sides of the Korean divide is one of these basic issues which Korean Studies practitioners everywhere, Scandinavia included, have to engage with in order to make Korea properly understood. After the end of Korean War in 1953, Cold War disciplining of the populace in both Koreas proceeded mainly via a combination of the workings of the state ideological apparatus (first and foremost, education and media), conscript armies and national security apparatuses; the latter routinely repressed assumed (and potential) dissenters and downgrade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ir families. Before 1953, however, Korea went through the age of open, state-led mass terror, massacres of huge numbers of civilians – sometimes only distantly related to the assumed ‘enemies of the state’ or often completely unrelated to any ‘anti-state’ activities at all – being supposed to inject the needed dose of fear into the society. The massacres of Jeju population after April 3, 1948, uprising – which are thought to have killed up to 30,000 people – were one of the state-led terror campaigns, which otherwise also included the horrifying mass extermination of the members of “National Guidance League” (which was supposed to be an educational institution for the former leftists, but also encompassed a high number of completely unrelated citizens), understood to claim up to 200,000 lives in 1950, or the mass executions of hundreds of assumedly ‘leftist’ political prisoners in and around Seoul in December 1950. All these acts of extra-judicial state brutality were to force the population to remember that any connection to suspected ‘anti-state’ activity, however putative, or any relationship whatsoever with the supposedly ‘leftist’ forces were to lead to the catastrophic consequences, in the form of torture, violent death and long-term downgrading of social status, not only for the person(s) directly involved, but also for a number of his/her relations and contacts. The internalization of unconditional fear of state repression was to precede the internalization of military discipline and simultaneously form a stable ground for routinized and systematic disciplining of the population. North Korea, with its notorious system of ‘correctional’ camps and harsh punishments for the alleged ‘political’ offences, was not necessarily essentially different, although much stronger support which North Korea’s regime and its initial reform efforts (1946 land reform etc.) enjoyed among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meant that North Korean state did not need mass massacres to the same extent as its Southern counterpart did. Still, Cold War disciplining in the most extreme forms played a decisive role in shaping both rivals.

The eerie parallelism between the two part of Korea divided by the ‘age of extremes’ extends into

the present. The state-dominated accumulation regimes underwent their crises in both Koreas in the mid- and late 1990s, in the wake of the worldwide neo-liberal turn and Eastern European collapse. As is well known, the current degree of **neo-liberal “flexibilization” of South Korea’s workforce** is hardly to be outrivalled by anybody else: atypical employment was estimated in 2013 to constitute either 32-33% or ca. 46% of gainfully employed workforce, depending on the method of calculation.⁹⁾ In either case, it is more than in any other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ember state; in addition, South Korea has also the highest number of low-waged workers (25,1%) and the highest number of shortly (less than one year) employed temporary workers (31,8%). Neo-liberal “restructuring” became a new normal in the crisis-ridden capitalist world during the last decades: however, the “restructuring” South Korea had to undergo after the 1997-98 Asian financial crisis is among the most extreme in the industrialized world, with concomitant grim social consequences (the third highest suicide rate in the world). However, in the terms of pure human suffering, the collapse of the state-led developmental model in what was known as ‘**the Arduous March**’ – or alternatively, the Great Famine of 1994-8 – in North Korea was perhaps among **the worst humanitarian catastrophes of the late twentieth century**, with the total death toll estimated at somewhere from 250 thousand to ca. two millions. “Century of extremes” seemingly never ended on the Korean peninsula, not only politically – as manifested by the persistence of the Cold-War era militarization –but also socially and economically: the demise of the post-war state-led developmental order has been happening in Korea, South and North, in especially unmerciful forms.

In Place of Conclusion: Korea Teaching in Search for Relevance.

Why should the “**extremes**” of **Korea’s colonial or post-colonial realities be relevant** for the non-Korean readers or/and learners, in Norway/Scandinavia or elsewhere? First of all, we all belong to the same interconnected world in the end. South Korea military, for example, is a part of a vast, US-centred “Western alliance,” which includes a number of the countries (for example, Norway, a NATO member) to which a large part of the readers/learners most likely belongs. 1948-9 Jeju massacres were conducted with direct connivance from the US side which was providing crucial supports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al troops. South Korean products, manufactured largely by underpaid temporary workers, many details being made by low-wage workforce down the supply chain, are being sold and consumed all around the world. Secondly, the extreme cases found in Korea are very instructive, as they demonstrate the potentialities of many worldwide modern phenomena which were never realized to their fullest extent elsewhere. Extreme militarization, for example, is

9) See detailed calculations in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

something any modern state, in principle, is entitled to pursue in the Schmittian “state of exception”; Korean cases, indeed, allow us to discern what the logical outcomes of such a “state of exception” might be. South Korea’s large-scale destruction of permanent employment after 1997-98 demonstrates again the potentialities a combination of strong, activist police state and relatively weak unions with very limited political representation may imply in a neo-liberal age. In a way, it can be said that modern Korea became a laboratory in which a number of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experiments* has been staged by history during the last century. The results of these experiments should be of utmost interest and concern to the whole humanity. And, since modern Korea’s problems are, in the end, everybody’s problems,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 *knowledge on Korea* could also be coupled with *the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Korea*. I would define an impulse towards such solidarity as Mencian: just as jumping to help a child out of a well is natural, it is more than natural to solidarize with the people who produce the consumer good which we use often under the conditions of precarious, low-wage employment, in many cases facing serious, often even deadly health hazards.¹⁰⁾

Above I have attempted to outline a possible ways for a Korean Studies practitioner to survive in Norwegian/Northern European environment while integrating the knowledge on Korea into the larger public picture of the outer world. I focused more on the social sciences than humanities, and had mostly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in mind while talking about “internationalization.” The conclusions may be different for the former Soviet areas, China or Japan, as their different historical connections to Korea can presuppose dissimilar modes of practising Korean Studies for the local public there.

10) See, for example, this article on the Samsung Electronics workers who ended up contracted cancer, assumedly due to the deficient workplace safety: <http://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6/jan/12/workers-cancer-compensation-dispute-final-settlement-samsung>

한국 밖에서 가르치는 한국학 - 생존과 통합 전략: 스칸디나비아인들에게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Tikhonov, Vladimir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e Studies and Oriental Languages, Oslo University

초록

필자는 이 발표를 통해 노르웨이 공동체 그리고 넓게는 여러 스칸디나비아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학 교육과 연구가 관심사가 될 수 있을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나아가 북유럽 외의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학 관련 이슈도 다룬다. 이 발표에서 주장하려는 바는 한국의 근·현대사야말로 스칸디나비아를 포함하여 한국 외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 가장 밀접히 연관된 한국학의 한 단면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현대의 한국은 식민지 시기와 냉전 시대의 외압에 의한 강제 분단, 그리고 탈냉전시대에 걸쳐 아마도 극단의 사회로 규정해도 마땅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홉스봄(Hobsbawm)의 저서 ‘극단의 시대 (age of extremes)’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말에(정확히 1937-45년에) 일본이 한국 사회를 최초로 군사화한 뒤, 비극적으로 분단된 남북한 양쪽 모두는 오늘날까지 총동원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했다. 특히 남한의 경우, 냉전기 병영 국가의 규율 체제와 1953년 전에 남한이 진짜 또는 잠재적인,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상상된 적 수십만 명에게 저지른 대학살의 기억은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직장과 아동을 포함하여) 전체적 군사주의를 떠받쳤다. 한반도의 공포와 규율 체제는 1950년대 이후의 (산업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근대성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이었으나,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대거 양산하기도 했다. 또한 남한은 1997년 후에 신자유주의 통치 방식을 도입할 기반을 세웠다. 이 발표에서 나는, “극단의 시대”를 살아온 한국의 경험을 구체적이고도 심층적으로 이해하면 세계 근현대사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현재 한국인들이 별이고 있는 더 포괄적인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투쟁과 연대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론: 노르웨이/스칸디나비아에서 보는 한국, 일반 현황

한국은 노르웨이인들에게 여간해서는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스칸디나비아 전역의 인식이 비슷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는, 북한과 더 넓은 세계 간에 외교적 중재자로 활발히 활동했던 스웨덴(1973년까지 스웨덴 대사관이 북한에서 호주, 캐나다, 미국의 보호국으로 기능함) 등과 차이를 보인다. 스웨덴에 비해 노르웨이는 한반도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노르웨이는 1951-1954년에 NORMASH라는 야전 병원을 통해 전쟁의 상흔을 입은 남한을 도왔고, 1959년에 덴마크, 스웨덴과 함께 남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그러나 노르웨이가 아시아의 3대 교역국인데 비해 남한과 노르웨이의 관계는 소원하다. 한국에 관한 노르웨이의 언론 보도는 주로 북한과 주기적인 남북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부분 서양과 남한의 영어 사용 자료가 그 원천이다. 남한은 주로 산업경제, 남북관계, 또는 흔히 케이팝 스타들의 유명세와 관련하여 언급된다. 다양한 국제 캠페인이 강력한 노르웨이 노조와 협력하여 노르웨이 내에서 시행되며 노르웨이 거주자들이 이에 참여하기 때문에¹⁾, 노르웨이 노동 운동가들은 남한의 노사관계와 노동자 탄압과 관련된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심지어 좌파 성향의 노르웨이 언론에서도 자세히 다루는 경우가 드물다. 한 마디로 한국은 노르웨이의 인지도도에서 대체로 인지되지 않으며, 그 이미지는 주요 해외언론에 의해 유포된 편견과 진부한 말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

노르웨이에 만연한 비교적 모호한 한국의 이미지는 노르웨이 내 다소 초보적 수준의 한국학과 결합된다. 오슬로 대학(Oslo University, UiO)은 1999-2006년에 한국어를 가르쳤으나 결국 학생이 적어 중단해야 했다. 2013년 이래로 몇몇 열성적인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요청했으나²⁾ 여태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현재 오슬로 대학 학부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종합 선택 과목³⁾은 각각 *한국의 종교와 철학*, *한국의 사회와 정치*, *북한: 이데올로기, 사회, 정치학*이다. 또한, 남한 대중 문화에 관한 또 다른 선택 과목 하나를 현재 준비 중이다. 본 포럼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바로 위 세 과목 모두 한국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학부생의 경우, 동일한 교과목에 한국어를 2차 자료로 사용하며 수업의 질이 높아진다. 한국에서 또는 타지에서 어렵게 한국학을 배운 학습자들 모두가 오슬로 대학(인문학 대학) 동아시아 역사문화 석사 프로그램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한국의 주요 자료에 기반을 둔 학사 논문을 작성하며 학사 학위 연구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³⁾. 현재까지 5명의 학생이 이 기회를 활용했다. 나아가, 총 3명의 석사 학생이 Bergen 대학(UiB)의 다양한 대학에서 현재 한국과 미약하게라도 연관되는 논문을 작성 중이다.

중학교 이하(pre-tertiary) 교육기관에서 **한국을 다루는 과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tertiary) 수준의 교육에서 한국을 다루는 과목들도 비교적 극소수이고, 한국 관련 전공을 하고 싶은 대학생들

1) 사례 참조: http://www.labourstartcampaigns.net/show_campaign.cgi?c=2892

2) UiO의 한국학 학생 위원회 웹페이지, 학생 위원회의 한국어 수업 대학 커리큘럼 재도입 노력 참조: <http://www.hf.uio.no/ikos/livet-rundt-studiene/studentdemokrati/fagutvalg/korea-studier/>

3) 프로그램 설명 참조 - <http://www.uio.no/english/studies/programmes/aas-master/programme-options/each/index.html> 안타깝게도, 이 프로그램은 2020년 이후로 중단될 예정이다.

도 비교적 적다. 한국어는 오슬로의 한 고등학교(Berg Videregående Skole)에서 제2외국어로 교육되며, 이 곳 졸업생들은 대학에서 한국 관련 수업을 수강하기도 한다. 오슬로의 학생을 제외한 주민들은 기존에 한국-노르웨이 혼합가족의 2세대 학습자들을 위해 오슬로 한국어 공동체가 (현지 대한민국대사관의 재정 후원을 받아) 운영하던 한국어 학교에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⁴⁾. 오슬로 성인 교육 기관인 Folkeuniversitet(시민 대학)에서도 한국어를 포함하여 수강자들이 신청하는 여러 외국어를 가르치며 또다른 기회를 제공한다.⁵⁾ 대체로, 한국어와 한국학은 대부분 (주로 남쪽) 한국에 연고가 있는 노르웨이 사람 극소수만이 찾는다. 한국 대중 문화가 점점 두각을 나타내면서 상황이 천천히 바뀌고는 있지만 혁신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 케이팝 등에 관한 일부 정보는 이미 일반 상식이 되어버렸지만, 대한민국 언론의 과장된 보도가 퍼져 나가며 한국인들이 흔히 ‘한류’가 유럽 전역에 큰 현상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것과 달리, 스칸디나비아의 한국 대중 문화 팬덤은 비교적 작은 규모이다. 또한 최근에 이렇게 대중 문화 상품이 유행하며 “한류”에 대한 관심이 치솟기 전에, 1980-90년대부터 노르웨이에서 태권도가 탄탄한 시장 기반을 가진 한국 (주로 남한) 문화 수출품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태권도를 배운 사람 대다수가 한국어나 한국학에까지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최근에 일부 스칸디나비아 젊은 층에서 한국 대중 문화가 유행하고 있어도 이 유행이 한국학에 대한 장기적이고 깊은 관심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한국은 대부분 주변국 정도로 가볍게 다뤄지는 북부 유럽 국가 주변부에서 한국학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할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미래에 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연관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 전문가들은 노르웨이 국민과 잠재적으로 연관되는 한국의 이슈를 찾아 그 지식을 노르웨이 공공 부문에 통합시켜야 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드러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노르웨이와 기타 북유럽 사회의 공공 담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한국 현대사**가 노르웨이, 나아가 스칸디나비아 국민에게 가장 걸맞은 주제로 보인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유명한 평화 운동과 평화 연구를 고려했을 때, **남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하 “CO”)의 투쟁은 노르웨이의 연구자들과 대중의 주목을 끌 만한 주제이다. 현재 전세계 CO 수감자의 95%가 한국인들로 알려져 있으며, 전체는 아니지만 그 중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들은 징병을 거부하며 매년 600-700명씩 수감되고 있다. 실제로 필자는 *한국 사회와 정치* 강의 시간에 이 문제를 오래 언급했으나, 이 문제는 대학 강의를 넘어 더 큰 규모로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잡지와 신문 기사,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은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남한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이론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남한의 공무원 징병에 저항하는 것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⁶⁾. 이 문제를 대중에게 더 알릴수록 노르웨이와 한국의 평화와 반전 NGO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노르웨이 시민 사회의 활발한 평화 지지 활동과 한국의 다양한

4) 학교 웹페이지 참조 - <https://www.facebook.com/KORskole>

5) 한국어 프로그램 설명 참조 - <https://www.folkeuniversitetet.no/Spraakkurs/Koreanskkurs/Koreanskkurs-nybegynner-A1>

6) 문승숙, 남한의 ‘군대화된 시민권’ 양상 중 *남한의 군대화된 현대성과 젠더화된 시민권* (Durham, NC: 듀크 대학교 출판부, 2005) 참조.

반군사주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력은 현재까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 노르웨이 대학의 출판업적 **평가 시스템**⁷⁾ 연구자 그룹의 동료 평가(peer review) 없이 인쇄된 공공 출간물은 (또는 한 명의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된 시각 대중 매체 콘텐츠는) “학술 문서”로 인식하지 않고, 그 저자들에 대해 어떤 “출판 점수(publication points)”도 부여하지 않으며, 노르웨이 기반 대학 교수들이 이렇듯 연구 동료 평가 후 나오는 저널이나 간행물 외에 다른 글은 출판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재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교수들이 비학문적 출판물을 통해 대중과 접촉하여 자신의 분야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면, 경력 관리 및 승진용 학계 출판을 희생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상, 이 시스템 하에서 교수들은 더 넓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학계를 그들만의 세계, 또는 시장으로 만들어 “출판 점수”를 통화 대용으로 사용하면서 이 시장을 지탱하는 납세자들과 의사소통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처음에 인문학에 비해 더 많은 대중과 의사소통 할 필요성이 덜 강조되던 자연과학과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도입되었으나, 현재 노르웨이의 인문학 상태에 막대한 해로운 영향을 주고 있는 듯 보인다. 필자는 한국의 학계 성과 측정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 한국연구재단이 인준한 (특히) 해외 영어 저널과 국내 저널의 출간물에만 편중되어 있어 한국 동료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알리고 싶다.

유명 서적이거나 학계 출간물 등 한국 관련 지적 상품 시장은 노르웨이에서 규모가 너무 작고, 한국 관련 일자리 또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 때에, 한국 전문가들의 가장 좋은 생존 전략은 **국제화(internationalisation)**로 보인다. 노르웨이 국민은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고 세계적 유대감 또한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국제화가 비교적 쉽다. 복지 국가는 실제로 국제화를 장려한다. 해외에서 공부 중인 노르웨이 국민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급료와 학자금 대출), 영어로 출간하기 원하는 노르웨이 교수들은 그들의 소속 기관에서 (원어민 전문가에게) 납세자의 세금으로 원고 편집을 맡길 수 있다. 따라서 노르웨이 기반 저자들이 한국에 관한 글을 쓸 경우 영어로 써서 해외로 출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한국 관련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을 수강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수업 언어로 사용하는 해외 대학에서 (현재 점점 더 많은 대한민국 대학들이 영어를 교육 수단으로 사용 중이며, 외국인 대상 한국어학 상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수강하는 것이 당연하며, 노르웨이 밖에서 일자리를 찾을 확률이 높다. 노르웨이에서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계 밖에 있는 대다수의 노르웨이 사람들은 영어 실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어로 된 대중 서적을 읽는 것을 즐긴다. 그러나 학계의 경우 동료 교수들이 한 명의 작업물을 읽고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로 일부라도 번역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다양한 역사적 유산과 경험이 가득한 한국 관련 주제들을 영어를 사용하는, 또는 더 넓은 층인 영어를 읽는 독자들에게 대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7)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https://snl.no/tellekantsystemet>

한국의 “극단의 시대” 에 대한 교육

문제가 되는 한국 관련 글이 전근대보다 근현대를 다루는 한, 현대 한국의 경험 중 구체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주제를 통해 해외인들에게 한국과의 연관성을 찾아줄 수 있다. 즉,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극단의 시대” **한국의 현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인 대다수가 식민지 시기를 겪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삼아 7-8년의 통치 기간 동안 펼친 **동화 정책**과 유사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식민지 통치국이 식민국이 모국어로 교육을 배울 기회까지 박탈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한국에서 식민기 후반인 1937년에 한국어 교육이 완전히 금지되며 바로 그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이 이렇듯 급격한 조치를 시행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국 청소년들을 1943년부터 일본군으로 **징집**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 때, 일본은 식민국의 국민들의 참정권을 계속 거부하고 징병하는 드문 통치국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이 통치국이 도입한 징병제는 한국전쟁 직전 1949년에 (1950-53) 분단된 한반도에 다시 도입되었다. 남한의 징병제는 1960-70년대의 군사 독재 정권 하에 강화되고 고착화되면서, 위에서 언급한 사회 전체의 군사화의 배경이 되었다. 시민권과 군복무는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그 결과, 징병이 면제된 여성, 장애인, 혼혈인은 스스로를 고작해야 이등 시민(second-rate citizens) 정도로 인식하게 되었다. 징역을 마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는 훨씬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전과자’로 여겨졌으며, 사실상 사회경제적 권리에 제약이 가해졌다(정부 관련 직업 진출의 어려움 등). 전체 남성의 90% 이상이 실제로 현역으로 징집되었다.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남한은 **강제 징집 사회**로 분류 가능하다. 이러한 사회에서 징집은 거의 대다수의 남성에게 영향을 주며 인구 전체의 일반적인 사회, 행동 양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남성 강제 병역의 대안 부재와 양심병역거부자의 수감은 사회의 **군사화** 수준이 높음을 보여주는 여러 양상 중 하나이다. 이 양상은 현대 한국의 명백하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분류 가능하다. 다면적인 현상인 군사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의 여러 부분에 침투한다. 사회의 군대 분위기에 대한 적응은 아동기부터 시작된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2008-13년에만 111,397명의 초, 중, 고 학생이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강제로) “병영 캠프”에 참가했다. 이 병영 캠프에서는 흔히 은퇴한 해군이 제복을 입은 학생들을 며칠동안 실제 군대 훈련과 유사한 방식으로 훈련시킨다⁸⁾. 만 16살이 넘은 고등학생의 병영 캠프에는 실탄으로 사격하는 시간도 포함된다. 그리고 나서 군대식 극기훈련은 삶 전체에 걸쳐 평균적으로 다양한 단계에서 나타난다. 그 사례로는 대규모 독점 기업(재벌)에서 신입 직원들을 훈련시키며 100km의 하이킹을 하게 하고 다소 극단적인 ‘생존 게임’을 하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직장 내 대인관계의 군사화는 흔히 갑질이 빈번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된다. ‘갑질’이란 강제로 무릎을 꿇리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권력 남용 모습을 의미한다. 사실, 군사화의 사회정치적 목표가 이렇게 규율을 잡고 직원을 통제하는 직장의 군기에서 드러난다. 노동 생산성이 주요 자본국가에 비해 뒤처지는 환경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이런 식의 ‘극단적’ 군사화 모습은 특히 비전문가들이 ‘기적’이라 부르는 1960-80년대 남

8) 보고서는 다음 참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7396.html

한의 산업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기적’과 ‘극단적’이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가치 평가는 정반대이지만, 두 용어 모두 남한의 경험이 일상적이지 않음을, 아니, 그보다는 많은 현대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 지나치게 발달한 모습을 보여준다.

고속 산업화는 따라잡기식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드문 현상인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남북한 모두에서 산업화는 극도로 짧은 시기 동안에 (20-30년) 발생했다. 1960-80년, 또는 197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이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것을 일컫는 데 현재 흔히 사용되는 단어인 ‘한국의 기적’은 이전에는 1953-60년에 북한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업 생산량 성장률을 여럿 기록한 것을 일컫는 데 쓰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두 냉전 국가는** 분단된 한반도에서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상호 경쟁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서로를 **반영(mirroring)**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과 같이, 남한은 아마도 전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사회이다: 90% 이상의 남한 남성들이 군대로 징집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위한 대안은 수감 생활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한을 이길 수 있는 드문 국가 중 하나로는 북한이 있다. 북한은 군 복무 기간이 원래 3년 반에서 5년이었으나 (내각 명령 148번, 1958년), 보고에 따르면 현재 13년으로 (남성), 여성도 약 4년간 징집된다. 각 시기의 징집 인구 비율과 GNP 대비 군사비 비율을 보았을 때 (약 22%), 북한은 가히 전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사회의 수치를 보여준다. 또한 남북한의 군사화는 전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완전한 국가 분단을 시사한다. 냉전은 전세계적 현상이었으나, 1970-80년대의 분단된 독일에서는 그 누구도 직접적인 우편 전달, 전화, 또는 “상대방”의 방송까지 완전히 금지될 수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남북한에서는 불가피하게도 실제로 그렇게 금지되고 있다. 이는 남북한의 시민들에게 내재화된 통치의 군사화가 어느 정도인지 입증하는 것이다.

분단된 두 국가의 **군사적 통치성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걸쳐 내재화될 수 있는 이유에 관한 질문은 스칸디나비아를 포함하여 모든 한국학 연구 기관에서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기본 주제 중 하나이다. 1953년 한국전쟁 후에, 국가 이데올로기 기구 (무엇보다도 교육과 미디어), 징병 군대와 국가 보안 기구의 결합을 통해 남북한 국민들의 냉전 체제화가 진행되었다. 국가 보안 기구는 짐작되는 (그리고 잠재적인) 반대 세력을 진압하고 그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강등시켰다. 한편, 1953년 전에는 한국에서 수많은 시민을 그저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흔히 ‘반국가적’ 활동과 관계가 아예 없지는 않다는 이유로 국가가 주도하여 공개적으로 대학살하면서 사회가 정부의 계획대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1948년 4월 3일의 항쟁 이후 있었던 제주민 대학살 사건에서는 최대 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가가 주도한 공포 작전 중 하나였다. 그 외에도 (이전에는 좌파 교육 기관이었으나 무관한 시민들도 많이 포함된) “보도연맹” 회원의 대거 몰살로 1950년에 최대 2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50년 12월에 서울 안팎의 추정 ‘좌파’ 정치적 수감자 수백명을 사형한 일도 있었다. 이러한 모든 과도한 사법적 잔혹 행위는 국민들에게 ‘반국가적’ 행위에 조금이라도 연루되거나 ‘좌파’ 추정 세력과 조금이라도 연관되면 직접적인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인 다수가 고문, 잔혹한 죽음, 또는 사회적 지위의 장기간 강등과 같은 끔찍한 결과에 시달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군대 규율을 교육하기 전에 국가의 진압에 대한

무조건적인 두려움을 내재화시키면서 국민 전체의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 형성되었다. 북한 정권과 그 초기 개혁(1946년 토지 개혁 등)이 대다수에게 강력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북한은 남한처럼 대학살을 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이지만, ‘교정’ 캠프와 ‘정치적’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로 악명이 높은 북한도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 여전히,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냉전체제식 규율화가 두 경쟁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극단의 시대’에 분단된 남북한의 기묘한 유사성은 현재까지 이어진다. 남북한에서 국가가 주도한 축적 체제는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전환과 동유럽 붕괴에 따라 1990년대 중후반에 위기를 겪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현재 **남한 노동자의 신자유주의적 “유연화”** 수준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편이다. 계산법에 따라 2013년의 비전형적 고용은 32-33%로, 유급 고용 인력은 46%로 밝혀졌다.⁹⁾ 둘다 다른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수치이다. 게다가, 남한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 (25.1%) 단기간 (1년 미만)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장 많다 (31.8%). 지난 수십년간 위기를 마주한 자본주의 세계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남한에서 1997-98년 아시아 경제위기 후에 겪은 “구조조정”은 산업화 국가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우울한 사회적 결과가 그 뒤를 이었다 (전세계 자살률 3위). 그러나, 인간적인 고통 측면에서 살펴보면 북한 국민들이야말로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국가 주도 개발 모델의 실패, 또는 1994-8년 대기근을 겪으며 **지난 20세기의 가장 가혹한 인도주의적 참사**를 겪었고, 당시 총 사망자는 25만명에서 200만명으로 추정된다. “극단의 시대”는 한반도에서 전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도 냉전시대의 군사화가 지속되고 만연하지만, 사회와 경제적으로도 전후 국가 주도 개발 체제의 붕괴 여파가 남북한에서 잔인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결론: 연관성을 모색한 한국학 교육

한국의 식민지 또는 그 후의 현실의 “극단적 모습”이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또는 그 외의 외국인 독자들이나 학습자에게 **연관성**을 지니는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우리 모두가 결국 똑같은 세계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살아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한 군대는 대부분의 독자나 학습자가 귀속된 (노르웨이, NATO 회원국 등) 다양한 국가로 이루어진 미국 중심의 “서부 동맹군”에 소속된다. 1948-9년의 제주 대학살은 미군 측이 이를 직접적으로 묵인하며 남한 정부 군대를 지원하면서 거행된 것이었다. 남한의 제품은 대부분 급여가 적은 비정규직에 의해 제조되며, 공급망의 하위 단계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은 세부 부품을 만들고, 이 부품들이 전세계에 판매, 소비되고 있다. 둘째로, 한국의 극단적 사례는 다른 곳에서는 실현된 적 없던 세계적인 현대 현상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교훈적이다. 예를 들어, 극도의 군사화는 카를 슈미트의 “예외 상태 이론(state of exception, 역주: 법질서가 정지되어 버린 상태)”에 따라 원칙상 모든 국가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실제로 이렇듯 “예외 상태”를 추구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남한에

9) 자세한 계산식은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를 참조.

서 1997-98년 후에 종신 고용이 대규모로 붕괴된 사건 또한 강력하고 활동적인 경찰 국가와 상대적으로 약한 노동 조합, 매우 낮은 정치적 대표성이 결합될 때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현대 한국은 지난 20세기에 걸쳐 다양한 사회, 정치, 경제 실험의 무대가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인류 전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실험 결과를 살펴봐야만 한다. 그리고 결국 현대 한국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지식이 한국인과의 연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유대를 맹자의 관점에서 정의하고자 한다.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에 심각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겪으며 불안정하게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만든 소비재를 자주 사용하는 우리들이 그 근로자들과 연대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이치이다.¹⁰⁾

위에서 필자는 한국학 전문가들이 노르웨이와 북유럽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하며, 어떻게 한국에 대한 지식을 외부 세계의 더 큰 대중에게 알릴지를 서술하고자 노력했다. 필자는 인문학보다는 사회 과학에 더 집중했으며, 대부분 서유럽과 북아메리카를 염두에 두고 “국제화” 를 설명했다. 이전의 소련 지역, 중국, 일본은 한국과 다른 역사적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에서는 한국학을 다르게 가르쳐야 할 수 있고,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10) 예시: 추정상 사업장의 안전성이 부족한 탓에 암이 발병한 삼성전자 직원들에 관한 이 기사 참조. <http://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6/jan/12/workers-cancer-compensation-dispute-final-settlement-samsung>

Korean Studies outside of Korea - Strategies of Survival and Integration: How to Teach Korea's Contemporary History to Scandinavians?



Children from Korean-Norwegian families are being lectured to on Korea in the South Korean Embassy

A report on North Korea in *Aftenposten*, Norwegian paper of record: "Apologize, or we explode a nuclear bomb"



NORMASH in Korea (1952)



A Norwegian soldier and Korean children, early 1950s



International campaign in support of the embattled South Korean unions: actively promoted by the Norwegian unions



"Student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Oslo University



오슬로대학교 한국학회
STUDENTFORENING FOR KOREA-STUDIER

“Korean Wave” in Northern Europe: a niche phenomenon so far.



Jehovah's Witnesses news service on the conscientious objectors' situation in South Korea

*South Korea Judge
Acquits
Conscientious
Objectors of
Refusing Military
Service*

*May 18, 2015
South Korea*

*JW.org > Newsroom > Legal
Development > By Region > Asia >
South Korea > "South Korea Judge
Acquits Conscientious Objectors of
Refusing Military Service"*

Conscientious objectors' demonstration in Sou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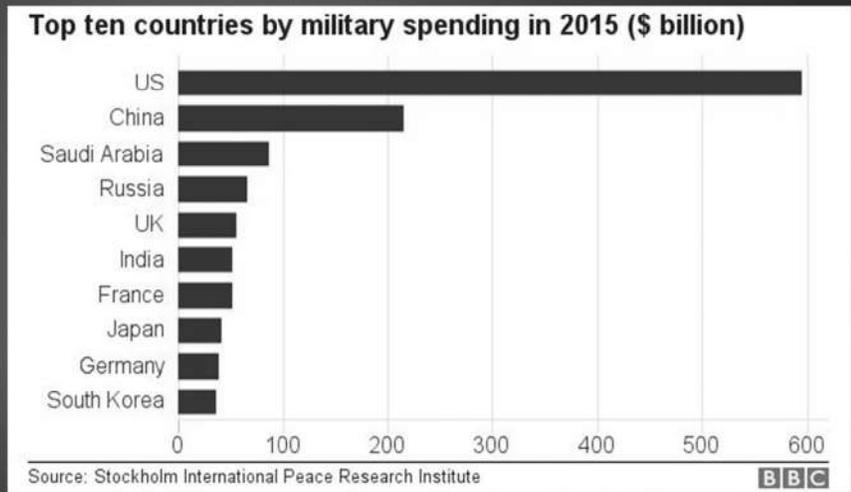
"Publication points" system – an obstacle towards reaching out to a larger community



English: almost completely dominates
 Norwegian academia. Below: obligatory
 readings from Norwegian universities' syllabi



Militarisation of economy: South
 Korea's military spending, global
 comparison



Militarization of childhood: schoolchildren forced to enter boot camps as a part of their school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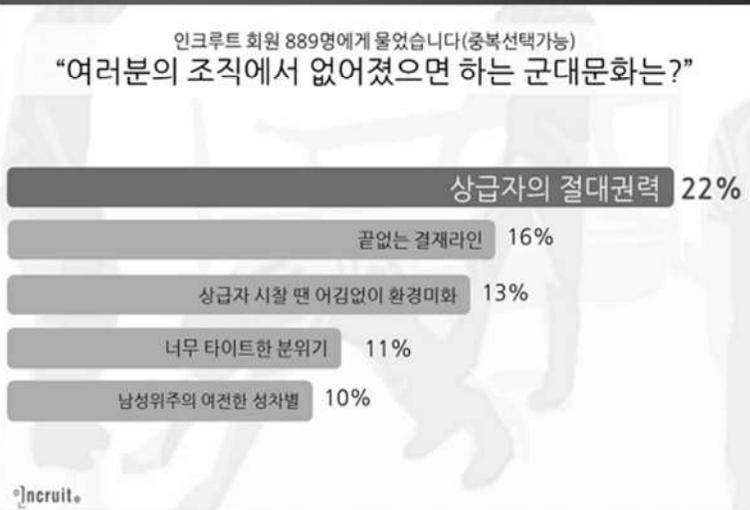


Militarization of the workplace: training camps for newly recruited employees



Kyung Dong Navien, a boiler-maker, trains its newly recruited employees

Militarization, Militarized Employment Practices and Power Harassment Patterns



Roots of militarized 'workforce management' – Cold War-period barrack state.



Military training for schoolchildren, the 1970s

The foundation of the barrack state – «naked violence» of the late 1940s – early 1950s: «the era of massacres» (학살의 시대)



Cheju (Jeju)'s «April 3rd» (4.3)– one of the first exercises in mass murder and summary terrorization during the «era of massac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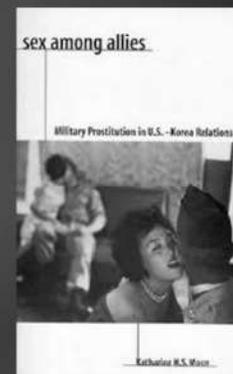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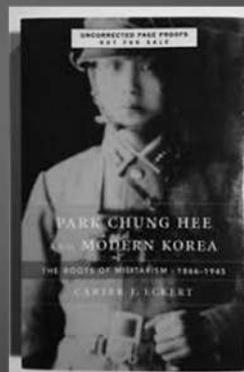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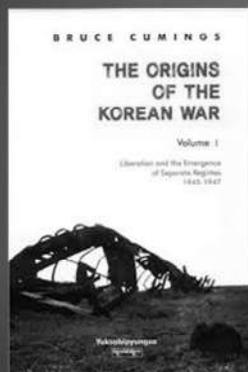


Cheju (Jeju)'s «April 3rd» (4.3) as the «foundational cruelty» of South Korea's history



특히 서북청년회 소속 토벌대들은 노인, 어린이, 아기, 성별을 가릴 것 없이 일반 서민들을 빨갱이와 한통속으로 치부하여 모조리 죽여버렸다고 한다

Can foreign-based Korean studies contribute to a fuller, globally contextualized understanding of Korea's recent past and to the solidarity for peace and demilitarization in Korea?





The Korean Modern History and Jeju 4·3 Uprising

한국현대사와 제주4·3

Yang Jeong-sim
Research Prof. in the Institute of Humanities, Daejin University
양정심
대진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The Korean Modern History and Jeju 4·3 Uprising



Yang Jeong-sim
Research Prof. in the Institute of Humanities, Daejin University

Abstract

“Space of liberation” was a dramatic time. It was a time when liberation, division, left-wing and right-wing, revolution and counter revolution co-existed. The joy of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aspirations for the new world came like a lightning and disappeared in a flash. Although it lasted for less than three years, “Space of liberation” was the day when the desire for a new world was erupted everywhere. The explosion of that aspiration arose in Jeju, at the end of the Korean peninsula.

Seventy years ago at around 2 a.m. on April 3, 1948, the Jeju armed uprising began with the lighting of signal fires on Mt. Halla and nearby “oreum” (parasitic volcanic cones). However, the Jeju April 3 Uprising did not begin on April 3, 1948, as its moniker states, but on March 1, 1947. Also, the term the Jeju April 3 Incident envelopes the entire period from March 1, 1947, until the day when the ban on entry to Mt. Halla was lifted in 1954.

The Special Law for the Truth Investigation of the Jeju 4·3 Incident and Honoring Victims defines the Jeju April 3 Incident as “a disturbance which occurred on March 1, 1947, and developed on April 3, 1948, and as a following, armed conflict and suppression until September 21, 1954, during which many Jeju citizens were killed.”

The designation of March 1, 1947,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incident carries crucial significance as that date is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reason for the uprising’s outbreak. Police firing at civilians right after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ceremony in 1947 — which would lead to a brutal crackdown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on rioting — was the trigger for the April 3 Uprising.

The rally to commemorate the 28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t Buk Elementary School on March 1, 1947, was attended by some 30,000 people, an unprecedentedly large number. They had gathered under the slogan, “Let’s unify independent Korea in the March 1st spirit.”

After the rally, a child was struck by a police officer's horse, causing the crowd to turn into protesters against the offence. In response, police opened fire into the crowd, killing six civilians and wounding eight others. A woman in her 20s holding a baby and a pupil of the Buk Elementary School were included in those killed by the gunfire. In protest against police atrocities, Jeju residents then staged a general strike, which was even joined by officials employ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some policemen. However, the military government and police refused to admit responsibility for the killings and went on to bring more police officers from the mainland and to mobilize rightist terrorists known as the Northwest Youth League to crack down on the protests. The brutal suppression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here was the cause of the April 3 Uprising.

Another factor behind the April 3 Uprising was the popular struggle to sabotage the general elections held only in South Korea and to establish a unified Korean government. Across the South some political leaders, including independence fighter Kim Ku, joined the anti-election campaign in their belief that the election on May 10, 1948, would lead to national division. On Jeju Island, the results of two elections out of three polling districts were nullified due to a voter turnout of less than 50 percent. Inhabitants of the middle mountain villages climbed the mountain collectively to avoid the election. Jeju was the only area where it blocked the sole election and was recorded in Korean modern history.

However, the island was to pay a disastrous price for its actions. After the election, about one-tenth of the population was victimized by government forces. It was a historical tragedy that became taboo for the subsequent 40 years. As of July 25, 2017, the number of officially recognized victims totals 14,233. Given that the official tally was based only on the reports of the bereaved, more people must have been sacrificed during the incident. The government's "Fact-Finding Report on the Jeju April 3 Incident" stated that more than 80 percent of the victims are presumed to have been killed by the government's police and military forces. Numerous residents were also victimized in the clash between government forces and armed rioters.

On Oct. 17, 1948, Song Yo-chan, commander of the 9th Regiment of the National Defense Guard, issued a decree that anyone found within the mountainous areas more than five kilometers inland from the island's coast would be regarded as rioters and shot to death. After the decree, about 100 hamlets in the mountains were burnt down, and residents were forcibly relocated to coastal areas.

From late October 1948 until March 1949, the punitive forces of the military and police carried out massacres during a scorched earth operation. In this process, "genocide" was committed where the majority of villagers, including young children and women, were killed as in the case of the "Bukchon-ri Incident."

Right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re was a procession of death in the name of preventive custody. Members of the Bodo League, those blacklisted and families of escapees were held in preventive custody and then executed. They were collectively thrown into the sea or shot to

death and secretly buried in Seogwipo, coastal areas, the Jeju airfield and Seosal Oreum. Ex-convicts from across the nation were also subject to summary execution.

Most of the victims were civilians branded as communists.

In isolation, Jeju turned into an island of blood, tears and dead bodies.

I. Prologue

Liberation Space was a dramatic time period. It was the time zone where liberation and division, the left and the right, and revolution and anti-revolution coexist. The joy of the liberation and the passion for a new world came in a flash and vanished in a moment, like a daydream. It was the period that lasted less than 3 years, but Haebang Space was a series of days when a longing for a new world spurt here and there in the middle of the effervescence from the independence. However, it was also the period during which frustration weighed on hope more and more. And it was the case in Jeju Island on the end edge of the Korean peninsula, too.

With signal fires rising, Jeju 4·3 uprising broke out in Hallasan mountain and its nearby Oreums (uphills) all together at dawn on April 3, 1948, and its beginning shares the same context as that of the 3-year history of Korea liberation. That is, the Jeju residents' longing for a better world after the liberation melted in this history. And the brick wall that blocked it, their resistance to and uprising against it, and eventual frustration are all parts of the temporal history. Haebang Space was characterized with political days more than any other periods in the Korean history. The ordinary people in Jeju were captivated by the passion for building a new country, and thus their lives were mixed with routines and political activities.

Two can be considered as the possible causes for Jeju 4·3 uprising. One is the self-defense of Jeju residents against the suppression of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he right-wing groups, and the Korean police after '3.1 Incident' in 1947 when the police fired at Jeju residents. The other is their political uprising for stopping the single-sided election of the South for establishing a separate independent government and pursuing one united government of the two Koreas. Many uprisings took place to block the single-sided 5.10 election all over the country in 1948 but Jeju 4·3 uprising has been recognized as the most well-structured one of them.

However, it had to pay a horrible price. According to the report of 'Special Act on Discovering the Truth of the Jeju 4·3 Incident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Jeju 4·3 Special Act"), more than 14,000 civilians were sacrificed. Given that the number is a mere official figure added up to by the self-reporting on the victims, it is logically safe to say that the number of the

victims is way more than that. One-tenth of the Jeju residents were dead or killed in the course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Jeju mountaineers that were the main force of the uprising and the Korean soldiers and police subduing them. Most of the dead then were civilians but were called 'Pinko (communists)' and the island turned red. The anticommunist government labeled 4·3 uprising 'a communist riot'. After that, everyone shut a mouth on this taboo for 40 years.

As a pro-democracy movement began in the 1980s, the memories of 4·3 uprising also started to revive and led to systematic fact-finding movements. At last, 'Jeju 4·3 Special Act' was enacted. The Fact-Finding Report on Jeju 4·3 Incident concludes that 'Jeju 4·3 Incident is the infringe upon human rights by the state power' and the official history of Jeju 4·3 uprising has changed since this moment. Later president Roh Moo-hyun made an official apology and paid a memorial service for those victims.

In South Korea, the movement for clearing up past affairs as well as 4·3 uprising took a new turn in the late 20th century. Forced silence and pitiful uprisings began to be officially dealt with in the framework of an institutionalized system. The painful affairs of the modern history were manifested on the official stage such as Geochang Massacre, Jeju 4·3 uprising, pro-Japanese groups, compulsory mobilization during Japanese rule, and civilian massacres after the Korean civil war.

Of them, Jeju 4·3 uprising has been set as a good representative example of clearing off past affairs. A memorial park for 4·3 uprising (Jeju 4·3 Peace Park), a memorial hall, and a foundation have been established. Lately, the government designated the date as the national memorial day, taking on a solid course of rehabilitating their lost honor.

The movements of finding facts and regaining reputation were the efforts to remember the pasts and putting the tabooed history on the official stage. Therefore, Jeju 4·3 Incident is the history of resistance as well as massacre and sacrifice of Jeju residents. Still, the uprising based on memories of 4·3 uprising is in progress.

II. The Cold War, the Progress of the Division, and the uprising Against a Single-Sided Government

The power structure in the Cold War began in March 1947, when Truman Doctrine was announced stressing the United States' Containment Policy on Soviet. On March 12, 1947, the US president Truman proclaimed at the Congress the principle of American diplomacy to provide economic and military aids to the countries or regions that fight against the threats of communism. Accordingly, the United States offered aids to Greece and Turkey to press down the uprising of communists in their regions, which destroye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USSR that had been kept since WWII and drove the world into the Cold War.

In the Korean Peninsula, the second conference of the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adjourned on May 1947 just like the first one due to the issue of participating subjects. Then the US tried to establish a government in its favor at least in the Southern part. However, this US policy of a single-sided government wasn't conceived overnight. The US didn't just reveal its inner intention due to the Moscow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where they agreed that establishing a Korean government would be decided on the mutual agreement of both US and USSR.

The US transferred the agenda of Chosun to the UN on September 17, 1947. At that time, the UN was under its influence and the transfer was the US' plot to change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to its advantage. Eventually, the resolution of the Moscow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country under their mutual agreement was scrapped out. In the General Assembly on November 14, 1947, the United Nations formed the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 and made a resolution to hold a general election respecting the proportion of population.

And UNTCOK entered South Korea on January 8, 1948, but USSR and North Korea refused UNTCOK to come into North Korea, maintaining 'A temporary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autonomously after both US and USSR leave the Korean Peninsula. Upon that, the UN passed through its Little Assembly a bill to allow an election at least in the region that would vote on February 26. And it set the election date to May 10, 1948.

The news that a single-sided election would be held on South Korean alone sounded like a bolt out of the blue to the Koreans who were dreaming of one united independent country. Kim Kyu-sik's Federation Korean National Independence (KNI) and Kim Ku's Korea's Independence Party (both the right-wing groups) as well as the leftists and the moderates, also opposed such election very strongly. Throughout the nation, uprisings broke out against 'the separate election and 'the foundation of a separate government' and Jeju was most well organized.

South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National Council of Korean Labor Unions staged '2.7 Save-the-Nation' uprising' on February 7, 1948, being absolutely opposed to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that sought for the single-sided (South Korea only) election and the foundation of a separate government, and voiced for the immediate withdrawal of US and USSR armies. The uprising first started with the general strike of the labor workers in Yeongdeungpo and spread to farmers, office workers, students, and civilians. The general public joined the uprising against the single-sided (South Korea) election through several ways of expressing their opinions such as demonstration, rally, allied collective leave of absences from school, smoke signal, and propaganda bill. About 1,470,000 participated in this demonstration and 57 were dead and 10,584 were arrested. Even though the uprising was most intensive for 10 days from February 7, 1948, it continued to break out systematically and according to plan, backed by the Korean public.

'2.7 Save-the-Nation' uprising' was an anti-US demonstration which was directed to the United States seeking a separate Korea government and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that served

the US as a servant. The people's fight against the separate election and separate Korean government was most fervent in Jeju. On the occasion of Jeju Island's Commemorative Ceremony for the 28th Anniversary of 3.1 Independence Movement Day in 1947, the police fired at the crowd and 6 civilians were killed. It sparked the plug for 4·3 uprising in the following year.

At 2 in the morning on April 3, 1948, signal fires were lit on every peak at once, regardless of its size -small or big-, of Hallasan mountain and Jeju self-defense Forces attacked 11 police stations of 24 in the island simultaneously. They also attacked the right-wing youth groups such as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United Young Men's Party, and National Society for the Rapid Realization of Korean Independence all of which were suppressing Jeju residents.

Eventually, 2 electoral districts out of 3 in Jeju Island became invalid due to too low turnout rate. Jeju Island became the only region where 5·10 General Election was not validly conducted and re-election took place a year later. In the modern Korean history, Jeju Island is recorded as the only region that blocked the separate election.

All the political parties and the public except the rightists opposed the election, but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kept pushing forward with 5.10 Single-Sided Election in 1948. Only Syng-man and Korea Democratic Party participated in the election while Kim Ku and Kim Kyu-sik didn't. The police, the right-wing youth groups, and the public servants distributed rice ration tickets to those who did not vote in an attempt to make the election valid or cornered those not on their side, slandering they were 'pinko'. Therefore, a fair procedure of election was disregarded and the polling stations were surrounded by the National Defense Guard, the police, and the right-wing youth groups the day before the election day.

The Constitutional Assembly, which was formed on the separate election on May 10, was largely occupied by independent members (85 seats). As a result, Rhee Syng-man's National Society for the Rapid Realization of Korean Independence took 54 seats in the Congress, which was followed by 29 seats by Korea Democratic Party, 12 seats by United Young Men's Party, and 6 seats by the National Youth Party. And most of the congressmen elected for the Constitutional Assembly were the rightists, who were in a friendly term with Rhee Syng-man and Korea Democratic Party. The leftists, the moderates and some of the rightists refused to run for the election. Of 425 entities that were registered as a political party or a social organization at that time, only 43 groups participated in the election.

On May 31, 1948, the Constitutional Assembly held a session and decided the name of the country to be 'the Republic of Korea' and promulgated its constitution on July 17, 1948. And on July 20, 1948, the Congress elected Rhee Syng-man 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Lee Si-young as the vice president and announced the government had been officially established. North of the 38th parallel, also, a meeting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was held in Haeju on August 21, 1948, and the representatives were elected. On September 2, 1948, Supreme People's Assembly (SPA) was held and framed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it establishe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n September 2, which was the separate regime of North Korea.

In 1945, 'The liberation was the beginning of a new life to the Koreans. And uprisings had ceaselessly taken place to clear off Japanese legacies, abolish the semi-feudalistic tenant-farming system, and build a country that would root down into the general public. Unfortunately, however, both Koreas came to have its own separate government.

III. Jeju 4·3 uprising: The History of Resistance and Pain

Massacre

At 2 in the morning on April 3, 1948, 70 years ago, signal fires were lit on Hallasan Mountain and the nearby Oreums. However, the beginning of Jeju 4·3 uprising is not April 3, 1948, but March 1, 1947. 4·3 uprising is a symbolic sign that sticks to the whole process of the struggling movement of Jeju residents from the day to the day when the standstill order of Hallasan Mountain was canceled in 1954.

The government's 'Jeju 4·3 Special Act' also defines 'Jeju 4·3 Incident' as the incident where Jeju residents were victimized in the course of the commotion that was triggered on March 1, 1947 and arose on April 3, 1948, and the armed conflicts and suppression that took place in Jeju Island from that day until September 21, 1954.

Setting 'March 1, 1947' as the onset of 4·3 uprising has a great significance in inquiring into the causes of 4·3 Incident. The incident in which the police fired at the participants in Jeju Island's Commemorative Ceremony for the 28th Anniversary of 3.1 Independence Movement Day in 1947 and caused casualties served as an important momentum to lead to 4·3 uprising against the murderous suppression of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On March 1, 1947, about 30,000 citizens gathered in Jeju North Elementary School to participate in Jeju Island's Commemorative Ceremony for the 28th Anniversary of 3.1 Independence Movement Day. With the chant "Let's Achieve the Unified Independence with 3·1 Spirit", the occasion was the most supported (participated) by and popular with the citizens in Jeju history.

Right after the commemorative ceremony ended, a child was kicked by a policeman's horse and fell down. The crowd protested against the police but the cheer police (from the inland) opened fire on the crowd and caused 6 civilian casualties and 8 injuries.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nd the police did not apologize at all and rather expanded and reinforced the police force with those from the inland and dispatched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to Jeju to execute violent suppression. It was the savage suppression of that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hat caused 4·3. Uprising in the following year.

The other important background for 4·3 uprising was that it was the people's fight against a separate election and for a unified government. Kim Ku and some of the leaders of the people didn't run for the election of members for the National Assembly dated May 10, 1948, for the reason that it was the single-sided election that would promote the national division and instead started a uprising against the election throughout the nation. In Jeju Island, 2 electoral districts out of 3 became invalid due to too low turnout rate. As a result, Jeju Island became the only region that blocked 5.10 separate election.

However, it had to pay a horrible price. One-tenth of the Jeju residents were dead or killed and they had to go under 40 years of taboo time. As of July 25, 2017, officially 14,233 Jeju residents were recognized as victims in the course according to 'Jeju 4·3 Special Act'. Given that the number is a mere official figure added up to by the self-reporting on the victims, it can be logically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the victims is more than that. The government's the Fact-Finding Report on Jeju 4·3 Incident' describes that more than 80% of the victims were killed by the military-police punitive forces. A great number of Jeju residents were killed in the fights between the military-police punitive forces and Jeju citizens' armed forces.

After October 1948, many middle mountainous areas were burnt and the residents were forced down to the Coastal areas by the 'burning-everything-down-to-the-ground' operation of the soldiers and the police. On October 17, commander Song Yo-chan of the 9th regiment of the National Defense Guard ordered 'mass slaughter' on the villages, e.g. 'Bukchon-ri Incident', where women and children were living. A death march continued even right after the Korean Civil War: Jeju residents were captured and killed in Satal Oreum and the airport in the course of the so-called 'preventive custody'. Most of the dead then were civilians but were called 'Pinko (communists)'.

The Fact-Finding Report on Jeju 4·3 Incident describes that "About 80% of the victims were killed by the military-police punitive forces." It points out that the leaders of the uprising were also responsible for the sacrifice of the civilians, but it was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nd the Korean government that commanded the harsh crackdown that should take most of the responsibility for it. As Jeju 4·3 uprising arose,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dispatched colonel Brown as the top commander for the National Defense Guard and the police. Even aft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the US grabbed the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through the military advisory group (MAG) and intervened in disturbance repression operations in South Korea. Colonel Song Yo-chan, who was the commander of the 9th regiment of the National Defense Guard, made a declaration to the inland areas of Jeju within 5km from the coastline. The declaration read no passing without a curfew permission. Furthermore, And the martial law was proclaimed on November 17. Many middle mountainous areas were burnt and the residents were forced down to the Coastal areas. Their houses were all burnt. After that, a mass slaughter was committed not only on individuals but also on villages as a whole in the course of the crackdown. And it even continued on those captured under preventive custody as the Korean Civil War broke out.

Both the military-police punitive forces and the guerrilla troops were perpetrators, but, as the statistics show, most of the mass slaughter was committed by the military-police punitive forces. What matters most is that most of the victims were civilians. Moreover, it was the period during which the engagement between the military-police punitive forces and the guerrilla troops came to a lull that the number of the civilian victims increased sharply, not the period during which the guerrilla troops resisted actively

Sacrifice was not proportionate to the degree of resistance, but to the extent to which the government wielded violence on Jeju. This also confirms that 4·3 uprising was not considered as an uprising but as the target for mass slaughter by the Rhee Syng-man's regime that wanted to neutralize the opposing forces to him; so the civilians were the intended victims at the last stage of the domestic crackdown by the government.

The slaughter was committed in a systematic and organized manner. It was planned and executed in concert with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consultation) and the military, police and right-wing youth groups (execution). The fact that the subjugation operations were planned and carried out not on certain regions in Jeju Island but throughout the island verifies that central government was deeply involved i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those operations. The tactics were mostly supervised by the military commanders leading the punitive forces, but the strategic and political decisions were made by the US, the leaders of the Korean armed forces, and the center of the political power.

Slaughter does not have a distinct principle. The soldiers, the police, and the right-wing youth groups, which were the executors of slaughter, wielded the power given to them without distinction between right and wrong, business and personal and there were not disciplined at all. They committed such crimes against humanity as rape, murder for pleasure, and merciless decapitation happened all over the place.

To Rhee Syng-man's regime and the military-police punitive forces, Jeju was an island of revolt and 'pinkos'. They didn't have room to check if this was right or wrong and even wouldn't. It was because such 'room' itself could be regarded as 'pinko' in the formidable current of 'anti-communist' ideology at that time. Jeju was becoming an Island full of 3 things: blood, tears, and dead bodies, being cut off the rest of South Korea.

uprising

In the course of Jeju 4·3 uprising, Jeju residents were sacrificed in a one-sided way by the state power, but there must have been the time period during which they existed as the subjects of uprising against it. Jeju residents who resisted to the suppression had established the legitimacy of their uprising and resistance. Jeju 4·3 uprising was the mixture of the residents' autonomous uprising and a political fight against the separate election.

Unlike the People's Committee in the mainland that had been completely dissolved away in 1946 by the repression of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Jeju was still under the control of the People's Committee between 1945 and 1946. The reason why the People's Committee won a strong support of Jeju residents was its 'middle-of-the-road' line by which the committee harmonized the legitimacy of its spirit of anti-Japanese uprising, the people's daily demands, and their political uprising. As it turned to 1947, the authority of the People's Committee transferred to the Democratic Front and the nature and competence of its leftists could be preserved better in Jeju than the mainland because it wasn't much suppressed in the island.

The People's Committee and the Democratic Front were mainly led by Jeju's faction of Communist Party of Korea (it changed its name to South Korean Workers' Party later in late 1946). Thanks to the activities of the People's Committee, Jeju Island remained as the closest place to the people among the leftist groups in South.

This relationship between Jeju faction and Jeju residents was still strongly connected when 4·3 uprising broke out. The activities of the People's Committee shown before 4·3 Uprising and the solidarity between Jeju faction of the People's Committee and Jeju residents shown in 3.1 Demonstration and 3.10 General Strike in 1947 were all more cemented in the process of the resistance and uprising against the suppression of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he police, and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and lasted until 4·3. Uprising. Jeju's faction of Communist Party of Korea and Jeju residents had built mutual trust in the course of the fundraising campaign for condolence money after 3.1. Incident as well as daily bonds such as in autonomous education movement and livelihood cooperation movement. In other words, the leftist party acknowledged for its legitimacy through a strong anti-Japanese movement had been organically connected with Jeju residents by organizing the People's Committee and the people's uprisings of 3·1 Fire Incident and 3·10 General Strike.

The driving force for such uprisings was the ties between the leading members of the uprisings and Jeju residents, which had been formed and firmed up through a series of events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rule. This was the base on which Jeju residents could join the armed uprising of Jeju's faction of South Korean Workers' Party.

Compared to other regions in South Korea, Jeju had a relatively simpler social class system and hierarchy and a stronger blood bond in a family and with relatives. This seems to have encouraged the residents to go up in the mountains or promoted the connection between the civilians and Jeju guerrilla troops after the suppression began. In fact, it was not solely because the substructure of Jeju's class or its ideology were particularly firm, but because they were closely and strongly connected in bonds and the spirit of community that the resisting activities of Jeju guerrilla troops could last long.

When 4·3 uprising took place, the people's guerrilla troops were more highly encouraged by the support of the general Jeju people. It was vividly manifested in 5·10 uprising against a separate

election. To block the election, Jeju residents started climbing up the mountain even before the election, being successfully connected with the guerrilla troops.

As the election came nearer, funny scenes were often observed where the police stationed in a village already emptied. Because the election judges were afraid of Jeju guerrilla troops, they didn't want to act up. Therefore,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had to conduct an election polling by itself, transport the ballot boxes, and carry out scouting activities.

Then, the residents of the middle mountainous areas climbed up Oreums the night before the election day or at dawn of the day or stayed overnight in a cave to avoid the election. They came back late at night on the election day.

Remaining in each village, the people's uprising groups, which were organized with a village's self-defense forces, women's Democratic Union, and so on, supported Jeju guerrilla troops in many ways including propaganda activities like sending smoke signals and spreading propaganda fliers, and providing them with food and shelter. In the villages of the middle mountainous areas, the residents so engaged themselves in resistance or uprising that it was hard to find someone not connected to a support for Jeju guerrilla troops. When the guerrilla soldiers came down to get provisions, the villagers were willing to give food, clothes, or shoes they hid, thinking of their family up in the mountain. The villagers, all connected with one another as relatives or kin, would be on the guard and alerted the coming of the military-police punitive forces so that youngsters who were suspected by the military or the police could flight, whenever the military-police punitive forces came. This communal nature of Jeju Island was the biggest hurdle to block the military-police punitive forces from being successful in their operations.

Particularly, the members of the Women's Democratic Union joined the mission of passing provisions because they were less monitored than the men. On occasion, they collected rice, salt, socks, and etc. and sent them up to the mountain and even they would have a meeting for supporting Jeju citizens' armed forces at night. Mostly unmarried women ran an errand to the mountain and around the villages to collect provisions. Even the girl middle school students joined the supporting activities for the guerrilla troops. At the time, Jeju Girls' Middle School was the only middle education institution for women and the students frequently collected money and sent it up to the mountain. Even they tried to do the so-called 'Flash Demo' like circulating fliers and launching a class boycott.

Until the 'burning-everything-down-to-the-ground' operation, which started in October 1948, the middle mountainous areas were secured under the control of the guerrilla troops: even they would reside in a village there. For this reason, the villages in the middle mountainous areas were called 'Democratic Villages' and they included most villages in Chochun, Hanlim, Aewol, and Daejeong-myun. For South Korean Workers' Party, Jeju faction hid up in the mountain even before the breakout of 4·3. uprising, but Daejeong-myun faction didn't climb up but remained in the villages after 4·3. uprising. Because of them, the police was busy running away when they saw a signal fire coming

up from Oreums like Chochunmansei Knoll and the young men staged 'Whatshya' demonstration.

As they were cornered by the 'burning-everything-down-to-the-ground' operation in fall of 1948, they reorganized all the uprising groups remaining in the villages into uprising Committees by village and the existing organizations like a self-defense force, women's Democratic Union, The Youth Group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and Patriotism, and so on were virtually dismantled. Accordingly, most of the members that had remained in the villages entered the mountain to avoid the military-police suppression and support the guerrilla troops that lost its combat force due to 'burning-everything-down-to-the-ground' operation. Here, many women from Women's Democratic Union and/or student groups also went along into the mountain.

With them, who had served as a bridge between the guerrilla troops and the general people, entering the mountain, which was an inevitable choice for them against 'burning-everything-down-to-the-ground' operation, it also indicated that their bond was thinning. As a housing eviction order was announced and the villages were burning down, the base for the provisions of the guerrilla troops has burnt, too. So the guerrilla troops had to uprising for securing their own provisions from then on. They had to secure provisions from the village residents, less voluntary and afraid of the military-police punitive forces, and even from hungry villages like them, by half force. The provisions for survival had chang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uerrilla troops and the general Jeju people from a bond to fear. At that time, the guerrilla troops became too weak to take care of the refugees from the harsh suppression of the military-police punitive forces. They were too busy putting all the organization together that had been damaged severely by the 'burning-everything-down-to-the-ground' operation to embrace the general people in need. Nonetheless, the guerrilla troops bluffed, "Climbing a mountain is revolutionary otherwise you'll be cowardly if you go down" and said, "Liberation will come true in a month". However, these unrealistic remarks were nothing but the evidence that the organization failed to function. Nowhere was the guerrilla troops seen serving the people. Adrift from the initial subjective of the organization and turning to one struggling for survival, Jeju's faction of South Korean Workers' Party was being devoiced from Jeju residents that had been their prop.

We can say that Jeju residents followed the uprising at that time, though not saying they joined it systematically. However, their following was not unconditional. They did so because there had been a connection between Jeju residents and the People's Committee since 3·1 Incident. As the military-police punitive forces accelerated their suppression, Jeju residents found themselves stuck between the demands of the guerrilla troops and the Korean government and helping the strong according to the dynamics of a relationship. However, it is apparent that their bond was very significant and remarkable until the 'burning-everything-down-to-the-ground' operation.

The problem was the changing nature of the uprising as the two opposing government had been established and posed the Koreans a burden to choose one of them. The incident that had arisen as a spontaneous people's uprising gradually started to change into a systematic partisan organization as the

two governments, hostile to each other, developed a state conflict between two nations.

However, their joi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government doesn't justify the mistake that the core leaders of Jeju's faction of South Korean Workers' Party made, providing a reason for Rhee Syng-man's regime to wield a hostile repression on them. Their objection to the separate election and support for the communist government were clearly and purely political. When Kim Dal-sam, who led 4·3 uprising and was the leader of the military actions 4·3, was cornered under disadvantages, Kang Kyu-chan the leader of Jeju's faction of South Korean Workers' Party defect to North Korea together. It was a serious problem.

However, we need to separate and pay individual attention to the leaders of Jeju's faction of South Korean Workers' Party, their uprising against 5.10 election, the low-rank party members, and the dedication of Jeju residents to the uprisings.

On April 3, Jeju Island formed the people's guerrilla troops by themselves and built the base of guerrilla activities. They had to earn and solve everything necessary for a uprising for themselves. Nonetheless, the guerrilla troops were much encouraged with the residents' support and a sense of bond in the process of the uprising against 5·10 election and for provisions.

Then, Jeju residents wanted one unified country to establish and thus could agree on the single-sided and separate election. As a result, Jeju residents made Jeju Island the only region that blocked the separate election in the country and sustained a uprising for almost a year. Now that Jeju residents represented the people's will and longing for one united government and country through their uprisings, Jeju 4·3 uprising will be a great turning point in the Korean modern history.

한국현대사와 제주4·3



양정심
대진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요약

해방공간은 극적인 시대였다. 해방과 분단, 좌익과 우익, 혁명과 반혁명의 시간이 공존했다. 해방의 기쁨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은 벼락처럼 왔다가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져갔다. 고작 3년도 채 안된 시간이었지만 해방공간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곳곳에서 분출되는 나날들이었다. 그 열망의 폭 발은 한반도 끝자락 제주에서 일어났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과 인근 오름들에서 봉화가 올랐다. 그러나 제주4·3의 시작은 1948년 4월 3일이 아니라 1947년 3월 1일이다. 4·3은 그 날부터 1954년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될 때까지의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기호이기도 하다.

정부의 제주4·3특별법에서도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4·3의 시작을 1947년 3월 1일로 규정한 것은, 4·3 발발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47년 제주도 3·1절 기념대회가 끝난 직후 경찰의 발포에 의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이후의 미군정의 살인적인 탄압으로 이어져 4·3을 낳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947년 3월 1일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개최된 ‘제28주년 3·1절 기념대회’는 3만여 명의 도민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3·1혁명정신으로 통일독립을 전취하자”는 구호 속에서 제주도 개벽 이래 최대인 파가 참석했다고 할 정도로 도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치러졌다.

그러나 기념식이 끝난 직후 경찰의 말발굽에 아기가 치여 넘어졌고, 이에 항의하는 군중을 향해 육지에서 온 응원경찰이 총을 발사하여 6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다. 미군정과 경찰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육지에서 경찰을 증파하고 서북청년회를 파견하여 폭력적 탄압을 단행했다. 3·1사건 이후 지속된 미군정의 야만적인 탄압은 이듬해 4월 3일의 봉기를 낳는 원인이 되었다.

4·3의 중요한 또 하나의 배경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고 통일정부를 이루고자 했던 대중적 투쟁이었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김구를 비롯한 일부 민족지도자들도 분단을 앞둔 단독선거라

하여 반대했고 전국에서 선거반대투쟁이 일어났다. 제주도에서는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선거 결과로 3개의 선거구 중 2개구의 선거구가 무효화되었다. 중산간 마을주민들은 선거를 피해 집단적으로 산에 올랐다. 제주는 단독선거를 저지한 유일한 지역으로 한국현대사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했다. 제주도민 10분의 1에 가까운 인명이 희생되었고 40여년에 걸친 금기의 시간이 이어졌다. 2017년 7월 25일 현재,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희생자만 해도 14,233명이다. 희생자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공식적인 수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희생의 80% 이상은 경찰과 군인 등의 군경 토벌대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군경토벌대와 무장대, 그 사이에서 무수한 제주도민이 죽어갔다.

1948년 10월 이후 군인과 경찰의 초토화 작전 속에서 중산간 마을은 불태워지고 주민들은 해안가로 소개되었다. 10월 17일 송요찬 국방경비대 9연대장은 이 과정에서 ‘북촌리 사건’처럼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이 포함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는 ‘집단학살’이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는 예비검속의 이름으로 첫알오름에서, 공항에서 다시금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다.

죽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민간인이었지만, 빨갱이로 불려졌다.

제주 섬은 고립된 채 피와 눈물과 시체의 三多島가 되어 갔다.

I. 들어가며

해방공간은 극적인 시대였다. 해방과 분단, 좌익과 우익, 혁명과 반혁명의 시간이 공존했다. 해방의 기쁨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은 벼락처럼 왔다가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져갔다. 고작 채 3년도 안된 시간이었지만 해방공간은 독립의 감격 속에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곳곳에서 분출되는 나날들이었다. 그러나 그 희망의 세상에 좌절의 무게가 더해가는 시간들이기도 했다. 그것은 한반도 끝자락인 제주도 마찬가지였다.

제주4·3은 1948년 4월 3일 새벽 한라산과 주위의 오름에서 일제히 봉화가 오르면서 진행되었지만, 그 시작은 우리의 ‘해방 3년사’와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해방 직후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제주도민의 바람이 해방 3년사에 녹아있다. 그리고 그를 가로막는 벽들도,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제주도민의 저항도, 그리고 좌절도 그 시간에 있었다. 해방공간은 그 어떤 시절보다 정치적인 시간의 나날들이었다. 평범한 사람들도 새로운 나라 건설이라는 열망에 휩싸이고 한편으로는 생활을 이어가는 일상과 정치가 결합된 나날들이었다.

제주4·3이 발생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1947년 경찰이 제주도민에게 발표한 사건인 ‘3·1 사건’ 이후 계속된 미군정과 우익, 경찰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자위적인 성격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저지하고 통일정부를 이루고자 했던 정치적 투쟁이었다. 1948년 5·10단독선거 저지 투쟁은 당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고 4·3은 그 가운데 가장 조직적인 투쟁이었다

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했다. 4·3특별법 보고서에 의하면 14,000여 명 이상이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희생자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공식적인 수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봉기 주도 세력인 산사람들의 봉기와 군인과 경찰들의 토벌 사이에서 제주도 민 10분의 1에 가까운 인명이 희생되었다. 그 당시 죽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민간인이었지만, 빨갱이로 불리졌고 제주는 붉은 섬이었다. 반공정권은 4·3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했다. 그 후 40여 년에 걸친 침묵과 금기의 시간이 이어졌다.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4·3에 대한 기억들이 분출되기 시작했고, 이는 조직적인 진상규명운동으로 결집되었다. 결국 1999년 말 ‘제주4·3특별법’ 통과로 그 결실을 보게 되었고, 2003년에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진상조사보고서가 제주4·3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제 제주4·3에 대한 공식 역사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위령제 참배가 있었다.

4·3뿐만 아니라 20세기 말에 한국의 과거사 청산운동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강요된 침묵, 눈물어린 투쟁의 역사에서 제도권으로 넘어가는 공식 역사로 탈바꿈이 시작된 것이다. 거창, 제주4·3, 친일파문제, 일제하 강제동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 등 아픔의 근현대사가 공식무대에 등장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제주4·3은 과거사청산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4·3은 위령공원(제주4·3평화공원)과 기념관, 재단이 결성되었고, 최근에는 국가추념일로 지정됨으로써 탄탄한 명예회복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운동은 금기의 역사를 공식 무대로 등장시키기 위한 지난한 기억투쟁의 노력이었다. 제주4·3에는 학살과 희생의 역사가, 그 속에는 저항의 역사가 녹아있다. 지금도 4·3에 대한 기억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II. 냉전, 분단의 진행과 단정수립 반대투쟁

세계 냉전체제는 1947년 3월 대소봉쇄를 선언한 트루먼독트린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1947년 3월 12일,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의회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 대항하고 있는 지역을 돕기 위해 군사·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외교정책 원칙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그리스와 터키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반란을 진압할 목적으로 원조를 제공했고, 2차 세계대전 직후 유지되던 미·소의 협력관계가 무너지고 세계는 냉전체제로 돌입했다.

한반도에서는 1947년 5월 다시 열린 2차 미소공위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참여 대상 문제로 9월에 휴회되었다. 이에 미국은 한반도 남쪽만이라도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려고 했다. 미국의 남한 단정수립정책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미·소 합의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때문에 이를 드러내지 않았을 따름이었다.

미국은 1947년 9월 17일 조선의 문제를 유엔에 이관했다.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유엔에서 한

반도 문제를 다룸으로써 자기 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었다. 이로써 미소합의로 독립국가를 세우려던 삼상회의 결정안은 폐기되었다. 유엔은 1947년 11월 14일 총회에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을 구성하고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결의했다.

1948년 1월 8일 유엔한국위원단이 남한에 들어왔으나, 소련과 북한은 “미소 양군이 철수한 뒤에 자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임시위원단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다. 유엔은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는 안을 2월 26일 소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선거 날짜는 5월 10일 정해졌다.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실시된다는 소식은 독립국가를 꿈꾸던 조선인에게는 날벼락이었다. 좌익, 중도파뿐만 아니라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 김구의 한독당 우익세력들도 단독선거를 완강히 반대했다. 전국적으로 ‘단독선거반대, 단독정부수립반대(단선단정반대)투쟁’이 일어났고, 가장 조직적으로 일어났던 곳은 제주였다.

남로당과 전평은 1948년 2월 7일 남한단선을 피하는 유엔한위 반대, 단정단선 결사반대, 미·소 양군 즉시 철수 등을 내걸고 '2·7 구국투쟁'을 벌였다. 투쟁은 영등포 노동자들의 총파업에서 시작하여 농민·사무원·학생·시민 궤기로 이어졌다. 민중은 시위·집회·동맹휴학·봉화 투쟁·삐라 살포 등의 방법으로 단선 반대투쟁을 벌였다. 147만여 명이 참가한 이 시위에서 57명이 사망하고 10,584명이 검거되었다. 2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집중적인 투쟁 후에도 단선 반대투쟁은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계획적·조직적으로 벌어졌다.

2·7 구국투쟁은 단정을 수립하려는 미국과 그 손발인 유엔한위를 직접 겨냥한 반미투쟁이었다.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민중의 투쟁은 제주에서 가장 치열하게 타올랐다. 제주도에서는 1947년 '3·1절 28주년 기념 제주도대회'에서 경찰이 발포하여 6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이듬해 4·3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의 크고 작은 봉우리마다 한꺼번에 오른 봉화를 신호로 자위대는 도내 24개 지서 가운데 11 개 경찰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다. 이들은 제주도민을 탄압하던 서북청년단·대동청년단·독촉국민회 등 우익 청년단체도 공격했다.

결국 제주 3개의 선거구 중에서 투표율 미만으로 인해 2개의 선거구가 무효화되었다. 오로지 제주도만 5·10 총선거를 못하게 한 곳이었고 1년이 지나서야 재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제주 5·10 총선거를 저지한 유일한 지역으로 한국현대사에 남게 된다.

극우세력을 뺀 모든 정당과 민중이 선거를 반대했는데도 미군정은 1948년 5·10 단독선거를 밀고 나갔다. 선거에는 이승만, 한민당 세력만이 참여했고 김구와 김규식은 참여하지 않았다. 경찰, 우익청년단과 공무원들은 선거를 성공시키려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쌀 배급표를 주지 않는다거나 '빨갱이'로 모는 등 온갖 방법으로 협박했다. 공정한 선거절차는 무시되었고 선거날 투표소 주변에는 국방경비대, 경찰, 우익청년단 등이 지키고 서 있었다.

5월 10일 단독선거로 만들어진 제헌국회는 무소속이 85석으로 가장 많았다. 이승만의 독촉국민회가 54석, 한민당이 29석, 대동청년당이 12석, 민족청년당이 6석을 차지했다. 제헌국회의원 대부분은 이승만, 한민당과 이들에게 우호적인 극우세력이었다. 좌익과 중도세력, 그리고 일부 우익세력은 선거를 거부했다. 그때 등록되어 있던 남한의 정당·사회단체 425개 가운데 선거에 참여한 것은 43개뿐

이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열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월 17일 헌법을 공포했다. 7월 20일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뽑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38선 이북에서도 1948년 8월 21일 해주에서 인민대표자대회를 열어 대의원을 선출했다. 결국 9월 2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제정하고, 9월 9일 북한의 단독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1945년 '해방'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일제가 남겨 두고 간 유산을 청산하고 반봉건적 소작제도를 철폐하여 민중에 뿌리내린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투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결국 남북한에 단독정부가 세워지고 말았다.

Ⅲ. 제주4·3: 저항과 아픔의 역사

학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과 인근 오름들에서 봉화가 올랐다. 그러나 제주4·3의 시작은 1948년 4월 3일이 아니라 1947년 3월 1일이다. 4·3은 그 날부터 1954년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될 때까지의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기호이기도 하다.

정부의 제주4·3특별법에서도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4·3의 시작을 1947년 3월 1일로 규정한 것은, 4·3 발발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47년 제주도 3·1절 기념대회가 끝난 직후 경찰의 발포에 의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이후의 미군정의 살인적인 탄압으로 이어져 4·3을 낳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947년 3월 1일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개최된 ‘제28주년 3·1절 기념대회’는 3만여 명의 도민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3·1혁명정신으로 통일독립을 전취하자”는 구호 속에서 제주도 개벽 이래 최대인파가 참석했다고 할 정도로 도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치러졌다.

그러나 기념식이 끝난 직후 경찰의 말발굽에 아이가 치여 넘어졌고, 이에 항의하는 군중을 향해 육지에서 온 응원경찰이 총을 발사하여 6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다. 미군정과 경찰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육지에서 경찰을 증파하고 서북청년회를 파견하여 폭력적 탄압을 단행했다. 3·1사건 이후 지속된 미군정의 야만적인 탄압은 이듬해 4월 3일의 봉기를 낳는 원인이 되었다.

4·3의 중요한 또 하나의 배경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고 통일정부를 이루고자 했던 대중적 투쟁이었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김구를 비롯한 일부 민족지도자들도 분단을 앞둔 단독선거라 하여 반대했고 전국에서 선거반대투쟁이 일어났다. 제주도에서는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선거 결과로 3개의 선거구 중 2개구의 선거구가 무효화되었다. 이로써 제주도는 5·10단독선거를 저지한 유일한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했다. 제주도민 10분의 1에 가까운 인명이 희생되었고 40여년에 걸친 금기의

시간이 이어졌다. 2017년 7월 25일 현재,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희생자만 해도 14,233명이다. 희생자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공식적인 수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희생의 80% 이상은 경찰과 군인 등의 군경 토벌대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군경토벌대와 무장대, 그 사이에서 무수한 제주도민이 죽어갔다.

1948년 10월 이후 군인과 경찰의 초토화 작전 속에서 중산간 마을은 불태워지고 주민들은 해안가로 소개되었다. 10월 17일 송요찬 국방경비대 9연대장은 이 과정에서 ‘북촌리 사건’처럼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이 포함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죽음을 당하는 ‘집단학살’이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는 예비검속의 이름으로 첫알오름에서, 공항에서 다시금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다. 죽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민간인이었지만, 빨갱이로 불려졌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80%에 가까운 희생자가 군경토벌대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민간인 희생에는 봉기 지도부의 책임도 있지만, 강경진압을 지휘한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는 지적이다. 제주4·3이 발발하자 미군정은 브라운 대령을 최고 지휘관으로 파견하여 국방경비대와 경찰을 지휘하도록 했다.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군사고문단을 통해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진압작전에 개입했다. 국방경비대9연대장 송요찬 대령은 10월 17일 포고문에서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외의 내륙지역에 대해 무허가 통행금지를 명령하였고, 11월 17일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중산간 마을 주민들은 해안가로 소개되었고 집들은 불태워졌다. 이후 진행된 진압과정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의 집단학살이 일어났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자 집단희생이 발생했다.

토벌대와 유격대가 모두 가해자였지만, 통계가 보여주듯이 대부분의 학살은 토벌대에 의해 저질러졌다. 중요한 것은 희생자 대부분이 민간인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살자가 급증한 시점이 유격대의 저항이 증가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양 측 간의 교전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시기 이후였다는 점이다.

희생은 저항의 강도가 아니라 국가 폭력의 강도와 비례했다. 이 점 역시 봉기로서의 4·3이 아닌 학살로서의 4·3은 이승만 정권의 반대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도모한 국내 평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한 의도된 희생이었음을 확인시켜준다.

학살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미 군사고문단의 자문과 군, 경찰 그리고 우익청년단의 실행이라는 공조 체제였다. 토벌작전이 제주도 내의 특정 지역이 아니라 섬 전체에 걸쳐 이루어진 것은 작전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중앙 정부가 깊숙이 개입했음을 입증한다. 전술적인 면은 현지 토벌대를 이끌던 군 지휘관이 상당 부분을 담당했지만 전략적·정치적 결정은 미군과 한국군 수뇌부 그리고 정치권력의 핵심부였다.

학살에는 뚜렷한 원칙이 없었다. 학살의 집행자인 사병들과 경찰, 우익청년단은 규율이 결여된 채 공사의 구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행사했다. 여성에 대한 강간, 유희적인 살인, 무자비한 참수 같은 인도적인 행위에 반하는 범죄가 도처에서 일어났다.

이승만 정권과 군경토벌대의 눈에 제주는 반란의 섬인 동시에 빨갱이 섬이었다. 이런 인식이 옳은 것인지 그른지 확인할 여유도 없었고, 하려고도 않았다. 반공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그 자체가 빨갱

이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 섬은 고립된 채 피와 눈물과 시체의 三多島가 되어 갔다.

항쟁

제주4·3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제주도민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었지만, 그 과정에는 제주도민의 항쟁의 주체로 존재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탄압에 저항하는 제주도민은 스스로 저항의 정당성을 확립해 나갔다. 제주4·3은 자치적인 투쟁과 단독선거반대라는 정치적 투쟁이 결합된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투쟁이었던 것이다.

육지의 인민위원회가 미군정의 탄압으로 1946년에는 거의 와해되는 것과는 달리 1945-46년 사이의 제주도는 인민위원회의 통제 속에 있었다. 인민위원회가 제주도민의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항일투쟁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민중의 일상적 요구와 정치적 투쟁을 적절히 조화시킨 온건성 때문이었다. 1947년이 되면 인민위원회의 힘은 민전으로 이양되었고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압을 덜 받았기 때문에 제주도 좌익역량은 보존될 수 있었다.

인민위원회와 민전을 주도해간 세력은 조공(1946년 말 남로당으로 개편) 제주도당이였다. 인민위원회의 활동으로 제주도는 남한 좌익 운동 가운데 가장 대중과 밀착된 장소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제주도당과 도민의 관계는 4·3항쟁이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4·3봉기 이전부터 인민위원회 활동과 1947년의 3·1시위와 3·10총파업 때 보여주었던 양 측의 연대는 이후 미군정과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에서 더욱 공고화되고 결국 4·3봉기까지 계속되었다. 제주도당과 제주도민은 자주교육운동과 생활 조합 운동 등 일상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3·1사건 이후의 조위금 모금 투쟁 속에서도 신뢰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격렬한 항일운동을 통하여 정통성을 인정받은 좌익정당은 인민위원회 조직과 3·1 발표사건, 3·10총파업 등의 대중투쟁 속에서 제주도민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나갔다.

위와 같이 항쟁의 동력이 되었던 것은 해방 후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항쟁지도부와 제주도민과의 연대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켰을 때 제주도민이 참가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계급과 계층 구조가 단순한 가족과 친족의 혈연적 유대 관계가 유독 강한 제주의 특수성 또한 토벌이 시작된 이후 주민들의 입산이나 유격대와의 연대를 촉진하는 요소가 되었다. 유격대의 활동이 꾸준히 이어진 것도 사실은 제주 지역의 계급적 토대나 이념 의식이 유독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연대와 공동체 의식 때문이었다.

4·3항쟁이 일어났을 때 인민유격대의 투쟁력을 더욱 고취시킨 것은 일반 대중들의 지지투쟁이었다. 이는 5·10단선저지투쟁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단선을 저지하기 위해 선거가 실시되기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산에 오르는 등 유격대와 일반 대중과의 결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마을 사람들의 그림자도 볼 수 없는 텅 빈 마을에 경찰이 주둔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격대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선거관리인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미군정이 직접 선거여론조사를 벌이고 투표함을 수송하며 경찰활동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중산간 마을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선거 전날 저녁이나 선거 당일 날 새벽에 오

름에 오르거나 굴에서 하룻밤을 지내다 어두워져서 돌아왔다.

마을의 자위대, 여맹 등 각 부락에 남아 있던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중투쟁은 봉화를 올리거나 삐라를 뿌리는 선전활동과 식량보급,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유격대를 여러 방면으로 지원했다. 중산간 마을들에서는 가족들 중 한 사람씩은 이러한 일에 관계를 하지 않은 주민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식량을 구하러 유격대들이 마을에 내려오면 산에 올라간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여 제사 때에나 쓰려고 숨겨 두었던 쌀을 퍼주기도 하고, 옷이나 신발을 주어 보내게 되는 것이었다. 서로 친인척 관계로 구성된 마을 사람들은 토벌대들이 올 때마다 보초를 서다가 ‘토벌군이 온다’고 미리 알려 군경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마을 청년들이 빨리 피신하도록 도와주곤 했다. 이러한 제주 지역의 마을공동체적 성격은 토벌대에게 효과적인 토벌을 거둘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특히 여성동맹원들은 남성보다 감시를 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보급투쟁을 주로 담당했다. 수시로 산에 쌀, 소금, 양말 등을 거둬 산에 보냈고 밤에도 무장대 지원을 위한 회의를 많이 했다. 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이 산에 심부름도 하고 물자들 거두러 다녔다. 유격대 지원활동에는 여중생들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당시 유일한 중등 여성교육기관이었던 제주여중생들은 학교에서 수시로 성금을 거둬 산에 올렸고 삐라를 뿌리는 소위 벼락시위도 감행했고 동맹휴업을 하기도 했다.

48년 10월의 초토화 작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유격대원들이 마을 내에 거주하면서 활동할 정도로 중산간 지역은 유격대의 통제 속에 있었다. 그래서 중산간 마을은 ‘민주부락’이라고 불려졌는데, 조천, 한림, 애월, 대정면 등의 대부분의 부락이 이에 속했다. 당 조직도 도당은 4·3발발 전에 입산했지만 대정면당의 경우에는 면당부가 4·3후에도 입산하지 않고 마을 내에 남아 있을 정도였다. 밤에는 조천만세 동산 같은 오름이나 산에서 봉화가 올라가면 경찰은 도망가기에 바쁘고, 청년들은 ‘왓샤시위’를 감행했다.

1948년 가을 초토화 작전으로 인하여 정세가 불리하게 되자 마을에 남아있던 모든 조직이 마을 단위 투쟁위원회로 편제되면서 자위대, 여맹, 민애청 등 기존의 조직들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따라서 부락 내에 남아 있었던 조직원들 대부분이 군경의 탄압을 피하고 토벌로 인해 전력이 약화된 유격대를 지원하기 위해 입산했다. 이 때 여맹이나 학생 조직에 있었던 많은 여성들도 입산했다.

유격대와 일반 대중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던 이들이 입산하게 된 것은 남한단독정부의 초토화 작전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나, 또한 이는 일반 대중과의 유대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소개령이 떨어지고 중산간 마을이 불타면서 유격대의 보급 근거지 또한 없어졌다. 이제부터는 유격대가 직접 보급투쟁을 해야만 했다. 자발적인 보급투쟁이 아니라 토벌대의 눈을 두려워하는 마을 주민들에게서, 더욱이 그들도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반강제적으로 얻어내야만 했다. 생존을 위한 보급은 유격대와 일반 대중의 관계를 유대가 아닌 두려움의 관계로 바꾸어 놓았다. 이때에 이르면 토벌대의 강경 진압 작전으로 인하여 산으로 올라온 피난민들을 돌볼 수 있는 역량도 거의 없어진다. 전력의 약화로 유격대 조직을 추스르기에 바빴기 때문에 토벌을 피해 살기 올라온 일반 대중을 포용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산이면 등산하면 혁명적이지요 부등산은 비겁행위”라면서 “한 달이면 해방이 온다”라는 식의 과장은 이미 당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을 의미했다. 대중에 복무하는 당의 모습은 사라져갔다. 처음에 설정된 목적에서 멀어져 생존투쟁으로 변해가면서 제주도당은 당의 버팀목인 제주도민에게서 유리되어 갔다.

당시 제주도민은 항쟁에 조직적으로 가담은 못했다 하더라도 따라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따라간 것은 무조건적이 아니라 그동안의 인민위원회 활동과 3·1사건 이후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주도민과 당의 연대라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군경토벌대의 진압작전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은 유격대와 정부 양측의 요구 사이에 끼여 양측의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힘 센 쪽을 지원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적어도 초토화 작전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격대와 일반 주민의 연대는 상당한 정도였다.

문제는 두 개의 대립하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항쟁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이다. 자연발생적인 인민봉기로 시작되었던 사건은 두 개의 적대적인 정부 사이의 경쟁이 국가권력 간의 대립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조직화된 빨치산운동의 성격을 띠어갔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에게 강경 진압 진압의 빌미를 제공한 제주도당의 핵심 세력들의 잘못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단독선거반대와 공산주의 정부의 지지란 명백히 정치적인 것이었다. 4·3항쟁을 주도한 군사책임자인 김달삼이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비상시기에 당책임자 강규찬까지 동반해서 북한으로 간 것은 중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5·10단선저지투쟁과 이후의 투쟁 속에서 보여주었던 하급당원들과 제주도민의 헌신성은 구별되어 평가해야 한다.

4·3 당시 제주도는 자체로 인민유격대를 조직하고 유격근거지를 설치했으며 투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하지만 유격대는 고립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5·10선거반대와 보급투쟁이라는 주민들과의 연대감으로부터 크게 고무되고 있었다.

당시 제주도민은 두 쪽이 아닌 통일독립국가 수립을 원했고, 이 점에서 단선반대투쟁에 동의할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제주도민은 제주도를 단독선거를 저지한 유일한 지역으로 만들어놓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항쟁은 1년 여 간이나 지속될 수 있었다. 제주도민이 항쟁을 통해 통일정부를 갈망하는 민중의 의지를 대변했다는 점에서 제주4·3항쟁은 한국현대사의 전개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현대사 '해방 3년사'

1945년 해방, 미소의 진주

- 8. 15 해방, 건국준비위원회 결성
 - 8. 9. 소련군 대일선전포고,
 - 8. 22. 소련군 원산 상륙, 8.24 평양 진주
 - 9.6. 조선인민공화국 선포(인민위원회)
 - 9.8. 미군 인천 상륙, 9.9 서울 진주
 - 10.16. 이승만 귀국, 11.23 김구 귀국
 - 12.16~27 모스크바삼상회의(미, 영, 소)
민주주의 임시정부수립,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4개국 신탁통치

해방 : “자주적 독립국가 수립,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



8월 16일 휘문중학,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여운형

1945. 9. 9. 성조기 게양식





1946년

우파 “신탁통치반대” 좌파 “삼상회의 지지”

- 2.15.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좌익
- 2.14. 남조선대표민주의원(민주의원)-우익
- 3.20. 미소공동위원회(1차) 개최, 5.6휴회
- 5월 조공 본부, 7월 전농, 8월 전평 본부 습격
- 9월 총파업, 10월 항쟁

1946. 3. 20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1946. 3.1절 : 좌, 우파 따로 기념식





1946. 2.15 좌파 민전 결성





1946. 2. 14. 우파 민주의원 결성



생존권 투쟁, “쌀을 달라”

1946년 8월 대구



1947년

- 3.12. 트루먼 독트린 (대소 봉쇄 정책)
- 5.21.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2차), 7월 결렬
- 9.17. 미국이 조선문제를 유엔에 이관
- 11.14. 유엔총회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 결의

1948년

- 1. 8.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입국
- 2.7구국투쟁, 단독선거반대운동
- 4. 3. 제주4.3항쟁 발발
- 5.10선거(제헌국회)
- 8.15 대한민국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냉전의 직격탄, 한반도로 트루먼 독트린

1947. 3. 12 의회 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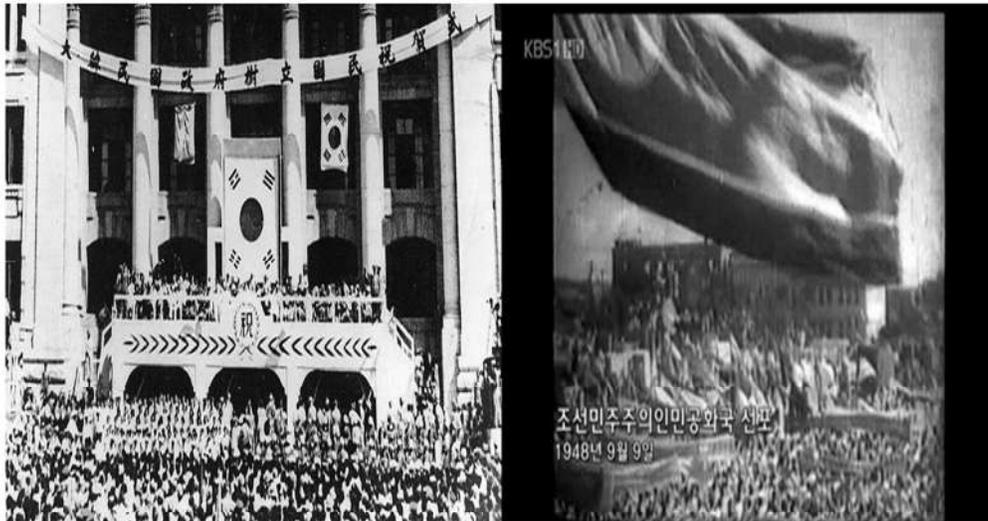
- 공산주의세력의 위협에
대항하고 있는 지역에
군사·경제적 원조를 제공
한다는 미국의 외교정책
원칙 선언
- 냉전체제로 돌입



1948. 5. 10. 남한 국회의원 선거



분단: 2개의 정부



제주4·3

• 제주4·3특별법, 정의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 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제주 4·3, 저항과 아픔의 역사

• 학살

- 2만5천~3만여명 학살
- 물적 피해
- 연좌제
- 40여 년에 걸친 금기

• 항쟁

- 미군정 경찰의 탄압에 대한 저항
- 단독선거 반대투쟁
- 통일운동

● 광복 이후의 제주도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길 바랐던 기대와 달리 미군정의 탄압과 악재로 도민들의 불만 증대

미군정의 통치 방식에 대한 도민들의 반대

대홍년 및 미군의 미곡수집령 생필품 부족으로 인한 물가폭등

광복 이후 귀향한 도민들의 실직난 (6만여 명 귀향)

● 광복 이후의 제주도

도민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인민위원회

높아진 교육 열기 : 해방 후 신설학교
 -초등학교 44개교(20,000-)38,000여 명)
 -중등학교 10개교(300-)3,600여 명)

제주도 인민위원회

- 제주도민의 광범위한 지지
“1946년까지 제주도는 인민위원회의 통제 속에 있었다.”
- 중앙과 거리를 두면서 온건함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존속
- 정치적 투쟁과 일상적 요구 적절히 조화

● 4·3의 기점이 된 3·1절 발표사건

1947년 3·1절 기념대회: 북국민학교 3만여 명, 전도 4만5천여명
3.1혁명 정신으로 통일독립 전취하자



3·1절 기념대회(서울, 우파)



3·1절 기념대회(서울) 좌파



3.1절 경찰의 발포(1947. 3. 1)



- 경찰의 발포로 6명 사망, 8명 중상
- 젓먹이 안은 여인, 초등 학생 등 시위행렬이 아니라 구경했던 사람들
- 등에 맞은 총상

3.10총파업과 미군정의 강경대응

• 3.10 총파업

- 민관총파업(전체 직장의 95% 참여)
- 도청 등 166개 기관, 단체 41,211명 참여
- 학교 문닫고 상점 철시
- 제주 출신 경찰 66명 파업 동참
- 도민들 조위금 모금 운동
- 미군정의 강경 탄압
- 3월 14일 조병옥 경무부장 내도, 파업 무차별 분쇄
- 육지철도경찰 421명 급파
- 유해진 도지사등 극우세력으로 대체. 행정, 경찰 수뇌부 제주도 출신 배제
- 서북청년회 파견, 백색 테러

• 3.10 총파업

미군정과 서북청년회

제주를 '레드 아일랜드'로 규정
1년 동안 2,500명 검속

"제주도는 70%가
좌익정당에 동조적이거나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지이다."

-3.10 총파업 직후 미군정 보고서-



1948년 1월 3명 청년, 학생 고문치사

- 당시 젊은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

“첫째는 육지로 가거나 일본으로 밀항하는 것,
둘째는 앉아서 그대로 당하는 것,
셋째는 산으로 가는 것”

- 육지와 일본으로 도피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마을의 청년들은 한라산으로 입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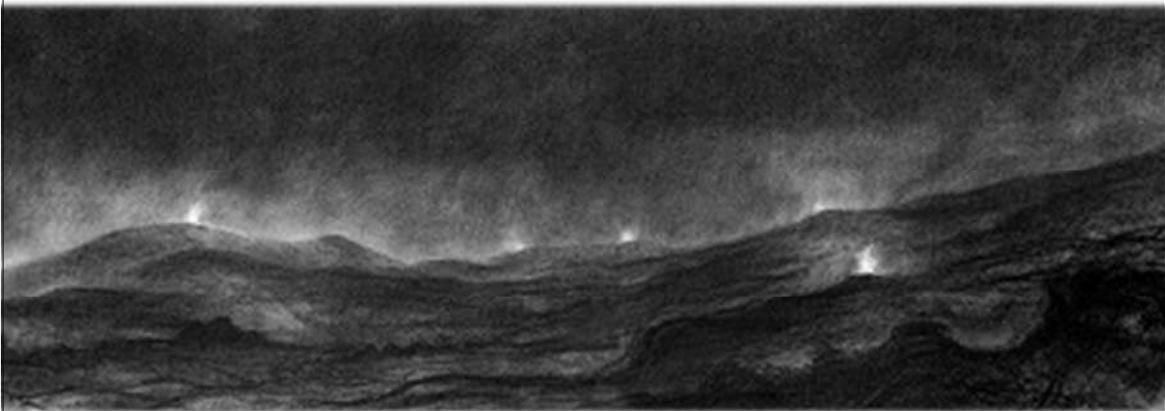
- 제주 4·3의 시작, 남로당의 무장투쟁

남로당 제주도당,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봉기

“탄압이면 항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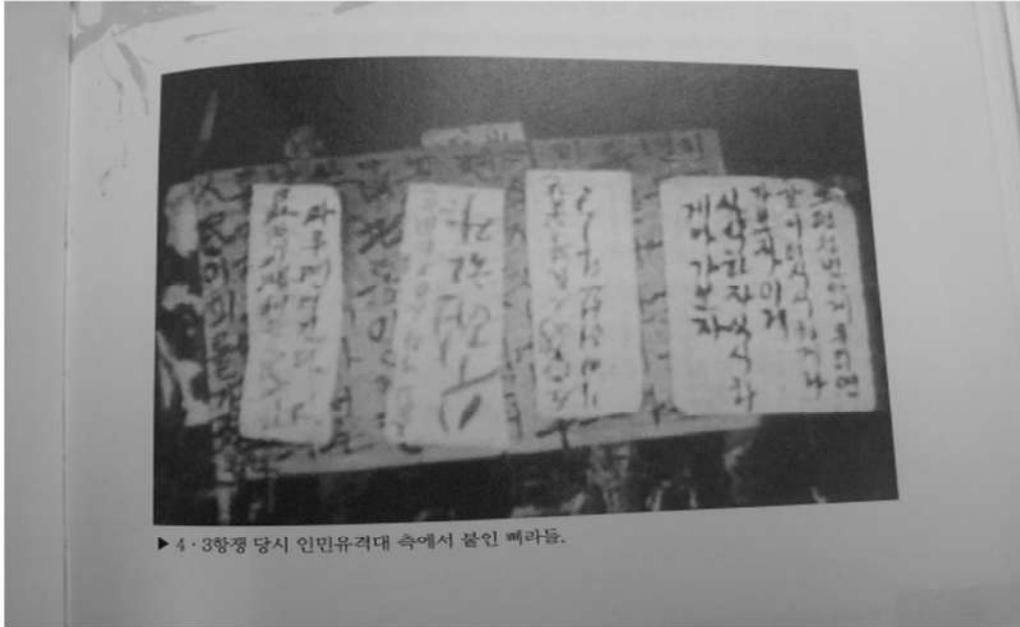
- 미군정과 경찰의 탄압에 대한 저항
- 단독정부 수립 반대, 통일독립

- 제주 4·3의 시작, 남로당의 무장투쟁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봉화(강요배 作)

인민유격대 삐라



● 평화 협상 성사

평화협상(4월28일)

72시간 안의 전투 중지
무장해제와 하산
책임 면책



• 미군정의 강경진압 움직임

미군정의 조작, 오라리 방화사건(5월1일)



• 미군정의 강경진압 움직임

비밀회의(5월5일)



• 5.10 총선거

분단을 가져오는 5.10 남한 단독 총선거 거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3개소 중 2개소 무효



제주도민, 5·10단독선거 저지

- 5·10선거는 누구를 지지하여 당선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참가냐 거부냐”
 - 제주도 인민유격대는 5·10선거를 저지 총력
 - 제주도민들은 유권자 등록 자체를 거부 선거투쟁.
 - 주민들 선거 거부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산에 오름
 - 투표인수가 모자라 제주도의 3개의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가 무효
- ➔ 제주도는 5·10단독선거를 저지한 유일한 지역

● 초토화작전 전개

10월 17일 송요찬 국방경비대9연대장
포고문
-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외의 내륙지역에 통행금지

“9연대는 중산간지대에명백히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위치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다.”
-미군 정보보고서中-

● 초토화작전

* 이승만대통령,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 선포



● 초토화작전 전개



“1948년 한 해 동안 1만 5천여 명의 주민이 희생되었다.
 그 중 80%가 토벌군에 의해 사살됐다.”

- 미군 정보보고서 -



● 최명도 모른 채 수감된 사람들

1949년 3월 “내려오면 살려준다”

사형 또는 육지 형무소로



귀순자들을 집단으로 수용했던 제주항 부근의 주정공장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귀순자 가운데 무장대 협력자를 가려내는 심문반
 (1949.4) (제2연대 제주도주둔기 열병 중)

- 전쟁의 또 다른 비극, 행방불명 된 사람들

6·25전쟁, 예비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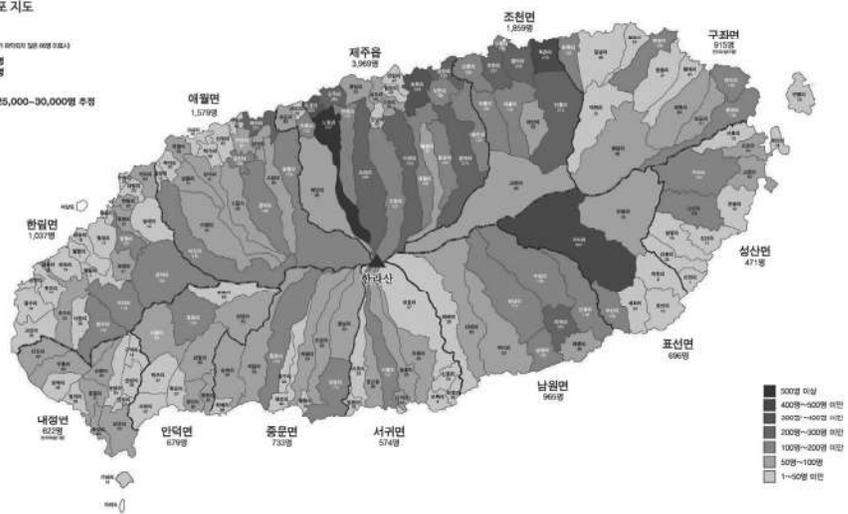


- 4·3의 희생자

4·3희생자 분포 지도

총 희생자 현황
 계 14,231명(남성인 8,057명, 여성인 6,174명)
 ● 북제주군 9,359명
 ● 남제주군 4,740명
 ● 도외 86명

※ 실제 인명피해: 25,000~30,000명 추정



* 위 지도에 나오는 행정구역은 1948년 당시의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 공동체 복원 노력과 아물지 않는 상처

‘잃어버린 마을’

곤울동 마을 다량쉬 마을 원동 마을

초토화작전으로
 잃어버린 마을

109곳

- 제주 4·3이 남긴 아픈 기록

* 출처: 제주 4·3이전 진상조사 보고서

25,000 ~ 30,000명
 당시 제주도 전체인구 중
 약 10%

제주 4·3 인명피해

* 출처: 제주 4·3이전 진상조사 보고서

10세 이하 어린이 및
 74세 이상 노인 11.9%

여성 희생자 21.3%

희생자별 세부 비율

피와 눈물과 시체의 三多島

- 토벌대와 유격대가 모두 가해자였지만, 통계가 보여주듯이 상당수의 학살은 토벌대가 가해자
- 희생자 대부분은 민간인
- 학살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
- 미 군사고문단의 자문, 군과 경찰 그리고 우익청년단의 실행이라는 공조 체제
- 학살의 집행자인 사병들과 경찰, 우익청년단은 규율이 결여된 채 공사의 구분 없이 권력을 행사
- 여성에 대한 강간, 유희적인 살인, 무자비한 참수 같은 반인도적 범죄

-> 2만 5천-3만여 명 희생

-> 제주 섬은 고립된 채 피와 눈물과 시체의 삼다도